

제52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조선시대 이두 학습서와 이두

일시: 2017년 2월 1일(수)~2일(목)(1박 2일)

장소: 경상대학교(통영캠퍼스) 해양과학관 401호

주최: 口訣學會,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후원: 경상대학교

■ 제52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일정표 ■

2017년 2월 1일(수)

시 간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이건식(구결학회 회장, 단국대)	사회: 안대현 (한국기술교육대)
기획 주제: 조선시대 이두 학습서와 이두		사회: 김유범 (고려대)
14:10-14:30	조선시대 이두 학습서 고찰 발표: 오창명(제주국제대)	
14:30-14:50	『古今釋林』의 ‘羅麗吏讀’와 이두 발표: 박용식(경상대)	
14:50-15:10	『吏讀便覽』의 吏讀와 吏文에 대하여 발표: 김성주(동국대)	
15:10-15:20	휴 식	
15:20-15:40	小倉文庫 『公私恒用錄』에 함철된 『吏文襍例』에 대하여 발표: 정승혜(수원여대)	
15:40-16:00	『儒胥必知』의 이두 발표: 황선엽(서울대)	
16:00-17:20	[종합토론] 박진호(서울대), 장경준(고려대), 이용(서울시립대), 이병기(한림대), 이건식(단국대)	좌장: 권인한 (성균관대)
17:20-17:30	휴 식	
17:30-18:00	上代における日本製漢字の作製と使用 발표: 사사하라 히로유키[笹原宏之](와세다대) 통역: 윤행순(한밭대)	사회: 이준환 (창원대)
18:00-	구결학회 학술논문상 시상식, 총회 및 저녁식사	

2017년 2월 2일(목)

시 간	발 표 및 내 용	비 고
09:30-10:00	차자표기 자료의 주격조사 -고려시대 이전을 중심으로- 발표: 최성규(홍익대)	사회: 장경준 (고려대)
10:00-10:30	鄉歌와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동사 '只가-'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발표: 남풍현(전 단국대)	
10:30-10:40	휴 식	
10:40-11:10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어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발표: 이소훈(서울시립대)	사회: 박용식 (경상대)
11:10-11:40	‘하다’의 문법화에 대하여-‘N하다’ 구성과 명사 포함을 중심으로 발표: 윤예진(서울대)	
11:40	폐회사: 이건식(구결학회 회장, 단국대)	사회: 안대현 (한국기술교육대)

■ 목 차 ■

<기획 주제 발표>

조선시대 吏讀 學習書 고찰	오창명 ◆	1
『古今釋林』의 '羅麗吏讀'와 이두	박용식 ◆	27
『吏讀便覽』의 吏讀와 吏文에 대하여	김성주 ◆	39
小倉文庫 『公私恒用錄』에 합철된 『吏文襍列』에 대하여	정승혜 ◆	55
『儒胥必知』의 이두	황선엽 ◆	73

<특별 발표>

上代における日本製漢字の作製と使用	사사하라 히로유키[笹原宏之] ◆	85
[번역문]	김정빈 譯 ◆	111

<개인 연구 발표>

차자표기 자료의 주격조사 —고려시대 이전을 중심으로—	최성규 ◆	139
鄉歌와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동사 '只가'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남풍현 ◆	159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어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이소흔 ◆	171
'하다'의 문법화에 대하여 — 'N하다' 구성과 명사 포합을 중심으로	윤예진 ◆	191

<기획 주제 발표>

조선시대 吏讀 學習書 고찰

오창명 (제주국제대)

1. 序

이 글은 조선시대 이두 학습서¹⁾와, 거기에 소개된 이두를 살펴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확인되고 알려진 이두 학습서는 10여 종이 있다.

전반적인 이두 학습서의 해제에 대해서는 홍순혁(1946a)과 안병희(1983, 1986, 1987, 1999, 2001) 등에서 이미 논의되고, 이두 학습서의 이두 소개는 홍순혁(1946b, c), 김태균(1968), 배대운(1993, 2003), 고정익(2003) 등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 이두 학습서에 대해서는 서지학적인 연구가 미진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거기에 쓰인 이두와 이두의 독음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 글에서는 「吏讀略解」(1936, 조석충독부중추원, 『校訂 大明律直解』 부록), 『吏讀集成』(1937, 조선총독부 중추원), 『朝鮮語辭典』(1938, 문세영) ‘이두 찾기’, 『吏讀彙集』(1971,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제외하였다.

2. 吏文과 吏讀

조선시대의 이두 학습서를 보면, ‘吏讀’라는 말을 때론 ‘吏文’이라는 말을 썼다. 곧 두 말을 같은 뜻으로도 썼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용어는 다른 말이다.

『세종실록』 권8의 ‘세조 3년(1457) 7월 갑술(13일)’조를 보면, 吏文과 吏讀가 다른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吏曹에서 아뢰기를, “吏科와 承蔭出身의 爵牒을 封하거나 贈職하는 따위의 文牒에는 모두 吏文을 사용하는데, 오로지 東班·西班 5품 이하의 告身에서만 吏讀를 옛날 그대로 사용하니, 심히 鄙陋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吏文을 사용하소서.”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吏曹啓 吏科及承蔭出身封贈爵牒等項文牒皆用吏文 獨於東西班五品以下告身 襲用吏讀 甚爲鄙陋 請自今用吏文 從之)

<『세종실록』 권8, 세조 3년(1457) 7월 갑술(13일)>

한편 『태종실록』 권16의 ‘태종 8년(1408) 12월 갑술(1일)’조를 보면, “吏文은 事大에 관한 急務입니다.(吏文, 事大急務)”라고 했으니, 吏文은 본래 事大吏文(중국과 주고받는 문서에 쓰

1) 조선시대에 수집 개의 이두 형태의 목록을 수집하여 보이고 각각에 대해서 한글 독음을 달아서 엮은 것, 그리고 이두문을 들고 각 이두에 독음을 단 것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것들을 吏文 또는 吏讀, 吏讀方言, 吏文大師, 吏讀彙編, 吏文語錄, 吏文櫟例 등으로 불렀다. 현대 연구자들은 이들을 吏讀書 또는 吏讀資料集, 吏讀文獻, 吏讀語彙文獻, 吏讀學習書, 吏讀를 정리해 놓은 문헌 등으로 불렀다. 안병희(1987:11~18)에서는 儒胥必知, 吏文櫟例, 吏讀便覽 등을 吏讀의 學習書로 보고, 일종의 연구서로서 吏讀를 수집하고 수집된 이두에 독음을 단 것(이두문 문례집)도 吏讀 學習書로 언급하였다. 이 글에서도 이들을 吏讀 學習書라 칭하겠다.

吏文이란 말은 ① 중국 등의 외교문서에 사용한 특수 문체, 곧 그런 문장. ② 이문들을 모아 成冊한 것, ③ 吏讀와 같은 뜻 등으로 쓰였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③의 뜻으로 쓴다.

던 특수한 문체)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연산군일기』 권56의 ‘연산 10(1505)년 12월 임신(16일)’조를 보면, 公事의 人員에게 내리는 牌에 吏讀을 쓰지 말라고 하고, 오래된 문서는 吏讀을 고치지 말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선조실록』 권201의 ‘선조 39년(1606) 7월 기축(22일)’조를 보면, 狀啓의 草案에 吏讀을 빼면 문맥이 끊어진다고 했다. 이런 예를 보건대 吏讀은 관부문서에 쓰는 것, 그리고 한문 원문 사이에 쓰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掌令 李可臣이 아뢰기를, “宰相 집에 奔競하는 것을 금할 때에 ‘公事로 드나드는 人員에게 牌을 내어 주라.’라고 이미 成命하셨는데, 牌을 만드는 篆文으로는 무슨 字를 써야 하리까? ‘公사를 아뢰는 데에 이두를 쓰지 말라.’고 이미 성명하셨는데, 해가 오래된 문서는 모조리 고치기 어려운 형편이기에 감히 여쭙니다.”라고 하니, 傳敎하기를, “牌을 만드는 篆文으로 ‘通行’ 두 자를 쓰고, 해가 오래된 문서는 吏讀을 고치지 말라.”라고 하였다.(掌令李可臣啓 宰相家禁奔競之時 因公出入人員給牌事 已有成命 而造牌篆文 當書何字 入啓公事 不用吏讀 亦有成命 而年久文書 勢難盡改 敢稟 傳曰 造牌篆文 當用通行二字 年久文書 勿改吏讀)

<『연산군일기』 권56, 연산 10(1505)년 12월 임신(16일)>

<전략> 狀啓의 草案에서 단지 吏讀만 빼었으므로 문맥이 끊어져 연결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장계에 실린 일 이외에 기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見之則就狀啓草 只去吏讀 非但文字間 斷不成倫緒 狀啓之外 亦有許多可錄之事 而全然闕之)

<『선조실록』 권201, 선조 39년(1606) 7월 기축(22일)>

3. 吏讀 學習書 概觀

3.1. 「吏文」

「吏文」은 홍순혁(1946)에 의해 간단히 소개된 뒤, 홍기문(1957:417)에 의해 解題되고 그 全文에 대하여 注釋되었다. 그러다가 안병희(1986, 1987, 1999) 등을 거쳐 동국대본,²⁾ 홍순혁 교수의 동영문고 구장본(동영본), 아단문고 소장본(아단본), 대구 모씨 소장본(대구본) 등의 서지학적인 특징과 이두의 특징 등이 비교적 소상하게 논의되고, 「吏文」을 해독한 활자화본도 소개되었다.

홍순혁(1946b), “隨錄: 「吏文」과 「吏文大師」”, 『鄉土』 제4호, 정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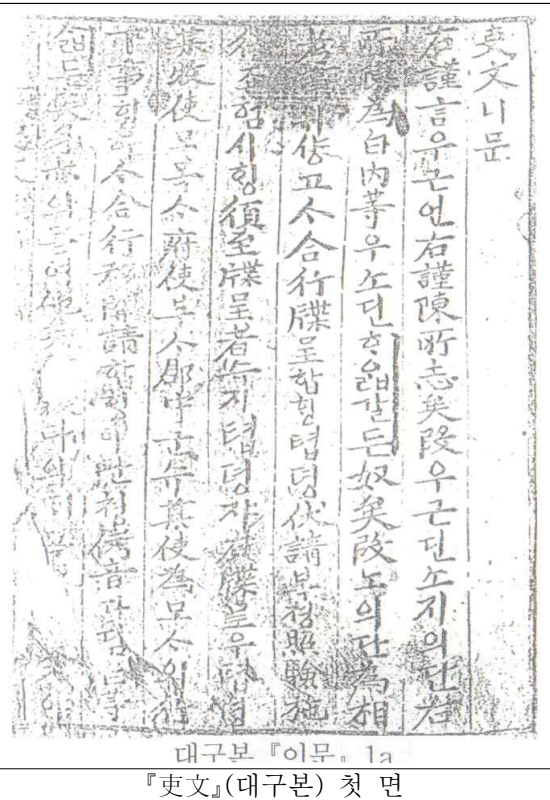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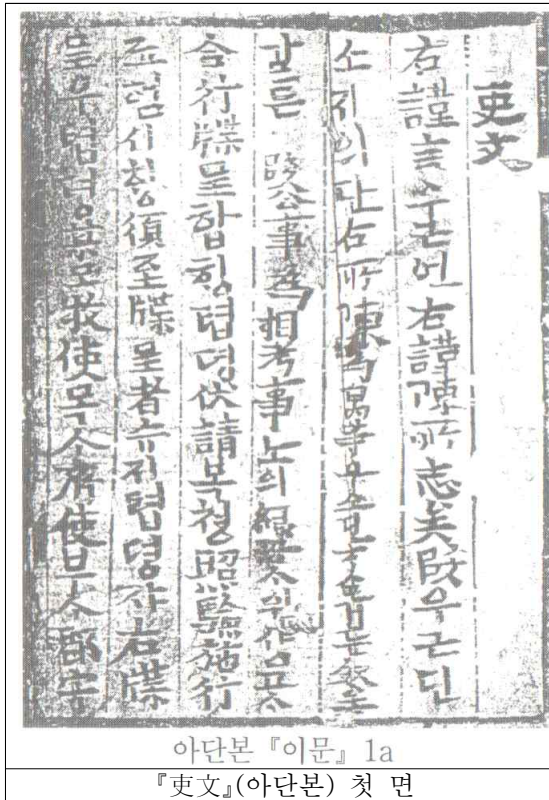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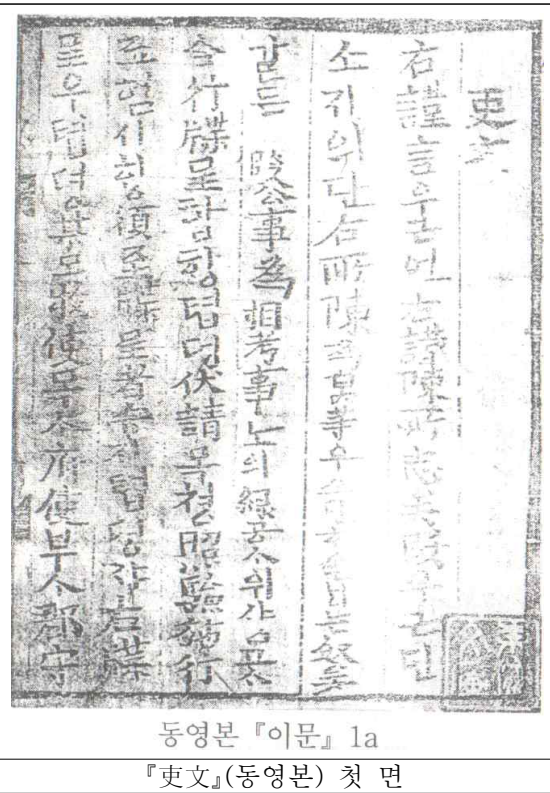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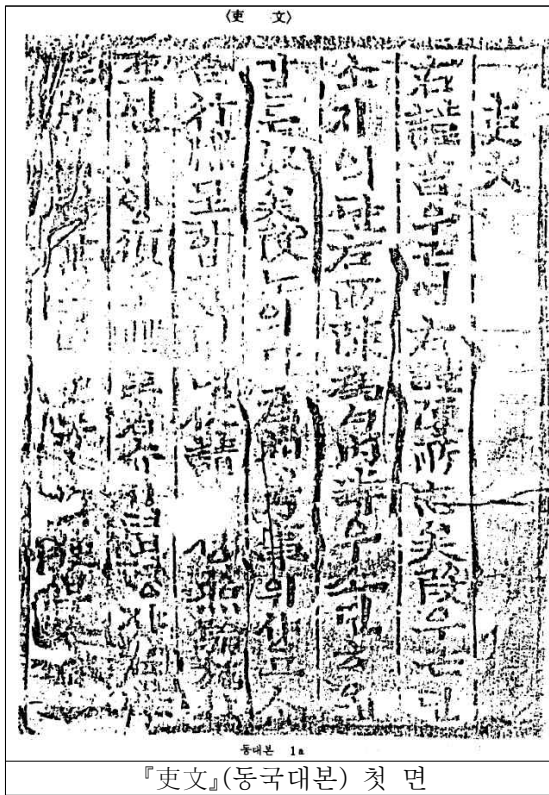
홍기문(1957), 『리두 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출판사.

안병희(1986), “이두문헌 <吏文>에 대하여”, 『배달말』 11집, 배달말학회.

안병희(1987), 『吏文과 吏文大師』, 국어학연구선서 11, 탑출판사.

안병희(1999), “吏文과 吏文大師를 다시 논함”, 『겨레문화』 13, 한국겨레문화연구원.

2) 동국대본은 간기에 따라 1658년(효종 9)에 간행된 것(안병희, 1987:77)으로 보고 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D417.01-이37, 木板本, 발행사항 [韓國]: [刊寫者未詳], 孝宗 9(1658)刊, 형태사항 不分卷1冊(16張): 四周單邊 半郭 16.0×12.5cm, 有界, 半葉7行 16~18字; 21.7×14.7cm, 주기사항 國漢文混用本 刊記推定: 卷末에 順治十五年(1658)正月開刊



吏 文 右謹言우근언 右謹陳所志矣段우근 언 소지의단右所陳爲白內等우소던 ㅎ 갈든奴矣段노의단爲相考事위상고스 合行牒呈합형뎡명伏請복청照驗施行 조형시형湏至牒呈者슈지뎡명자右牒 呈우뎡명某모牧使무스府使부스郡 □守 (A)	군슈某使爲모스위行下事형하스合 關請합형이관청 拷音다담白等 ㅎ 亦의몸여他矣財穀타의지곡夜間突入 야간돌입恣意偷取즈의투취連命資生 년명즈심現露辭緣현로스연依律施行 의늘시형報使敎事보스이산스矣徒等 亦의내등이여矣身向爲良의몸향ㅎ야矣 (B)
---	---

안병희 활자화본(1984)

동국대본 「吏文」	이본
矣段 의단	
爲白內等 ㅎ ㅎ ㅎ	동영본 'ㅎ ㅎ ㅎ', 아단본 'ㅎ ㅎ 거든', 대구본 'ㅎ ㅎ ㅎ'
敎事 이산스	
拷音 다담	
白等 ㅎ 등	
矣身亦 의몸여	
他矣 타의	
矣徒等亦 의내등이여	
矣身向爲良 의몸향ㅎ야	
矣身耳亦 의몸뻐려	
易亦 아늑혀	동영본 '아늑혀'
專亦 전혀	
使亦 스리여	홍기문 '스리여'
先可 아직	
最只 안직	
敎是 이시	
物物 갓갓 白活 발괄	
這這 곤곤	
迫于 조초	
別乎 벼립	동영본 '벼린', 홍기문 '벼로'
勞不喻 썬안디	
件記 불기	
除良 더러	
捧上 밧자	
絃如 시우리	홍기문 '시우리'
初亦 초혀	홍기문 '초혀'

3.2. 「吏文大師」

「吏文大師」는 이병기(1940),³⁾ 홍순혁(1946), 최현배(1961)에서 간단히 소개된 뒤, 안병희(1983, 1987, 1999, 2001) 등을 거쳐 가람본, 고대본, 연대본, 통문관본, 대구본,⁴⁾ 계명대본, 대구 필사본, 외솔본 필사본 등의 서지학적인 특징과 이두의 특징 등이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되고,⁵⁾ 「吏文大師」를 해독한 활자화본도 소개되었다.

정문사(1984), 『吏文大師』(영인본).

안병희(1983), “吏讀文獻 「吏文大師」에 대하여”, 『동방학지』 38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안병희(1987), 『吏文과 吏文大師』, 탑출판사.

안병희(1999), “吏文과 吏文大師를 다시 논함”, 『겨레문화』 13호, 한국겨레문화연구원.

국내 도서관에 소장된 「吏文大師」만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대학원C11-A25, 吏文大師 / 木版本 1冊(8張): 四周單邊 半郭 16.0×12.0cm, 有界, 8行18字, 內向2葉花紋魚尾; 21.0×15.4cm / 주기사항 版心題: 吏文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D417.01-이37ㄴ, 吏文大師 / 影印本(電子複寫), 不分卷1冊(8張); 24.5×17.7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11.1-Im9, 木版本, 1冊(8張): 四周雙邊 半郭 15.6×12.2cm, 有界, 8行18字, 板心: 上下黑魚尾; 21.6×16.0cm, 주기사항 板心題: 吏文, 印: 梅華屋珍玩

영남대학교 도서관, 古349.11012-이문대교, 筆寫本, 형태사항 1冊; 18.6×15.4cm, 주기사항 卷頭記錄: 辛酉三月二四日始抄, 卷末記錄: 乙未六月日安谷寺[寓]中書, 한글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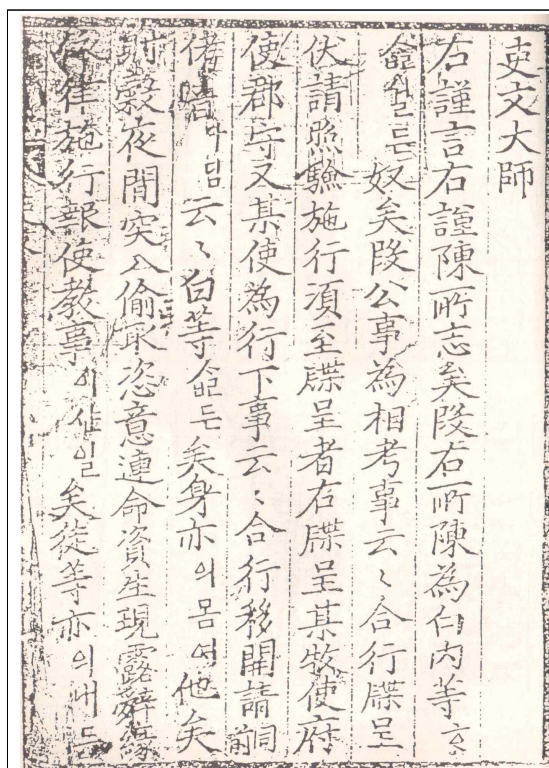
영남대학교 도서관, 古349.11012-이문대교, 筆寫本, 1冊(24張); 23.7×15.5cm, 주기사항 卷末: 乾隆三十三年戊子(1768)二月初十日 抄選集粹語, 筆寫記錄: 吏文大師末: 戊子(1768)二月初二日畢書, 한글吐 (吏文大師) 내용: 吏文大師(8張). -- 大明年紀(6張). -- 田算法 等(6張). -- 書院配享人物(4張)

국립중앙도서관, 古3116-4, 吏文行文合部 / 판사항 筆寫本 /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856 / 형태사항 1冊(105張): 無界. 12行27字; 30.5×19.0cm / 주기사항 卷末: 歲赤龍墓春下漸終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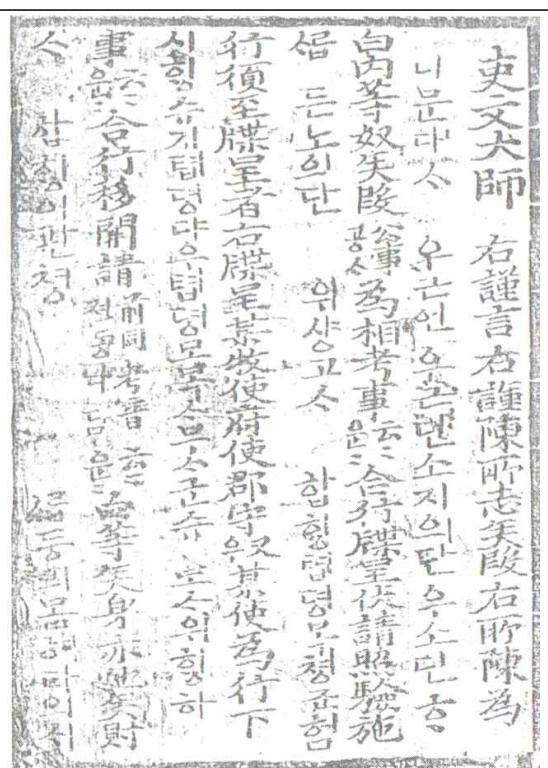
3) “一一九. 吏文大師 同(*本人 藏): 一冊, 木版本, 吏讀文을 한글로 풀어 놓았다.”

4) 대구본(대구 모씨 소장본)은 권말에 “康熙十八年”이라 음각되고, “改判”이라 양각되어 있어서, 1679년에 간행된 것(안병희, 1999)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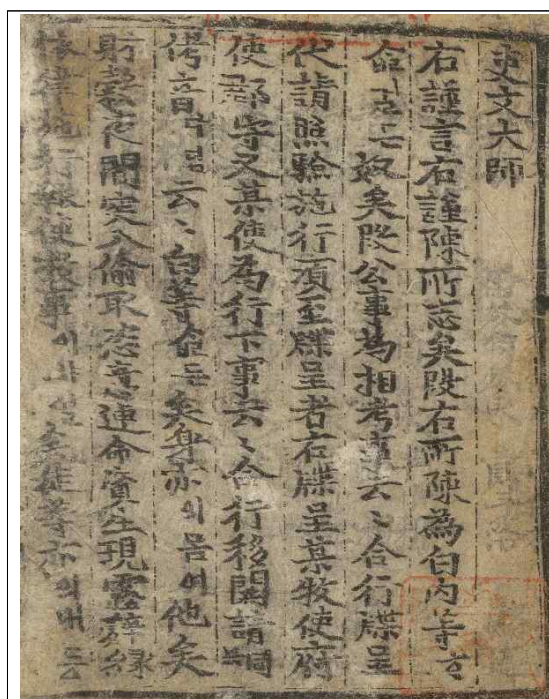
5) 영남대 소장본(1冊 24張 ; 23.7×15.5cm)은 卷末에 “乾隆三十三年戊子(1768)二月初十日 抄選集粹語”라 되고, 끝에는 “戊子(1768)二月初二日畢書”라 되어 있다.



고대본 첫째 면



계명대본 첫째 면



가람본 첫째 면



대구본 마지막 면

기爲只爲기삼卜定지덩是如이다良中沙 격기導良드되여숨音ㅁ롬擬只시기의只마 良더러捧上받자絃如시우러初如초혀役只 不喻쑤안디他矣놈의帖字件記불기置簿除 펼這ㄴ拷音곤ㄴ다딤追于조초別乎벼롬勞 아직最只아직기敎是이시物ㄴ白活간ㄴ발 쓰려易亦아ㄴ혀專亦전혀便亦스려여先可 이여矣身向爲良의몸향하야矣身耳亦의몸							
依律施行報使敎事이산일矣徒等亦의내등 財穀夜間突入偷取恣意連命資生現露辭緣 俦音다딤云ㄴ白等畚든矣身亦의몸여他矣 使郡守又某使爲行下事云ㄴ合行移關請前同 伏請照驗施行項至牒呈者右牒呈某牧使府 畚結든奴矣段公事爲相考事云ㄴ合行牒呈 右謹言右謹陳所志矣段右所陳爲白内等하							

안병희 활자화본(1a~1b)

가람본 「吏文大師」	이본
爲白内等 하畚結든	연대본 ‘하畚넉든’
俦音 다딤	통문관본 ‘다짐’
白等 畚든	
矣身亦 의몸여	통문관본 ‘이몸여’
敎事 이샤일	‘이샤일’은 脫畵. 연대본 ‘이산닐’. 『이문행문합부』 ‘이산일’
矣徒等亦 의내등이여	
矣身向爲良 의몸향하야	
矣身耳亦 의몸쓰려	‘쓰려’는 脫畵. 『이문행문합부』 ‘의몸쓰려’
易亦 아ㄴ혀	‘아ㄴ혀’는 脫畵.
專亦 전혀	
使亦 스려여	
先可 아직	
最只 안직기	고대본 · 연대본 · 『이문행문합부』 ‘아직기’, 통문관본 ‘아지기’
敎是 이시	
物物白活 간간발펼	
這這拷音 곤곤다딤	고대본 · 연대본 ‘--다짐’
迫于 조초	연대본 ‘죤초’
別乎 벼롬	
勞不喻 쑤안디	연대본 ‘쑤안’
他矣 놈의	
件記 불기	
除良 더러	
捧上 받자	연대본 ‘받죄’, 통문관본 ‘밧자’, 『이문행문합부』 ‘받즈’
絃如 시우러	
初如 초혀	

3.3. 『典律通補』 別編(1761 초고본, 1786 수정본)의 「吏文」

『典律通補』의 「吏文」과 이 「吏文」의 이두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한 글은 현재 없는 듯하다. 일찍부터 이두 자료집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포함되었던 자료라는 점을 인식할 때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典律通補』를 검색하면, 이 책은 2종이 있다고 한다.

조선 영조 22년(1746)에 『續大典』이 편찬되면서, 당시 우리나라 國典은 『經國大典』(1481년 5차안 완성. 1485년부터 시행)과 『續大典』 두 가지가 있었다. 이와 함께 刑法典은 『大明律』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니 당시 법전이 각각 따로 되어 있고, 『경국대전』의 조문 가운데 『續大典』에서 개정된 것도 있어서 두 國典이 서로 어긋났다. 또한 刑律을 적용할 때 국전에 없는 것은 『대명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래서 具允明이 『大明律』과 『經國大典』·『續大典』의 조문 가운데 현행법을 수합하고, 『續大典』에 실리지 않은 법령도 추가해 『典律通補』라고 이름을 지었다. 또한 참고가 될 만한 것을 別編으로 꾸며 1761년(영조 37)에 개인 법률서 『典律通補』가 완성되었다.

그 뒤 1785년(정조 9)에는 『經國大典』·『續大典』, 그리고 『續大典』 후의 受敎를 통합해 『大典通編』이라는 통일 국전이 편찬, 시행되었다. 이 해 9월에 正朝는 具允明이 『典律通補』를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따로 관청을 만들어 증보하도록 하였다. 구윤명은 증보를 위한 비용만을 국가에서 보조받기로 하고, 여러 차례 수정, 증보하여 1786년(丙午)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 해 2월 20일에 정조의 결재를 받아서, 활자체로 正書했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

1761년에 완성된 최초의 『典律通補』와 함께 正書本 2종이 규장각도서로 전하고 있다.

1998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典律通補』를 상·하 2권으로 영인해서 발간했다. 이 책의 앞부분 해제를 보면, 『典律通補』는 1761년에 만든 초고본과 나중에 정조의 지시에 의해 초고본을 수정하여 정서한 1786년 필사본 2종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는 1761년 초고본은 ‘奎4306’이고, 1786년 수정본은 ‘奎1377’이 정본이라 했다. 이 정본이 1998년 영인되었다.

이상으로 보건대, 『전율통보』는 크게 2종이 전하는데, 나머지는 초고본의 후사본이거나 수정본의 후사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典律通補』 ‘권6’ 뒤에 붙은 ‘別編’(곧 『典律通補別編』)에는 「吏文」이라 하여 이두가 목록화되고, 그 이두에 한글 독음이 달려있어 이두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⁶⁾

초고본 「吏文」에는 125개의 이두 형태에 한글 독음을 달고, 수정본 「吏文」에는 130개의 이두 형태에 한글 독음을 달았다. 초간본 「이문」의 첫째 이두와 독음은 “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 아모개이낫부려왜라허틀러”로 되어 있고, 수정본 「이문」의 첫째 이두와 독음은 “某[名]弋只進叱使內良如爲 아모개이낫부려왜라다암”으로 되어 있다. 곧 초간본에는 某弋只로 되어 있는 것이 수정본에는 某[名]弋只로 되어 있고, 초간본에는 “아모개이 낫부려왜라 허

6) 안병희(1983:44)에서 초간본 『典律通補』(1861)와 수정본 『典律通補』(1786)이 있고, 두 곳의 이두가 다른 데 후자(수정본)의 이두만 언급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 했다. 그리고는 안병희(1984)를 발표했다.

안병희(1984)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초고본 善本으로 규장각 소장본(도서번호 4306)을 들었다. 그러나 필자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VII-2-202)도 그에 못잖은 선본으로 본다.

초고본 권1 앞에는 ‘典律通補序’와 ‘典律通補凡例’가 있다. 하지만 1786년 수정본에는 序가 없고, 凡例만 있다. 또한 수정본 말미에는 “歲丙午(1786: 필자 삽입)八月日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綾恩君臣具允明奉敎謹跋”이라고 쓰여 있다.

틀러”로 되어 있는 독음이 수정본에는 “아모개이 낫부려왜라다 암”으로 되어 있다. 한편 초간본을 필사한 것에는 그 독음이 “아모개이낫부려왜라허틀러 / 아모기이낫부려왜라허투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수정본을 필사한 것에는 그 독음이 “아모기이낫부려왜라다암 / 아모기이남부려왜라다암”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⁷⁾

또한 초간본에는 네 번째 이두로 爲乎乙喻在果를 들고 그 독음을 달지 않았으나, 수정본에는 爲乎乙喻在果 뒤에 ‘흐을지견과’와 같이 그 독음을 달았다. 그리고 수정본을 필사한 것에는 그 독음이 ‘흐을지견과’와 같이, ‘을’을 ‘을’로 적은 것이 있다.

한편 초간본을 후사한 것으로 보이는 「吏文」은 이두 항목의 수 125개에는 차이가 없으나, 필사하는 과정에서 “爲隱喻 흐디”를 “爲隱喻 흐지”, “作文 딜문”을 “作文 질문”, “節 디위”를 “節 지위”로 써서 구개음화를 반영한 것도 있고, “爲等如 흐트러”를 “爲等如 흐투러”, “向爲良 향햏야”를 “向爲良 향햏여” 등과 같이 독음을 달리 쓴 것도 있다

또한 수정본을 후사한 것으로 보이는 「吏文」은 이두 항목의 수 130개에는 차이가 없으나, 필사하는 과정에서 “爲白等 흐숏든……乙仍于 지조로”로 되어있는 부분을 “爲白等乙仍于 흐살든지조로”(『이두자료선집』에 영인된 『전율통보』 吏文)로 잘못 기록한 것도 있고, “爲白等 흐살드……乙仍于 지도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朝93.48)와 같이 잘못 기록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초고본을 후사한 것으로 보이는 「吏文」의 독음이 후대 음을 반영한 것, 수정본을 후사한 것으로 보이는 「吏文」이 후대 음을 반영한 것도 있다. 『典律通補』의 「吏文」만 비교해 본다면, 단순히 초고본과 수정본, 그리고 각각의 후사본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곧 이두의 독음을 고려할 때 『典律通補』 「吏文」의 초고본과 초고본의 후사본, 그리고 수정본과 수정본의 후사본은 최소한 4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두 다 확인할 것이 아니므로 그 이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典律通補』別編의 「吏文」 ⁸⁾	『典律通補』수정본(1786)의 「吏文」 ⁹⁾	『典律通補』別編의 「吏文」 ¹⁰⁾	『典律通補』별편 수정본의 후사본(?) ¹¹⁾	『典律通補』수정본의 「吏文」 ¹²⁾
1	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 아모개이낫부려왜라허틀러	某名弋只進叱使內良如爲 아모개이낫부려왜라다암	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 아모개이낫부려왜라허틀러	某名弋只進叱使內良如爲 아모기이남부려왜라다암	某名弋只進叱使內良如爲 아모기이낫부려왜라다암
2	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 벵릭옴늑누온일이여견	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 벵라옴늑누오일이여견	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 벵릭옴늑누온일이여견	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 바라옴늑누온일이여견	望良白內臥乎事是亦在 바라옴늑누온이리여견 ¹³⁾
3	×	爲白有臥乎等用良 흐숏 잇누온들뼈아 ¹⁴⁾	×	爲白有臥乎等用良 흐숏 잇누온들뼈아	爲白有臥乎等用良 하숏 잇누온들뼈아
4	敎是臥乎在亦 이시누온건이여	敎是臥乎在亦 이시누온건이여	敎是臥乎在亦 이시누온건이여	敎是臥乎在亦 이시누온건이여	敎是臥乎在亦 이시누온건이여
5	爲乎乙喻在果 ×	爲乎乙喻在果 흐을지견과	爲乎乙喻在果 ×	爲乎乙喻在果 흐을지견과	爲乎乙喻有果 흐을지견과 ¹⁵⁾
6	×	爲白有如乎事 흐숏잇다온일	×	爲白有如乎事 흐숏이숏은인	爲白有如乎事 흐살잇다온열
7	使內白如乎 벵리숏다온	使內白如乎 벵리숏다온	使內白如乎 벵리숏다온	使內白如乎 벵리숏다온	使內白如乎 벵리살다온

7) 필자가 확인한 초고본의 필사본도 서너 종이 되고, 수정본의 필사본도 서너 종이 된다. 초고본에는 白의 독음이 ‘숏’ 또는 ‘옴’으로 되어 있는데, 초고본의 일부 후사본에는 白의 독음이 ‘숏’ 또는 ‘옴’으로 되어 있다.

8	是去有良爾 이거이신아금	是去有良尔 이거이신아금	是去有良爾 이거이신아금	是去有良尔 이거이신아금	是去有良尔 이거이신아금
9	爲有在而亦 흥잇겨마리여	爲有在而亦 흥잇겨마리여	爲有在而亦 흥잇겨마리여	爲有在而亦 흥잇겨마리여	爲有在而亦 흥잇겨마리여

某^名 弋^기只^지進^진叱^叱使^시內^내良^량如^如為^위 아모개이갓부 望^망
 良^량白^백內^내卧^위乎^乎事^사是^是亦^亦在^在 오보라옴네누 ○ 為^위白^백有^유
 卧^위乎^乎等^등用^용良^량 은들금네누 ○ 教^교是^是卧^위乎^乎在^在亦^亦 이온지
 女^여 현 이 為^위乎^乎乙^을喻^유在^在果^과 현하울지 為^위白^백有^유如^如乎^乎事^사 은신기
 은잇다 ○ 使^시內^내白^백如^如乎^乎 다부리금 是^是去^去有^유良^량尔^을 이신기
 是^是去^去有^유良^량尔^을 은잇다 置^치有^유是^是亦^亦 이두어이 直^직為^위所^소如^如中^중 다히호바 望^망良^량白^백
 去^去乎^乎 거온 為^위白^백有^유如^如乎^乎 다온잇 為^위白^백卧^위乎^乎事^사 은일누
 教^교齊^차 이안거라 為^위白^백有^유昆^곤 잇금 為^위有^유如^如乎^乎 다온잇 為^위良^량
 白^백只^지為^위 기암금 為^위乎^乎樣^양以^이 은로 為^위有^유去^去乙^을 거온잇
 某^某 戈^기只^지進^진叱^叱使^시內^내良^량如^如為^위 아모개이갓부 ○ 望^망良^량白^백
 內^내卧^위乎^乎事^사是^是亦^亦在^在 은일이어건 ○ 教^교是^是卧^위乎^乎在^在亦^亦 이시
 女^여 이 為^위乎^乎乙^을喻^유在^在果^과 ○ 是^是去^去有^유良^량爾^을 이거금
 ○ 使^시內^내白^백如^如乎^乎 다온 為^위有^유在^在而^而亦^亦 다히여 為^위白^백乎^乎
 等^등以^이 은 是^是置^치有^유是^是亦^亦 直^직為^위所^소如^如中^중 바덕호
 히 ○ 為^위白^백有^유昆^곤 잇금 為^위有^유如^如乎^乎 다온 為^위良^량教^교齊^차
 只^지為^위 기암금 為^위乎^乎樣^양以^이 은로 為^위有^유去^去乙^을 거온잇
 為^위行^행如^如可^가 다거 為^위良^량如^如教^교 이안거 向^향教^교是^是事^사 이아

- 8) 일본 동양문고 소장 『典律通補』別編의 「吏文」(청구기호 VII-2-202)
- 9) 1998년 서울대 규장각 영인 『典律通補 下』(奎430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30-8’도 1786년 수정본과 같은 것으로 판단됨.
- 10) 국립중앙도서관 『典律通補別編』(古朝31-203)
- 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吏文」(한古朝93-48)
- 12) 『吏讀資料選集』(1975) 수록 『典律通補 「吏文」
- 13) ‘바라옵니누온이리여전’은 ‘바라옵니누온이리여견’의 잘못된 듯.
- 14) ‘ㅎ싫잇누온들빠야’는 ‘ㅎ싫잇누온들빠아’의 잘못된 듯.
- 15) ‘爲乎○噲有果 乙을지견과’와 같이 乎와 噲 사이에 권점(°)이 있고, 그 뒤에 쓰인 ‘爲白有如乎事乙[上]’의 끝에 ‘乙[上]’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표기에서 乎와 噲 사이에 乙을 누락한 것임. 한편 爲乎○噲有果는 爲乎○噲在果의 잘못된 듯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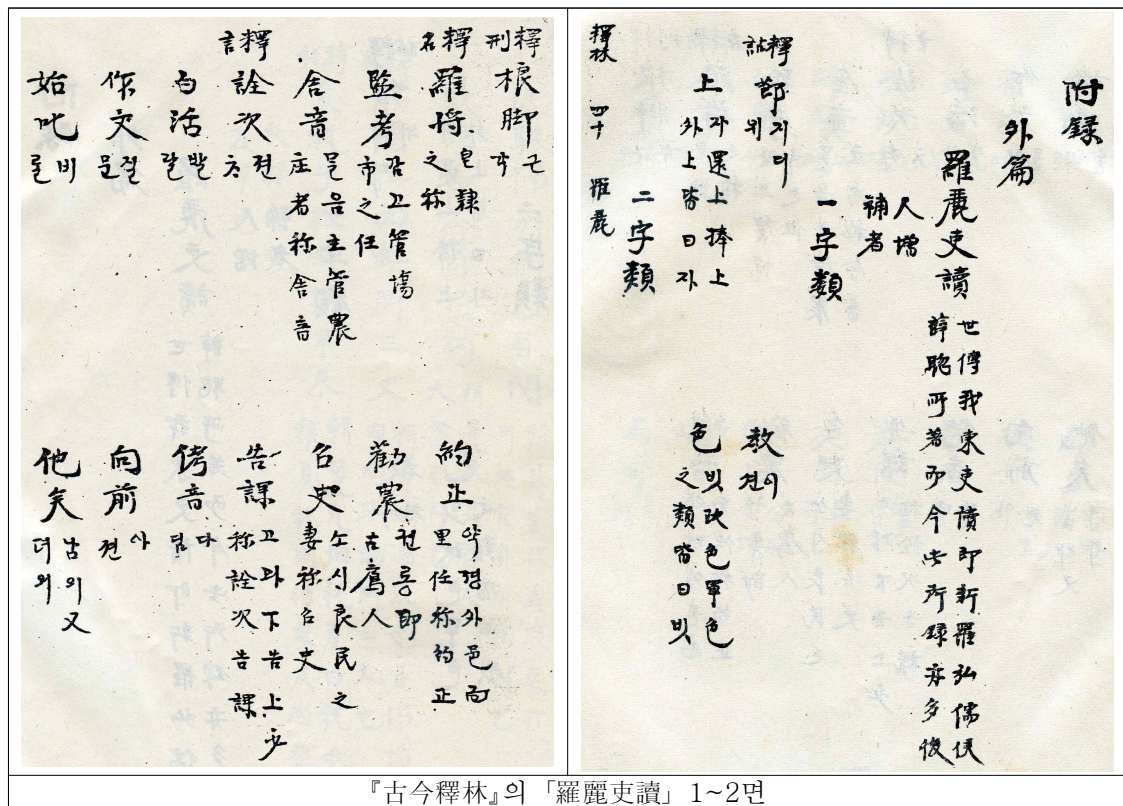
吏文 某戈只進叱使內良如為 望良白內卧乎事是亦在 ○教是卧乎在亦 ○使內白如乎 為有在而亦 是置有是亦 ○為白有昆 為白去乎 為乎樣以	吏文 某名戈只進叱使內良如為 望良白內卧乎事是亦在 ○教是卧乎在亦 ○使內白如乎 為有在而亦 是置有是亦 ○為白有昆 為白去乎 為乎樣以
초고본의 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전율통보』 별편)	수정본의 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吏文」/古朝 93.48)

3.4. 『古今釋林』(1789)의 「羅麗吏讀」

『古今釋林』 권40의 ‘附錄, 外篇’에 ‘羅麗吏讀’라 하여 172개의 이두를 수집하여 한글 독음으로 달았다. 『古今釋林』은 조선 영·정조 때의 문신 李義鳳(1733, 영조 9~1801, 순조 1)이 1789년(정조 13)에 편찬한 辭書로, 역대의 우리말과 중국어를 비롯하여 흉노·토번·돌궐·거란·여진·청·일본·안남·暹羅(삼·타이) 등의 여러 언어의 어휘를 모아 해설한 어휘집이다. 40권 20책 필사본으로, 규장각에 소장(奎 12253)되어 있고, 1977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4권으로 영인·간행되었다.

이 책의 권40 뒤 부록에 ‘羅麗吏讀’가 172종의 이두를 수록하고 독음을 달아놓았는데, 이것을 활자화하거나 영인한 것은 다음과 같은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 김태균(1968), “吏讀資料集”, 『京大文學』 3집,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아세아문화사(1975), 『吏讀資料選集』.
- 배대운(1993), 『吏讀語彙論』, 형설출판사.
- 고정의(2003), “이두 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 배대운(2003), 『歷代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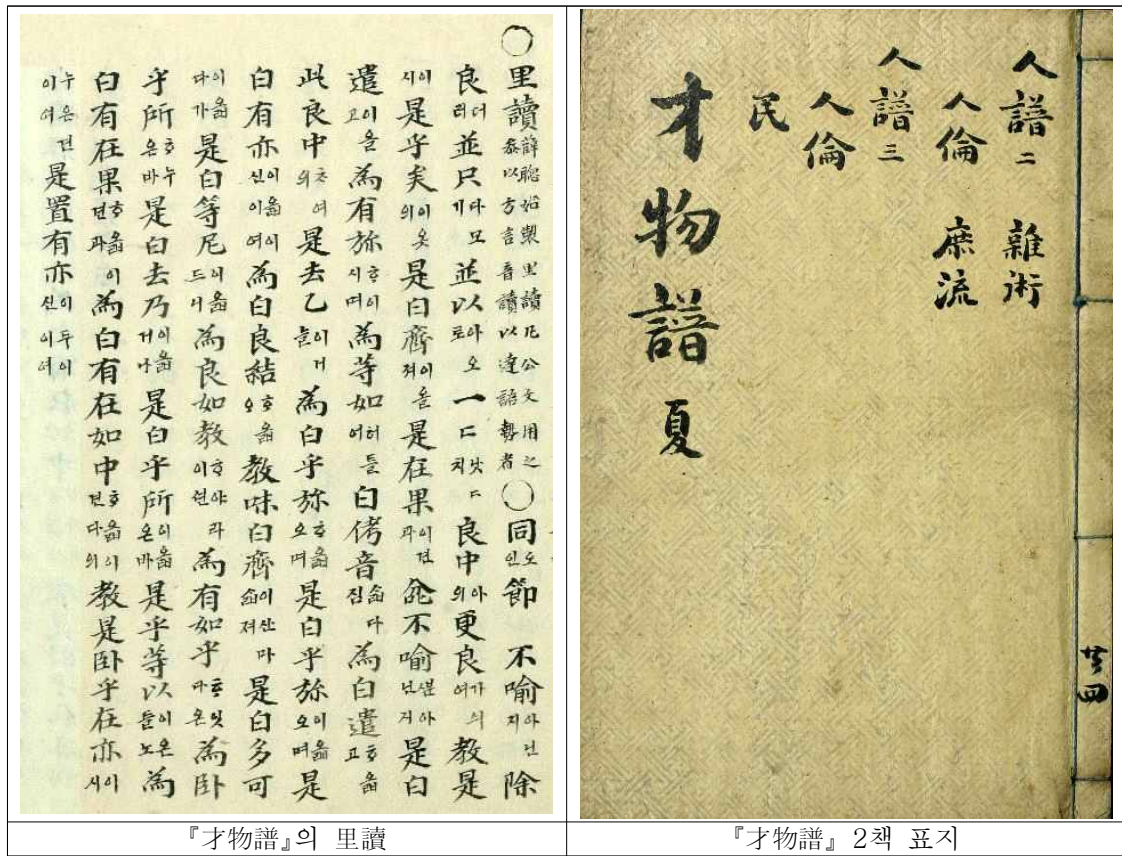


『古今釋林』의 「羅麗吏讀」 1~2면

3.5. 『才物譜』의 「里讀」

『才物譜』는 1798년(정조 22)에 李晩永이 8권 4책으로 엮은 필사본 類書로, 규장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80년 아세아문화사(亞細亞文化社)에서 영인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이 책의 2책 권3 ‘人譜 二’ 말미에 「里讀」라 하여 38개 이두를 들고 독음을 달아놓았다.



○里讀【薛聰如製里讀 凡公文用之 叅以方言 音讀以達語勢者】 ¹⁶⁾			
同 오인	節	不喻 아닌지	除良 더러
並只 다모기	並以 아오로	一一 낫낫치	良中 아의
更良 가직여	敎是 이시	是乎矣 이웃의	是白齊 이올져
是在果 이견과	餘不喻 쏘아닌지	是白遣 이올고	爲有跡 헉시며
爲等如 허틀어	白倂音 쏘다짐	爲白遣 헉옴고	此良中 츠여의
是去乙 이거늘	爲白乎跡 헉옴오며	是白乎跡 이올오며	是白有亦 이올이신이어
爲白良結 헉옴오 ¹⁷⁾	敎味白齊 이산마쏘져	是白多可 이올다가	是白等尼 이올드니
爲良如敎 헉아라이션	爲有如可 헉잇다운	爲臥乎所 헉누온바	是白去乃 이올거나
是白乎所 이올온바	是乎等以 이온들노	爲白有在果 헉옴이견과	爲白有在如中 헉옴이견다의
敎是臥乎在亦 이시누온건이어	是置有亦 이두이신이어		

3.6. 『五洲衍文長箋散稿』(19세기)의 「吏讀方言」

『五洲衍文長箋散稿』 권40의 「語錄辯證說」에 ‘吏讀方言若干字’라 하여 이두 80개를 수집하고 한글 독음을 달아 놓았다.

이 책은 19세기의 학자 五洲衍 李圭景(1788~1863)이 쓴 백과사전 형식 60권 60책의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일본이었는데, 최남선이 소장하다가 6·25 한국전쟁 때 소실됐다고 한다. 다행히 최남선 소장본의 필사본이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고, 이 필사본이 1958

16) 남아 전하는 『才物譜』 가운데 일부는 이 부분만 있고, 뒷부분의 이두가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다.

17) ‘헉옴오’는 ‘헉옴오져’의 ‘저’나 ‘헉옴오감’의 ‘감’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년 東國文化社에서, 1982년 明文堂에서, 1993년 고전간행회에서 영인·간행되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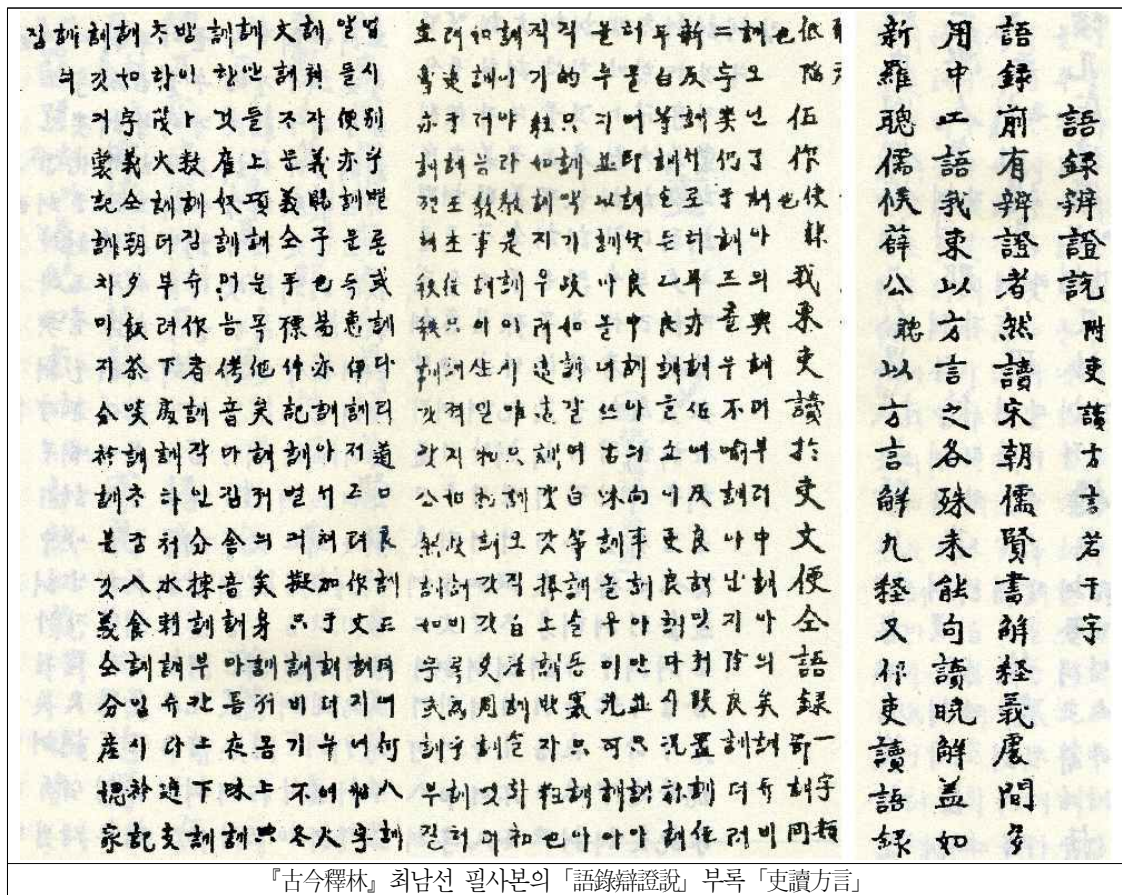
이두 자료집이나 학습서를 언급하면서 조금씩 논의 되었을 뿐, 이 이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듯하다.

고정의(2003), “이두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김태균(1968), “吏讀資料集”, 『京大文學』 3집,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배대운(1993), 『이두어휘집』, 형설출판사.

배대운(2003), 『역대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1자류부터 2자류의 이두방언 82개를 들고, 그 독음을 기록해놓았다. 예를 들어, ‘同 訓 오언’, ‘了 訓 아의’, ‘的只 訓 막기’, ‘絃如 訓 지우려’ 등과 같다.

3.7. 「吏文襍例」

「吏文襍例」는 日本 東洋文庫 所藏(VII-2-105)의 목판본¹⁹⁾이 유일하게 알려져 왔으나, 이의 필사본인 듯한 것이 동경대학 오구라문고(L174641)의 『公私恒用錄』에 들어있다. 또한 『

18) 「吏讀方言」은 필사본 『五洲衍文長箋散稿』의 「語錄辨證說」에 들어있고, 그 부분이 『吏讀資料選集』(1975)에 영인되어 있다.

19) 1冊(14張)：四周雙邊 半郭 21.1×13.4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無魚尾；26.1×16.9cm 이 책은 『吏讀資料選集』(1975, 아세아문화사)에 영인되어 있다.

『儒胥必知』의 「吏頭彙編」 뒤에 첨부된 것과도 비교를 해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앞의 『儒胥必知』 뒤의 이두문 예는 7개 항목의 이두문(報狀式, 所志式, 上言式, 重囚同推式, 決訟立案式, 買得斜出式, 移關下帖式)이 들어 있는데, 동양문고본은 여기에 「李相國居官訓範」이 추가되어 있다. 오구라문고의 『公私恒用錄』의 「吏文襟例」에는 7개 항목의 이두문(報狀式, 所志式, 上言式, 重囚同推式, 決訟立案式, 買得斜出式, 移關下帖式)에 『典律通補』 別編에서 확인되는 45개의 행정 문서 서식(諭書式, 告身式 등)²⁰⁾이 더해져 있다.

「吏文襟例」와 관련된 논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고정의(2003), “이두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김대균(1968), “吏讀資料集”, 『京大文學』 3집,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배대운(1993), 『이두어휘론』, 형설출판사.
 김홍석(1999), 『조선후기 이두 학습서의 이두 고찰: 「吏文襟例」와 「유서필지」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7집, 한국어문학교육학회.
 배대운(2003), 『역대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장경준(2007), “경리잡설(經里雜說)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전경목 외(2006), 『儒胥必知』, 사계절.
 홍순혁(1948), “吏讀 文獻 ‘吏文 襟例’ 小考”, 『한글』 13권 3호(제105호), 한글학회.

동양문고본(목판본)과 오구라문고본(필사본)의 차이를 몇 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목판본 「吏文襟例」 ²¹⁾	『儒胥必知』 이두문 예 ²²⁾	필사본 「吏文襟例」
7개 항목의 이두문	7개 항목의 이두문	7개 항목 이두문에 45개 행정 서식 추가
<報狀式 吏讀>	<報狀式 吏讀>	<報狀式 吏讀>
乙仍于 을지즐우	乙仍于 을지즈로	乙仍于 을지즐우
專亦 던혀	專亦 전혀	絃如 던혀
絃如 시우려	絃如 시우여	絃如 시우려
是乎矣 이오디	是乎矣 이오되	是乎矣 이오되
始叱 비룻	始叱 비룻	始叱 비룻
加于 더욱 / 尤于 더욱 ²³⁾	加于 더욱 / 尤于 더욱	加于 더욱 / 尤于 더욱
是在如中 이견다히	是在如中 이견다히	是在如中 이견다히
耳亦 썩려	耳亦 찌녀	耳亦 썩려
爲行如可 햏여짜가	爲行如可 햏여나가 ²⁴⁾	爲行如可 햏여짜가
是乎水乙用良 이온들쓰아	是乎等乙用良 이온들쓰아	是乎水乙用良 이온들쓰아
望良乎脡 바라오며	望良乎脡 바라오며	望良乎脡 바라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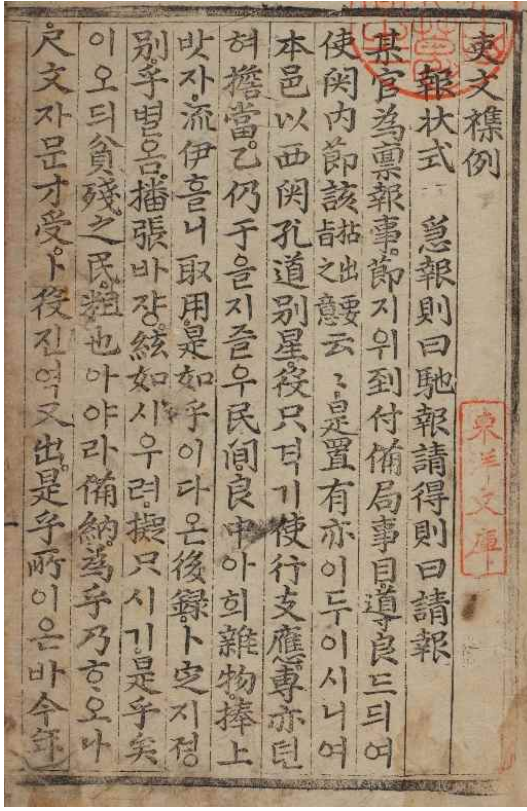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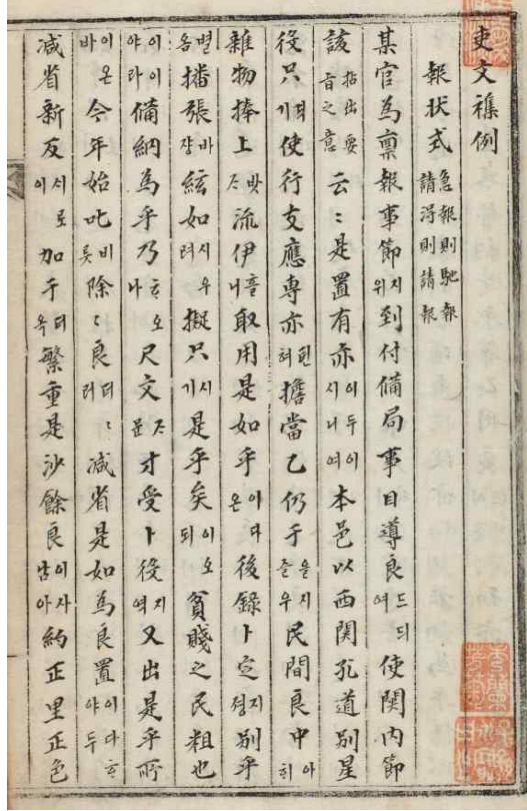
20) 『典律通補』 別編에는 賀表와 方物表 등 사대문서식 23건, 國書와 書契 등 교린문서식 2건, 諭書式과 4품이상告身式 등 본조문서식 45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21) 홍순혁(1948:13)에서는 독음을 단 이두가 188개인데, 23개가 중복되니 165개 이두에 독음이 달렸다고 했다. 안병희(1987:12)에서 「吏文襟例」의 이두는 190항이 보이나, 중복된 것 20여 항을 제외하면 170여 항이 보인다고 했다.

22) 자료는 전경목 외(2006)의 『儒胥必知』 「吏頭彙編」을 대상으로 했다.

23) ‘더욱’으로 보이는데, ‘더욱’의 잘못된 듯하다.

24) ‘햏여나다’로 보이는데, ‘햏여짜가’의 잘못된 듯하다.

 「吏文襟例」(日本 東洋文庫 所藏/VII-2-105)	 『公私恒用錄』(오구라문고/L174641)의 「吏文襟例」
--	---

3.8. 「吏讀便覽」

「吏讀便覽」은 19세기 중반에 吏讀文에 쓰이는 吏讀와 吏文에 쓰이는 吏文 어휘를 모아서 편집한 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편자 및 간행연대가 미상이나, 結錢[결세로 정한 돈]이라는 용어로 볼 때 1751년(영조 27) 균역법 반포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정재훈, 규장각 震覽 해제), 1829년(순조 29)이나 그 이듬해에 활판 인쇄된 것(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두편람 설명)으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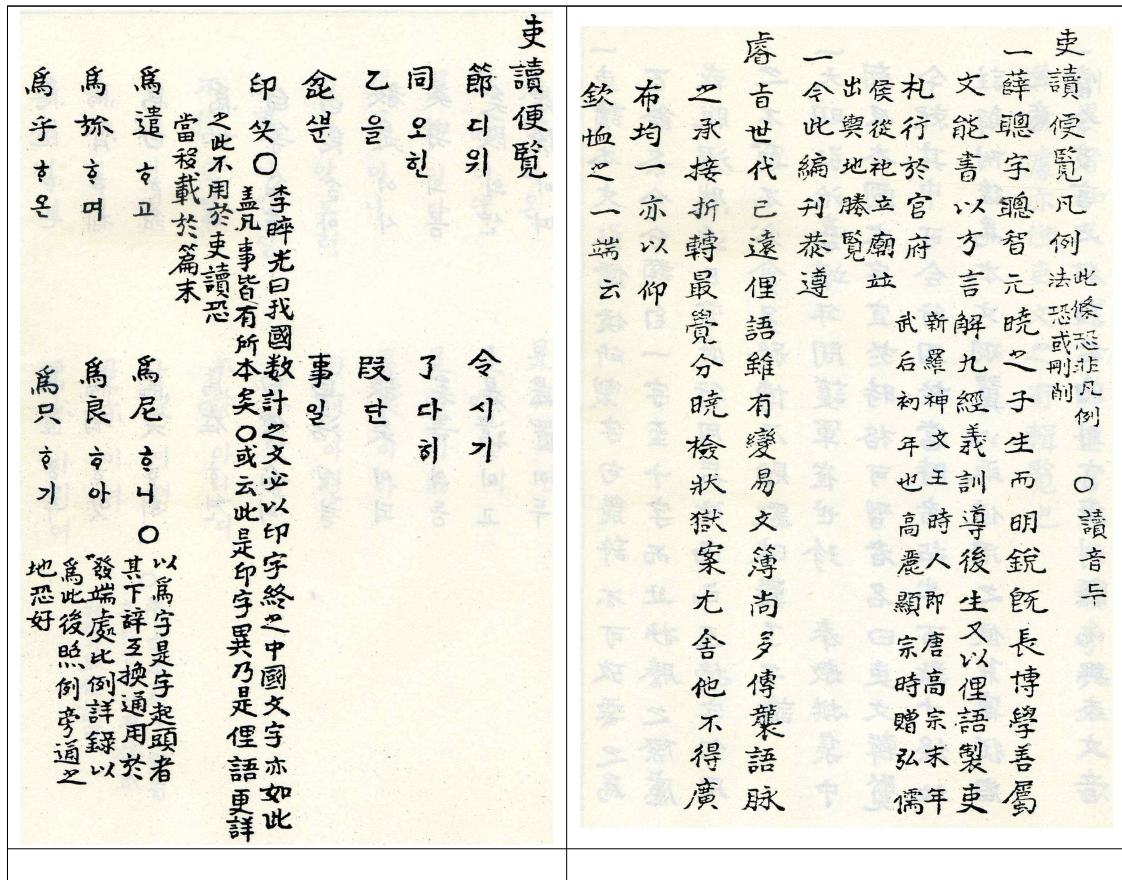
마에마 교사쿠(1929), “吏讀便覽에 대하여”, 『朝鮮』 165호, 조선총독부, 1929.

장세경(1991), “이두편람(吏讀便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991.

안병희(2001), “『吏讀便覽』에 대하여”, 『서지학보』 25호, 한국서지학회.

안병희(2001), “『震覽』 解題”, 『서지학보』 25호, 한국서지학회.

장경준(?), “이두편람 해제”,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吏讀便覽」은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동양문고본), 일본 고마자와[駒澤]대학 濯足문고 소장본(濯足본), 서울대 중앙도서관본(『震覽』의 「吏讀便覽」, 이것을 안병희(2001)에서 가람본이라 칭함.), 전주고 사본(원본 분실, 사본 존재, 『吏讀資料選集』 수록) 등 4종이 알려졌다. 이두 수효를 비교해보고, 이두의 독음도 몇 개 비교해 보이면 아래와 같다.

전주고 사본(전주본)	『震覽』의 「吏讀便覽」(가람본)	동양문고 본	濯足 본 ¹⁾
1자류 : 9개	1자류 : 9개	1자류 : 9개	1자류 : 9개
2자류 : 105개	2자류 : 102개	2자류 : 105개	?
3자류 : 60개	3자류 : 56개	3자류 : 61개 ²⁾	?
4자류 : 71개	4자류 : 64개	4자류 : 71개 ³⁾	?
5자류 : 27개	5자류 : 28개	5자류 : 28개	?
6자류 : 11개	6자류 : 9개	6자류 : 11개 ⁴⁾	?
7자류 : 9개	7자류 : 8개	7자류 : 9개 ⁵⁾	?
8자류 : 5개	8자류 : 5개	8자류 : 5개	?
9자류 : 3개	9자류 : 3개	9자류 : 3개	?
10자류 : 3개	10자류 : 3개	10자류 : 3개	?
총 303개 ⁶⁾	총 287개	총 305개 ⁷⁾	총 294개 ⁸⁾

1) 濯足 본의 전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1자류를 제외한 것은 헤아리지 못했다.

2) 장경준의 해제에는 62개로 헤아렸다.

3) 장경준의 해제에는 70개로 헤아렸다.

전주고 사본(전주본)	『震覽』의 「吏讀便覽」(가람본)	동양문고 본(前問本)	濯足 본 ⁹⁾
印 𪛗 【○李睟光曰 我國數計之文 必以印字終之 中國文字 亦如此 蓋凡事皆有所本矣○或云此是印字異 乃是俚語 更詳之 此不用於吏讀 恐當移載於篇末】	印 𪛗 【李睟光曰 我國數計之 必以印字終之 中國文字 亦如此 蓋凡事皆有所本矣○或云此是亡 倅與印字異 乃是俚語 更詳之 此不用於吏讀 恐當移載篇末】	印 𪛗	印 𪛗李睟光曰 我國數計之文 必以印字終之 中國文字 亦如此 蓋凡事皆有所本矣○或云此是亡 倅與印字異 乃是俚語 更詳之 此不用於吏讀 恐當移載篇末】
爲尼 ㅎ니 【○以爲字是字起頭者其下辭 互換通用於發端處 比例詳錄 以爲此後照例旁通之地 恐好】	爲尼 ㅎ니	爲尼 ㅎ니	爲尼 ㅎ니
卜役 딘역 卜定 디정 【○兩卜字 本頁字 點省文 或딘역 디정 摘取初聲取便語可】	卜定 디정 卜役 딘역 【○卜本負字 人點省文 或딘역 디정 摘取初聲取便語耳】	卜役 딘역 卜定 디정	?
節龕 디위쑤 ○凡言爲白是白云云者 用於奏御文狀 及捧招文字 恐首贅】	節龕 지위쑤	節龕 디위쑤	?
爲在果 ㅎ견과 【三字類於爲白詳載 此則於爲白詳載 而爲白是白並在乎此 恐當釐正】	爲白齊 ㅎ쑤제 【○此後二處皆作저 宜定于一○凡言爲白是白云云者 用於奏御文字】 爲在果 ㅎ견과	爲在果 ㅎ견과	?
爲白齊 ㅎ쑤제 【○此後二處皆作저 宜定于一】	爲齊 ㅎ제 【○此後二處皆作저 宜定于一】 爲白齊 ㅎ쑤제 【○此後二處皆作저 宜定于一○凡言爲白是白云云者 用於奏御文字】	爲白齊 ㅎ쑤제	?

3.9. 『儒胥必知』의 「吏頭彙編」과 『經俚襍說』의 「東國吏頭彙編」

「吏頭彙編」¹⁰⁾은 『儒胥必知』라는 책의 ‘通文套’ 뒷부분에 실려 있다.¹¹⁾ 주지하다시피 『儒胥必知』는 조선시대 공문서의 書式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행정 사무용 지침서로, 上言, 單子, 告目, 文券 등과 같은 공문서들의 서식, 吏讀 용법과 독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儒胥必知』와 「吏頭彙編」의 吏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 장전섭(1972), “『儒胥必知』에 對하여”, 『어문학』 27호, 어문학회.
 고정익(2003), “이두 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권, 구결학회.
 김근수 편(1975), 『吏讀資料選集』, 아세아문화사.

- 4) 장경준의 해제에는 12개로 해아렸다.
- 5) 장경준의 해제에는 8개로 해아렸다.
- 6) 『吏讀資料選集』(1975)에 영인된 전주고 사본의 총 이두 수효는 303개이다. 안병희(2001)에서도 303개라 했다. 그런데 안병희(1987:16)에서는 “330항을 웃도는 수효”를, (배대운, 1993:148; 2003:457)에서는 “약 330항의 이두”를 수록했다고 했는데, 어느 본을 근거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 7) 안병희(2001)에도 前問本이라 하여, 수록 이두가 305조항이라 했다.
- 8) 안병희(2001)에 따르면,濯足 본의 이두는 294조항이 수록되어 있다고 했다.
- 9)濯足 본의 전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1자류를 제외한 것은 헤아리지 못했다.
- 10) 「吏讀彙編」으로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 11) 「吏頭彙編」의 뒤에 ‘書目式’을 보이고, ‘儒胥必知終’이라고 했으니 「吏頭彙編」을 부록으로 실은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런데 『儒胥必知』의 서지사항을 보면 대부분 ‘附 吏頭彙編’, ‘부록 吏頭彙編’이라 소개한 경우가 많다. 아마 目錄에 없다는 데서 그렇게 처리한 듯하다. 한편 배대운의 『吏讀語彙論』과 『歷代 이두사건』 등을 보면, 「吏頭彙編」의 七字類 이두 뒤에 있는 報狀式 등의 문서 양식도 「吏頭彙編」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報狀式 이하는 「吏頭彙編」으로 다루지 않는다.

- 김봉좌(2005), “『유서필지』 판본 연구”, 『서지학보』 29집, 한국서지학회.
 김선희(2015), “『新式儒胥必知』 고찰”, 『서지학연구』 63집, 한국서지학회.
 김영만(1981), “유서필지의 이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태균(1968), “吏讀資料集”, 『京大文學』 3집,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배대온(1993), 『이두어휘론』, 형설출판사.
 배대온(2003), 『역대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아세아문화사(1975), 『이두자료선집』.
 안병희(2001), “吏讀便覽에 대하여”, 『서지학보』 25호, 한국서지학회.
 전경목 외 4인(2006), 『유서필지: 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사계절출판사.
 최범훈(1974), “『儒胥必知』 攷: ‘吏頭彙編’의 國語學的 價値”, 『새국어교육』 18·19·20 합병호, 한국국어교육학회.¹²⁾
 홍순혁(1946), “儒胥必知 小考”, 『한글』 11권 3호(제96호), 한글학회
 홍순혁(1947), “儒胥必知 小考(續)”, 『한글』 제99호, 한글학회.

규장각이 소장한 ‘想白 古 031-Y98w2’의 말미에 “壬申(1872, 고종 9)仲冬完西重刊”이라 기록하고, ‘想白 古 031-Y98’의 말미에는 “光緒十九年(1893) 四月十日錄”이라는 기문이 있다. ‘想白 古 031-Y98a’의 책 앞표지에는 “淸湖齋 壬申(1872)八月二十日”이라는 기문이 있고, 앞표지 뒷면에는 “大清同治十一歲壬申(1872)八月”이라는 기문이 있다.¹³⁾ “完西重刊”은 완서(지금 전북 전주)에서 중간되었다는 뜻이니, 『儒胥必知』는 그 이전에 初刊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개 哲宗 연간이나 哲宗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⁴⁾

현재 『儒胥必知』는 여러 개가 남아서 전하고 있는데, 제목 상으로 보면 『儒胥必知』¹⁵⁾와 『新式儒胥必知』(1911)¹⁶⁾가 있다. 『儒胥必知』의 판본을 놓고 보면, 크게 初刊과 重刊으로 나눌 수 있는데, 初刊은 刊記나 記文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단정할 수가 없고, 重刊은 책의 말미에 “壬申(1872)仲冬完西重刊”, “壬辰(1892)仲冬完西重刊(想白古 031-Y98a)”, “丙午(1906)夏四月完西溪新板” 등의 간기가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¹⁷⁾

한편 판본 사항에 따라서 木版本과 筆寫本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이 목판본(또는 중간목판본)이고 규장각 도서 ‘想白 古 031-Y98’과 『公私恒用錄』(동경대학 오구라문고 L174641)의 「吏頭彙編」 등이 필사본이다.

목판본 「吏頭彙編」과 필사본 「吏頭彙編」의 이두 항목은 모두 233항목이다. 목판본 「이두 회편」은 판본에 따라서 2자류에서 ‘下手하■’로 된 것이 있고, ‘下手하□’로 된 것이 있다. 필사본에는 ‘下手하슈’로 되어 있다.

12) 동일한 제목과 내용이 『尙書』 창간호(1975, 한국장서학회)에도 실려 있다.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유서필지(儒胥必知)’의 설명에는 “《대전통편》이 나온 1785년(정조 9) 이후에 이조에서 공문서식 예규집(例規集)으로서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간기로 보아 전주에서 1872년(고종 9)……간행됨으로써 널리 보급된 듯하다.”라고 했다.

1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古朝 31 7-2’의 ‘儒胥必知目錄’ 앞장에 ‘庚申孟春京中開刊’이라 했는데, 庚申은 1860년(庚申, 칠종 11)이다. 유탁일(1985:48, 55)과 김봉좌(2005:145)에서는 “甲辰年孟春開刊, 武橋新刊”이라 墨書되어 있는 『儒胥必知』(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도 소개되었다. 甲辰은 현종 10년(1844)이다.

15) 책에 따라서 표제가 『儒胥必知 全』 또는 『儒胥必知 單』 등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16) 『新式儒胥必知』에는 부록이라 할 수 있는 「吏頭彙編」이나 「吏文襍例」 등이 들어있지 않다.

17)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儒胥必知』(무구재古5304-7)는 표지의 표제 儒胥必知 오른쪽에 “丁卯九月上澣日”로 묵서되어 있다. 丁卯는 순종7년(1807)이나 고종4년(1867)이다.

또한 3자류 이두 설명에서, 목판본은 “三字類【白字古稱을】”¹⁸⁾로 되어 있고, 필사본은 “三字【白字古稱今稱】”으로 되어 있다.

목판본과 필사본의 「이두회편」 체제와 이두 독음에 차이가 있는 것을 몇 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목판본 「吏頭彙編」 ¹⁹⁾	필사본 「吏頭彙編」 ²⁰⁾	목판본 「吏頭彙編」	필사본 「吏頭彙編」
이두 233항목	이두 236항목	4자류 48항목	4자류 47항목 *목판본과 이두 항목 배치 순서가 조금 다름.
6자류 이두 5항목	6자류 이두 7항목	5자류 ‘爲去等易亦/헝거 든이녀’ 뒤에 ‘是隱去向入/인가앗드라’ 기록	5자류 ‘爲去等易亦/헝거 든이녀’ 뒤에 ‘爲良如教/헝여라’ 기록
「吏文條例」의 “大抵吏 ㅅㅅ……” 이하 추가	없음	三字類【白字古稱을】	三字【白字古稱今稱】

목판본 「吏頭彙編」	필사본 「吏頭彙編」	목판본 「吏頭彙編」	필사본 「吏頭彙編」
並 ㄱㅅ / 並 ㅅ ㄱㅅ	並 ㄱㅅ / 並 ㅅ ㄱㅅ	必于 바룩	必于 비룩
白是 ㄱㅅ이	白是 ㄱㅅ이	使內白 바ㄱㅅ	使內白 비ㄱㅅ
白等 ㄱㅅ등	白等 ㄱㅅ등	秩秩以 ㄱㅅㄱㅅ로	秩秩以 ㄱㅅㄱㅅ로
段置 단두	段置 단두	爲白去乙 헝ㄱㅅ거늘	爲白去乙 헝ㄱㅅ거늘
適音 마참	適音 마참	歧等如使內如乎 가로려바리다온	歧等如使內如乎 가로려바리다온

한편 장경준(2007)에서 『經俚禰說』의 「東國吏頭彙編」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儒胥必知』에 실린 「吏頭彙編」의 오랜 모습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리잡설』은 연세대 학술정보원의 국학자료실의 고문헌실 보관되어 있다. 간단한 서지사항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청구기호 : 고서(I) 411.14 경리잡 필

자료유형 : 고서

서명/저자사항 : 經俚禰說

판사항 : 筆寫本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 1冊 - 無界, 20行32字, 無魚尾 ; 30.5 x 19.7 cm

일반주기 : 國漢文混用本임. / 書名은 表題임. / 寫記 : 歲在丁未(?)冬日書 于稷下山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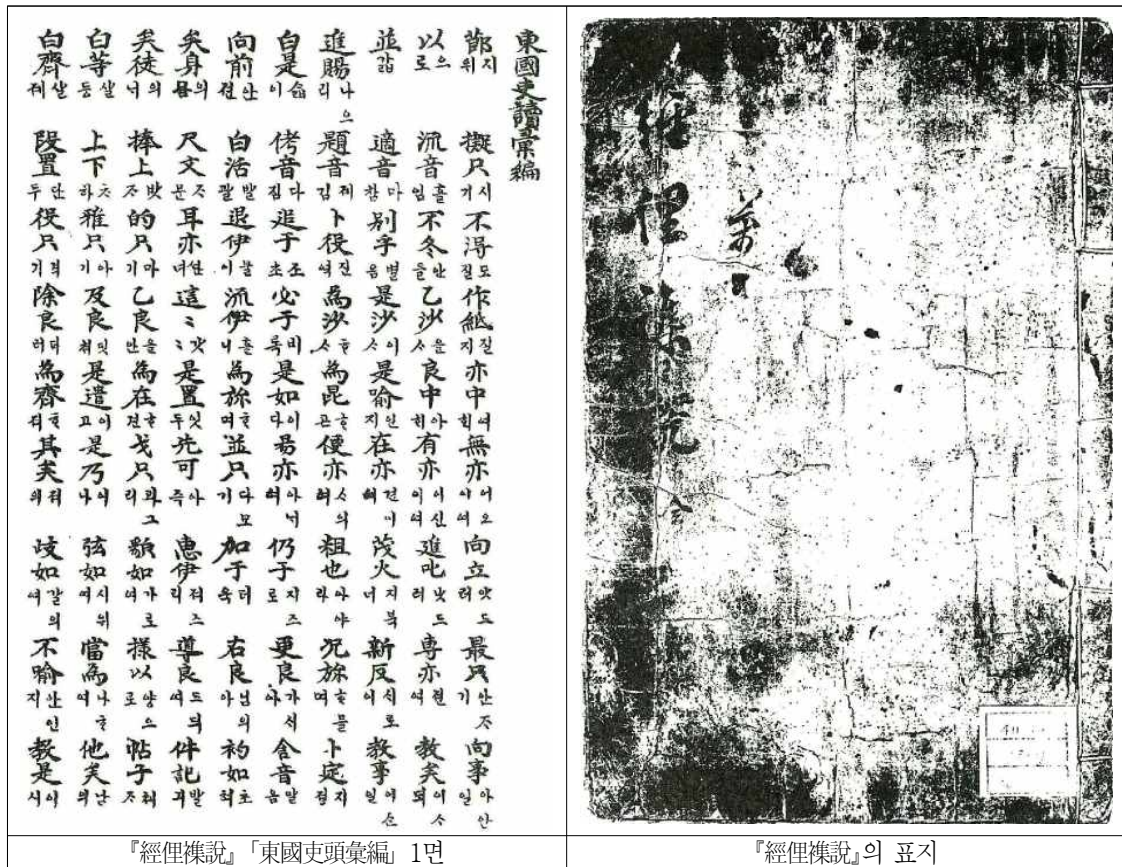
내용주기 : 水滸傳語錄解. -- 東國吏讀彙編

언어 : 한국어

18) ‘을’은 ‘을’의 오기인 듯하다.

19) 장서각 소장 『儒胥必知』(3-680)

20) 『公私恒用錄』(동경대학 오구라문고 L174641)의 「吏頭彙編」



「東國吏讀彙編」에는 모두 240개의 이두가 적혀있다.

목판본 『유서필지』의 「吏讀彙編」과 필사본 「吏讀彙編」, 그리고 『經俚裸說』의 「東國吏讀彙編」의 몇 이두의 독음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목판본 「吏讀彙編」	필사본 「吏讀彙編」	『經俚裸說』의 「東國吏讀彙編」
並 𪛗 / 並 囚 𪛗	並 𪛗 / 並 囚 𪛗	並 𪛗 / 並 囚 𪛗
白是 𪛗이	白是 𪛗이	白是 𪛗이
白等 𪛗등	白等 𪛗등	白等 𪛗등
段置 𪛗두	段置 𪛗두	段置 𪛗두
適音 𪛗잡	適音 𪛗잡	適音 𪛗잡
必于 𪛗록	必于 𪛗록	必于 𪛗록
使內白 𪛗리𪛗	使內白 𪛗리𪛗	使內白 𪛗리𪛗
秩秩以 𪛗릴로	秩秩以 𪛗릴로	秩秩以 𪛗릴로
爲白去乙 𪛗𪛗거늘	爲白去乙 𪛗𪛗거늘	爲白去乙 𪛗𪛗건을
是白乎等以 𪛗𪛗은들노	是白乎等以 𪛗𪛗은들노	是白乎等以 𪛗𪛗은들노
歧等如使內如乎 가로러바리다온	歧等如使內如乎 가로러바리다온	歧等如使內如乎 가로러바리다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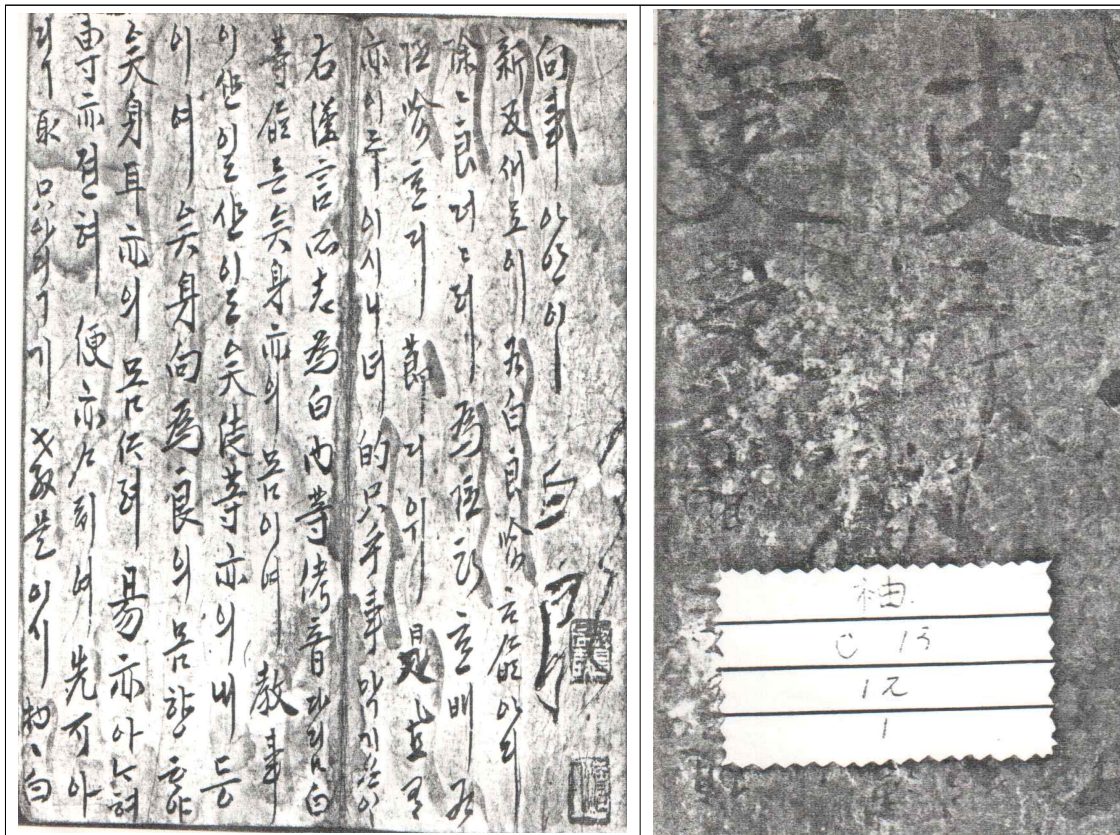
3.10. 『注解語錄總覽』의 「吏文語錄」

『注解語錄總覽』은 1919년에 白斗鏞이 「語錄解」에 「水滸志語錄」·「西遊記語錄」·「西廂記語錄」·「三國志語錄」 등의 語錄과 吏讀을 수록한 「吏文語錄」을 모아서 편찬한 책으로, 1권

3.11. 「吏文」

이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아직 연구자들에게 잘 소개되지 않은 듯하다.

자료유형 : 고서(한국본)
 소장분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서명 / 저자 : 吏文 全 / [編者未詳]
 관사항 : 筆寫本
 발행사항 : []: [], [年紀未詳]
 형태사항 : >4折1帖; 11×6.7cm
 일반사항 : 서제: 書名: 表紙에 依함
 청구기호 : C13 12



4. 結

이상 지금까지 알려지고 소개된 조선시대 吏讀 學習書 10여 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서지사항과 이두와 이두 독음 등에 대해 개관하였다.

아쉬운 것은 이들 자료의 원본이나 영인본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두 학습서들의 서지적 사항과 간행의 선후 관계를 구명한 연구도 많지 않다. 앞으로 이들 학습서에 대한 서지적인 연구와 간행의 선후 관계에 대한 연구, 영향 관계 등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들 이두 학습서의 영인·간행 작업도 이루어져서 이두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전섭(1972), “『儒胥必知』에 對하여”, 『어문학』 27호, 어문학회.
- 고정의(2003), “이두 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 錦峯學人 편(1957), 『吏讀資料集成』(등사본), 국어국문학자료총서 제3집.
- 김근수 편(1975), 『吏讀資料選集』, 아세아문화사.
- 김봉좌(2005), “『유서필지』 판본 연구”, 『서지학보』 29집, 한국서지학회.
- 김선희(2015), “『新式儒胥必知』 고찰”, 『서지학연구』 63집, 한국서지학회.
- 김승호(1993), “이두의 전래 독음에 대하여”, 『동남어문논집』 3집, 동남어문학회.
- 김영만(1981), “유서필지의 이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태균(1968), “『吏讀資料集』”, 『京大文學』 3집,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홍석(1999), 『조선후기 이두 학습서의 이두 고찰: 『吏文襟例』와 『유서필지』를 중심으로, 『한어문 교육』 7집, 한국어문학교육학회.
- 배대온(1993), 『이두어휘론』, 형설출판사.
- 배대온(2003), 『역대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 아세아문화사(1975), 『이두자료선집』.
- 안병희(1983), “『吏讀文獻 吏文大師』에 대하여”, 『동방학지』 38집, 연세대 어학연구원.
- 안병희(1984), “『典律通補』와 그 『吏文』: 典律通補와 그 吏文에 대하여”, 『목천 유창균 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계명대출판부.
- 안병희(1986), “이두문헌 『吏文』: 吏讀文獻 『吏文』에 대하여”, 『배달말』 11, 경상대 배달말학회.
- 안병희(1986), “이두학습서에 대하여”, 『제1차 KOREA학 국제교류세미나 논문집』, 중국 목단강시: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안병희(1987), 『吏文과 吏文大師』, 국어학연구선서 11, 탑출판사.
- 안병희(1999), “『吏文과 吏文大師』를 다시 논함”, 『겨레문화』 13, 한국겨레문화연구원.
- 안병희(2001), “『吏讀便覽』에 대하여”, 『서지학보』 25호, 한국서지학회.
- 안병희(2001), “『震覽 解題』”, 『서지학보』 25, 한국서지학회.
- 안병희(2009), 『國語史 文獻 研究』, 신구문화사.
- 연세학풍사업단(2015), 『홍순혁 저작집』, 연세사료총서 3, 해안.
- 유탉일(1984), “경관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를 위한 모색”, 『도남학보』 7-8집, 도남학회.
- 이병기(1940), “조선어문학명저 해제”, 『文章』 II-8.
- 장경준(2007), “경리잡설(經里雜說)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 전경목 외 4인(2006), 『유서필지: 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사계절출판사.
- 전경목(2006), “『유서필지』 編刊과 고문서학적 의의”, 『儒胥必知: 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사계절출판사.

최범훈(1974), “「儒胥必知」 攷: ‘吏頭彙編’의 國語學的 價値”, 『새국어교육』 18·19·20 합병호, 한국국어교육학회.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홍순혁(1946a), “隨錄: 吏讀語彙文獻에 대하여”, 『鄉土』 제4호, 정음사.

홍순혁(1946b), “隨錄: 「吏文」과 「吏文大師」”, 『鄉土』 제4호, 정음사.

홍순혁(1946c), “儒胥必知 小考”, 『한글』 11권 3호(제96호), 한글학회

홍순혁(1947), “儒胥必知 小考(續)”, 『한글』 제99호, 한글학회.

홍순혁(1948), “吏讀 文獻 ‘吏文 襍例’ 小考”, 『한글』 13권 3호(제105호), 한글학회.

『古今釋林』의 ‘羅麗吏讀’와 이두

박용식 (경상대)

1. 서론

‘羅麗吏讀’(이하 <나려>)는 1789년 이의봉(李義鳳)이 이두 항목을 정리하여 풀이한 글이다. <고금석림>의 권40의 끝 부분에 ‘附錄 外篇’으로 실려 있다. 모두 7장이며 수록된 이두 항목은 모두 172개이다. <나려>의 이두 항목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정익(2003), 장세경(2001)에서 이두 학습서 전반의 이두 항목을 정리하면서 <나려>의 것도 정리한 바 있다. 안병희(1986ㄱ,ㄴ)에서는 다른 이두 학습서와 구별되는 <나려>의 특징을 정리함은 물론 <나려>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이문>과의 관계도 기술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나려>의 판독과 오류 양상은 물론 이두 항목 기술방식의 특징과 더불어 수록된 이두 항목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2. 이두 항목 기술 방법

<나려>는 다음과 같이 이두 항목 아래에 쌍행으로 독음을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음이 2개일 경우 ‘擬只’의 ‘시기, 비기’의 경우와 같이 가로로 나란히 적는다. 반면 이두음이 아닌 이두 항목의 뜻을 적을 때는 세로로 쌍행으로 적기도 하고 ‘他矣’의 경우와 같이 세로로 적으면서 두 이두음 사이에 ‘又’를 적어주기도 한다.

耳 亦 러 亦 러	使 亦 러 亦 러	向 入 러 入 러	擬 只 기 只 기	舍 音 문 音 문 者 音 主 音 舍 音 音	羅 將 之 音 之 音 之 音	他 矣 더 矣 의 矣 의	向 馬 良 向 馬 良	色 之 類 改 音 色 音 音 音 音	進 賜 官 通 祿 進 賜 官 通 祿
-----------------------	-----------------------	-----------------------	-----------------------	--	--------------------------------------	---------------------------------	----------------------------	--	--

이두음은 다른 이두 학습서와 마찬가지로 한글 적지만 아래 ‘向爲良’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경우도 있다. 이두 항목의 제시 방법 가운데 <나려>가 다른 이두 학습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이두 항목의 뜻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때는 ‘舍音’과 같이 이두음을 제시한 뒤 그 아래에 뜻을 적기도 하고, ‘進賜’와 같이 이두음을 적고 동그라미를 적은 뒤에 뜻을 적기도 한다.

<나려>에서 이두 항목의 독음과 뜻을 제시한 용례는 아래와 같다.

約正; 약정 外色面里任稱約正

監考; 감고 管場市之任

勸農; 권농 卽古薦人

召史; 소시 良民之妻旡召史

舍音; 실음 主管農庄者旡舍音

告課; 고과 下告上少稱詮次告課

進賜; 나으리0壹官通稱進賜

分揀; 분간0有過曰分揀

結尾; 결미0言結末

尺文; 지문0今外邑人納錢穀於京司受文蹟以備憑考者

色; 밋政色軍色之類皆曰밋

上; 자還上奉上外上皆曰자

<나려>에서 이두 항목의 이두음 없이 뜻만 적은 용례는 아래와 같다.

告課; 下告上必稱詮次告課

等狀; 多人列名呈狀謂之等狀

羅將; 皂隸之稱

私通; 吏胥去來文傳謂之私通

曖昧; 分疏之辭

遲晚; 罪人服摠謂之遲晚

所志矣段; 所志者下呈上之文矣段者語助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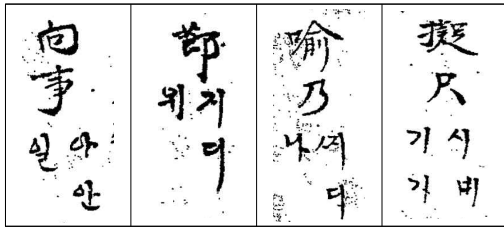
項鎖足鎖; 嚴囚罪人以防逃送

위 20항목을 제외한 152항목은 한글로 독음만 달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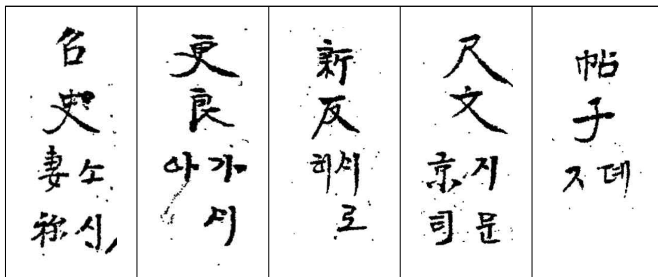
3. 판독(判讀)과 교감(校勘)

<나려>에서 이두 항목 아래 독음이 3음절일 때 ‘向事; 아안일’과 같이 적지만 ‘諭乃; 씨디나, 節; 지디위’는 각각 ‘씨나, 디나’ ‘지위, 디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節’의 경우 다른 이두 학습서에는 ‘디위<吏師, 吏便>, 지위<羅麗, 物譜, 語錄, 儒必, 吏讀, 吏襍, 朝鮮, 集成>, 진위<典律>’로 나타나며, ‘諭乃’는 ‘디나<羅麗, 語錄, 吏便>, 씨나<羅麗> 다나<典律>’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擬只; 시기, 비기’와 같이 두 독음을 가로로 나란히 적어야 하지

만 각각 제2음절의 ‘나, 위’를 적지 않은 것이다.



‘召史; 소사’의 경우 고정익(2003:?)에서는 ‘소식’으로 판독하였지만 ‘식’이 ‘가식아, 식로히’와 비교해해 보면 아무래도 ‘식’의 ‘·’ 위치가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를 ‘소시’로 판독하고 ‘소사’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본다. ‘召史’는 다른 자료에는 ‘쇼사<集成>, 쇼스<朝鮮>, 조이<儒必2, 朝鮮>, 조이<集成>’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문’의 경우도 다른 자료에서 ‘자문<吏文, 吏師, 吏襍, 朝鮮>, 잣문<集成>, 자문<物譜>, 즈문 <儒必, 吏方>, 척문<朝鮮>’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자문’의 오류로 볼 수 있다. ‘帖子’의 경우 <나려>에는 ‘테즈’으로 되어 있지만 이 역시 ‘테즈’ 혹은 ‘테자’의 오류이다. 다른 자료에는 ‘체즈 儒, 체자 語’ 등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통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帖字’가 다른 이두 학습서에는 ‘체자<吏方>, 체즈<儒必>, 쳇자<集成>, 테즈<吏文>’ 등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나려>의 이두 항목 기술에서 독음의 오류로 볼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두 항목	독음	교정	다른 이두 학습어
段置	다두	단두	단두<物譜, 儒必, 吏襍>, 판두<吏師, 朝鮮, 集成>, 쏘두<吏方>
敎事	이산	이산스, 이산일	이산스<吏文, 吏師>, 이산얼<物譜>, 이산일<吏方, 吏師, 吏襍>, 이산일<儒必, 典律, 集成>, 이신스<語錄>
爲行如可	헝더다가	헝녀다가	하얏다가<朝鮮, 集成>, 헝녀다가<吏文>, 헝녀짜가<吏師>, 헝라다가<典律>, 헝려다가<語錄, 吏便>, 헝여나가<儒必>, 헝여짜가<吏襍>, 헝엿다가<儒必>, 흘여타가<吏讀>
爲白置有亦	헝올두이 신니쇠	헝올두이 신니여	헝올두이시니여<吏文>, 하삶두이신이여<集成>, 헝숯두이여<吏便>

위에서 ‘段置; 다두, 敎事; 이산’ 등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지만 ‘爲行如可; ㅎ더다가, 爲白置有亦; ㅎ올두이신쇠’ 등은 저경(底經)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글자 모양의 비슷함 때문에 생기는 오류로 볼 수 있다. ‘너, 여’ 등을 ‘더, 쇠’ 등으로 잘못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음 외에 이두 항목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다. ‘逃亡合是遣; 도망ㅎ이고’ 역시 안병희(1983:10)에서 1658년에 간행된 <吏文(동국대본)>에서 같은 항목의 ‘슴’을 ‘슴(?)’으로 보았듯이 글자 모양의 비슷함 때문에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 ‘爲如乎’는 ‘爲如乎; ㅎ드온’, ‘爲如乎; 이드온’으로 중복 수록되어 있다. ‘爲如乎; 이드온’은 “是如乎; 이드온”의 오류로 볼 수 있다. ‘四字類’의 ‘爲白如可; ㅎ올짜가’는 같은 항목을 두 번 적은 경우이다.

‘乙仍于; 지즈루’는 ‘을디즈루<吏便>, 을즈즐우<語錄>, 을지즈로<儒必, 集成>, 을지즈루<吏師>, 을지즐우<吏襍>’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즈루’는 ‘을지즈루’의 오류로 볼 수 있다. 다만 <吏文(동국대본)>뿐만 아니라 <나려>와 비슷한 시기의 자료인 <典律通補初考本, 1761>과 1786년의 이 초고본의 수정본에도 ‘지즐우<吏文>, 지조로, 지즈로’ 등으로 나타나기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乙仍于’를 ‘지즈루/지즐우/지조로/지즈로’ 등으로도 통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役只除良; 격기더러, 已爲決折; 이위결절’ 등은 ‘釋詁’보다는 ‘釋言’으로 분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役只除良, 已爲決折’ 등은 각각 ‘겪이할뿐더러¹⁾, 이미 판결함’이란 뜻인데 이는 ‘敎是白乎脉, 是白在亦中’과 같이 문법 형태의 항목과 같이 묶이는 것보다는 ‘위에 손을 대지 못한다. 추후에 현납하다’의 뜻이 있는 ‘仰不下手, 迫乎現納’ 등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다.

4. 이두 항목 특징

4.1. 의미별 분류

<나려>는 이두 항목을 글자 수로 나눈 뒤 이두 항목의 뜻에 따라 나누고 있다. ‘二字類’의 경우 ‘釋刑-釋名-釋言-釋詁-釋事-釋物-釋官-釋文-釋法’ 순서이다. ‘釋言-釋詁’는 ‘三字類, 四字類’에도 항목이 있는데 그 순서는 일정하다.

釋詁 (118)	節, 敎, 上, 色, 白等, 適音, 爲乎, 爲齊, 爲遣, 爲脉, 爲昆, 新反, 段置, 良中, 導, , 更良, 及良, 除良, 敎事, 敎是, 敎矣, 弋只, 并只, 唯只, 役只, 擬只, 的只, 向入, 易亦, 使亦, 專亦, 耳亦, 迫乎, 仍于, 先可, 絃如, 是如, 粗也, 況脉, 不喻, 喻乃, 上下, 這這, 此亦中, 爲巴只, 爲有置, 爲等如, 爲去等, 爲, 乙, 爲白遣, 爲白昆, 爲白爾, 爲如乎, 爲乎所, 爲乎矣, 爲如乎, 乙仍于, 是良爾, 岔不喻, 向爲良, 良中沙, 秩亡以, 上白是, 役只除良, 已爲決折, 敎味白如, 是沙餘良, 是白良置, 是白去乎, 爲良如敎, 爲行如可, 爲有如乎, 爲臥乎所, 爲有去乙, 爲白在果, 爲白去乎, 爲白去乙, 爲白乎脉, 爲白乎事, 爲白乎矣, 爲白乎所, 爲白所置, 爲白良置, 爲白良結, 爲白良沙, 爲白有置, 爲白有昆, 爲白只爲, 爲白如可, 退伊相考,
-------------	---

1) 손님을 대접하는 일, 큰 잔치를 치르는 일 등 큰 일을 치러 내는 것을 “겪이”라고 한다.

	爲白如可，矣身茂火，惠伊分揀，別乎督徵，許多卜役，進叱使內，仕官出干，粗也措備，加于過甚，教是白乎旆，是白在亦中，直爲所如中，爲有在而亦，爲白在如中，爲白沙餘良，爲白置有亦，爲白(分+叱)不喻，爲白有在果，爲白乎乙喻，爲白有等以，爲白臥乎事，逃亡，是遣，是白有臥乎所，加于支當不得，未盡條件乙良，使亦不納爲乎樣以，白俵，白臥乎在亦，爲白良結望良白去乎，
釋言(25)	詮次，告課，白活，俵音，作文，向前，始叱，他矣，并以，別乎，初亦，岐如，到付，符同， 次知 ，參商，辭緣，爻周，的實，曖昧， 矣身亦，矣徒等，其徒等，仰不下手，，追乎現納
釋文(11)	有旨，粘移，帖子，重記，等狀，結尾，尺文，告目，件記，私通，所志矣段
釋名(6)	羅將，約正，監考，勸農，舍音，召史
釋事(5)	行下，磨勘，推刷，推闕，向事
釋法(3)	遲晚，分揀，項鎖足鎖
釋物(2)	物物，卜定
釋官(1)	進賜
釋刑(1)	根脚

4.2. <나려>의 이두 항목 고유성과 독음

<나려>의 유일 용례, 고정익(2003)에 수록

上; 자

上白是; 상술이

仰不下手; 양불하슈

使亦不納爲乎樣以; 슌리여블납양으로

教味白如; 이산맛살자

是白有臥乎所; 이살빚누온바

未盡條件乙良; 민진조건으란

爲白(分+叱)不喻; 헝올썬아난지

爲白所置; 헝올바두

爲白有等以; 헝올비썬노

爲白爾; 헝올아금

粗也措備; 이야라조비

粘移; 첨이

色; 빗

追乎; 조초

追乎現納; 조초현납

進叱使內; 닛부리왜라

장세경(2001)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고정익(2003)에 수록되지 않은 용례

參商; 참상

次知; 츠지음.

的實; 적실

有旨; 유지

重記; 등기

遲晚; -罪人服摠謂之遲晚

帖子; 데즈

推刷; 추쇄

所志矣段; -所志者下呈上之文矣段者語助詞

已爲決折; 이위결절

許多卜役; 허다지역

加于過甚; 더욱과심

장세경(2001)의 ‘특수용어사전’ 수록 용례

約正; 약정 약정外邑面里任称約正

項鎖足鎖; 嚴囚罪人以防逃送

표기법과 독음

爲白乎矣; ㅎ올보되, ㅎ옴오되<吏文> 하샴오되<朝鮮, 集成>, ㅎ샴오되<物譜>, ㅎ옴오되<儒必, 吏便>, ㅎ옴오되<典律>

爲白有置; ㅎ올비쑤, 하샴빗두<朝鮮, 集成>, ㅎ솔잇두<吏讀>, ㅎ옴잇두<儒必, 吏便, 典律>

敎是白乎拏; 이시올부며, 이시옴오며<吏便> 이시샴오며<朝鮮, 集成>

‘爲’와 ‘白’의 독음

ㅎ옴<吏文> - ㅎ올<羅麗>

‘아직’ - [우선]의 뜻으로 쓰임.

先可: 아직<羅麗, 物譜, 儒必, 吏文, 吏方, 吏師> 아딕<吏便>, 아즉<儒必, 朝鮮, 集成>, 이가<吏讀>, 이직<吏櫟>

5. 결론.

참고문헌

강전섭(1972), 「유서필지」에 대하여, 어문학 27, 한국어문학회. 13-26.

고정의(2003), 이두 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223-252.

박형익(2003), 『유서필지(儒胥必知)』의 "이두회편(吏讀彙編)",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313-326.

안병희(1986ㄱ), 이두의 학습서에 대하여, 제2차 KOREA학 국제교류세미나 논문집, 중국, 牡丹江市 黑龍江長族出版社.

안병희(1986ㄴ), 이두 문헌 <이문 吏文>에 대하여, 배달말11, 배달말학회.

- 오창명(1995), 조선전기의 (朝鮮前期) 이두항목 (吏讀項目) 정리 (1), 고문서연구7, 한국고문서학회, 127-180.
- 오창명(1996), 조선전기 (朝鮮前期) 이두항목 (吏讀項目) 정리 (2), 고문서연구8, 한국고문서학회, 147-220.
- 이병기(1940), 조선어문학명저해제, 문장 2-8, 문장사. 215-231.
- 장경준(2007), 경리잡설(經里襍說)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409-443.
- 전경목(2006), 19세기 『유서필지』 편간의 특징과 의의, 장서각 15, 한국학중앙연구원. 131-170.
- 채영순(2008), 『고금석림』의 중국언어사적 연구 가치, 중어중문학 43, 한국중어중문학회. 467-490.
- 최범훈(1974), 「유서필지」 고, 새국어교육 18, 한국국어교육학회. 152-166.
- 최범훈(1975), 「유서필지」 고 - 「이두회편」의 국어학적 가치, 상서 1, 한국장서가회. 62-71.
- 홍순혁(1946), 유서필지 소고 (1), 한글 96, 한글학회. 189-195.
- 홍순혁(1947), 유서필지 소고 (2), 한글 99, 한글학회. 426-434.

文釋 有 旨 子 升
 官釋 進 賜 官 通 祿 進 賜 堂
 物釋 物 物 火 火
 向事 向 事 火 火
 推刷 推 刷 火 火
 行下 行 下 火 火
 這這 這 這 火 火
 喻乃 喻 乃 火 火

上下 하차
 推闖 변취
 卜筮 덩지
 粘移 이철

役尺 的尺 易亦 專亦 追手 先可 是如 况称
 적오 기마 히늘 히늘 호호 하하 카이 ㅎ을
 羅鹿 呼

擬尺 向入 使赤 耳亦 仍于 絃如 粗也 不踰

기 아 러 서 리 허 여 러 기 시
니 야 우 조 트 리 드 기 비

其徒等 기러 등
 此亦中 이亦中
 為有置 유有置
 為去等 유去等
 為白遣 유白遣
 為白甬 유白甬
 為子所 유子所
 為如子 유如子

乙	為	為	為	為	為
仍	乎	如	白	等	已
于	矣	乎	昆	如	只
루	지	은	은	허	호
즈	오	하	을	크	도

帖子
 等狀多人列名呈
狀謂之等狀
 尺文司是力今外
京司矣父蹟
 告目跡者皆尊者
之書稱告目
 私通史胥去來文
傳謂之私通
 違晚罪人服抵
謂之違晚
 三序類
 擇身亦刑苦
 羅鹿

重記 중기
 結尾 결미
 伯錢 백전
 憑考 빙고
 件記 변기
 分揀 분拣
 過日 과일
 分揀 분拣
 矣徒等 이타등

為良如教 이 사 하
 為有如乎 이 온
 為有去乙 이 온
 為有去乎 이 온
 為有乎矣 이 온
 為有乎所 이 온
 為有良結 이 온

為行如可 이 온
 為有在果 이 온
 為有去乙 이 온
 為有乎事 이 온
 為有乎所 이 온
 為有良置 이 온
 為有良沙 이 온

為有良置 이 온
 為有良沙 이 온
 為有良結 이 온
 為有良置 이 온
 為有良沙 이 온
 為有良結 이 온
 為有良置 이 온
 為有良沙 이 온
 為有良結 이 온
 為有良置 이 온
 為有良沙 이 온
 為有良結 이 온

是良爾 이 온
 向馬良 이 온
 秩亡以 이 온
 四字類

從不逾 이 온
 良中沙 이 온
 上白是 이 온
 進手現納 이 온
 己為決折 이 온
 是沙餘良 이 온
 是白去乎 이 온

為有良置 이 온
 為有良沙 이 온
 為有良結 이 온
 為有良置 이 온
 為有良沙 이 온
 為有良結 이 온
 為有良置 이 온
 為有良沙 이 온
 為有良結 이 온
 為有良置 이 온
 為有良沙 이 온
 為有良結 이 온

逃亡合是遣 이 고 망

六字類

註釋 是白有耳手所 이 살 빚 加于文當不得 더 우 지

未盡条件乙良 전 으 란

八字類

註釋 使亦不綱為手樣以 다 리 어 불

白傍是白即手在亦 은 전 이 어

九字類

釋林 四十 羅麗

註釋 為白良結望良白去手 은 은 어

附訓民正音 대 삼

註文字母 은

初釋終拜通用八字

丁 後其 乙 其 丙 其 己 其 乙 其 丙 其 己 其 乙 其

未 其 未 其 未 其 未 其 未 其 未 其 未 其 未 其

其凡池梨眉非時異八音用於初拜

後隱 其 乙音邑 其 疑八音用於終聲

『吏讀便覽』의 吏讀와 吏文에 대하여

김성주 (동국대)

1. 서론

『吏讀便覽』은 18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두학습서 중의 하나로, 다른 이두학습서와 달리 凡例를 가지고 있으며, 이두와 이문은 물론 고유어 및 외래어 단어들도 구분하여 실고 있다. 현재 前間本, 가람본, 濯足本, 전주본 등 4개의 이본이 전한다. 前間恭作(1929)은 이 책이 館閣文臣에 의해서 편찬되어 藝閣 즉 校書館에서 활자로 간행되었다고 하였으나(前間恭作 1929:46), 간행은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추정된다(안병희 2001).

다른 이두학습서와는 달리 이두와 이문을 분리하여 실고 있는데 이두는 이두학습서 중에서 가장 많은 305개이나 표제어와 독법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문은 최세진의 『吏文輯覽』 중에서 당시 통용되는 것들을 뽑아 실었다. 그리고 당시에 통용되던 고유어 또는 외래어 명사류 단어들을 실어 놓은 점은 이 책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단어들은 제3장 行用吏文에 실려 있는데, 안병희(2001)은 이 책에 수록된 이두와 이문보다는 행용이문에 실린 명사류 단어들에 중요성을 더 많이 부가하고 있다.

이 글은 『이두편람』의 이본 중의 하나인 가람본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글이면서도 『이두편람』의 제 이본의 내용과 형태 서지를 면밀히 고찰한 안병희(2001)을 바탕으로, 『이두편람』의 내용 중 국어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제1장 이두편람의 이두와 제3장 행용이문의 명사류 단어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서지와 구성¹⁾

『이두편람』은 18세기나 그 이후에 필사된 사본으로 현재 4개의 사본이 알려져 있다. 『이두편람』의 구성은 크게 吏讀便覽凡例, 吏讀便覽, 輯覽吏文, 行用吏文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²⁾ 吏讀便覽凡例는 서문과 책의 체제에 대한 내용이, 제1장 吏讀便覽은 이두 가운데 주로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것을 1字類에서 10字類로 글자 수에 따라 나열하고 독음을 제시한 것이며, 제2장 輯覽吏文은 최세진의 『吏文輯覽』에서 당시 통용되던 吏文을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고, 제3장 行用吏文은 吏文과 吏讀文에서 名詞類에 속하는 용어를 모아서 풀이한 것이다.³⁾

1) 『이두편람』의 서지에 대해서는 안병희(2001)를 참조하였으며, 이 글의 나머지 부분도 이 논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2) 이 글에서는 凡例를 제외한 吏讀便覽, 輯覽吏文, 行用吏文 부분을 편의상 제1장, 제2장, 제3장으로 표현하여 기술한다.

3)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dir/viewIf.jsessionid=83A57D88CEF24B4A20AFE9E67840C63E?uci=RIKS+CRMA+KSM-WO.0000.0000-2014\)0417.TOYO_1197](http://kostma.korea.ac.kr/dir/viewIf.jsessionid=83A57D88CEF24B4A20AFE9E67840C63E?uci=RIKS+CRMA+KSM-WO.0000.0000-2014)0417.TOYO_1197))에서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前間本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고, 『書誌學報』 25호에는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가람본이 영인되어 있다.

『이두편람』의 이본은 현재 4개의 필사본이 전하고 있다. 이들을 제시하면 아래의 (1)과 같다.

- (1) 가. 前間本: 이두 항목수 305개, 총17장, 소장처: 일본 東洋文庫, 비교: 협주가 비교적 없음, 고려대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볼 수 있음
- 나. 가람본: 이두 항목수 291개, 총19장, 소장처: 서울대 가람문고, 비교: 『震覽』의 일부분임, 『서지학보』 25에 영인
- 다. 濯足本: 이두 항목수 295개, 총19장, 外題: 吏讀便覽(吏讀攷), 소장처: 일본 駒澤大學 도서관, 金澤庄三郎의 舊藏本
- 라. 전주본: 이두 항목수 303개, 총22장, 소장처: 전주고등학교(현재 분실 상태임), 金近洙 編(1957) 『吏讀資料集成』(油印本)에서 전체 내용을, 이기문 編(1975) 『吏讀資料選集』에 吏讀便覽 부분을 볼 수 있음

前間本은 17장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으로 현재 일본의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고려대 해외한국학연구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 책은 다른 『이두편람』의 이본과 마찬가지로 吏讀便覽凡例와 제1장 吏讀便覽, 제2장 便覽吏文, 제3장 行用吏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前間本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에 협주가 없다는 사실이다. 前間本 이외의 가람본, 濯足本, 전주본은 넘나들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본문에 협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前間本은 『이두편람』의 초고본이 만들어진 이후 비관이나 보완의 협주가 붙기 전의 원고본 내지 초기 필사본을 대본으로 하여 필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前間本은 『이두편람』의 4개의 현전본 중에서 가장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3장 行用吏文의 ‘汰’ 항목 아래에 있는 附箋에 쓰여진 협주 즉 ‘『신증동국여지승람』(권8, 15ㄴ)의 ‘汰村處’라는 지명과 우리나라 말에 풀을 싹과 함께 묶어 놓은 것을 자라라 하는데, ‘茲乙阿’ 세 글자를訓으로 하고 音義가 없다’는 前間恭作이 붙여 놓은 것으로 원래 쓰인 협주와 구분된다.

범례에서 처음 두 조항은 大字로 쓰인데 비해, 그 다음부터는 小子 雙行으로 쓰여 있는데 처음 두 조항은 범레이기보다는 서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나머지 범례와 구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 제1장 이두편람에 수록된 표제항의 수효는 305개로 『이두편람』의 이본 중 가장 많다. 표제항의 관점에서도 前間本이 원래 원고본의 모습에 제일 가까운 이본으로 볼 수 있다. 이두의 수효만 놓고 보면 『이두편람』의 4개의 현전본은 가람본과 濯足本이 한 계통이 되고 前間本과 전주본이 한 계통이 된다. 前間本의 표제어 중에는 ‘白乎脉(슬오며)’와 ‘是置是是亦(이두이신이여)’가 전주본보다 더 있다.⁵⁾ 제2장 輯覽吏文은 124조항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端布’로 시작되는 2字類 37개가 輯覽吏文 앞에 아무 제목도 없이 놓여 있다. 이런 현상은 전주본을 제외한 前間本, 가람본, 濯足本에 공통된다. 제3장 行用吏文의 표제어는 『이두편람』의 이본이 대동소이하지만 前間本에는 ‘矣(주비), 汰(즈래), 𪛗(둘), 수(마), 太(콩)’은 앞의 주석만 있고 권점 ‘○’ 아래의 주석은 없다. 이런 점을 보아도 前間本은 4개의 이본 중에서 원래 원고본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람본은 『이두편람』의 이본 중 가장 늦게 발견된 것으로 『서지학보』 25호에 영인되어 있다. 같은 잡지에는 가람본에 대한 논문인 안병희(2001)도 실려 있다. 이 책은 吏讀便覽凡例 5항과 제1장 吏讀便覽의 표제어 291개, 제2장 便覽吏文의 표제어 121개, 제3장 行用吏

4) 『이두편람』의 범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병희(2001:7-11)을 참조할 것.

5) 이 중 후자는 ‘是置有是亦(이두이신이여)’를 잘못 쓴 것이다.

文의 표제어 172개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의 첫 번째 조항의 끝에는 薛摠에 대한 『東國輿地勝覽』의 기록 이후에 圈點 ‘○’을 하고 추가로 ‘此條恐非凡例法恐或刪削’의 협주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범례의 내용을 범례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삭제해야 할 듯하다는 견해를 밝혀 놓고 있다. 이러한 협주가 天頭에 서사되지 않고 본문 사이사이에 기술된 점이 『이두편람』이 간행되었다는 前間恭作(1929, 1957, 1974)의 주장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안병희 2001: 7-8, 19-20). 가람본의 이두 표제항은 전주본이나 前間本에 비해 빠진 것도 많고 잘못된 곳도 많으며, 독법도 잘못된 곳이 많다. ‘敎是如在中’와 ‘不知得’은 각각 ‘敎是在如中’과 ‘知不得’의 잘못이다. 전주본과 前間本은 구개음화 이전의 독법이나 원래 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이두의 독법을 구개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생각하여 구개음화 이전의 어형 즉 소위 역구개음화 어형으로 표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람본의 독법은 이러한 항목들이 모두 구개음화된 모습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2장인 輯覽吏文의 가장 큰 특징은 ‘吏文’과 ‘輯覽吏文’으로 나뉘어 서사되어 있는 점이다. 사실은 ‘吏文’에 수록되어 있는 37개의 표제어들은 ‘輯覽吏文’의 2字類에서 서사되었어야 할 것들이다. 제3장 行用吏文은 『吏讀便覽』의 이본들이 공통적으로 1字類에서 3字類를 기술하고 있으나 가람본의 경우 3字類가 끝난 다음에 1자류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一字類’라는 제목 하에 다시 기술되어 있는 점이다.

濯足本은 前間(1954:1887)에 간단히 설명되어 있으나 잘못이 많다고 한다.⁶⁾ 濯足本은 대체로 가람본과 유사한데 이두의 표제어 수효는 294개로 가람본보다 ‘爲白乎(ᄃᆞᆫᄇᆞᆫ), 爲置(ᄃᆞᆫᄇᆞᆫ), 爲乎(ᄃᆞᆫᄇᆞᆫ)’ 등 3개가 더 많다. 두 책에 함께 수록된 이두도 필사에서 잘못이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두편람』의 이본들은 제2장 輯覽吏文에서 ‘端布’로 시작되는 2자류가 제목인 ‘輯覽吏文’ 앞에 실려 있는데 濯足本도 가람본, 前間本과 함께 이런 유형의 이본에 속한다. 濯足本은 가람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敎是如在中’이라는 誤字까지도 일치할 보인다. 제2장 輯覽吏文도 가람본과 거의 일치하며 ‘甘結, 完議, 眼同’과 ‘口子, 暗礁’ 등을 실어야 한다는 협주까지도 일치하나 협주가 달린 위치가 다르다. 제3장 行用吏文의 표제어의 수와 주석 등도 가람본과 거의 같다. 지금까지 기술된 사실로 미루어 濯足本은 가람본과 같은 계통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전주본은 현재 원본을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金近洙 編(1957)과 이기문 編(1975)를 참조해서 기술한다. 모두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범례와 제1장 이두편람, 제2장 편람이문, 제3장 행용이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다른 이본과 같다. 범례에서는 擡頭法과 空格의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이본에서 범례의 제1항 끝에 위치한 협주가 제목인 ‘吏讀便覽凡例’의 아래로 있으며 여기에는 ‘讀音두’라는 협주도 더 붙어 있다. 제1장 이두편람의 표제어 항목 수는 303개로 前間本과 대동소이하다. 독법에서는 前間本과 같이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독법이 많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또한 본문에 붙어있는 협주의 수도 『이두편람』의 이본 중에서 가장 많다. 아마도 현전하는 『이두편람』의 이본 중에서 가장 증보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2장 집람이문의 체제는 전주본이 가장 잘 처리되어 있다. 전주본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에서는 모두 ‘端布’로 시작하는 2字類가 ‘輯覽吏文’이라는 前間本과 같이 제목 앞에 아무 제목 없이 놓여 있거나, 가람본이나 濯足本과 같이 ‘吏文’이라는 제목 아래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은 제2장 輯覽吏文의 2字類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주본은 이들이 모두 제2장 집람이문의 2字類 속에 잘 배치되어 있다. 또한 가람본에서 제3장 行用吏文의 四字類 뒤에 있

6)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전적으로 안병희(2001)에 의거한다.

는 ‘輯覽吏文’에 대한 주석이 전주본에서는 제2장 輯覽吏文의 뒤에 바르게 들어가 있다. 제3장 行用吏文의 체제도 올바르게 되어 있다. 행용이문에 수록된 표제어 수는 172개이다.

3. 『이두편람』의 이두의 특징

3.1. 『이두편람』 현전본들의 차이⁷⁾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두편람』의 현전본들은 前間本, 가람본, 濯足本, 전주본이 있다. 이들은 吏讀便覽凡例, 제1장 吏讀便覽, 제2장 輯覽吏文, 제3장 行用吏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중 제1장 吏讀便覽에 수록된 吏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두편람』의 이두는 표제어로 쓰인 이두와 그 독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안병희(2001)에 의해 여러 번 지적되었다.

『이두편람』의 현전본인 前間本, 가람본, 濯足本, 전주본에서 표제어로 쓰인 항목수는 아래의 (2)와 같다.

- (2) 가람본 291개, 濯足本 294개, 전주본 303개, 前間本 305개.

이들 이본들끼리 서로 차이를 보이는 이두를 제시하면 아래의 (3)과 같다.

- (3) 가. 가람본: 加于支當不(더욱디당모질), 等用良(들쓰아), 無乎事(무온일), 是乎(이온), 是乎等乙用良(이온들쓰아), 爲白良尔(ᄃᆞᆫ아금), 爲白乎(ᄃᆞᆫ온), 爲白乎等乙用良(ᄃᆞᆫ온들쓰아), 爲有等以(ᄃᆞᆫ이신들로), 爲有在果(ᄃᆞᆫ이신견과), 爲有乎所(ᄃᆞᆫ이신온바), 爲置(ᄃᆞᆫ두), 爲乎(ᄃᆞᆫ온), 乙用良(을쓰아)
나. 濯足本: 가람본보다 ‘爲白乎(ᄃᆞᆫ온)’, ‘爲置(ᄃᆞᆫ두)’, ‘爲乎(ᄃᆞᆫ온)’ 등 3개가 더 있으며 이들은 모두 前間本과 전주본에 표제어로 실려 있는 것들이다.
다. 前間本: 爲乎等用良(ᄃᆞᆫ온들쓰아) 前間本에만 있음.
라. 전주본: 白乎旅(솔오며), 是置有是亦(이두이시이여)⁸⁾ 등

가람본에서는 (3가)와 같이 『이두편람』의 전체 이두 항목수인 305개 중 14개의 이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총 291개의 이두가 쓰였으며, 濯足本은 가람본보다 ‘爲白乎(ᄃᆞᆫ온)’, ‘爲置(ᄃᆞᆫ두)’, ‘爲乎(ᄃᆞᆫ온)’ 등 3개가 더 많은 294개가 쓰였고, 前間本은 『이두편람』의 이두 항목수 중 가장 많은 305개가 쓰였는데 (3다)에 제시된 爲白是尔(ᄃᆞᆫ이금)은 가람본에서만 쓰인 이두이고, 爲乎等用良(ᄃᆞᆫ온들쓰아)는 전주본에서만 쓰인 이두이다. (3라)와 같이 전주본은 『이두편람』의 전체 이두 항목수인 총 305개 중 白乎旅(솔오며), 是置有是亦(이두이시이여) 등 2개가 없는 전체 303개가 쓰였다. 지금까지 『이두편람』에 쓰인 표제어 이두의 항목수는 前間本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3다)에 제시한 대로 『이두편람』에는 가람본에만 쓰인 爲白是尔(ᄃᆞᆫ이금)과 가람본과 전주본에는 쓰이고 前間本에는 쓰이지 않은 爲乎等用良(ᄃᆞᆫ온들쓰아)가 있으며, 爲乎諭(ᄃᆞᆫ온디)는 前間本과 전주본에서 중복

7) 필자는 일본 駒澤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濯足本(金澤庄三郎 구장본)을 실사는 물론 書影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글의 기술은 前間本, 가람본, 전주본을 대상으로 언급하며, 濯足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안병희(2001)를 인용한다.

8) 前間本の 표제어로 쓰인 이두가 ‘是置是是亦(이두이신이여)’와 같이 誤寫되어 있기 때문에 가람본을 제시하였다.

되어 쓰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이본을 통틀어 『이두편람』에 쓰인 이두의 항목수는 305개로 前間本의 이두 항목수와 같게 된다.

『이두편람』 이본들은 협주의 내용과 위치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 가람본, 前間本, 전주본의 吏讀便覽凡例와 제1장 吏讀便覽에 보이는 협주의 내용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 가람본의 협주

- 가. ○新羅神文王時人卽唐高宗末年武后初年也高麗顯宗時 贈弘儒候從祀 文廟竝出輿地勝覽○此條恐非凡例法恐或刪削
- 나. ○李睟光曰我國數計之必以印字終之 中國文字亦如此盖凡事皆有所本矣○或云此是印字與印字異乃是俚語更詳之此不用於吏讀恐當移載於篇末
- 다. ○此後二處皆作저宜定于一
- 라. ○卜本負字入點省文或던역디덩摘取初聲就便語耳
- 마. ○○此後二處皆作저宜定于一○凡言爲白是白云云者用於奏御文字
- 바. ○三字類於爲白詳載此四字類則於是白詳載而爲白是白並載乎玆恐常釐正也
- 사. ○主臣見漢書宜別加訓釋也

(5) 前間本の 협주

○新羅神文王時人 卽唐高宗末年武后初年也 高麗顯宗時 贈弘儒候從祀 文廟竝出輿地勝覽

(6) 전주본의 협주

- 가. ○此條恐非凡例法恐或刪削○讀音두
- 나. ○新羅神文王時人卽唐高宗末年武后初年也高麗顯宗時贈弘儒候從祀文廟 竝出輿地勝覽
- 다. ○李睟光曰我國數計之文必以印字終之中國文字亦如此盖凡事皆有所本矣○或云此是印字異乃是俚語更詳之此不用於吏讀恐當移載於篇末
- 라. ○兩卜字本負字入點省文或던역디덩摘取初聲取便語耳
- 마. ○凡言爲白是白云云者用於奏御文狀及捧招文字恐首騰
- 바. ○三字類於爲白詳載此則於爲白詳載而爲白是白竝載乎玆恐當釐正
- 사. ○此後二處皆作저宜定于一
- 아. ○旣省是如可是如乎之類則是白置宜當拔去否則竝存
- 자. ○恐置除除良之下
- 차. ○下持是乎玆作던니宜定于一
- 카. ○恐在矣身亦之下
- 타. ○쫘려從上當作쫘여
- 파. ○이드리當作앗드리
- 하. ○主臣見漢書宜別加訓釋

(4~6)에서 볼 수 있듯이 범례와 제1장 이두편람에서 가람본은 모두 7개의 협주가, 前間本은 1개가, 전주본은 12개의 협주가 있다. 前間本은 제1장 이두편람에는 협주가 전혀 없으며, 범례에서도 오직 1개의 협주만 있다. 전주본은 협주가 모두 14개이다. 가람본과 전주본의 협주를 비교해 보면, 우선 협주의 수에서도 5개가 차이가 나며, 협주의 내용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먼저 가람본은 범례에서 (6가)가 없으며, 제1장 이두편람에서도 협주의 수는 6개의 차이가 있다.

가람본과 전주본의 협주의 차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전주본의 ‘이두편람범례’ 바로 아래에는 (6가)의 협주가 있는데, 이 조항의 내용이 凡例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례에서 제외해야 할 듯하다는 내용으로 제목에 붙을 것이 아니라 범례의 첫 번째 조항에 붙어야 되

는 것이다. 또한 이 협주는 가람본에는 범례의 첫 번째 조항에 붙어 있다. (6가)와 (6나)의 협주는 동일한 것이나 空格의 위치가 다르며, 가람본에는 전주본의 제목에 붙어 있던 내용이 연이어 붙어 있다.

제1장 이두편람에서는 전주본에 있는 (6아~과)가 가람본에는 없으며, (4다)는 (6나)와 같이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뒷부분이 (4다)의 ‘或云此是印字異’와 (6나)는 ‘或云此是印字與印字異’와 같이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4라)의 ‘兩卜字本負字入點省文’과 (6라)의 ‘卜本負字入點省文’이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卜’자는 원래 ‘負’字的 마지막 2획에서 온 省文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전주본의 ‘入’은 오자이다. (4마)의 ‘用於秦御文狀及捧招文字恐首騰’과 (6마)의 ‘用於奏御文字’가 차이를 보이는데 가람본이 ‘狀及捧招’와 ‘恐首騰’의 부분이 더 있다. (4바)와 (6바)는 (6바)가 ‘此’ 다음에 ‘四字類’가 더 있고, (4바)에서 ‘當’으로 되어 있는 것이, (6바)에서는 ‘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데, ‘爲白(호륵)’과 ‘是白(이륵)’에는 ‘乎(호)’가 붙으므로 마땅히 교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가람본의 ‘當’이 옳다. (4사)와 (6다)는 ‘爲齊’의 ‘齊’의 독음이 ‘제’와 ‘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마땅히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므로 전주본의 협주인 (6다)가 옳다.

위에서 제시된 『이두편람』 제 이본의 협주들은 협주의 위치도 차이를 보이는데, 전주본의 ‘이두편람범례’ 바로 밑에 달린 ‘此條恐非凡例法恐或刪削’은 가람본의 협주인 (4가)와 같이 범례의 제1조에 붙어야 할 협주이다. 전주본의 (6마)는 ‘節(디위쑤)’ 아래에 붙어 있는데 ‘爲白’과 ‘是白’에 관한 내용이므로 ‘爲白’이나 ‘是白’이 포함된 항목 아래에 붙어야 하므로 가람본과 같이 ‘爲白齊(호륵제)’ 아래에 붙는 것이 옳다.

(6가, 나)는 각각 「가람본」과 「전주본」의 1字類의 가장 끝자인 ‘印(잇)’에 부기된 협주인데 前間本에는 없으며, (4라, 6라)는 「가람본」과 「전주본」의 ‘卜(역)’에 부기된 협주인데 前間本에는 없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전하는 4개의 사본 즉 前間本은 간행을 위해 준비한 원고본이나 그 원고본에 제일 가까운 사본을 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전하는 4개의 『이두편람』 사본 중 前間本의 이두가 가장 많은 항목수를 보이는 것은 前間本이 최초 원고본의 형태에 가장 충실하고, 그 이외의 사본 즉 가람본, 濯足本, 전주본은 필사를 거듭하면서 이두를 교정하거나 일부 이두를 빠뜨리고 필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6바)가 ‘爲在果(호견과)’ 아래에 붙어 있는 것도 잘못이다.

종래 『이두편람』의 독법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구개음화와 관련된 부분이 유독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종래 『이두편람』의 이본 중에서는 前間本과 전주본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이두편람』의 이본인 가람본, 濯足本과 前間本, 전주본의 독법을 서로 비교해 보면 대체로 前間本과 전주본의 독법이 인위적인 성격이 강하고, 가람본과 濯足本이 상대적으로 필사 당시의 현실 이두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대의 다른 이두학습서에서는 구개음화가 반영된 독법으로 읽히던 이두가 『이두편람』에서는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아래의 (7)에서 그 예를 제시한다.

- (7) 가. 並只秩秩以白良是(다)모기(딜)로(스)라이여(가람본)
 나. 並只秩秩以白良是(다)모기(딜)로(스)라이며(前間本)
 다. 並只秩秩以白良是(다)모기(딜)로(스)라이며(전주본)

(7)에 쓰인 ‘秩秩以(딜로)’는 『吏文』과 『吏文大師』에서만 구개음화 이전의 독법인 ‘디딜

로'로 쓰였고 『吏文樞例』와 『儒胥必知』에서는 '지질로'로, 『儒胥必知』의 또 다른 이본과 「羅麗吏讀」에서는 '질질로'로 쓰였다. 주로 『이두편람』과 같은 18세기 또는 그 이후의 이두 학습서에서는 구개음화가 반영된 독법이 쓰이고 있었으나 『이두편람』에서만은 구개음화 이전의 독법이 제시되어 있다. 바로 이 점이 이두 독법에서의 『이두편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두편람』의 편찬자는 편찬 당시의 독법에 맞지 않게 인위적으로 독법을 정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이두편람』에는 원래 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이두의 독법을 표기할 때에도 구개음화 이전의 어형 즉 역구개음화 어형으로 독법을 단 경우도 더러 있다.

- (8) 가. 倭音다짐(가람본) / 倭音다딤(前間本) / 倭音다딤(전주본)
 나. 題音제김(가람본) / 題音테김(前間本) / 題音테김(전주본)
 다. 節지우(가람본) / 節디위(前間本) / 節디위(전주본)
 라. 節龕지위쑤(가람본) / 節龕디위쑤(前間本) / 節龕디위쑤(전주본)
- (9) 가. 敎諭乃이쑤지나(가람본) / 敎諭乃이쑤디나(前間本) / 敎諭乃이쑤디나(전주본)
 나. 不諭아닌지(가람본) / 不諭아닌디(前間本) / 不諭아닌디(전주본)
 다. 是隱諭이온지(가람본) / 是隱諭이온디(前間本) / 是隱諭이온디(전주본)
 라. 是龕不諭이쑤아닌지(가람본) / 是龕不諭이쑤안닌디(前間本) / 是龕不諭이쑤아닌디(전주본)
 마. 爲白乎諭히쑤온지(가람본) / 爲白乎諭히쑤온디(前間本) / 爲白乎諭히쑤온디(전주본)
 바. 爲白乎乙諭히쑤올지(가람본) / 爲白乎乙諭히쑤올디(前間本) / 爲白乎乙諭히쑤올디(전주본)
- (10) 가. 節龕亦디위쑤(가람본) / 節龕亦디위쑤여(前間本) / 節龕亦디위쑤여(전주본)
 나. 卜定디딩(가람본) / 卜定디딩(前間本) / 卜定디딩(전주본)
- (11) 가. 乙仍于을지즈루(가람본) / 乙仍于을디즈루(前間本) / 乙仍于을디즈루(전주본)
 나. 最只아직기(가람본) / 最只아딕기(前間本) / 最只아딕기(전주본)

(8가)의 '倭音(다딤)'은 '어떤 사실의 옳음을 확인하거나 그 사실대로 실행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관아에서 백성에게 확실한 대답을 받는 일에 쓰이던 이두인데 당시의 독법은 『유서필지』와 같이 '다짐'일 가능성이 높다. 『吏文』과 『吏文大師』에서는 '다딤'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두편람』의 독법 '다딤'은 보다 이른 시기의 이두학습서인 『吏文』과 『吏文大師』의 독법에 가깝다.⁹⁾ (8나)의 '題音테김'의 당시 독법은 『유서필지』에서 '저기' 또는 '제김'으로 쓰이고 있으나 『吏文大師』의 독법이 '더김'인 것으로 보아서 『이두편람』의 독법 '테김'은 보다 이른 시기의 독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8다)의 '節(디위)'의 당시 독법은 『유서필지』와 「나려이두」는 '지위'이고, (8라)의 '節龕(디위쑤)'는 『유서필지』에서 '지위쑤'인데, 『吏文大師』에서는 '디위'인 것으로 보아서 『이두편람』의 독법 '디위'는 일면 정당한 것이다.

『이두편람』의 독법이 당시의 현실 독법과 동떨어져 있으며 특히 구개음화된 이두의 독법을 구개음화 이전의 독법으로 표기한 것은 '역구개음화'와 관련된 예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9가~사)의 '敎諭乃(이쑤디나)', '不諭(아닌디)', '是隱諭(이온디)', '是龕不諭(이쑤아닌디)', '爲白乎諭(히쑤온디)', '爲白乎乙諭(히쑤올디)'는 모두 '諭'자를 '디'로 읽고 있는데 당시의 현실적인 독법을 보면, '不諭'를 『유서필지』에서 '아닌지'로, 「나려이두」에서 '아니지'로 읽고 있고, '不諭'를 『유서필지』에서 '아닌지'로 「나려이두」에서 '아니지'로 읽고 있으며, '叱分不諭'

9) '倭音'은 「나려이두」에서도 '다딤'으로 쓰이고 있다.

10) '題音'은 『이문잡례』에서도 '테김'으로 쓰이고 있다.

를 『이두잡례』에서 ‘썸아닌지’로 읽고 있으며, ‘爲白乎噏’를 『유서필지』에서 ‘흐썸온지’, 「나려이두」에서 ‘흐올볼지’로 읽고 있어 대체로 18세기나 그 이후의 이두 학습서에서는 ‘噏’자를 ‘지’로 읽고 있는데 반해서 『이두편람』에서는 대체로 ‘디’로 읽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爲白乎噏’를 ‘흐썸온디’, ‘劈不噏’를 ‘썸안디’, ‘爲白良噏’를 ‘흐썸아디’로 읽고 있는 『吏文大師』의 독법과 ‘爲白乎噏’를 ‘흐썸온디’로 읽고 있는 『吏文』의 독법을 참고하면 『이두편람』의 독법은 당시의 이두 독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는 하되 한편으로 정당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두편람』의 독법이 18세기 또는 그 이후의 기타 이두학습서와는 달리 구개음화된 독법을 구개음화 이전의 독법으로 읽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주본이나 前間本을 연구에 사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한데, 가람본과 濯足本은 구개음화에 관한 한 전주본이나 前間本과는 달리 구개음화가 실현된 독법이 표기되어 있다. 이 점이 前間本이나 전주본과 비교되는 가람본과 濯足本の 독법의 가장 큰 차이이다. 실제로 (9)에서 가람본은, 전주본이나 前間本에서 모두 구개음화 이전의 독법으로 제시된 ‘倭音, 題音, 節, 節岔, 教噏乃, 不噏, 是隱噏, 是岔不噏, 爲白乎噏, 爲白乎乙噏’를 각각 ‘다짐, 제김, 지우, 지위썸, 이썸지나, 아닌지, 이은지, 이썸아닌지, 흐썸온지, 흐썸올지’로 읽고 있다. 그러나 (10가,나)와 같이 가람본도 구개음화 이전의 독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1가)의 ‘乙仍于’는 전주본과 前間本에서 ‘을디즈루’로 되어 있고, 가람본에서는 ‘을지즈루’로 되어 있는데, 『吏文大師』의 독법은 ‘을지즈루’, 『吏文』의 독법은 ‘지즐우’이다. ‘仍于’는 구개음화를 경험한 단어가 아니라 원래부터 ‘지즈루’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仍于’를 포함한 이두의 독법은 18세기 또는 그 이후의 모든 이두학습서에서 ‘지즈로, 지즐우, 지즈루’이며, 『이두편람』의 전주본과 前間本조차도 ‘尤于卜役乙仍于’는 ‘더욱딘역을지즈루’로 읽고 있다. 이것은 『이두편람』의 전주본과 前間本の ‘乙仍于’에 대한 독법 ‘을디즈루’는 매우 인위적인 독법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12) 가. 안직<吏文>, 안직기<吏師>, 안직이<吏襟>, 안즈기<儒必>
 나. 驥子아 안직 너를 憐愛호노라(驥子最憐渠)<두시8:48>
 다. 나그네 스시에 머리 안직 세니(客間頭最白)<두시23:17>

(11나)의 ‘最只아딕기’도 아래의 (12가)와 같이 18세기 또는 그 이후의 독법서와 그보다 앞선 시기의 이두학습서인 『吏文』의 독법은 모두 ‘안직’ 또는 ‘안직기’로서 구개음화되지 않은 어형이 쓰였다. (12나, 다)는 15세기 『두시언해』(초간)의 예들인데 모두 ‘안직’이 ‘最’에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6세기 이후에 출현하는 ‘아직’의 의미인 ‘안직’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두편람』에서는 15세기 문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아딕기’를 독법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이두편람』의 독법이 구개음화와 관련해서 인위적인 교정을 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3.2. 『이두편람』과 기타 이두 학습서의 이두의 비교

지금까지 『이두편람』의 이본인 가람본, 前間本, 전주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들의 특징을 더러 언급했다. 여기에서는 『이두편람』과 18세기 또는 그 이후의 다른 이두학습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두편람』에 제시된 이두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병희(2001:6)은 『이두편

람』은 표제어인 이두와 독법에 상당한 문제가 발견된다는 지적을 논문의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먼저 이두학습서 중에서 유독 『이두편람』에만 제시되어 있는 표제어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3) 가. 是果良結이견아저(전주본), 爲白等用良ᄃᆞᆫᄃᆞᆫᄃᆞᆫ(前間本), 不知得알모로(전주본)
나. 是尼이니(전주본), 是良可이라가(전주본), 是良이아(전주본)

(13가)의 ‘是果良結(이견아저), 爲白等用良(ᄃᆞᆫᄃᆞᆫᄃᆞᆫ), 不知得(알모로)’는 모두 다른 이두학습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표제어들인데, 이중 ‘爲白等用良(ᄃᆞᆫᄃᆞᆫᄃᆞᆫ)’는 『이두편람』의 이본 중 前間本에만 나오는 것이며, ‘알모로’를 표기한 ‘不知得’은 ‘知不得’의 誤記로 모든 『이두편람』의 이본에 표제어 이두로 쓰이고 있다.

이번에는 독법의 문제를 살펴보자. 앞 절에서 『이두편람』 이본사이의 독법에 관한 문제를 구개음화를 중심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밖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두학습서와의 차이를 언급하기로 한다.

- (14) 가. 敎矣이되
나. 及良밋아
다. 乙良을아
라. 物物갓갓
마. 爲良如敎ᄃᆞᆫ아산이산
바. 爲巴只ᄃᆞᆫ도로

(14가)의 ‘敎矣(이되)’는 『吏文』과 『吏文大師』에서 ‘이사딕’로 「나려이두」에서 ‘이사딕’로 쓰이고 있다. 이두 문헌에서 ‘敎’를 ‘이’로 읽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두편람』의 독법인 (14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나)의 ‘及良(밋아)’의 ‘及’은 신라이두는 물론 고려이두와 고려구결에서도 ‘밋-’으로 읽어왔던 것으로 『吏文』과 『吏文襟例』에서는 ‘미쳐’로 「나려이두」에서는 ‘미쳐’로 읽고 있다. 그러므로 『이두편람』의 독법 ‘밋아’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다)의 ‘乙良(을아)’는 『吏文』과 『吏文大師』에서 ‘으란’ 또는 ‘을안’, 『유서필지』와 『이두잡례』에서 ‘을안’으로 읽고 있다. ‘乙良’은 고려시대 이후로 이두와 구결에서 ‘으란’으로 읽히고 있는 것으로서 ‘乙良’의 ‘良’을 ‘아’로 읽는 『이두편람』의 독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라)의 ‘物物(갓갓)’ 또한 모든 이두학습서에서 ‘갓갓’으로 읽고 있는 것으로 이중모음으로 읽는 것은 『이두편람』의 독법이 유일하다. (14마)의 ‘爲良如敎(ᄃᆞᆫ아산이산)’은 ‘敎’의 독법은 제쳐놓더라도 ‘如’를 ‘산’으로 읽은 것은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14바)의 ‘爲巴只(ᄃᆞᆫ도로)’의 ‘只’은 전통적으로 ‘ㄱ’ 표기를 위한 것으로 ‘ㄱ’ 또는 ‘기’로 읽는다. 실제로 『吏文』과 「나려이두」에서는 ‘ᄃᆞᆫ도로기’, 『吏文大師』, 『유서필지』, 『이문잡례』에서는 ‘ᄃᆞᆫ도록’으로 읽고 있다. 따라서 ‘只’을 ‘ㄱ’ 또는 ‘기’로 읽지 않은 『이두편람』의 독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行用吏文의 표제어

『이두편람』의 제3장 行用吏文은 당시에 사용되는 吏文 중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용어를 수록하고 주석을 단 것이다. 주석에는 李齊賢의 『櫟翁稗說』, 李睟光的 『芝峯類說』, 金昌協의 『農巖雜識』, 南學鳴의 『晦隱集』, 南克寬의 『夢巖集』과 『東國輿地勝覽』이 인용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芝峯類說』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배열은 1자류에서 3자류로 나누었고 전주본의 경우 182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제3장 行用吏文은 제1장 이두편람, 제2장 편람이문과 같이 표제어를 한자로 제시하고 한문으로 주석을 단 것인데, 한글 독음을 붙인 것, 한자만을 사용한 것, 설명 중에 한글이나 차자표기를 사용한 것 등에 따라서 설명 유형을 아래의 (15)와 같이 나눌 수 있다.

- (15) 가. 木 무명○綿布也
나. 古尾乃 고미리○使之準平穀物者也
- (16) 가. 串 곳○輿地勝覽皆作官今吏文或作麤卽處之方言也
나. 海 南鶴鳴曰東語坪亦稱바다 故江陵北坪稱뒤바다 東郊海村亦稱바라울 盖稱海者 取闊遠之義 錢牧齋以山中開野處亦謂之 海盖中國俗稱與我國同
- (17) 가. 遷 新羅方言以水涯石路稱遷 今斗尾遷是也
나. 結 我國量田賓積一尺爲把十把爲束十束爲負白負爲結此本麗制而田結二字起於管子
다. 細毛 우무가식갸트되짜다 素餅也

행용이문의 표제어 제시는 (15가, 나)와 같이 표제어를 한자로 제시하고, 한글 독음이나 우리말 명칭을 적은 다음 권점 ‘○’을 하고 나서 표제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가)는 ‘木’은 우리말의 ‘무명’을 표기한 것인데 ‘綿布’를 의미하는 것이고, (1나)는 ‘古尾乃’는 우리말의 ‘고미리’를 표기한 것인데 ‘곡물을 고르게 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용이문의 설명 방식이 (16가)와 같이 ‘串/곳’에 대해 ‘麤’과 같은 차자표기를 쓰기도 하고, (16나)와 같이 ‘海’를 설명하는데 ‘뒤바다, 바라울’과 같은 우리말 고유 명사를 한글로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17가, 나)와 같이 표제어를 설명하는데 우리말 명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17다)와 같이 오직 한 예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설명 자체를 우리말로 하는 경우도 있다.

안병희(2001)은 『이두편람』의 이두는 표제어로 쓰인 이두와 독법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 반면, 이 책의 제3장 行用吏文에 쓰인 항목들에는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표제어로 제시된 항목들은 다른 이두학습서에서 이두로 제시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래에서 『이두편람』의 제3장 行用吏文에 쓰인 표제어 중 이두학습서에서 이두로 제시된 용례들에 제시하면 아래의 (18)과 같다.

- (18) 가. 上下 차하: 차아<유서필지>차하<나려이두>
나. 件記 벌과: 件記불괴<이문대사>
다. 尺文 자문: 尺文자문<이문대사>, 즈문<유서필지>, 지문<나려이두>
라. 白是 술이: 술이<이문대사>, 숲이<유서필지>
마. 召史 조이: 소사<나려이두>
바. 舍音 말음: ㅁ름<이문>, ㅁ름<이문대사>, 말음<유서필지>, ㅁ름<나려이두>

안병희(2001)은 『이두편람』의 행용이문에 제시된 많은 표제어가 다른 이두학습서에서 표제어로 제시된 것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182개의 표제어 중 6개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 조사한 이두학습서는 『吏文』, 『吏文大師』, 『吏文襍例』, 『羅麗吏讀』, 『儒胥必知』 등만을 다루었으므로 다른 이두학습서를 조사하면 다른 이두학습서에서 이두로 제시된 표제어의 수효는 더 늘어날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행용이문에 제시된 항목 중에서 문법이나 어휘 또는 기타 측면에서 제시할 만한 항목을 제시하였다.

- (19) 吐 南克寬曰我國所謂吐中國之助辭之於曰의乎曰오或稱古耶曰아或稱가也曰다今曰에音皆略同
- (20) 나. 수 音마○上擊下垂曰수如赤수駕수之수○수當作尔與地勝覽廣州有佳尔嶺靈光有尔知鳥
다. 赤수 치마○裳也○수皆作尔北路
라. 駕수 가마○轎也
마. 木수 방마치○砧具也 亦有尔尙小船
- (21) 가. 耳只 귀기○注子也
나. 阿只 아기○孩兒之尊稱也
- (22) 가. 水尺 무자이○外邑汲水漢也○亦有山尺今爲炮手산자이
나. 刀尺 칼자이○外邑治膳漢也
다. 墨尺 먹자이○監察陪隸也○新羅時樂工謂之尺如曰槩尺舞尺茄尺歌尺而外此又有食尺鉤尺弓尺之稱故云
- (23) 가. 赤 音치○如鞍赤吹鑼赤之赤赤本元時語
나. 吹鑼赤 도라치 動駕時御前鼓吹手宣傳官廳員役
다. 汗屢 쫄언치○謂馱鞍騎鞍下汗於赤也
- (24) 가. 伊 南克寬曰我國物名終語必有伊字如漢語兒者 高麗史云方言呼描爲高伊今猶然但聲稍疾合爲一字
나. 水賜伊 무수리○官房使喚之女人也

(19~24)는 모두 문법이나 어휘의 파생과 관계되는 표제어들이다. (19)의 ‘吐’는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가 중국어의 助辭와 비슷하다는 南克寬의 견해를 인용하여 제시했는데,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 중에서 중국어의 어조사와 발음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24)는 어휘파생에 관여하는 접미사를 언급하였거나 그 예를 제시한 것이다. (20)의 ‘수’는 ‘치마, 가마, 방마치’에 쓰인 예들을 제시하였는데, (20나)의 주석을 보면 ‘수’는 ‘尔’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尔’가 경기도 광주의 ‘佳尔嶺’과 전라도 영광의 ‘尔知鳥’의 지명 표기에 쓰이고 있음을 『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¹¹⁾ (21)은 접미사 ‘只’가 쓰인 단어로 ‘耳只(귀기)’와 ‘阿只(아기)’를 제시하였고, (22)는 접미사 ‘尺’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독음은 ‘자이’로서 (22가)의 주석에서 ‘포수’를 ‘산자이’라 부르고, (22다)의 주석에서 신라시대에도 음악과 관계되는 직업의 접미사로 ‘槩尺, 舞尺, 茄尺, 歌尺’와 기타 직업의 접미사로 쓰인 ‘食尺, 鉤尺, 弓尺’ 등을 제시하고 있다. (23)은 ‘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음은 ‘치’이며 그 예로 ‘도라치’와 ‘쫄언치’를 제시하고 있다.¹²⁾ (24)는 ‘伊’를 제시하고 있는데 南克寬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남극관은 우리나라의 물건 이름에 ‘伊’가 많이 쓰인다는 사실과 이것은 마치 중국어의 ‘兒’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고려사』에도 고양이를 ‘高伊’

11) ‘佳尔嶺’은 지금도 경기도 광주의 고개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尔知鳥’는 현재 이 이름이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12) 후자는 ‘언지’에서 ‘치’가 분석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라고 부르는 것과 ‘高伊’의 발음이 마치 일음절처럼 빠르게 소리가 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음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5) 가. 抽簽 사슬뽑다○謂抽出簽性也句抹에우치다○句斷打抹也
나. 壓寫 눌러쓰다○謂書上加書也
다. 細毛 우무가식갸트되짜다 素餅也

(25)는 행용이문의 표제어가 명사나 명사구에 국한되지 않고 동사구도 일부 있음을 보인 것이다. (25가)의 ‘사슬뽑다’는 『노걸대언해』에서, 學堂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장면에 나오는 단어이며, (25다)는 설명 자체를 우리말로 한 것이 특이한 점인데 설명에 쓰인 ‘우무가식’가 ‘素餅’을 뜻하거나 이와 비슷한 우리말일 것으로 여겨지지만 어원이나 출전은 밝히지 못하였다.

- (26) 가. 施主 猶言佛家普施之主人 本出佛書
나. 下手 하수 猶言着手也下手下處見漢書
다. 下處 하처○客人移接謂之下處○하수下處皆見漢書
라. 中火 凡行路者之點心謂之中火○見漢書但火作伙
마. 孟浪 事不精要之貌○孟浪本出莊子非吏文無所取捨
바. 衫兒 적삼○單衫也○漢語
사. 喇叭 나발○鉦屬也亦漢語
아. 幫子 방즈○各道營邑傳書之急走者也亦漢語
자. 帖裏 털리○戎服也亦漢語卽綴翼帖當作貼
차. 頂子 덩즈○氈笠飾也漢語

(26)은 제시된 표제어가 한자어나 중국어 단어인 경우인데, (26가)의 ‘施主’와 (26나~라)의 ‘下手, 下處, 中火’는 각각 佛書와 漢書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26마)의 ‘孟浪’은 그 출전이 『莊子』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26바~차)의 ‘衫兒적삼, 喇叭나발, 幫子방즈, 帖裏털리, 頂子덩즈’ 등은 중국어 단어임을 밝히고 있다.

- (27) 가. 頤 音탈○瞞憑曰頤古無此字
나. 畚 音답○水田曰畚古無此字
다. 太 쿡○大豆也古無此字○俗稱黃豆爲太蓋黃豆豆之大者故於大字下着一點如豆象形以省文也
[ㄷ+木+ ㄷ+金] 俗名加乃○自阿字至際字則二字類以下及中國吏文以多故方別抄自作紙斜出亦然

(27)에 쓰인 ‘頤, 畚, 太’은 주석에서 ‘古無此字’ 즉 옛날에는 이 글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글자들이 중국에서 쓰인 한자가 아닌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8) 가. 伊 南克寬曰我國物名終語必有伊字如漢語兒者 高麗史云方言呼描爲高伊今猶然但聲稍疾合爲一字
나. 干 한三國史亦作翰○李齊賢曰新羅時其君稱麻立干其臣稱阿干至於鄉里之人例以干連名呼之 蓋相尊之辭○李睟光曰我國方言謂種蔬者爲園頭干漁採者爲漁夫干造泡者爲豆腐干 大邱方言以大者爲干故也○今通稱賤人爲干皆名分イ+替亂之致故俗用則代以漢字
다. 在 재○城曰재 故今猶稱城內曰재안 三國史 新羅月城或號在城 麗史亦曰築西都在城 周官六翼云

- 在者方言畎也 與訓蒙字會所釋 不同更詳之
 라. 串 〇輿地勝覽皆作官今吏文或作廳卽處之方言也
 마. 遷 新羅方言以水涯石路稱遷 今斗尾遷是也
 바. 楡 李睟光曰金時習遊金鰲錄有北楡寺看牧門詩楡字 不見韻書今俗以剝木引水爲楡卽方言所謂簷音
 사. 進賜 나으리 〇堂下官尊稱 〇李睟光曰事此亦不可解或云鷄林類事方言土曰進賜是餘音如水賜之賜
 아. 上典 奴婢稱主曰上典卽勝國抹樓下之稱 〇李睟光曰上典鄉語最不可解者或云典主也新羅時凡官府稱
 典而如上大舍典上典方言맛님今稱上注¹³⁾

(28)에 제시된 ‘伊, 干, 在, 串, 遷’은 각각 우리말의 방언을 표기한 단어로 제시한 것들이다. (28가)의 ‘伊’는 앞서의 (24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말의 접미사 ‘-이’를 표기한 것이며, (28나)는 신라의 왕명이나 관직명에 사용하는 ‘干’을 설명하고 있고, (28다)의 ‘在’는 ‘城’의 우리말 단어인 ‘갯’의 변화형 ‘재’를 언급하고 있다. (28라)의 ‘串’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말 ‘곶’을 표기하고 있는데 ‘바다로 뻗어 나온 모양을 한 곶’을 뜻하는 ‘곶’이 아니라 ‘공간적인 또는 추상적인 일정한 자리나 지역’의 우리말인 ‘곶’으로 설명하고 있다. (28마)의 ‘遷’은 ‘벼락’로 읽을 수 있는데 물가의 절벽에 난 길을 뜻하는 우리말로 설명하고 ‘斗尾遷’이라는 지명도 예로 제시하였다(박용식 2006, 박병철 2011, 2012가). (28바)의 ‘楡’은 우리말의 ‘흙’을 가리키는 단어로 제시하였는데 이 글자가 운서에서도 볼 수 없는 글자이나 김시습의 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8사)의 ‘進賜’는 ‘나으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단어도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면서 『鷄林類事』에서 ‘土曰進賜’라고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8아)의 ‘上典’은 우리말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바로 한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李睟光이 ‘上典’은 우리말로써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 중의 하나라고 한 사실을 인용하고 신라시대에 ‘宮府’를 ‘典’이라고 한 점을 제시하면서 ‘上典’은 ‘上大舍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29) 가. 朴 新羅方言謂瓠爲朴故新羅始祖赫居世所出之卵似瓠故以朴爲姓
 나. 羣 소 〇李睟光曰東方避姓星州有羣氏羣音小善方言呼牛爲小故也 或謂東史有石末天衢者疑石末二字訛爲羣字但宛委餘編復姓有石牛
 다. 鵞 𪎮 〇李粹光曰淳昌有鵞音權億切不知其始自出或云鵞本胡姓

(29)는 모두 우리나라의 성씨와 관련되어 있는 표제어를 모은 것이다. (29가)의 ‘朴’씨는 신라의 始祖 赫居世가 알에서 나왔는데 알이 박과 비슷하므로 박을 성씨로 삼았다는 내용이며, (29나)의 ‘羣’씨는 李睟光의 설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僻姓으로 경상도 성주에 ‘소’씨들이 있다는 내용과 우리말로 ‘牛’를 ‘소’라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石末天衢’의 ‘石末’이 와전되어 ‘羣’가 되었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29다)는 ‘鵞’씨를 표제어로 져하고 있는데 李粹光에 의하면 순창에 ‘𪎮씨’가 살고 있으며 ‘鵞’의 음이 ‘權億’의 반절임을 제시하고 그 시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혹 胡姓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¹⁴⁾

13) ‘注’는 ‘主’의 誤字이다.

14) 실제로 순창에는 𪎮씨가 지금도 세거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이두편람』의 구성과 제1장 이두편람의 이두 및 제3장 행용이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이두편람』은 18세기 초, 중반에 왕명에 의해서 편찬된 이두학습서로 현재 前間本, 가람본, 濯足本, 전주본 등 4개의 이본이 전해지고 있다.

둘째, 『이두편람』에서 제시된 이두는 前間本을 기준으로 할 때 제시된 표제어의 수효가 305개로 다른 이두학습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두 항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이두편람』은 18세기에 편찬된 이두학습서임에도 불구하고 표제어로 제시된 이두의 독법은 보다 이른 시기인 『吏文』이나 『吏文大師』와 비슷하게 구개음화가 이전의 어형이 독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위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심한 경우 ‘乙仍于(을디즈루)’와 ‘最只아디기’와 같이 원래부터 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이두들의 독법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제3장 行用吏文은 이두의 명사류 단어, 한자어나 중국어 단어, 기타 고유어 단어를 제시한 부분으로 표제어로 제시한 하나 하나의 항목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정의(2003), 「이두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金根洙(錦峯學人) 編(1957) 『吏讀資料集成 -國語國文學資料書 第3輯』 油印本.

김남윤 역해(2014) 『심양장계: 1637~1643년 심양에서의 긴급 보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박병철(2011) 지명어의 후부요소 ‘遷’에 관한 연구, 『語文研究』 6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7~77.

박병철(2012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오는 ‘遷’계 地名語의 衰退에 관한 研究, 『語文研究』 40-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56.

박병철(2012나) 『朝鮮王朝實錄』에 쓰인 韓國固有漢字 ‘串’에 관한 研究,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149-175.

朴盛鍾(2006), 『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용식(2006), 땅이름 ‘덤’의 분포와 의미, 『국어학』 48, 337-361.

세종대왕기념사업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9-2000) 『국역 심양장계 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

안병희(1986) 이두 문헌 <이문 吏文>에 대하여, 『배달말』 11, 배달말학회, 1-42.

안병희(2001) 『吏讀便覽』에 대하여, 『서지학보』 25, 한국서지학회.

이기문 編(1975) 『吏讀資料選集』, 亞細亞文化社.

이의봉(1977) 『古今釋林』 권1~4(第1卷~第40卷) 영인본, 亞細亞文化社.

장경준(2007), 경리잡설(經里雜說)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장경준, 吏讀便覽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해제,
(http://kostma.korea.ac.kr/dir/viewIf.js?sessionId=83A57D88CEF24B4A20AFE9E67840C63E?uci=RIKS+CRMA+KSM-WO.0000.0000-20140417.TOYO_1197)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前間恭作(1929) 『吏讀便覽에 대하여』, 『朝鮮』 165, 조선총독부.

前間恭作(1957) 『古鮮冊譜 第3冊』 東洋文庫.

前間恭作(1974) 『前間恭作著作集 (下)』, 京都大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전경목(2006) 19세기 『儒胥必知』 編刊의 특징과 의의, 『藏書閣』 15, 한국학중앙연구원, 131-170.

전경목(2011) 『儒胥必知: 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사계절출판사.

中樞院(1975) 『吏讀集成』, 國書刊行會.

최승희(1989), 『한국고문서연구(증보판)』, 지식산업사.

허흥식(1988), 『한국의 古文書』, 민음사.

『震覽』 영인(2001), 『서지학보』 25

小倉文庫 『公私恒用錄』에 합철된 『吏文襍例』에 대하여

정승혜 (수원여대)

1. 조선시대 漢字의 사용과 吏文의 개념

1.1. 한자 고유의 용법 - 漢文

① 순수 漢文

② 吏文: 중국과 주고받는 외교문서에 나타나는 독특한 한문. 漢吏文이라고도 함.

예) 承文院에서의 吏文 학습

국내문서에서도 사용 행정 법률 전문용어, 독특한 문체

『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7월 13일 甲戌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이과(吏科)와 승음 출신(承蔭出身)의 작첩(爵牒)을 봉(封)하거나 증직(贈職)하는 따위의 문첩(文牒)에는 모두 이문(吏文)을 사용하는데, 오로지 동반(東班)·서반(西班) 5품 이하의 고신(告身)에서만 이두(吏讀)를 옛날 그대로 사용하니, 심히 비루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이문(吏文)을 사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吏曹啓: “吏科及承蔭出身封贈爵牒等項文牒, 皆用吏文, 獨於東西班五品以下告身, 襲用吏讀, 甚爲鄙俚. 請自今用吏文.” 從之.)

문무관 4품 이상의 告身(職牒, 조정에서 내리는 임명장)은 모두 吏文을 사용하지만 5품 이하의 告身은 吏讀를 계속 사용하여 좋지 않으므로 吏文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 양식이 『經國大典』에 ‘文武官五品以下 告身式’(禮典)이라 하여 예시되어 있다.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教具官某爲某階某職者」年印月日」判書臣某(이하 생략)

1.2.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차용한 용법 - 吏讀

吏讀란 吏文의 口訣, 곧 吐(또는 讀)를, 漢字를 借用하여 표기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吏讀가 쓰인 글은 吏文과 구별되어 ‘吏讀’로 사용되었으나(위의 『세종실록』 기사), 조선 후기로 오면 吏讀가 쓰인 文書의 글을 순수한 漢文과 구별하여 ‘吏文’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吏讀까지 吏文이라 한 예는 吏讀의 학습서인 『吏文襍例』의 ‘吏文’이나 『典律通補』의 吏文에서 볼 수 있다. 이두가 쓰인 글을 ‘吏讀文’이라고도 한다.

2. 이두(吏讀) 학습서 개관

조선시대는 행정과 법률에 관한 문자생활의 대부분이 한자를 사용하던 시대였다. 이두에 관한 지식은 관계에 진출한 사람들이나 실무자로서 문서를 담당할 서리(胥吏) 계층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였을 것이다. 이는 학자들에게 한문의 지식이, 승문원의 관리들에게 이문(吏文)의 학습이 요구되었던 것과 같다. 한문을 공부하기 위한 수많은 전적이 있고, 이문(吏文)을 학습하기 위한 『이문등록(吏文謄錄)』, 『이문(吏文)』, 『이문집람(吏文輯覽)』이 있는 것과 같이, 이두(吏讀)의 학습을 위한 교재도 있었다. 널리 알려진 『유서필지(儒胥必知)』, 『이문잡례(吏文雜例)』, 『이두편람(吏讀便覽)』 등이 이두(吏讀)의 학습서이다.¹⁾ 안병희(1987)에 따라 이두의 학습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1. 이두문(吏讀文)의 문례집(文例集)

각종 서식의 이두문을 모은 학습서이다. 문례 안의 吏讀에는 한글로 讀法을 보이고 있으나 안 보이는 것도 있다. 목판본 3종이 전한다.

2.1.1. 『이문잡례(吏文雜例)』 (편저자 연대 미상. 목판본. 일본 동양문고 소장)²⁾

조선 후기 각종 서식(書式)의 이두문(吏讀文)을 모아 간행한 이두학습서이다. 모두 14장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다. 권두에는 ‘吏文雜例’라는 제목 다음에 목차나 저자에 관한 사항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되고 권말에도 본문이 끝난 뒤 제목이나 간행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 서문이나 발문도 없으며 판심 또한 ‘一’부터 ‘十四’까지의 장차만 새겨져 있는 매우 소박한 형식이다.

제1장부터 제9장까지는 보장식(報狀式), 서목식(書目式), 소지식(所志式), 상언식(上言式), 중수동추식(重因同推式), 결송입안식(決訟立案式), 매득사출식(買得斜出式), 이관하첩식(移關下帖式)의 8가지 문서 양식이 차례로 소개되어 있다. 각각의 문서는 시작할 때 행을 바꾸어 문서 제목 및 부제를 한 행에 표기하고 다시 행을 바꾸어 문서의 본문을 시작함으로써 다른 문서와 분명히 구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목식은 그렇지 않고 보장식의 뒷부분에 바로 붙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7개의 문서처럼 보인다.³⁾ 이는 편집상의 잘못으로서 『이문잡례』의 문서들을 옮겨 실은 필사본 『경리잡설(經理雜說)』이나 목판본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모두 서목식이 보장식과는 별도의 문서로 편집되어 있다.

그리고 8개의 문서 가운데 상언식과 중수동추식의 사이에는 ‘지금 쓰고 있는 이두는 거의 다 앞의 세 가지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나머지 긴요하지 않아 드물게 쓰이는 것들은 아래에 신는다(行用吏吐幾盡入於上項三件文字其餘不緊罕用者列錄於左)’라고 하는 이른바 ‘한용자(罕用者)’의 설명 문구가 등장하고, 이어서 ‘貌如使內良如教誨다부리다이슨’ 등의 드물게 쓰이는 이두 11항목의 표기와 한글 독법이 실려 있다. 이 설명 문구에서 말하는 ‘세 가지

1) 甲午更張 이후에도 문자생활의 보수성으로 일부 문서에 이두가 사용되었고, 또 이두로 된 문서의 이해가 필요하였으므로, 20세기에 들어와서 간행된 학습서도 있다.

2) 장경준 교수 해제 인용. 장경준(2014)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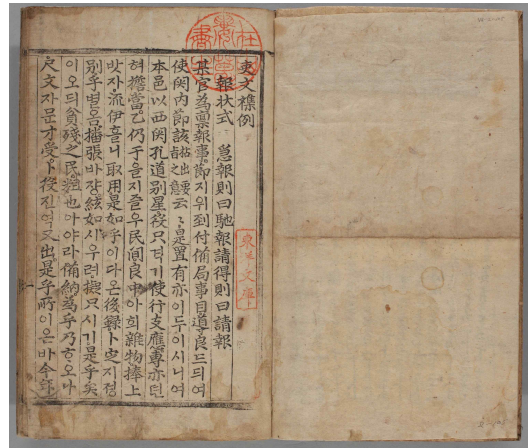
3) 안병희(1987:12)에서도 7개의 문서로 보았다.

문서(三件文字)’는 앞의 보장식, 소지식, 상언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여기서도 서목식은 보장식의 한 부분인 것처럼 다루어져 있으나 이 또한 편집자의 부주의로 보인다. 한용자 조항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의 네 문서에는 이두에 한글 독음이 비교적 빠짐없이 달려 있고 그 이후의 네 문서에는 새로 출현하는 이두 위주로 한글 독음이 드문드문 제시되어 있다.

한편 제10장부터 끝까지는 ‘이상국거관훈범(李相國居官訓範)’이 실려 있는데 이두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두로 작성된 문서의 여러 가지 사례’라는 의미의 ‘이문잡례(吏文襟例)’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글이다. 따라서 형식상 앞의 8가지 이두 문서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문이 아닌 부록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東洋文庫『吏文襟例』



[그림 2] 東洋文庫『吏文襟例』(목판본)

그동안 『이문잡례』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이 현재 학계에 알려져 있는 유일본으로 알려져 왔다. 국내에 홍순혁 교수 가장본(家藏本)이 있다는 본인의 기록이 있으나 실물이 공개된 바 없다. 또한 동양문고본은 인쇄와 보관 상태가 좋은 선본(善本)이어서 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자료를 연구하는 데에 동양문고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었다.

『이문잡례』는 널리 유포되지는 않은 듯 현재 남아 있는 책이 거의 없다. 그러나 비슷한 성격의 문헌으로 당시 폭넓게 읽혔던 『유서필지(儒胥必知)』에 『이문잡례』에 실린 문서 8종 가운데 소지식과 상언식을 제외한 6종이 다시 실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점을 중시하여 『이문잡례』를 『유서필지』의 ‘남본(濫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서필지(儒胥必知)』의 체제상 『이문잡례』에서 옮겨 실은 내용은 본문이 아니고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지나친 표현이라 하겠다. 더욱이 일부 선행 연구나 해제에서는 『유서필지』의 부록으로 유명한 ‘이두회편(吏讀彙編)’까지도 『이문잡례』에서 옮겨 실은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최근 학계에 보고된 필사본 『경리잡설(經理雜說)』을 참고하면, 『유서필지』의 편찬자는 별도의 이두 어휘집인 『동국이두회편(東國吏讀彙編)』과 『이문잡례』를 재편집하여 『유서필지』의 부록으로 함께 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서필지』와 관련하여 『이문잡례』의 가치는 오히려 텍스트의 정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책에 공통적으로 실린 보장식, 서목식, 중수동추식, 결송입안식, 매득사출식, 이관하

첩식의 텍스트를 대교(對校)해 보면 『이문잡례』의 것이 훨씬 정확하고 오류가 적다. 특히 한글로 표시한 이두 독음 부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爲行如可, 爲白在果’의 경우 『이문잡례』에는 ‘헝여자가, 헝숯견과’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유서필지』에서는 판본에 따라 ‘헝여나가/헝여나기, 헝숯겹과/헝숯건과’ 등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문잡례』에 실려 있는 188항목에 이르는 이두의 한글 독음 표기는 『유서필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이두 독음을 추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양문고본 『이문잡례』에는 조선 후기에 사용되던 한자의 다양한 이체자(異體字)와 약자(略字)가 등장한다. 예를 들면 問(問), (關), 水(等) 또는 水(等), 𪛗(隱), (齊), (發), (實), (號), 回(因), (條), (京), 与(與), (須) 등이 보이는데 이들은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널리 사용하던 자체였으므로 한국 한자의 이해와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들 이체자나 약자들은 특히 이두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𪛗(隱)’자의 경우 ‘은’이라는 음절을 적을 때는 정자인 ‘隱’을 쓰고 ‘ㄴ’이라는 음소를 적을 때에는 약자인 ‘𪛗’를 쓰는 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경향이 있어 흥미로운 모습을 보인다.

한편 제1장의 앞면에는 구두점(句讀點)과 사성점(四聲點)으로 생각되는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독자가 자의적으로 기입한 것으로서 일관된 사용 원칙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2.1.2. 『유서필지(儒胥必知)』 (편자 연대 미상. 목판본(7-8 종의 異版本 있음))

한말 갑오경장 때까지 관청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이른바 이서체문장(吏胥體文章)인 이두(吏讀)로 쓰여진 공문서식(公文書式)이다.

선비와 서리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상언(上言)·소지(所志)·의송(議送)·문권(文券) 등 서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공문서 작성의 편람이다. 편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서배(吏胥輩)의 편찬설이 유력하다. 편찬연대는 『대전통편』이 나온 1785년(정조 9) 이후에 이조에서 공문서식 예규집(例規集)으로서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유탁일(1984)에서 초간본의 간행연대가 1844년(헌종 10년)일 것으로만 추정해 왔는데, 김봉좌(2005)에 따르면, 현전하는 『유서필지』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甲辰年孟春開刊 武橋新刊’본인데 ‘甲辰’은 1844년(헌종 10년)이며 무교는 서울의 무교동이나 그 일대를 가리킨다고 한다. 따라서 편찬은 이보다 더 이른 시기로 추론할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대전통편(大典通編)』(1785년)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즉, 1785년 이후 1844년 이전에 원고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목판본에 보이는 간기로 보아 전주에서 1872년(고종 9)과 1892년에 거듭 간행됨으로써 널리 보급된 듯하다.

초간본인 원본에는 목록에 보이는 대로 상언류(上言類) 서식 12종을 비롯하여 원정류(原情類) 서식 4종, 소지류(所志類) 서식 24종, 단자류(單子類) 용례 3종, 고목류(告目類) 용례 8종, 문권류(文券類) 서식 6종, 통문투(通文套) 1종만 수록되어 있고, 현재 전하고 있는 중간본에는 『이두회편(吏讀彙編)』과⁴⁾ 『이문잡례』의 보장식(報狀式)·서목식(書目式)·중수동추식(重囚同推式)·결송입안식(決訟立案式)·매득사출식(買得斜出式)·이관하첩식(移關下帖式) 등 6종의 공문서식이 부록되어 있다.

중간본은 이본에 따라 판광(板匡)의 크기가 다르지만 목록·범례·본문·부록을 합하여 52장

4)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두회편』을 『이문잡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았으나, 잘못이다.

(張)에 걸쳐 매면 12행으로 판각되었다. 『유서필지』 중간본에는 300여 개의 이두어휘, 즉 좁은 뜻으로 쓰여진 이토(吏吐)가 활용, 수록되었는데, 특히 부록된 『이두회편』에는 이두의 어휘를 1자류(字類)에서 7자류로 분류하여 모두 244어를 실었으며, 이두어휘 아래에 국문으로 그 읽기를 보였다. 이 책은 이두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문헌으로 7,8 종의 아판본(異版本)이 존재하며, 규장각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2.1.3. 『신식유서필지(新式儒胥必知)』 (1901년(光武5) 黃泌秀 편. 목판본)

1901년에 전문도서편찬자인 황필수(黃泌秀, 1842~1914)가 『유서필지』를 개편한 책이다. 『유서필지』의 초간본을 보았는지 부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 대신, 소인(小引)에 밝힌 바와 같이 원본의 소지류(所志類)를 전부 삭제하고 신식 국한문체로 기록된 민형소송규정(民刑訴訟規程)의 서식 7종을 비롯하여 청원서 5종, 장정규칙(章程規則) 10종과 13도의 지명이수(地名里數)와 등급이 열거되어 있는 신식·구식 병용의 공문서식집이다. 소인·목록 2장과 본문 41장에 걸쳐 매면 14행으로 판각된 전형적인 한지 목판본이다. 여기 실린 이두문은 『유서필지』에서도 한글 독법이 없고, 부록인 『이두회편』도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두의 학습서라 하기 어렵다.

2.2. 이두(吏讀)의 자류집람(字類輯覽)

이두문(吏讀文)에 널리 사용되는 이두(吏讀)를 수집하여, 자수(字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두의 이러한 분류방식은 최세진(崔世珍)의 『노박집람(老朴集覽)』에 있는 자해(字解)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⁵⁾ 이두에는 한글로 독법이 표기되어 있다.

2.2.1. 『전률통보(典律通補)』 초고본의 <이문(吏文)>(구윤명, 1761?)

1761년(영조37)경 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편찬한 『전률통보(典律通補)』의 초고본 부록에 실려 있다. 이 초고본은 구윤명의 서문을 갖고 있으며 수정본과 내용도 다르고 이문(吏文)도 같지 않다. 자수가 많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字인 이두에 이른다. 여기 이문은 『이문잡례(吏文襟例)』의 이문과 같은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나, 내용이 이두만을 수록한 것이므로 이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사본(寫本)으로만 전한다.

2.2.2. 『전률통보(典律通補)』 수정본의 <이문(吏文)>(구윤명, 1786)

1786년(正祖 10) 구윤명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구윤명이 정조의 명에 따라 초고본을 수정하여 편찬한 책이다. 부록의 이문에 수록된 이두의 수효와 주석에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 이 책은 본래 간행하려 하였으나 備邊司의 요청으로 보류되었기 때문에 사본으로만 전한다.

2.2.3. 『고금석림(古今釋林)』의 <나려이두(羅麗吏讀)> (이의봉, 1789)

5) 1657년(孝宗8)의 『語錄解』가 1字類, 2字類, 3字類 등으로 語錄을 분류한 것도 같은 방식이다.

이의봉(李義鳳, 1733~1801)이 1789년(正祖13) 서문(序文)을 붙여 편찬한 『고금석림(古今釋林)』권40 끝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총 7장으로 수록된 어휘수는 172항이다. 이두 어휘를 그 글자수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1자류에서 9자류까지 있다. 이것은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그 당시 사용된 이두 어휘의 극히 일부분만 수록되었으며, 그나마도 2자류 총 86어휘 중 특수어휘(행정이나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휘, 곧 이문 어휘)가 37항이 된다.

『고금석림』 전체가 한문이나 국어로 풀이되었는데, 여기서는 특수어휘는 한문으로 풀이하고, 나머지는 국어로 그 당시의 독법만 적었으므로 ‘爲遣호고’, ‘唯只오직’ 같은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나, ‘粗也아야라’, ‘敎味白如이산맛살짜’ 같은 것은 그 뜻을 알기 어렵다. 풀이된 것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白)’을 모두 ‘울’로 풀이하였다. 몇 어휘는 ‘ㅂ’을 내리읽어 ‘爲白乎矣’를 ‘호울보디’로, ‘爲白乎所’를 ‘호울본바’로 적어 ‘숯’의 흔적을 보일 뿐이다. 그런데 같은 이두 어휘집인 『이문(吏文)』(典律通補 부록) · 『이두편람(吏讀便覽)』 · 『이두회편(吏讀彙編)』(『儒脣必知』 부록)에는 ‘숯’으로, 『이두(吏讀)』에는 ‘살~술~숯’으로, 『이어(吏語)』(宋浚吉이 지은 『語錄解』 부록)에는 ‘술~읍~숯’으로 적혀 있다.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 ‘습’계는 이미 그 기능이나 형태가 무너져 ‘삼→사오, 압→아오, 잡→자오’로 바뀌었는데, ‘울’로 적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둘째, 구개음화현상의 반영을 보면 여러 이두서 가운데 『이두편람』에는 구개음화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나려이두>에서는 심한 혼기(混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喻, 喻乃’는 ‘디나, 씨나’로 ‘不喻’는 ‘아닌지’로 혼기하였으며, ‘節’을 ‘디위, 지위’로 혼기하고 있다. ‘重記, 俵音’은 ‘둥지, 다딤’으로 적고 있으나 ‘的實, 卜定, 卜役’은 ‘적실, 지딩, 지역’으로 적었다. <이두방언 吏讀方言>(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藁』 권48 語錄辨證說 부록)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나, 그 밖의 『이두회편』이나 『이두』 · 『이어』 등에서는 구개음화현상이 거의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 책들의 간행연대가 확실하지 않음이 문제이나 구개음화의 실현시기 추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 잘못된 것이 더러 있다. 예를 들면, ‘始叱’은 ‘비릿’인데 ‘비룰’로, ‘敎事’는 ‘이산일’인데 ‘이산’으로, ‘爲如乎’는 ‘하다운’인데 ‘이드온’으로 되어 있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9자류가 끝난 뒤에는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 訓蒙字會』 범례 중 언문자모(諺文字母) 부분을 실고 있다. 그러나 편자는 출전을 밝히지 않고 ‘부훈민정음아세종대왕어제(附訓民正音我世宗大王御製)’라고만 제목을 붙이고 바로 이 부분을 실었는데, 몇 개의 오자와 탈자를 내고 있다. 그 가운데 ‘초중중삼성함용작자례’ 다음의 ‘ㄱ下各音爲初聲’에서 ‘初’자를 뺀 것과 ‘ㅇ字之音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에서 ‘喉’자를 ‘唯’자로 쓴 것과 ㅍ과 ㅇ의 차이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ㅍ의 자형을 세 군데나 ㅇ로 쓴 것이 눈에 띈다.

<나려이두>는 조사 및 어미 등의 이두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지만, 수적으로 적고 대역한 부분의 표기상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몇 가지 잘못된 것도 있으므로, 이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2.4. 『이두편람(吏讀便覽)』(편저자 미상. 일본 동양문고 등 소장)

19세기에 이두(吏讀) 및 이문(吏文)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를 모아 그 독법과 의미를 주석해 놓은 책이다.

『이두편람』은 법례를 통해 편찬의 동기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실제 출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현재 전해지는 4종의 이본이 모두 필사본이며 간본은 발견되지 않은 점, (전주본을 제외하면) ‘집람이문’ 편의 편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 (동양문고본을 제외하면) 책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문장이 본문 사이에 협주로 기록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출간된 책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전하는 『이두편람』의 저본은 출간 이전의 원고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장처	표제	내제	책수	분류번호
일본 동양문고	吏讀便覽	吏讀便覽	1책	VII-2-279
일본 고마자와대학	吏讀便覽(吏讀攷)	吏讀便覽	1책	濯足359
서울대 중앙도서관	震覽	吏讀便覽	1책	가람古 903 J563
전주고등학교	吏讀便覽	吏讀便覽	1책	(분실되었음)

[표 1] 『이두편람』의 이본 4종

『이두편람』의 네 이본 가운데 동양문고 소장본은 전 소장자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직접 펜으로 옮겨 적은 것으로서, 여기에는 다른 세 이본과는 달리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는 문장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두 및 이문 항목의 배열이나 독음표기 등 세부적인 면에서도 다른 이본들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두편람』은 위의 특징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초고에 가까운 원고를 필사한 계통(동양문고본)이고, 둘째는 초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협주로 기록해 놓은 원고를 필사한 계통(고마자와대학본, 전주본, 가람본)이다. 동양문고본은 그 중 첫번째 계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본으로서 서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동양문고본은 모두 17장으로 이루어진 불분권 1책의 필사본이다.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두편람법례(吏讀便覽凡例: 제1장)’, ‘이두편람(吏讀便覽: 제2~7장)’, ‘집람이문(輯覽吏文: 제8~11장)’, ‘행용이문(行用吏文: 제12~17장)’. 따라서 ‘이두편람’은 이 책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 책을 구성하는 첫째 편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두편람법례’에서는 먼저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책을 편간하여 삼가 임금의 뜻을 따르니, 세대가 이미 너무 멀어져 이어(俚語)가 비록 변하여 바뀌었으나 문서와 장부에는 아직도 전습하는 게 많다. 문맥이 매끄럽고 조리가 있으면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검장(檢狀)과 옥안(獄案)에서는 더욱 그만둘 수 없다. 널리 퍼트려 균일하게 한다면 이 또한 흠휰(欽恤)을 받드는 일단이라고 하겠다.”(今此編刊, 恭遵睿旨, 世代已遠, 俚語雖有變易, 文簿尙多傳襲. 語脈之承接折轉, 最覺分曉, 檢狀獄案, 尤舍他不得, 廣布均一, 亦以仰欽恤之一端云.)고 하여 책의 편찬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세 항목에 걸쳐 (1) 설총이 만든 100여 항목의 이두를 1자부터 10자까지 수록한다는 점, (2) 최세진이 편찬한 『이문집람(吏文輯覽)』에서 사용할 만한 100여 조를 가려 주석과 함께 뒤에 붙인다는 점, (3) 당시의 방언으로 관부(官府)나 주현(州縣)에서 사용되는 ‘尺文, 還上, 薛里, 召史’ 등은 한문에 쓰이는 것과는 음과 훈이 다르므로 이런 것들을 모아 『이문집람』의 예를 따라 제시한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이두편람’ 편에는 ‘節 디위’ 등 1자류 9개, ‘爲遣 ㅎ고’ 등 2자류 105개, ‘爲在果 ㅎ건과’ 등 3자류 62개, ‘爲有如乎 ㅎ잇다운’ 등 4자류 70개, ‘爲白乎等以 ㅎ숯온들로’ 등 5자류 28개, ‘爲乎乙喻在果 ㅎ올디건과’ 등 6자류 12개, ‘爲白乎等以用良 ㅎ숯온들로쓰아’ 등 7자류 8개, ‘便亦不納爲乎樣以 스희여불납ㅎ온양으로’ 등 8자류 5개, ‘使內有亦爲白臥乎事

브라운이여호수온일’ 등 9자류 3개, ‘某戈只進叱使內良如爲 이모과그리나쓰잇브라아허트러’ 등 10자류 3개 등 총 305개 항목의 이두와 독법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집람이문’ 편에는 『이문집람』(명나라와 주고받은 외교문서 등을 모은 『이문』에서 어려운 어구를 뽑아서 풀이한 책으로 최세진이 편찬하여 1539년 간행)에 수록된 어구 중에서 당시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모두 124개 항목을 옮겨 실었다. 옮겨 실는 과정에서 약간의 첨삭이 있었다. 그런데 이 편은 편집상 완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편이 시작하는 제8장에는 아무런 이름 없이 ‘端布’ 등의 40개 항목만 실려 있고, 그 다음 장에 가서야 첫 줄에 ‘집람이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다음 줄부터 ‘奏’ 등의 84개 항목이 1자류부터 4자류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자류의 명칭은 없음). 책의 체제상 ‘端布’ 등의 40개 항목은 뒤의 2자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마도 1차 편집이 이루어진 후 40개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이 미처 편집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행용이문’ 편에는 당시 관청의 공문서에서 사용하던 이문 가운데 한문의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구들을 모아 1자류부터 4자류까지 모두 172개의 항목을 나열하고 주석을 달아 놓았다(‘집람이문’ 편과 마찬가지로 이하였는데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역옹패설(櫟翁稗說)』,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 남학명(南鶴鳴, 1654-1722)의 『회은집(晦隱集)』, 남극관(南克寬, 1689-1714)의 『몽예집(夢嚙集)』 등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인용하였다.

2.2.5. 『재물보(才物譜)』의 <이두(里讀)> (李成之(晚永) 편, 1798(正祖 22))

이만영(성지)이 1798년 편찬한 『才物譜』의 전사본(轉寫本)에 나타나는 1편이다. 재물보는 삼재인 천보(天譜), 지보(地譜), 인보(人譜)와 만물인 물보(物譜)로 표제어를 나누어 싣고 풀이한 사서(辭書)이다. 전사본의 연대는 19세기 전반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1798년의 초고본에 가까운 한 전사본에서는 표제어 이두와 풀이만 있으나, 19세기 전반기의 전사본에서는 표제어를 ‘里讀’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두(吏讀)를 수록하여 한글로 독법을 보이고 있다. 수록된 이두는 약 40항이다. 1자류에서 2자류 등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자수(字數)를 나타내는 표시는 없다.

2.2.6.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語錄辨證說>附錄(이규경(李圭景, 1788~?))

이규경(李圭景, 1788~?)이 헌종(憲宗) 때 편찬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1편인 <어록변증설(권49)>의 끝에 부록으로 ‘吏讀方言文字若干字’라 하여 약 80 항의 이두를 수록한 것이다. 어록이 중국의 속어(俗語)로서 이두와 비슷한 성격이므로 어록변증설에 이두가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두는 1자류와 2자류만 있는데, 자류에 따른 제목도 있다.

2.2.7. 『이두휘편(吏頭彙編)』

이두문의 문례집인 『유서필지』의 부편(附編)으로 붙어 있으나 『유서필지』와는 별개의 책이다. ‘吏讀’을 ‘吏頭’라 하였다. 『이두편람(吏讀便覽)』이 나타나기 전에는 가장 많은 230여 항의 이두를 수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經俚彙說』 및 小倉文庫 『公私恒用錄』에도 합

철되어 있다.

2.2.8. 『주해어록총람(註解語錄總覽)』의 <이문어록(吏文語錄)>(1919년 한남서림(漢南書林)발간)

1919년 한남서림에서 발간한 『주해어록총람』의 부록이다. 『어록해』와 『서상기(西廂記)』 등 소설의 어록을 수록한 뒤에, 이두를 수록하고 <吏文語錄>이라 한 것이다. 자류에 따른 제목을 붙이고 약 180 항의 이두를 수록하여 한글로 독법을 보였다. 안병희(1987)에서는 자류집람(字類輯覽)으로는 이것을 마지막 책으로 보았다.

2.3. 한자성어(漢字成語)와 이두(吏頭)의 용례집(用例集)

여러 서식의 이두문(吏讀文)에 쓰인 한자성어와 이두를 발췌하여 한글로 독법을 보인 것이다. 이 계통은 문례집과 자류집람의 절충이라 할 수 있다.

2.3.1. 『이문대사(吏文大師)』

지방 관청에서 사용되던 이두문서에 보이는 한자어와 이두를 모은 책으로, 이두에는 한글로 독법을 써놓았다. 이 책은 『이문(吏文)』이라는 책과 함께 이두문서를 사용하는 지방의 서리를 위한 학습서로 이용된 듯하다. 이 책을 편찬한 사람과 연대는 알 수 없다. 현재 목판본 2종과 필사본 2종이 알려져 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도 있다. 규장각 소장의 가람문고본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목판본으로, 같은 판본은 아니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이겸로(李謙魯)씨 소장본은 필사본으로, 목판본을 보고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

책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문서의 첫머리와 결말 부분에 쓰이는 한자어와 이두를 보이고 문서에 널리 쓰이는 한자어와 이두를 보인다. 그 다음에 흔히 쓰이는 이두만을 제시하고 공문서의 결사(結辭) 형식을 보인다. 이 책에 쓰인 이두의 한글 표기는 『유서필지』나 『이문잡례』 등과 비슷하지만 보다 앞선 시기의 것이다. 『유서필지』나 『이문잡례』에는 구개음화와 순음화 등이 나타나지만 이 책에서는 ‘倭音다담(1a), 秩秩이디딜로(3a); 退伊물리(2b), 況旵ᄃᆞᆫ물며(4b)’에서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책에서 ‘白’을 ‘숯’으로 잘못 쓰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것이다. 규장각 소장의 <가람 古 411.1-Im9>는 인쇄 상태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읽기 어려운 곳이 많고 탈획된 글자도 있다. ‘報使敎事이샤일(1a), 矣身耳亦의몸ᄃᆞᆫ러(1b), 易亦아ᄃᆞᆫ허(1b), 爲白有昆ᄃᆞᆫ숯잇꼬(3b)’ 등이 그것이다. ‘次知並因ᄃᆞᆫ슈(3a)’에서의 ‘ᄃᆞᆫ’은 ‘白(숯)’과 마찬가지로 잘못 표기되고 있다. ‘望良白去乎ᄃᆞᆫ리숯거옴(4a)’의 ‘良(리)’와 ‘乎(옴)’도 오자로 보인다.

2.3.2. 『이문(吏文)』

조선시대에 이문(吏文)의 학습을 위하여 실제의 외교문서를 자료로 하여 편찬한 책이다. 승문원(承文院)에서 이문학도(吏文學徒)들의 이문 교육을 위해 만든 교재로 쓰였다.

이 책은 성종 때에 승문원(承文院)에서 편찬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문원은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인데, 아울러 이문의 교육도 담당하였으며, 괴원(槐院)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개국 초에는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가 설치되어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했는데, 이를 1411년에 승문원으로 개칭한 것이다.

‘이문(吏文)’은 중국과 주고받는 외교문서 및 우리나라의 관청 공문서 등에 사용되던 독특한 한문의 문체로, 한문의 골격에 중국의 속어(俗語) 또는 특수한 용어 등을 섞어 쓴 공문서식을 말한다. 이문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었으므로 배우기 어려워 조선에서는 사역원과 승문원에 이학박사를 두어 가르쳤다. 이문학습에 사용된 교재로는 『吏文謄錄』, 『至正條格』, 『大元通制』 등이 있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吏文』과 최근 발견된 『지정조격』이 있다. 원래 총 4책이었으나, 현재 3책만 남아있으며 총 93건의 이문이 실려 있다. 최세진이 이문의 학습참고서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1539년(중종 34)에 편찬한 『吏文輯覽』의 범례에 의하면, 본서의 권1은 내용이 한문(漢文)인 ‘宣諭聖旨’로서, 이문을 익히는 데에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승문원에서 『吏文』의 권1을 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권2는 1370년(공민왕 19)부터 1441년(세종 23)까지 오고간 咨, 奏, 申, 呈, 照會를 모은 것으로 <祭祀山川立碑中書省咨>·<前原平章事劉益投順中書省咨>·<蘭秀山叛賊干連人高伯一發回咨>·<前原平章洪寶寶悖逆咨>·<洪寶寶軍馬聲息呈>·<逃軍梢陳均祥等起取咨呈>·<賀平蜀兼請子弟入學咨>·<正朝禮物發回咨>·<金義叛逆都評議使司申>·<請通朝貢道路咨>·<金甲雨盜賣馬罪名咨>·<濟州行兵都評議使司申>·<取發李綁帖等人戶高家奴咨呈>·<軍人江才等告人命遼東照會>·<鐵嶺等處枋文張掛咨>·<殺害薛興人捉獲遼東都司帖>·<北清州萬戶金得卿生邊釁遼東照會>·<再催李梁里不巧等人戶遼東照會>·<運糧指揮馬扒破船遼東照會>·<到換符驗禮部咨>·<倒死無皮馬依數解來遼東照會>·<給送馬價禮部咨>·<公用紙筭等三件禮部咨>·<逃軍邊都里哥等起取等項禮部咨>·<賜樂器禮部咨>·<逃軍邊都里哥等催督禮部咨>·<催督邊都里哥等及搬取修鎖魯阿等禮部咨>·<起取人民及欽賜書籍等件禮部咨>·<遭風百戶徐慶呈>·<給賜馬價戶部咨>·<請通刺榆塞道路奏>·<凡察等所遣人民皆不願去仍請凡察等還舊居奏> 등 32건의 문서가 있다. 권3은 1456년(세조 2)부터 1478년(성종 9)까지의 咨-奏-呈-題奏를 모은 것으로 <免世子來朝禮部咨>·<遭風軍人鎖慶等敗船錢糧搬運事申奏>·<發回漂風人高處誠等禮部咨>·<發還婦女趙羅得遼東咨>·<征勦建州三衛遼東都司咨>·<發回被虜牟斤重遼東咨>·<發回被虜女金哈冬伊遼東都司咨>·<發還在逃朝鮮僧人志清遼東都司咨>·<邊警遼東咨>·<發還被虜員鎖貴遼東咨>·<欽差正副使祈張等禮部題咨>·<開讀知會遼東咨>·<建州衛女直釋怨止戈遼東都司咨>·<倭寇聲息馳報遼東都司咨>·<野人聲息遼東咨>·<強盜張政等射傷朝鮮使臣遼東都司咨>·<撫安夷人馬侍郎題呈>·<聲息山東道呈>·<交趾接境雲南邊備禮部題>·<安南朝貢禮部題> 등 20건의 문서가 있다. 권4는 중국에서 조선에 보내온 외교문서가 아니고, 禮部와 외교관련 官衙에서 발행한 榜文을 옮겨 적은 것이다. 다른 외교문서와 달리 권4의 문서는 명나라에서 시행되던 외교관행과 외교실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1402년(태종 2)부터 1476년(성종 7)까지의 榜文으로 <禁約販賣番貨事禮部榜>·<漢王反叛事兵部榜>·<禁約擅入會同館賣買事會同館告示>·<禁約外國朝貢人等傷害驛所事通州路河水馬驛榜>·<皇帝婚期邇近女子年十三至十五令其父母親送赴京事禮部榜>·<禁約擾害驛使事永平府榜>·<禁約擅騎驛馬驢匹事薊州總兵官都督王榜>·<會同館新蓋不許作踐損毀事兵部榜>·<禁約偷逃瓦剌使臣馬駝行李事都察院榜>·<達賊近邊隄備事廣寧前屯衛批>·<禁約欺侮瓦剌使臣事都察院榜>·<糴買糧米事戶部告示>·<禁約阻當鈔法事撫寧衛指揮

使司告示>·<清理軍伍事兵部榜>·<大祀文武官員致祭事禮部告示>·<禁約賣與外夷青花磁器事遼東都司告示>·<禁約私宰耕牛事都察院榜>·<禁約放班軍人攪擾居民事兵部榜>·<禁約作騙正月赴京諸司官員財物事吏部告示>·<禁約作騙正月赴京諸司官員財物事都察院榜>·<禁約擅起站馬事都察院榜>·<禁革倉場驛分收放錢糧姦弊事永平府告示>·<干謙等反亂伏誅事都察院榜>·<禁約朝貢野人攪擾沿途事薊州告示>·<招募軍務將士事兵部榜>·<達賊盤捕事海州衛指揮使司榜>·<懲勵遼東官吏事海州衛指揮使司榜>·<禁約不遵冠服器皿房屋等定制越禮僭分事禮部榜>·<曉諭錦衣衛巡捕強盜事都察院榜>·<驛舍修理事漁陽驛告示>·<賑濟飢荒人民事豐潤縣告示>·<頒曆事禮部告示>·<禁約朝貢夷人伴送通事等情弊事禮部榜>·<防範流民進山竊礦事都察院榜>·<禁妖書妖言事都察院榜>·<禁約驛遞宿弊事廣寧中衛指揮使司榜>·<筵宴位次事禮部榜>·<禁革各處保來僧道無得行賄囑事祠祭清吏司榜>·<禁約作稱當職弟姪兒男等作弊事豐潤縣告示>·<禁約僧尼不守戒行犯奸等事都察院榜>·<禁約交通夷人賣與軍需事兵部告示> 등 41건의 문서가 있다.

규장각 소장의 상백문고본(古貴 411.1-J773i- v.2-3)과 화봉문고 소장의 『이문』이 이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을해자본이다. 이것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갑인자본(甲寅字本) 권4의 1책(故 李謙魯씨 소장)도 전한다. 규장각의 상백문고본(古 411.1- Im9-v.2)과 古 5700-5, 奎 26612는 목판본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동양문고본은 을해자본으로 인쇄한 것을 목판으로 복각한 복각본이다. 책의 앞 부분에 ‘承文院’이라는 인기(印記)가 있고, 책의 후면에 ‘世嘉穆隆今萬曆’이라 필사한 내용으로 보아, 시기는 만력(萬曆) 연간(1573-1620)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화봉문고에 임란 후의 목판본 1종과 필사본 1종도 소장되어 있다. 日本 宮内廳 書陵部 소장의 목판본 1책을 저본으로 한 신식활자본이 1942년에 간행된 바 있는데 이 책은 국내 소장의 목판본보다 조잡하므로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문』은 역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여말선초 108년간의 대명 외교문서선집의 성격을 가진다. 이 책은 對明外交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吏文의 실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 『이문』에는 중국과 조선의 많은 지명이 출현하는데 예를 들어 ‘義州’가 ‘艾州’ 또는 ‘愛州’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문자학적 측면에서는 ‘이문(吏文)’이 ‘이두(吏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찰이나 구결과 함께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 생활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방 관청에서 사용되던 문서는 주로 이문에 한자를 차용하여 구결을 단 이두문서였는데, 우리나라 지방의 서리(胥吏)를 위하여 이두문서에 쓰인 한자어와 이두를 모아 한글로 독법을 보인 학습서 역시 『이문대사(吏文大師)』, 『이문(吏文)』이라는 명칭으로 쓰였다. 이두 학습서로 이용된 『이문』과 이문의 학습을 위하여 편찬된 이 책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의 경우 ‘한이문(漢吏文)’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이 책의 주석서인 『이문집람』을 이해하는 책으로서, 중국의 속어나 관청용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3. 小倉文庫[오구라문고]의 『공사항용록(公私恒用錄)』

[L174641]의 도서번호를 가진 일본 오구라문고의 『公私恒用錄』은 편저자 미상, 편년 미상의 책이다. 제목으로 보아, 공사(公私)로 항상(문서에) 사용되는 말들을 모은 책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권두제는 ‘공사항용록’으로 되어 있지만 각각 다른 내용을 가진 책들의 합

편이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동언해(東諺解)』가 14장, 『이두회편(吏頭彙編)』 4장, 『이문잡례(吏文襍例)』 22장, 『당순양려조사생생신수(唐純陽呂祖師生生神數)』 21장, 『水湖志 語錄解』 1장, 『방소법(方所法)』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東諺解』(19세기)로, 한역속담(漢譯俗談)이 총 425항 실려 있다.

『이두회편』은 1자류로부터 7자류까지 이두가 정리되어 있다. 그동안 이 자료는 『유서필지』의 부록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문잡례』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책에서는 따로 편철되어 있다.

『이문잡례』는 비록 필사본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유일본이라고 알려진 동양문고의 것보다 분량도 많고 선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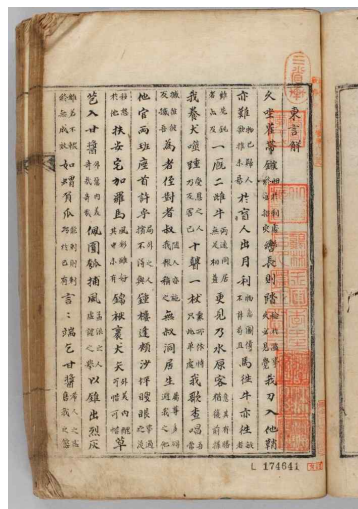
『당순양려조사생생신수(唐純陽呂祖師生生神數)』는 국내에는 전하는 것이 없고, 동양문고에도 필사본(1책 22장)으로 존재하는데, 道家類에 포함되어 있다.

『수호지 어록해』는 1자류와 2자류만 한 장 필사되어 있다.

『방소법(方所法)』은 국내에서는 규장각에 민간주술서인 『증보전천기대요(增補參贊秘傳天幾大要)』(古181.111-Im1c-v.1-2.) 속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3] 小倉文庫 『公私恒用錄』



[그림 4] 『公私恒用錄』 <東諺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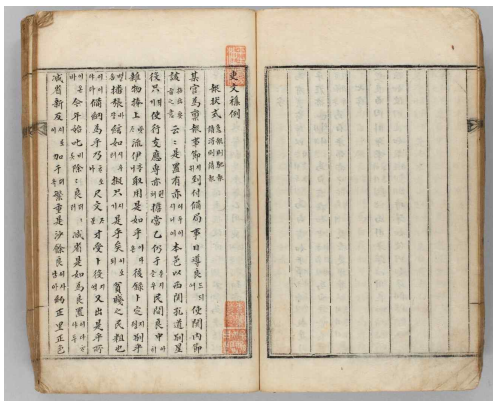
4. 小倉文庫 소장 필사본 『吏文襍例』

4.1. 小倉文庫 『이문잡례』의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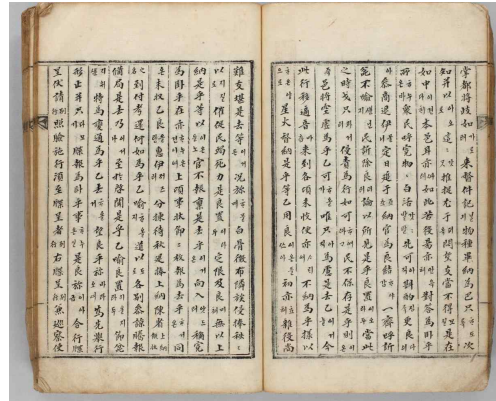
여기 소개하는 『이문잡례(吏文襍例)』는 그동안 유일본으로 알려진 東洋文庫의 『이문잡례』보다 더 풍부한 내용과 서식을 갖추고 있다. 그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장식(報狀式), 소지식(所志式), 상언식(上言式), 중수동추식(重囚同推式), 결송입안식(決訟立案式), 매

득사출식(買得斜出式), 이관하첩식(移關下帖式),⁶⁾ 유서식(諭書式), 사품이상고신식(四品以上告身式)⁷⁾, 오품이하고신식(五品以下告身式), 추증식(追贈式), 차첩(差帖), 홍패식(紅牌式), 백패식(白牌式), 잡과백패식(雜科白牌式), 녹패식(祿牌式), 향리면역사패식(鄉吏免役賜牌式), 노비전토사패식(奴婢田土賜牌式), 경사계본식(京司啓本式), 계목식(啓目式), 초기식(草記式), 외방진전식(外方進箋式), 외방계본식(外方啓本式), 장계식(狀啓式), 상소식(上疏式), 차자식(劄子式), 상언식(上言式), 정사식(呈辭式), 하직단자식(下直單子式), 사은단자식(謝恩單子式), 수령천단자식(守令薦單子式), 신문(申文), 차문(劄文), 정문(呈文), 첩정식(牒呈式), 서목식(書目式)⁸⁾, 평관식(平關式), 첩식(帖式), 선유이관식(鮮由移關式), 선유첩정식(鮮由牒呈式), 추고발함식(推考發緘式), 경관함답식(京官緘答式), 입안식(立案式), 감합식(勘合式), 호구단자식(戶口單子式), 호구식(戶口式), 서질단자식(署經單子式), 둔녕단자식(敦寧單子式), 선원단자식(璿源單子式), 공신자손세계단자식(功臣子孫世系單子式), 육행단자식(六行單子式), 참알육행단자식(參謁六行單子式), 혼서식(婚書式), 고부식(告訃式), 조장식(弔狀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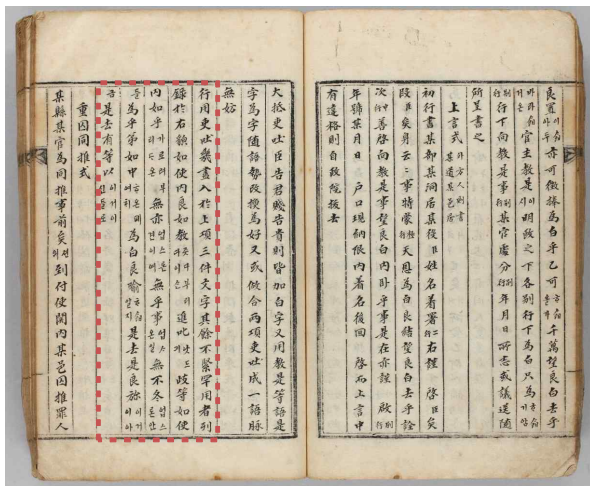


[그림 5] 小倉文庫『吏文襟例』(필사본)1a



[그림 6] 小倉文庫『吏文襟例』1b-2a

목판본 『이문잡례』와 마찬가지로, 상언식과 중수동추식의 사이에 ‘지금 쓰고 있는 이두는



[그림 7] 小倉文庫『吏文襟例』- 罕用者

거의 다 앞의 세 가지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나머지 간요하지 않아 드물게 쓰이는 것들은 아래에 싣는다 (行用吏吐幾盡入於上項三件文字其餘不緊罕用者列錄於左)’라고 하는 이른바 ‘한용자(罕用者)’의 설명 문구가 등장한다. 이어서 ‘貌如使內良如教준다부리다이슨’ 등의 드물게 쓰이는 이두 11항목의 표기와 한글 독법이 실려 있다. 이 설명 문구에서 말하는 ‘세 가지 문서(三件文字)’는 앞의 보장식, 소지식, 상언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용자 조항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의 네 문서에는 이두에 한글 독

6) 여기까지는 동양문고본(목판본)과 순서 동일. 서목식이 뒤로 빠짐.

7) 전술한 『세조실록』의 기사 참조.

8) 동양문고본에는 앞에 있는 서목식이 뒤에 나온다.

음이 비교적 빠짐없이 달려 있고 그 이후의 네 문서에는 새로 출현하는 이두 위주로 한글 독음이 드문드문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유일본으로 알려진 동양문고본의 7개 항목(서목식 포함하면 8개 항목)에, 이 책에 더해진 49개의 행정 문서서식을 더하여 총 56 개의 문서서식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 후기의 행정문서 서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유서필지』가 이두문의 공사(公私) 문서 학습을 위한 서리배들의 교재였다고 한다면, 『이문잡례』는 이에 더하여 양반 사대부들을 포함하는 계층의 공사 문서 학습을 위한 교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두문 쓰기와 관련된 것으로는 법전(法典)의 문서 규칙이 있는데, 공문서(公文書) 규칙을 정한 것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을 비롯하여 『전률통보(典律通補)』, 『추관지(秋官志)』 등에 규정된 문서 규칙들이 그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각종 공문서의 규칙과 문서 이행(移行)의 절차를 정한 것인데, 이것은 이두문 쓰기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나, 이두문을 사용해서 작성해야 하는 공문서의 규칙과 소통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교재로서의 성격을 띠다고 하겠다. 이두문 공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관리는 이 규칙들을 숙지하고 규칙에 맞추어 능숙하게 문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小倉文庫本 『이문잡례』는 이러한 각각의 법전 등에 제시된 공문서의 형식을 모아놓은 규칙집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두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는 자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논하고자 한다.

4.2. 소창문고 『이문잡례』(목판본)와 동양문고 『이문잡례』(필사본)의 이두

소창문고본 『이문잡례』(필사본)의 이두와 동양문고 『이문잡례』의 이두를 대교해 보면, 총 188개의 이두 항목 가운데 필사본의 경우 두 군데가 빠졌으며, 표기 및 순서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보인다. 小倉文庫本은 한글 표기를 가지지 않은 이두문 중에 행(行)을 건너뛰어 필사한 부분도 보인다. 표기 차이가 나타나는 이두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는 빠진 부분, (경)은 『경리잡설』의 표기, (유)는 『유서필지』의 표기)

문서서식		이두 항목	小倉文庫本(필사본)	東洋文庫本(목판본)	비고
報狀式	1	良中	아히	아희	아히(경)
	2	捧上	밧즈	밧자	밧즈(경)
	3	是乎矣	이오되	이오디	이오되(경)
	4	粗也	이이야라	아야라	아야라(경)
	5	卜役	지역	진역	진역(경)
	6	始叱	비룻	비룻	비룻(경)
	7	新反	식로이	새로이	식로이(경)
	8	加于	더옥	더옥	더옥(경)

	9	這々	갓갓	갓 々	갓갓(경)
	10	尤于	더욱	더욱	더욱(경)
	11	耳亦	싸려	썩려	썩여(경)썩녀(유)
	12	物々白活	갓 々 발괄	갓 々 발꺠	갓 々 발꺠(경)
	13	先可	아직	이직	아직(경)
	14	斟酌	짐죽	짐작	짐작(경)
	15	更良	다식	가식	가식야(경)
	16	退伊	물니	믈니	믈니(경)
	17	追于	쵸쵸	조초	조쵸(경)
	18	訕不喻	썩닌지	썩아닌지	썩안인지(경)
	19	爲行如可	헝여싸갓	하여싸가	하엿다가(경)
	20	是乎等乙用良	이온들쓰아	이온들쁘아	이온들쓰아(경)
	21	初亦	초혀	초혀	초혀(경)
	22	及良	미쳐	미쳐	밋쳐(경)
	23	是去乎	이거온	是乎去 이온거	이거온(경), 순서바뀜
	24	同	온	오힌	원(경) 오힌(유)
	25	乙良	을란	을안	을안(경)
所志式 ⁹⁾	26	矣徒等	의늑등	의내등	
	27	舍音	마름	믈름	
	28	使內白如乎	부리숯다운	브리숯다운	
	29	爲白遣	헝숯고	헝숯구	
	30	外上	외즈	외자	
	31	其等徒	저드늑	저드내	
	32	良中沙	아희스	아희사	
	33	爲白遣	헝숯고	헝숯구	중복
	34	爲白昆	헝숯곤	헝숯곤	

	35	茂火	더부러	더블이	
	36	其矣	저의	저의	
	37	乙	■	을	빠짐
	38	亦爲白臥乎喻	여흐숯누을지	혀흐숯누은지	
	39	右良	이피여	니피야	
	40	望良白去乎	바라숯거은	브라숯거은	
	41	爲白只爲	흐숯기암	흐숯기삼	
上言式 ¹⁰⁾	42	貌如使內白如教	쫓다부리다이슨	쫓다브리다이산	
	43	歧等如使內如乎	가로려부리드온	가로려브리드온	
	44	爲乎弟中良	흐온데여히	흐온데여희	
	45	■■■■	■■■■	爲如良 흐여라	항목 빠짐
重囚同推式	46	爲齊	흐직	흐저	흐저(경)
	47	教味白齊	이산맛숯저	이산맛숯저	이산맛숯저(경)
	48	爲等如白倅音是置有亦	허트러숯다짐이두이시이여	허트러숯다답이두이시니여	허트러숯다짐이 두이시이여(경)
	49	是遣	이고	이구	이고(경)
	50	爲只爲	흐기암	흐기삼	흐기삼(경)
決訟立案式	51	是乎等乙用良	이온들쓰아	이온들쓰아	이온들쓰아(경)/ 중복
	52	矣徒等	의늑등	의내등	의늑등(경) / 중 복
	53	是齊	이제	이저	이저(경)
	54	■■■■■■■	■■■■■■■■■	教是臥乎在亦 이신누온견이여	『경리잡설』에 없 음
	55	是置有亦	이두이시이여	이두이시니여	이 두 이 시 이 여 (경)
	56	更良	다식아	가식아	가식아(경)
	57	爲等如	허드러	허트러	흐드러(경)
	58	是乎等以	■■■■■	이온들로	『경리잡설』에 없 음

買得斜出式	59	葉作	엽딜	엽질	엽질(경)
-------	----	----	----	----	-------

[표 2] 『吏文襟例』異本간의 표기 차이(日本 東洋文庫本과 小倉文庫本)

『이문잡례』이본 간의 표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총 188 개 항목 중 59 개 항목에 있어서 표기 차이가 나타난다. 『경리잡설』 및 『유서필지』등과도 표기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분량이나 문서 서식의 종류는 小倉文庫本 『이문잡례』가 가장 많으나, 한글을 포함하고 있는 이두 항목은 동양문고본 『이문잡례』와 거의 비슷하다.

합철된 다른 책들을 함께 고려할 때, 필사시기는 19세기로 추정되며 필사본 『이문잡례』는 목판본 『이문잡례』보다 『경리잡설』에 더 가까운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두회편』이나 『수호지 어록해』 등이 합철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고 이두에 대한 한글표기도 더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장문고본은 『경리잡설』과 비슷한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목판본 『이문잡례』보다는 먼저 필사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5. 결어

참고문헌

- 강전섭(1972). 「『유서필지』에 대하여」. 『어문학』27. 한국어문학회. 13-26.
 고정익(2003). 「이두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10. 구결학회.
 구범진(2012). 『이문 역주』(상·중·하). 세창출판사.
 김봉좌(2005). 「『유서필지』 판본 연구」. 『서지학보』29. 한국서지학회. 137-160.
 김종철(2016). 「작문 교재로서의 『유서필지(儒胥必知)』」. 『국어교육연구』37. 255-310
 안병희(1987). 『吏文과 吏文大師』. 塔出版社.
 안병희(2007). 『최세진연구』. 태학사.
 전경목(2006). 「19세기 『儒胥必知』 編刊의 특징과 의의」. 『장서각』15. 131-170
 전경목 외(2006). 『儒胥必知』. 사계절.
 장경준(2007). 「경리잡설(經里襟說)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18. 구결학회. 409-451.
 장경준(2014). 「일본 동양문고 소장 한국어사 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의미」. 『일본동양문고소장 한국 고전적 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의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학술대회 발표집. 77-87.
 장세경(1991). 「이두편람」.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승혜(1999). 「『倭語類解』의 口訣과 그 쓰임에 대하여」. 『국제고려학』5. 88-99.
 정승혜(2013). 「이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해제.
 정승혜, 후쿠이레이, 권인한, 황선엽(2015). 『일제강점기 해외 반출 조선 전적 현황 조사 연구 : 도쿄대학 소장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구(舊) 장서를 중심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9) 『經里襟說』에 없는 항목

10) 『經里襟說』에 없는 항목

최범훈(1974). 「『儒脣必知』攷」. 『새국어교육』 18. 152-166

최세진 편/ 박재연 교주(2001). 『吏文, 吏文輯覽』. 선문대학교 중한번역연구소.

최승희(1989). 『개정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홍순혁(1949). 「吏讀文獻 吏文襍例 小考」. 『한글』 105. 한글학회.

『儒胥必知』의 이두

황선엽 (서울대)

1. 『儒胥必知』의 특징

『儒胥必知』는 19세기에 가장 널리 보급되어 사용된 이두학습서이다. 따라서 다수의 이본이 전하며 다른 이두 학습서에 비해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어 여러 편의 논문이 쓰여졌다. 단편적으로 前間恭作, 鮎貝房之進, 小倉進平, 최현배 등의 논저에서 언급이 되었으나 『儒胥必知』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홍순혁(1946), 홍순혁(1947)부터이다. 이후 상당한 공백이 있고 1970년대 이후로 강전섭(1972), 최범훈(1974), 김영만(1980) 등의 연구가 행해졌다. 이후 다시 2000년대 이후 박형익(2003), 김봉좌(2005), 전경목(2006), 전경목 외(2006), 김종철(2016)과 같이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儒胥必知』란 서명은 제목 그대로 ‘儒者和 吏胥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뜻인데 이에 대해서는 ‘범례’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이른바 吏胥之學이란 단지 文簿만이 아니라 上言, 所志, 議送 등인데 모두 吏胥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 유독 吏胥만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무릇 관리가 되어 다스리는 사람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文字들은 儒者和 吏胥에게 매우 필근한 것인 까닭에 ‘유서필지(儒胥必知)’라 이름하였다.(所謂吏胥之學者 非獨文簿而已 上言所志議送等體 皆是吏胥之不可不知者 又非獨吏胥之所可知也 凡爲吏治者 亦不可不知者 然此等文字 於儒胥最近 故名之曰儒胥必知) <『유서필지』 범례>

안병희(1986)에서는 이두 학습서를 다음의 셋으로 나누었다.

- 1) 이두문의 文例集: 『吏文模例』, 『儒胥必知』
- 2) 이두의 字類輯覽: 『典律通補』 초고본과 수정본의 「吏文」, 『古今釋林』의 「羅麗吏讀」, 『吏讀便覽』, 『才物譜』의 「里讀」, 『五洲衍文長箋散稿』의 「語錄辯證說附錄」 중 ‘吏讀方言文字若干字’, 『儒胥必知』의 「吏頭彙編」, 『註解語錄總覽』의 「吏文語錄」
- 3) 한자성어와 이두의 용례집: 『吏文大師』, 『吏文』

이에 대해 1)은 이두문의 문례를 제시하고 이두의 독법을 한글로 보인 것, 2)는 이두만을 모아 문자의 수효에 따라 분류하여 한글로 독법을 보이고 때로 주석을 한 것, 3)은 이두문에서 주요한 漢字成語와 이두를 함께 발췌하여 한글로 독법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즉 이두 학습서를 위와 같이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인데 『儒胥必知』는 독특하게 1)부류에 속하기도 하고 2)부류에 속하기도 한다. 이는 이두문의 문례를 제시한 『儒胥必知』의 본문 부분과 부록으로 실린 「吏頭彙編」이 다소 이질적인 것임을 반영한 결과이다(이에 대하여는 후술). 이 점이 이두 학습서 중에서 『儒胥必知』가 가지는 특징인바 바로 이로 인해 『儒胥必知』가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儒胥必知』의 편찬 시기 및 편자

홍순혁(1946)에서 고종 이후의 간행본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보다 앞선 원간본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철종조까지는 소급할 수 있으리라 논의하였다. 나아가 이름을 들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胥吏 계급의 一人 내지 數人이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범훈(1974)에서는 坊刻本人 壬申重刊本을 고려하여 편찬 연대를 철종(1849-1863)때까지는 무난히 소급할 수 있지만 沙溪 金長生(1548-1631)이 편찬했다는 설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胥吏階級의 衙前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경목(2006)에서는 ‘士夫以山訟事親呈單子’ 중에 보이는 ‘後入者爲主’라는 조항이 『대전통편』에 나타나는 점을 근거로 『대전통편』이 간행된 1785년 이후, 『儒胥必知』의 이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武橋新刊本의 간행연대로 추정되는 1844년 이전에 여러 차례의 편찬 과정과 수정을 거쳐 간행된 것으로 보고 서리 출신의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종철(2016)에서는 『儒胥必知』의 가장 이른 판본이 1844년 武橋 신간본이며 본문 중 先祖의 忠臣旌閭를 청하는 上言 부분에 ‘洪景來’¹⁾가 언급된 점을 근거로 홍경래의 난 진압 이후인 1812년과 1844년 사이에 편찬된 것이라 하고 吏胥의 편찬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3. 『儒胥必知』의 구성 체재

최범훈(1974), 김봉좌(2005), 전경목(2006) 등에서 자세히 다루어짐.

구성	목차	내용	
권두	目錄		
	凡例		
본문	上言	士林上言 孝子旌閭上言 忠臣旌閭上言 烈女旌門上言 孝子贈職上言 忠臣贈職上言 學行贈職上言 子孫上言 子孫爲祖先孝行旌閭上言 子孫爲祖先忠臣旌閭上言 子孫爲先世烈女旌門上言 子孫爲孝行贈職上言 子孫爲忠節贈職上言 子孫爲學行贈職上言	

1) 본문에는 ‘慶來’로 표기되어 있음.

	擊錚原情	爲先雪冤事擊錚原情 爲伸雪後復官爵事原情 以族人之子立后原情 山訟原情	
	所志類	士夫以山訟事親呈單子(并題辭) -圖形後題辭 親審後題辭 待本官遞歸親呈營門單子(并題) 以奴名爲山訟事所志(并題) -掘移侑音 常人與儕類山訟所志(并題) -隻原情 元告原情 原情題辭 債訟所志(并題) -隻原情, 寬限題辭 外邑人有班脉者頗役單子(并題) 士夫家單墓直頗役所志(并題) 還上抄戶圖免所志(并題) 牧府使都吏輩受由所志(并題) 折脚所志(并題) 爲親患用全牛膏所志(并題) 員役年老子代所志(并題) 家券逢賊後立旨 田畝文券失火後立旨 權賣田畝下許還退所志(并題) 毆打所志(并題)	
	單子額	支孫封宗家祭需單子 賻儀單子 吏輩及門下人賻儀單子	
	告目類	各司書吏公故時告目 吏輩問安告目(付答牌) 吏輩歲時問安告目(付答牌) 外色吏以房任干請事告目	
	文券額	家舍文券 田畝文券 奴婢文券 山地文券	
	通文套		
부록	吏頭彙編	一字類 ~ 七字類	『이문잡례』와 동일
		罕用者	
	報狀式		
	書目式		
	重囚同推式		

	決訟立案式		
	買得斜出式		
	移關下帖式		

「吏頭彙編」을 중심으로 그 앞에 실려 있는 「上言」에서 「通文套」까지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뒤에 있는 「報狀式」 이하 부록의 내용은 「吏頭彙編」과 각기 개별적으로 편찬되어 합편된 것으로 보인다. 「吏頭彙編」에 실려 있는 ‘敎是白去乙(이시숯거늘), 敎是白在果(이시숯견과), 當爲(다함여)’ 등 다수의 예가 본문이나 부록에 수록된 예문에 나타나지 않으며 반대로 본문이나 부록에는 나오나 「吏頭彙編」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두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吏頭彙編」의 七字類 뒤에 실려 있는 드물게 사용되는 이두인 罕用者에 대한 용례 11개도 『이문잡례』의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바 그 중 9개는 이미 「吏頭彙編」에 이미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是去是良ㄸ(이거이아금), 是去有等以(이거이신들로)’ 등은 독음까지도 같은데 다시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세 부분을 가져다 엮으면서도 거의 내용상의 편집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儒胥必知』의 이본

김봉좌(2005)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여 『儒胥必知』의 간본 중 간기가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5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儒胥必知』의 유간기본

명칭	간기 또는 판권지	간행지	간행 년도	소개	영인
무교본	甲辰孟春開刊 武橋新刊	서울	1844	류탁일(1984) ²⁾	
임신완서본	壬申仲冬完西重刊	전주	1872	홍순혁(1946)	홍문각(2005) 전경목 외(2006)
임진완서본	壬辰仲冬完西重刊	전주	1892	국어국문학회 (1968)	
완서계본	丙午夏四月完西溪新板	전주	1906	홍순혁(1946)	
서계서포본	明治四十四年八月 西溪書舖	전주	1911	홍순혁(1946)	

무교본은 류탁일(1984)에 소개되어 있는데 목서로 쓰여진 기록에 의해 1844년으로 비정된 것이어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책은 현재 성균관대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도서번호는 ‘C15-0053靑岡文庫’이며 서지사항에 ‘卷末後表紙墨書識記: 甲辰年(1904)孟春開

2) 최현배(1940:280)에서 『유서필지』에 대해 ‘編者, 年代未詳’이라 하고 「吏頭彙編」의 사진을 실었는데 사진 아래에 ‘哲宗朝木版’이라 하였다. 홍순혁(1946)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한 것은 李秉岐, 李仁榮 선생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외술이 언급하였다고 한다.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한글갈』에 실린 사진이 ‘甲辰孟春開刊’이란 간기를 가진 무교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並 靑, 白是 畵, 向前 아전’ 등의 예로 보아 임신완서본은 아니다. 임신완서본에는 ‘並 靑, 白是 畵, 向前 인전’으로 되어 있다.

刊, 武橋新刊'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류탁일(1984)에서는 '甲辰'을 1844년으로 비정하였으나 소장처인 존경각에서는 1904년으로 이해하고 있다. 류탁일(1984)에서도 六甲으로 표기된 간기로 간행연대를 명확히 밝히기 힘들다 하고 '同治甲子(1864), 同治戊辰(1868)'의 간기를 가진 '武橋' 간행본에 근거하여 '甲辰'을 1844년으로 비정하였다. 이 책이 1904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임신완서판보다는 더 고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1844년 간행으로 추정해 둔다. 다만 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목서로 쓰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도 무간기본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아래에 소개된 무간기본 중 목록 부분의 판심이 '儒胥必知'로 되어 있는 책과 같은 계통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홍순혁(1946)에서 임신완서본, 완서계본, 서계서포본 3종은 重印이 아니라 별종의 복각본이라 하였고 임신완서본이 완서계본보다 판각이 정연하므로 시기가 앞선 것으로 보아 각각 1872년과 190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김봉좌(2005:150)에서는 완서계본이 서계서포본과 형태가 동일한 판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필자는 형태가 같을 정도가 아니라 이 둘이 같은 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불과 5년만에 새 판을 만든 것이 아니라 1906년에 '完西溪'에서 만든 판을 이용하여 1909년부터 적용된 출판법에 따라 기존 간기를 없애고 판권지만 붙여 1911년에 '西溪書舖'의 이름으로 출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완판본 중 홍순혁(1946)에 소개되지 않은 임신완서본은 국어국문학회(1968)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강전섭(1972)에 홍순혁(1946)에 소개된 3종과 함께 기술되어 있다. 국어국문학회(1968: 28)에 실려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14) 儒胥必知. 木版本(完板). [1862年刊] (金聖培 소장)
1冊(52장). 27.7×18.6cm. 半葉匡廓: 21.3×15.5cm. 有罫. 行數. 12行
1行12字. 板心: 儒胥必知. 上下花紋魚尾. 刊記[壬辰仲冬完西重刊]

이에 대해 김봉좌(2005)에서 '壬辰'은 실제로는 1892년인데 목록에 1862년으로 잘못 되어 있으며 현재 어디에서도 임신완서본을 찾아 볼 수 없는바 '壬辰'은 '壬申'의 잘못일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필자도 이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간기본은 크게 무교본과 완판본으로 나눌 수 있고 완판본은 임신완서본(1872년)과 완서계본(1906년)의 두 가지 있는데 완서계본을 1911년에 다시 간행한 것이 서계서포본이라는 것이다.

무간기본

특징		연대	소개
목록 판심 '儒胥必知目錄'	A	임신완서본과 같은판이나 간기 없음	홍순혁(1946)
	B 板匡이 다름	임신완서본과 비슷한 연대나 그 이후	홍순혁(1946)
목록 판심 '儒胥必知'		임신완서본보다 앞선 시기	홍순혁(1946)

홍순혁(1946)에서는 무간기본을 목록 부분의 판심제가 '儒胥必知目錄'으로 되어 있는 것

과 ‘儒胥必知’로만 되어 있는 것의 둘을 나누고 ‘儒胥必知目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다시 2종이 있다고 하였다. 간기가 있는 책과의 비교해 보면 목록 부분의 판심제가 ‘儒胥必知目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완판 계열, 판심제가 ‘儒胥必知’로만 되어 있는 것은 ‘武橋’본과 같은 계열로 추정된다. 최범훈(1974)에서는 무간기본 17종, 필사본 10종을 검토하였다고 하였으나 간본의 경우는 半匱의 크기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서지 사항이나 사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자세한 분류를 하기는 어렵다.

김봉좌(2005)에서는 무간기본들을 (가), (나), (다), (라)의 넷으로 나누었는데 (가), (나)는 완판본과 같이(특히 완서계본, 서계서포본과 같음) 목록 부분의 판심제가 ‘儒胥必知目錄’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다), (라)는 판심제가 ‘儒胥必知’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판심제가 ‘儒胥必知’로만 되어 있는 것을 2종으로 나눈 결과 홍순혁(1946)의 분류보다 1종이 더 추가된 것이다. 이 4종의 구별 특징에 대해서는 김봉좌(2005:155)에 설명이 되어 있다.

필자가 규장각 소장본들을 확인한 바로도 김봉좌(2005)의 논의처럼 목록 부분의 판심이 ‘儒胥必知’로 되어 있는 것들에 2종의 것이 있다. 가람古 351.1-y98a, 일사古351.1Y98, 일사古351.1-y98y 3책은 같은 판이며 일사古351.1-y98a는 자형이나 판식이 거의 같으나 다른 판이다. 이를 김봉좌(2005)와 비교해 보면 ‘가람古 351.1-y98a, 일사古351.1Y98, 일사古351.1-y98y’는 (라)본과 같으며 ‘일사古351.1-y98a’는 (다)본과 특징이 같다.

판심 특징	유간기본	무간기본	글자 특징
판심 동일	무교본	(다)	51b면 5행 告狀文記
		(라)	51b면 5행 告狀■記
목록 판심 별도	임신완서본		51b면 1행 如此 " "
	완서계본 서계서포본	(가)	51b면 1행 如此如此
		(나)	51b면 1행 如此如此

김봉좌(2005)에서는 이들 이본의 특징을 비교하고 임신완서본을 선본으로 파악하여 전경목 외(2006)에서도 이 판본을 대상으로 역주를 행하였다. 그러나 「吏頭彙編」에 실린 이두의 주음 부분을 고려할 때는 (다)나 (라)쪽이 더 선본이라 할 수 있다.

이외 다수의 필사본이 전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5. 『儒胥必知』의 이두

「吏頭彙編」에 대한 다양한 색인이 홍순혁(1947), 강전섭(1972), 최범훈(1974: 163), 김영만(1980), 박형익(2003)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정익(2003)은 이두학습서 전반에 대한 색인을 만든 바 있다. 여기서는 우선 「吏頭彙編」에 실려 있는 순서대로 목록만을 부록에 제시해 둔다. 「吏頭彙編」에는 ‘一字類: 3, 二字類: 96, 三字類: 52, 四字類: 48, 五字類:

25, 六字類: 5, 七字類: 4' 도합 233개의 이두가 실려 있다.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문대사』(다담(倬音), 디위(節), 물리(退伊), 더브러(茂火), 마즘(適音), 미처(及良), 브라-(望良), 뽕'의 비교해 볼 때 「吏頭彙編」 부분은 구개음화(倬音 다짐, 節 지위, 是喩 인지), '·'의 소실(白等 살등, 白齊 살제, 適音 마잠, 爲沙 흥스, 是沙 이스) 등의 변화를 보이며 'ㄷ'과 같은 자형의 변화도 관찰된다.

참고논저

- 강전섭(1972), 「『유서필지』에 대하여」, 『어문학』 27, 한국어문학회, pp.13-26.
- 고정의(2003), 「이두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pp.223-252.
- 국어국문학회(1968), 「제11회 전국 국어국문학 연구 발표대회 기념 제2회 국어국문학 연구자료 및 방각본 전시회 목록」, 『국어국문학』 41, pp.1-29.
- 김봉좌(2005), 「『유서필지』 판본 연구」, 『서지학보』 29, 한국서지학회, pp.137-160.
- 김순희(2015), 「〈新式儒胥必知〉 고찰」, 『서지학연구』 63, 한국서지학회, pp.177-198.
- 김영만(1980), 「『유서필지』의 이두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철(2016), 「작문 교재로서의 『유서필지』」, 『국어교육연구』 3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255-310.
- 류탁일(1984), 「경관방각소설의 문헌학적연구를 위한 모색」, 『도남학보』 7, 도남학회, pp.48-55 (류탁일(1989),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pp.155-178에 재수록).
- 박형익(2003), 「『유서필지』의 '이두회편」,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pp.313-326.
- 안병희(1986), 「吏讀의 學習書에 대하여」, 『제1차 KOREA학 국제교류세미나 논문집』, 중국 목단강시: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안병희(1992), 「이두의 학습서」, 『국어사연구』, 문학과지성사, pp.397-407에 재수록)
- 전경목(2006), 「19세기 『유서필지』 편간의 특징과 의의」, 『장서각』 15, 한국학중앙연구원, pp.131-170.
- 전경목 외(2006), 『儒胥必知』, 사계절.
- 최범훈(1974), 「『유서필지』 고」, 『새국어교육』 18, 한국국어교육학회, pp.152-166.
- 최현배(1940), 『한글갈』, 정음사.
- 홍순혁(1946), 「『유서필지』 소고」, 『한글』 96, 한글학회, pp.35-41.
- 홍순혁(1947), 「『유서필지』 소고」 (속), 『한글』 99, 한글학회, pp.44-52.

부록

吏頭彙編 1872년/간기미상

一字類

節 지위

以 으로

並 黠/黠(탈획)

二字類

進賜 나아리

白是 黠리/黠이

向前 인전/아전

矣身 의몸

矣徒 의너

白等 살등

白齊 살제

段置 단두

上下 차아

奉上 맞자

尺文 즈문

白活 발팔

俚音 다짐

題音 제김

適音 마잠

流音 흘님

擬只 시기

役只 격기

惟只 아기

的只 마기

耳亦 짜녀

退伊 물이

迫于 좇초

卜役 던역

別乎 버름

不冬 안늘/안들(탈획)

不得 모질

除良 더려/더러

及良 밋쳐

乙良 올안

這這 갓갓

流伊 흘니

必于 바룩(<비룩)

爲沙 호스

是沙 이스

乙沙 을스

作紙 질지

爲齊 호제

是遣 이고

爲在 호건

是置 잇두

爲脉 호며

是如 이다

爲昆 호곤

是喻 인지

良中 아히

亦中 여히

其矣 저의

是乃 이나

戈只 과글니

先可 아즉

并只 다무기

易亦 아늑쳐/아늑혀(탈획)

便亦 스의여

在亦 건이혀

有亦 이설이여/이신이여

無亦 어오이여; 입스른전이어/업스른

건이여(탈획:업스른건이여)

岐如 가르혀

絃如 시오러

貌如 가로혀

惠伊 저즈리

加于 더욱

仍于 지주로/지즈로

粗也 아야라

茂火 지복너

進叱 닛드러; 나드지

向立 앓드러

不喻 아닌지

當爲 다호여

樣以 양으로

導良 드딕여

右良 님의아

更良 가식아

況脉 호물며

新反 식로이

專亦 전여

最只 안즈기

教是 이시

他矣 남의

帖字 체즈

件記 별기

初如 초/초혀(탈각, 탈획)

舍音 밀음/말음(탈획)

卜定 지정

始叱 비라

作文 질문

斟酌 짐직/짐작(탈획)

爲乎 호은

并囚 黠슈

尤于 더욱

教矣 이스딕

學所 혼바

學喻 혼지

教事 이산일

下手 하□(탈각)

向事 안일

三字類 (白字古稱을)

爲去乎 호기온/호거온(탈획)

是如乎 이다온

爲白齊 호숭저

是在果 이견과

爲乎脉 호오며

是良置 이라두/이라드(탈획)

爲白遣 호숭고

是白昆 이숭곤

爲乎所 호온바

是去乙 : 이거늘

爲有置 : 호잇두

是白置 : 이숭두

是良結 : 이라저

是良沙 : 이아스

爲去等 : 호거든

是乎喻 : 이온지

爲乎味 : 호온마

是良々 : 이아금

爲良結 : ㅎ올아저
 有乎事 : 이시온일
 無乎事 : ㅎ시온일(‘업스온일’의 잘못이거나 ‘爲乎事’의 잘못인 듯); 업스온일/업스온일
 爲只爲 : ㅎ기임/ㅎ기암(탈획)
 敎是事 : 이션일
 爲去乃 : ㅎ거나
 是乎矣 : 이오되
 乙良良 : 을스아(‘乙用良’의 잘못)
 臥乎事 : 누운일
 知不得 : 알모질
 是亦在 : 이여견(‘是在亦(이견여)’의 잘못일 가능성?)
 使內白 : 바니옴/바니옴(탈획)
 爲等良 : ㅎ드러/ㅎ트러
 矣徒等 : 의니등
 良中沙 : 아히스
 其等徒 : 저드니
 爲去乙 : ㅎ거나
 爲白置 : ㅎ습두
 爲白等 : ㅎ습등
 典當以 : 전당으로
 爲臥乎 : ㅎ누온
 爲是遣 : ㅎ잇고
 爲乎矣 : ㅎ오되/ㅎ오되
 爲白昆 : ㅎ습곤
 乙仍于 : 을지주로/을지즈로
 爲巴只 : ㅎ두록
 爲良置 : ㅎ아두
 爲白乎 : ㅎ습온
 無不冬 : 어오로일; 업슬론안들/업스론안들
 是乎味 : 이온맛
 除除良 : 더더러/더더리(탈획)
 矣身亦 : 의몸어/의몸여(탈획)
 秩秩以 : 질질로
 爲白良 : ㅎ습아
 (爲如良 : ㅎ여라)

四字類

爲白去乙 : ㅎ습거나
 爲白良沙 : ㅎ습아스
 爲有去乙 : ㅎ잇거나

是白去乃 : 이습거나
 爲有如乎 : ㅎ잇싸온
 爲白去乎 : ㅎ습거나
 是白去乎 : 이습거나
 是白乎乃 : 이습오나
 爲白如乎 : ㅎ습싸온
 是白有齊 : 이습잇저/이습빚저
 爲白在果 : ㅎ습견과
 爲白乎事 : ㅎ습온일
 爲白乎脉 : ㅎ습오며/ㅎ습오며(탈획)
 是白良置 : 이습아두
 爲白乎所 : ㅎ습온바
 這這傍音 : 갓 ㄴ 다짐/갓갓다짐
 是白去乙 : 이습거나
 爲白有置 : ㅎ습잇두
 爲白良結 : ㅎ습아저
 爲白有昆 : ㅎ습빚곤
 是白良沙 : 이습아스
 爲白去等 : ㅎ습거나
 爲白乎喻 : ㅎ습온지
 爲白乎矣 : ㅎ습오되
 是白乎味 : 이습온맛
 爲白如可 : ㅎ습싸가
 使內乎事 : 바리온일
 是白有亦 : 이습인신이여이여(‘이여’가 잘못 반복됨)
 是白良ㄸ : 이습아며
 敎味白齊 : 이산습제/이산습져(‘맛’누락)
 爲白內等 : ㅎ습읍든
 爲白如敎 : ㅎ여라다이선
 爲白良置 : ㅎ습아두/ㅎ습아두(탈획)
 爲白良喻 : ㅎ습안지; ㅎ습알지
 是白如中 : 이습다히
 爲白有亦 : ㅎ습이신이여
 矣身耳亦 : 의몸싸녀
 物物白活 : 갓갓발괘/갓갓발꺾
 爲乎乙所 : ㅎ올싸
 望白良ㄸ : 바라올아금/바라올아금
 分叱不喻 : 쫘아닌지
 爲白良ㄸ : ㅎ습아금
 的只乎事 : 마기온일

爲白良以 : ㅎ습양으로
 是沙餘良 : 이사아마
 爲行如可 : ㅎ엏다가
 是白乎脉 : 이습오며
 爲乎良以 : ㅎ온향으로/ㅎ온양으로

五字類

是白置有亦 : 이습두이시니여
 望良白去乎 : 비라올거온/바라올거온(탈획)
 爲白有如乎 : ㅎ습빚다온
 是白乎等以 : 이습온들노
 爲白有在果 : ㅎ습빚견과
 爲白有去乎 : ㅎ습빚거온
 是去有等以 : 이거이신들로/이거이신들로(탈획); 이거이신들로
 爲白有去乙 : ㅎ습빚거나
 是白沙餘良 : 이습스나아
 敎是白去乙 : 이시습거나
 敎是白在果 : 이시습견과
 爲白臥乎事 : ㅎ습누운일
 是白臥乎所 : 이습누온바
 矣身向爲良 : 의몸향ㅎ이/의몸향ㅎ여(탈획)
 爲白沙餘良 : ㅎ습스나아
 爲白在如中 : ㅎ습견다히
 爲白在而亦 : ㅎ잇견마리여
 是白在亦中 : 이습견다히
 爲白臥乎味 : ㅎ습누온맛
 爲白乎在亦 : ㅎ습온견이여
 敎是在如中 : 이시견다히
 使內白如乎 : 바리올다온
 是去是良ㄸ : 이거이아금; 이거이아금/이거이아금
 爲去等易亦 : ㅎ거든이니여
 是隱去向入 : 인가앗드러
 (爲乎弟如中 : ㅎ온제여히/ㅎ온제여히)

六字類

爲有置有等以 : ㅎ잇두이신들로
 爲白有如乎事 : ㅎ습빚다온일
 敎是臥乎在亦 : 이시누온견이여
 爲白乎第亦中 : ㅎ습제여히

是去是乎等以：이거이온들로

七字類

望良白內臥乎事：바라옴눈누온일

爲臥等以用良：흥누온들로써라

(6자임)

貌如使內良如教：줏바리다아산;줏

디부리디이사/줏다부리다이

사

岐等如使內如乎：가로러브리다온;

가로러브리다온

<특별 발표>

上代における日本製漢字の作製と使用

사사하라 히로유키[笹原宏之] (와세다대)

1 はじめに

1世紀頃に、日本列島に漢王朝より漢字が伝来した。中国や韓国からの渡来人や渡来書によって漢文を訓読するようになる。そして漢字を用いて日本語（和語）を表記するように様々な工夫と応用が加えられていく。具体的にいうと訓読みの採用、異体字化や国訓作製を経て、中国の新字や韓国の国字（本稿では、漢字圏にある中国以外の国家の中で作製された漢字を国字と呼び、同じく独自の字義を国訓と呼ぶ。日本のそれらについては、単に国字、国訓と称す）に倣って新たに造字まで行うようになる。そこには、渡来系の史（ふひと）らの影響もあったことであろう。

ここでは、日本で造字が始まった歴史的な経緯、そうして生み出された国字の文字としての性質、それらを生み出し使い始めた背景や社会的な状況などについて、現存する各国の各種の文字資料をできる限り利用して解明しうる点について説き、今後の課題を述べる。

2 中国製漢字

2. 1 字体

日本列島には、弥生時代から飛鳥時代・奈良時代にかけて、中国大陸、韓半島より漢字と漢字によって記された諸文化が伝来した。その字種は数千から数万に達する。そのうち、これまでは漢字字典、漢和辞典に掲載されていなかったために、日本製の字種や字体と誤認されてきたものも少なくない。

本稿では、それぞれに主要例、典型例、違例などをいくつか挙げて、必要に応じて適宜詳しく説明を加えていく。

まず、中国製の漢字に間違いがなかったことを示す。

「宜」(宜)

「宜」は「宀」を「冫」で書かれることが中国で生じ、中国や韓国の影響を受け、日本でもしばしば用いられた。「最」の上部を「冫」で書く異体字も、同様である。いずれも『大漢和辞典』には収められていなかった。前者は、淳仁天皇、孝謙天皇などがその字体を記した文書も残っており、公的な意識もうかがえよう。

慶州月城垓子出土木簡1「韓国木簡字典」

□流石奈生城上此本宜城今受不受郡□





『日本上代金石文字典』



『豊後国風土記』 「冷泉家時雨亭叢書」

朝日新聞社 「經」「宜」も見られる。

2. 2 佚存文字

中国製の漢字であるが、他国に伝播してから中国で使用やその痕跡が薄れたために、あたかも他国における国字のようにとら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ものを、佚存書(『遊仙窟』など 笹原2016a)に倣って、佚存文字と呼ぶ(笹原2007参照)。

まず、日本における、字種レベルの例を挙げる。

「𑖦」は、「菩薩」の略合字であり、後代に、抄物書(異体字とも位置づけうる)、文字の名称としてササ菩薩と呼ばれるようになる。唐代の敦煌写経に現れ、日本の飛鳥池木簡・藤原京木簡、飛鳥時代の写経に早くも使われている(『改訂新版日本古代木簡字典』、笹原2012など)。「菩提」を「ササ点菩提」の形に略すのは、日本独自であろう。

「𑖦」は、平安時代に『新撰字鏡』『和名類聚抄』に収められ、江戸時代以降、国字と認識されてきた。しかし唐代の白行簡の賦に使用されていたもの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中国においても、いつの時代にあっても新語は創出され、また俗語の類の位相語も存在し、それらに対しても造字がなされて表記されることがしばしば起きた。中国の俗文学での使用字が日本の辞書に反映したものであった(笹原2016a)。

なお、「我念君」の合字のような呪符も、唐代にも用例が見つかっており、日本では中世期に離別の意を派生した可能性がある。

続けて、字体レベルすなわち異体字の例を挙げる。

「𑖦」は、字書には「𑖦」(ひさご)という字体で収められていたが、中国(敦煌文書)、韓国(木簡)、日本(木簡、正倉院文書)で「草冠」が追加されることがあった。

「𑖦」という字は、漢籍、仏典に使用されていたが、字書にはほとんど載せられなかったため、戯書「馬声蜂音石花蜘蛛荒鹿」(いぶせくもあるか)として『万葉集』に現れる国字とされた(笹原2016a)。「蛛」の旁(声符)の置換である。

「**嬰**」は、『日本書紀』巻30持統天皇十一年七月に現れる孤例の文字で、「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下p533には、「赦 常**嬰**盜賊(十はナ)(ひたぬすびと)」とし、「**嬰**」は「金属製の嬰、すなわち縛る紐」とする。中国字書にないために「金嬰」・「嬰金」の「二合省字」による国字と考えられてきた。谷川士清『日本書紀通証』(1762刊)には言及がない。飯田武郷『日本書紀通釈』巻70第5(明治書院1903)は、日本の「二合字」説や誤写説などを引いてい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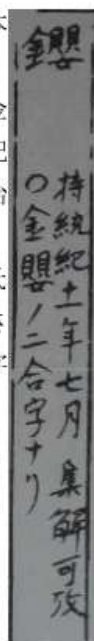
しかし、仏典に使用されており、使用字彙の社会性をうかがわせる。森博達氏が分類したα群には国字がなく、和習が多いβ群には複数使用されている。巻30は『日本書紀』α群とβ群が混在するが、この字が漢字であつても問題ではない。

木村正辞『皇朝造字考』
「異体字研究資料集成」

河村秀根『書紀集解』巻20-40才(早大蔵)

『漢語大字典』p4273に、この字が収められたが、「音義未詳」、明沈采『千金記』から引くのみであつた。しかし、『随函録』(高麗蔵、中華大蔵経など)巻13,21にすでに収められ(鄧福祿・韓小荊2007p440、鄭賢章2007p10,689 俗作 改換意符、韓小荊2009p787)、もとは「嬰」「嬰」(くびかざり「**嬰**」は冠のひもだが音通)に字体上の同化(後述。『随函録』が引く「仏説瑠璃王經」では前の字が「釧」)か素材に適合させるための偏旁(部首)の付加・置換による字体レベルの異体字(ないし造字)であつた。

なお、『随函録』は近世にも、木村正辞らによって部分的に利用されたが、玄応や慧琳による『一切経音義』などに比して限定的であつた。



2. 3 字体上の同化現象

動態として書記行為をとらえたときに見出せる現象の一つに、前後の字体・字形が影響を及ぼすものがあり、字体に生じる同化現象と呼ぶ(笹原 2005)。字体・字形においては同化のほか転倒や融合、異化なども観察され、音韻・音声のそれらと並行的に捉えることが可能であり、類似点、相違点を検討していく必要がある。

字体・字形においては点画から構成要素、字全体までが付加、置換する。順行、逆行ともに見られ、近接しない場合にも発生する。原因には心理的、生理的な面があり、意図的、無意図的なケースがある。字面の安定感、装飾性、一語という感覚が得られることがある。「鳳凰」(鳳皇から)「葡萄」などもそうして作製され、個人や社会で習慣化し、定着し

た。「鳳凰」はさらにしばしば「鳳」の一が取れたり、あるいは「凰」に一が加わったりする例が見られ、単独で使われることがまれで、一体化が強かったことがうかがえ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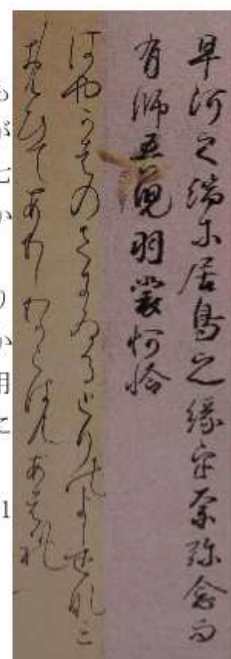
構造からは、「蓬萊」を「蓬来」とする異化に分類できる。「鳳皇」(「鳳凰」の古形)と構造上は同じである。

「霏」は、柿本人麻呂の歌に「(霞 かすみ) 霏霏」として出現し、この字に関しては、小島1962、小島1978ほかで漢籍の「霏微」によるものとして考証され、「霏」という字や語義は人麻呂の創作説も唱えられることがあったが、隋源遠2016がデータベースを利用し、北周の墓誌(577年か)に「霧霏霏」とあったほか、「四庫全書」にも見られる視覚的な美観を求めた偏旁類化と指摘した。

「阿」は、「可怜」という熟語で逆行同化が起きたときに現れるものであり、「阿怜」と書かれることがあり、これにも人麻呂創作説が唱えられたことがあった。また、木下2000p259は、「阿怜 三一九七 阿怜 アハレのアには「阿」とあるべきだ、というよりもうっかりの連想から出た単純なミスかも知れない」と述べる。

しかし敦煌写本や佚存書『遊仙窟』の複数の写本などに用例があり(笹原2016a)、一語化に伴う中国製の同化だったものが、字書になかったために、国字と認識されるに至ったものであった。この2字の使用が一部で習慣化し、後代には真名本『伊勢物語』では「かれいひ」に当てられるなど、影響を与えた。

桂本『万葉集』 761



2. 4 部首の付加・置換

既存の漢字に対して、先に触れたように部首が置換されたり付加されたりすることは、中国で古くから行われてきた。「然」から「燃」が派生して字義を明示的に区別しようとなったり、「椀」から「碗」が派生して材質を区別しようとしたり(後述)するのがその例である。

「嫪」は、上代から見られる「采女」の合字である。「戸主」「戸口」なども、既存の漢字と同じ形に合字化した「戸藉(籍)」などには1字とまではいえないような合体も見受けられる。『大漢和』は、「サイ 女のあざな」「国字 うねめ・うねべ」(古事記から2つの字義)を併存させる異例の形式をとる項目としている。合字による国訓ともみたわけであるが、実際には中国で生まれていた(張涌泉 1995 S.6836)。

書紀活動から見れば、その継承、あるいは個別の左右結合型の合字化、同化の一種の融合とも考えられる。一語意識から熟字訓をもつ二字を要素の省略をすることなく併合したもの、あるいは既存のそれを受容したものである。漢語の「采女」が、采の字義を理解しない人などによって「嫪女」という逆行同化による偏の付加が起こり、それによって生じた字体という可能性もある。

筆写の際に2字の結合が自然に起こりうる上下型の合字と違って左右型の合字化は少ないが、『出雲国風土記』に「𪛗」がある（『文教温故』も指摘する）。



真福寺本『古事記』下



兼永本『古事記』下

『古事記』（神道大系）p42 に「媛 七幸切媛女也 124 行」、p288『大日本古文書』に「媛女」「委」。『万葉集』（51）、木簡（『改訂新版日本古代木簡字典』p169）などでも使用された。

2. 5 韓国系の異体字

中国の六朝時代に発生した俗字の類が、中国から、あるいは韓国を経由して日本に流入した。「部」を「ア」「マ」のように略すのもその一つである。「門」がまえを「I」のように省略するのは、中国が最初と言われている（後述）。

「𪛗」は、漢字の「低」の異体字であり、中国北方から韓国にかけて似た字体、同じ字体が使用されていたものが伝わって、専ら万葉仮名として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低」などにも応用された。飛鳥池木簡49などに見られ、字形には幅があ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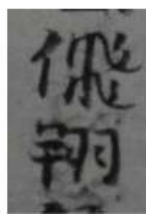
「好太王碑」、稲荷山古墳出土鉄剣、江田船山古墳出土鉄刀にも見られ、『日本書紀』歌謡の仮名としては巻3と巻22にしか現れない（森2011 p31, 154-155）。それらはいわゆるβ群に該当し、中国人が述作したと考えられるα群に「𪛗」（本文では「𪛗」が韓国の地名に）が使われていることと対照されている。

2. 6 日本製異体字

2. 6. 1 偏傍の追加・置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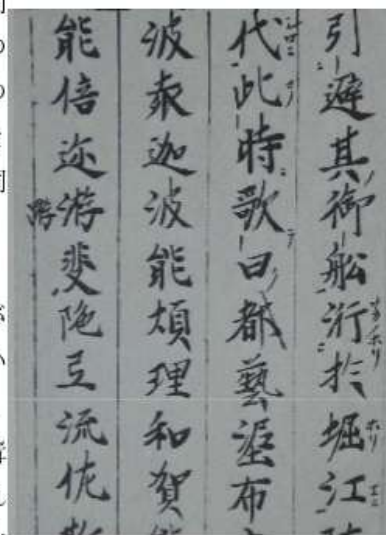
「坏」は、「杯」「盃」を基にして、「つき」（皿形の土器で、土師器、須恵器として焼いてある）を表記ために素材を部首で表現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り、『万葉集』（西本願寺本ほか）などで用いられている。部首を実際の器物の素材と適合するように補正した異体字であるが、材質を特定しようとしたとがある。「坏」は、中国では焼き入れをしていたに瓦、陶器（『説文解字』など）などを指す。概して日常生活で使用する道具や食品に関する語彙や表記は、日本で比較的多く記録が残される傾向がある。「つき」に当てる用法が日本的であるのか否かは、さらに検討を要する。

食器の「まり」には、字音ワンをもつ「埴」（『月刊文化財』1993.11p21 写真 森公章「平城宮跡の墨書土器」ほか）、「碗」、「碗」、「碗」（（かな）まり）、用途を部首にした「皿」が当てられた。なお「宛」と「完」とは中間形を介して交替しえた。「𪛗」のようにそれらに草冠が付加されることもあった（松島 1956 2 回）。こうした中国での部首の置換が、直接間接に影響したのであろう。



真福寺本『古事記』中に、「飛」に人偏が付加された字体が書かれている。

これは、原本の段階であったものかどうかは判然としない。「飛」の左下部の2画が「イ」のような形に異分析されて、後に複製されたものであろう。部首の派生・独立であり、主体を明示しようとする二次的な会意ともみることができる。現代の固有名詞にも見られる。



兼永本『古事記』下に、「游」が足偏になっている字が異文としてあったことをうかがわせる記述がなされている。意味による混淆か、部位を変更した字種ないし字体か。

その3行前に「沝」という字体があるが、漢字では、溝の水の流れの意。意味からは「沝」であったか。後に現れる国字の「沝」（がけ 沝からか）の旁に、並行的な変化が起きている。

3 日本化漢字・日本製漢字

3. 1 日本化字義・国訓

ここからは、意味に関わる変化・加工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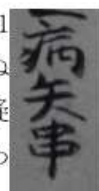
中国では、楷書が萌芽した後も、字義は引伸、転化、派生を繰り返し、さらに形声、まれに会意などの方法により造字が続けられた。韓国でも、三国時代より国訓、国字が生み出された。それらは、早くに日本に伝わってきていたことが知られている。漢字か国字か韓国製漢字かという判断は、書証を基に慎重に行う必要がある。

「𪛗」（くら）は、「京」に韓国で木偏を加えたもので、日本では飛鳥池木簡などに現れる。「益」（かぎ、か）は、飛鳥池木簡などに現れる。後者は、「鑑」の省文とも見られ、韓国では漢字の「鑰」を「鑑」のように別字（厳密には字 体が異なる）で記していたことが伝わっ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

「𪛗」もその一つとされることがあるが、各国の古代における用例は拮抗している。後代の『和名抄』には『漢語抄』や『本草』など漢籍と思しい資料が引用されている。しかし、それらに現存する種々の資料からの検討を加えると、たとえば「𪛗」とその部首を置換した「𪛗」は、出土木簡や史書、随筆など伝来文献などの現存資料に下記のように記録が出現している（詳細は笹原2012参照）。

	𪛗	𪛗
日本	7世紀	8世紀
韓国	10世紀	8世紀
中国	7世紀	14世紀

「串」は、平城京木簡、「法隆寺伽藍縁起并流記資材帳」『古代資材帳集成』p129などに「くし」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中国の「串」が別字の「串」（つらぬくという動詞の用法）に日本でなつたとされるものの、仏典などを精査すると疑問が生じる（笹原2015）。「𠂔」を抜く異体字が別字と衝突したという可能性もある。



真福寺本『古事記』中

より古い漢字である「玉」や、「貫」の上部も、貫く物は1本で表現されていた。

「椿」は、7世紀の観音寺木簡（沖森卓也2003、上野ら2006、笹原2007）に「ツバキ」という国訓が万葉仮名で示され、『万葉集』『出雲国風土記』（樋 棕 粉なども）などで使用されている。

「俵」は、飛鳥池木簡169（市2010 飛鳥 荷札 「仕俵」）、東京国立博物館所蔵の献納宝物の木簡（7世紀か）などで使われている。藁などを編んで作った袋状の入れ物「たはら」を指す。

「𠂔」は、藤原京木簡1497や『万葉集』に用いられ、「思」に部首を付加して「しのふ」としたものである（乾2003）。

「●牛𠂔」は、飛鳥池木簡22などに現れ、「閉」の異体字で、人名で、「まろ」と読まれる（「麻里」（まろ乙類）とも表記される 方国花2003）。飛鳥時代の法隆寺の造像銘に見られる「𠂔」も同じともいわれ、「𠂔」は「まら」（男陰の意）とも読まれる。

「●牛𠂔」とも書かれ（『改訂新版日本古代木簡字典』など）、この門構えは「開」「閉」にも使用されている。居延漢簡に「●井𠂔」がすでにあった（平川2008p195）。字体は韓国経由で伝来したもので、字義は中国の「陰門」「玉門」などの「門」から応用したものか。唐代の白行簡の賦には、陰部と「開」「閉」とを結びつける用例がある（笹原2016a）。

「𠂔」は、藤原京木簡2098に現れ、部首の付加による「夫」の異体字ともみることができる。中国では、貪るさま、恨みのこもった表情をする意であるが、日本では、「なせ」「せ」、男子を親しみ呼ぶことば、後代には「めおと」、夫婦の意として使うことが生じた。戸籍帳では、使用に地域差がある（犬飼2005p187 「𠂔」も）。

「𠂔」は、藤原京木簡2768、飛鳥池木簡などに現れ、「こま」と読む。旁は「百」に作る例が多く、「𠂔」からの異体字ともいえる。

「杜」を「もり」と読むのは国訓であり、漢字の「社」の部首が変わったものとされる。

「杜甫」「杜牧」や渡来人の姓として馴染む人が多かったであろう。『出雲国風土記』『万葉集』『日本書紀』（木村正辞「語彙書類」（「異体字研究資料集成」2-7。桂（かつら）としても見られる）、澤瀉1931、澤瀉1941a、木下1990ほか）に表れるのは、写本の時代に、使用環境、使用習慣が生じていたためか。

「𠂔」は、藤原京木簡2876など（『改訂新版日本古代木簡字典』）に「すし」として使われている。慶州の雁鴨池木簡（橋本繁2014p216など）に釈読に不確実さが残る使用例とみられるものがある。「𠂔」も藤原京木簡3607にあり、中国での字義の差を超えて、いずれも同じ「すし」を指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

「𠂔」は、藤原京木簡2875に現れ、魚名の「さけ」として使われる。「𠂔」と曖昧な字形が多い。

「鮎」は、大宝三年(703)の木簡、正倉院文書(「鮎市」 平川2008p252)に「あゆ」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近世以降、神功皇后の伝説的な故事によるとも説かれるが、「年魚」が『日本書紀』にあり、ネンという音が関係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

「鯖」は木簡に「さば」として使われている(『改訂新版日本古代木簡字典』ほか)。

「靈」と「龍」は、『日本書紀』に用いられており、漢字「靈」(靈)の「巫」を「女」や「龍」に置換したものであり、それぞれ「め」(天照大神)、「お

かみ」(水に関する神)と読まれる。

これらは、変形後の字体が中国の字書『玉篇』(小島1973など)にすでにあつたので、合字と通底することであるが、それを土台にすえて構成要素を置換・加工を行って国訓とすることができた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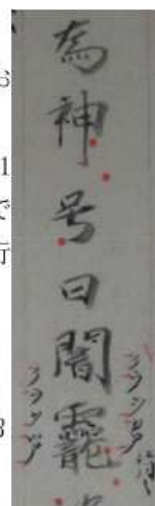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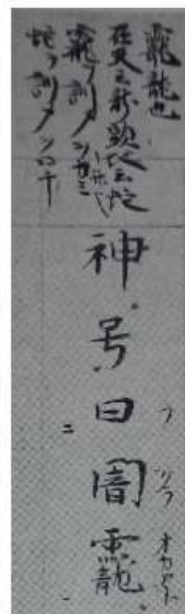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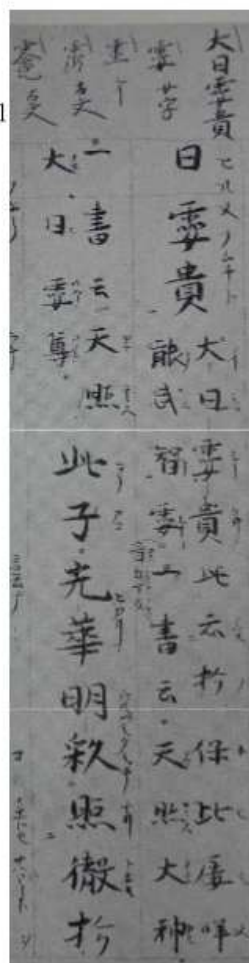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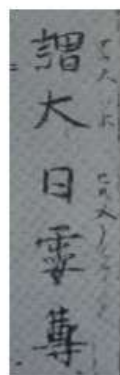
吉田本『日本書紀』巻1 神代上に3回用いら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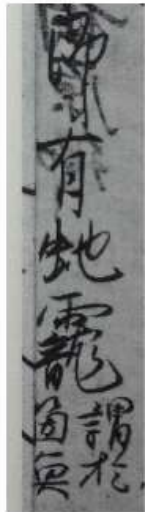
「此云於箇美」「音力丁反」と注記が付される。

なお、森 2011 によると、α群は巻 14-21、24-27、β群は巻 1-13、22・23、28・29 と分かれる。



乾元本
『日本書紀』巻1





『豊後国風土記』「時雨亭叢書」
龍 謂於簡魚（魚は美からか。）

『篆隸萬象名義』
卷23 龍部

「山神」とある。



これらの字は、『日本紀私記』、『釈日本紀』、『日本書紀纂疏』や抄物などに、「靈」と直されたり、神道的な解釈が語られたり、辞書の記述が短く言及されることがあった。

3. 2 日本製漢字

日本製漢字（日本でいう国字）の背景には、一語は一字で書こうとする意識がある（山田1937）。訓読みをする漢字、合字と共通する。字音を表記する必要がないので、形声ではなく、和語の意味を想起しやすい会意が好まれた。単音節語でなくても訓読みを用いれば、一字化が可能であった

熟語の同化形にも、同様に一語を表記しようとする意識が働いた結果があった。偏旁付加や置換も、字義を特定し、一語を一字で書こうという意志が生み出した面もあった可能性がある。

中国に先に存在した字体に関しては、暗合（別個に創作した字の形音義が一致する現象）、衝突（別個に創作した漢字の字体だけが一致する現象）のほか、伝承や伝播による可能性もあるため、時代や資料、物名や交流の状況などを捕捉する必要がある。

「畠」は、正倉院文書や木簡に出現し「はたけ」を指す。中国や韓国で使用の古い記録が失われていたため、国字のように見えても、中国製あるいは韓国製であれば日本では漢字、韓国製漢字(韓国の国字)として、日本でのそれらの「佚存文字」として区別すべきであり、その可能性がある。

韓国の国字「畠」(논) 後に字音답 タブが沓から派生)の日本への伝来は古く、8世紀の正倉院宝物に記された例が確認できる(笹原2007a)。『日本書紀』には「𪛗」という韓国の人名を表すための造字が用いられている(『懷風藻』では中国式に、漢字の「本」に作る)。

百済の木簡に「畠」の使用例が見つかったとの報道があったが、それや平川南編 2014 p257 などの写真を見る限り、字の間隔や「白」「田」のそれぞれの書きぶり、要素の間隔や他の行の字形から「白田」という2字である可能性が残る。「白田」は、漢語の熟語としてすでに六朝期に存在していたことが『晋書』、『水経注』(白穀を植える田の意)、『統齊諧記』(『和名抄』所引)にうかがえる)によって知られている。他の確実な用例が出現するまでは判断を保留するなど慎重に判断をしていく必要が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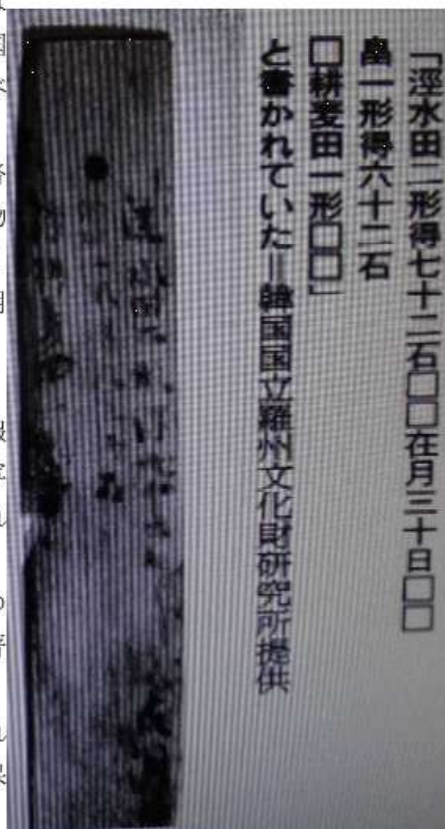
この字の漢字説は平安時代の『江談抄』以降、幾度となく唱えられてきたが、いずれも形の類似する字を誤認したものなどで、なおも確例は現れていない。確実な用例からは、下記の関係が描ける。日韓については、1語の固有語に対する表記を示す。

中国	田(水田)	田(白田・火田)
韓国	畠	田
日本	田	畠 畑(畠 もとは、はた)

なお、「𪛗」も、中国では「𪛗」の異体字としては存在していた。雑穀飯を意味したこの字を、韓国(「丑」をモミの意で用いたとされる例が見つかった)ないし日本で、𪛗(𪛗 やいば)に見立てて意味を付与した可能性がある。

「𪛗」は宣命に現れ、「かせ」と読まれる。「𪛗」であれば中国にあり、「弄」の六朝俗字であり、二次的に会意化させたものである。手偏と木偏とは形態と筆法が類似するためにしばしば交替し、「𪛗」も「弄」として存在した(鄭賢章 2007 など。『随函録』は後代の音義書だが、唐代頃の写本の字体を伝承しているとみられる)。「𪛗」を旁とする国字が以後陸續と現れる。

日本製の漢字は、7世紀に出現する。『日本書紀』巻 29 に記された天武天皇十一(682)年三月丙午、「命境部連石積等、更肇倭造新字(にいな)一部四十四卷」と時代的には符合する。



本稿では、国字、国訓については、旧説に従って配置したものと、現在の判明状況から移動して配置したものがある。資料の検討からは、漢字、佚存文字、日本製異体字、国訓、国字の境界は、思いのほか茫漠としている面がある。

「俣」という字は従来、国字とされてきたが、中国にも全く同じ字体の古い用例がある。形式からは国訓に分類されうるものとなる。

ただし、字義と和訓との間には関連がうかがえず、経緯は未詳である。衝突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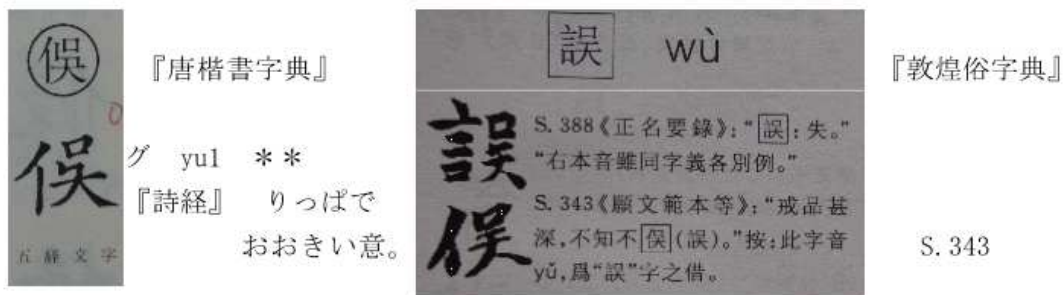
漢字「俣」(まつ)を変形させ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

「また」という訓義をもつ「跨 膀 又 岐」には、「大」やそれに近い形の要素が「また」という訓義をもつ字に含まれていた。

そして、「股」の「𠂔」は異体字を生みやすく、「●𠂔一又」「●几一又筆押さえから」といった形態になることがあった。そうすると、「𠂔」「𠂔」に近接し、「俣」「俣」となることが起こりえた。

中国では、同じ頃に別の字の異体字として存在した。少なくとも、これを土台として、「また」と読める漢字を変形させたものではないか。

既存の漢字を土台とする方法である可能性が考えられる。



『玄応音義』『詩』『俣俣』、『慧琳音義』巻10「勝天王般若経」、『新撰字鏡』などにも見られる。

現存する『古事記』『日本書紀』『万葉集』『風土記』には、異体字で記された写本などもあるが、木簡や正倉院文書など当時の肉筆ではすでに「俣」、せいぜい「天」が「夫」のように変わる程度で記されており、それらは転写の誤りにすぎないことが判明した。使われ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当時は、「𠂔」も「𠂔」と記されていた。

天平宝字2(758)「阿波国新嶋庄絵図」(『南京遺芳』40 東南院文書)に「道俣」とある(地図では分岐路)。



『篆隸萬象名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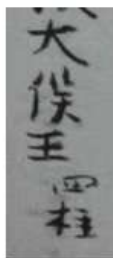


『平城宮木簡』7 12488 明確に「俣」という字体。ツノマタ（角又・角股）は海藻の名。

『新撰字鏡』には「角万太」とある。



真福寺本『古事記』「口」の部分に書写者の書き癖が表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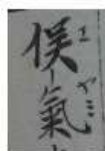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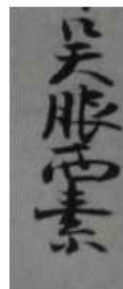


兼永本『古事記』

上



中 「イ曼病」に「エヤミ」。
「俣氣」に「エヤミ」
・「役」か。



「俣」が多様され、定着していたために、根拠や字体がよく分からずに混用したものか（「神道大系」p334 参照）。

『日本書紀』巻1には、「俣」「岐」とともに使われている。

「俣」・「●（イ＋呉ー左上の丨）」・「役」・「●（イ＋口×ノそのまま又）」・「●（イ＋呉口は左にずれる続け字）」・「浮」の異文もある。「股」の旁との類似形も見られるが、「俣」（マチ・マツなど）との混淆によるものか。

木村正辞1904・1982『萬葉集訓義辨證』p58 「俣」「●（俣右下は失）海松（マタミル）」

2 元本・温本作俣 家本・昌本・活本作イ曼 「股を●と書くより誤来れるならんか」。
『古事記』『古事記伝』を引く。

「万葉集校本データベース」 卷13 3301 俣

寛永版本 元暦校本 広瀬本 類聚古集 紀州本 神宮文庫本 西本願寺 陽明本
11末 1215/1781 12後半 1542以前 16世紀半ばか 13末～14初 16後半
俣 浮 役

なお、「𪛗」(すぎ)も漢字の「榼(右上は日も)」「(オン・すぎ)の変形といわれているが、同様に音読みを失い、国字と認識されることが増えた。

部首の異なる「𪛗」「𪛗」も当時の文書や『出雲国風土記』に見られる。

「𪛗」は、その嘴が「角」のように見立てられる鳥の名「いかる(が)」を表すために、日本で作られた会意文字であるとされている。

持統8年(694)「法隆寺観音(菩薩)造像銘」(「奈良法隆寺銅造僧徳聰等造像記」)に「𪛗大寺」(法隆寺のこと)とある(図版)。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飛鳥資料館 1976『飛鳥・白鳳の在銘金銅仏』(同朋舎)

ただ、『和名類聚抄』や『本草和名』に、漢籍である崔禹(錫)氏『食経』から「𪛗」字を引用し、ともに「胡岳反」と反切まで付しているほか、金代の邢準『新修篆音引證群籍玉篇』巻24に『類篇』(今本とは異なる)から「𪛗

竹咸切」と引かれており、佚存文字である可能性のほか、漢字「𪛗」の異体字という可能性も残る。



「𪛗」は、『万葉集』の用字で「はれ・はる」と読まれる。漢字「霽」と「晴」を合成、混淆したものなどの説がある(小島 1978 など)。

後代の写本、版本や引用文に残るものも少なくない。どの段階の改編で追加された字、いつの時代の訓か検討を要する。

観智院本『類聚名義抄』

仏中52ウ 「天理図書館善本叢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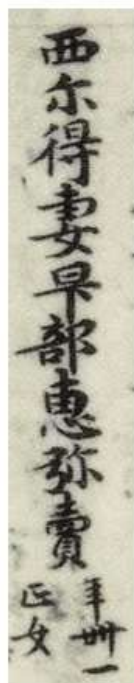
「𪛗」は、飛鳥池木簡1329、「法隆寺伽藍縁起并流記（るき）資材帳」『古代資材帳集成』p126、正倉院文書、『令集解』などで使われており、「さらけ」と読む（『和名類聚抄』卷16 「本朝式」「所出未詳」（「俗」でない）、『延喜式』）。国字である。水を運ぶ、酒造のための底の浅い甕のことである。この字は、「小学篇」『新撰字鏡』にはない。

六書には当てはまらない造字法も存在し、当時、造字の一つの方法となっていた。

合字は、中国にもある方法であったが、漢語でもとの複数の字の読みが維持されない場合は、会意文字のように扱われる。

「𪛗」がその一つである。『古事記』の『帝紀』とされる部分に「くさか」を表す「日下」が頻出する。こうした熟字訓は、広い意味での「当て字」と呼ぶこともできる。この『古事記』序文に言及される熟字訓「日下」は早くに縦に一字に合わさって日本製合字となる。明らかに一字として書かれていると判断できるものが奈良朝以前に出現する。固有名詞や熟字訓であることに加えて、構成要素が簡易な筆画しかもたない点や、漢字に「早」「旱」のような類形が存したことが、合字化をもたらし要因であったと思われる。つまり、土台があったことが変化を促進したのであろう。逆に「早」一字から端を発したとする見解もある。

藤原宮木簡に「●（冂＋中に一接しない×下）マ」が現れる（奈良県教育委員会1969『藤原宮』）。大宝2年（702）の「御野国味蜂間郡春部里戸籍」にも「西尔得妻早部恵弥賣 年卅（廿＋サ垂直一はつながる）一正女」と「早」が使われている（正倉院文書影印続修四・『大日本古文書』1 図版）。元明天皇による地名の二文字化（713 和銅6か）で合字化が固定化に向かったか。なお、合字か2字かという判断には、構成要素の大きさ、構成要素の間隔、字間、行間、書風、筆跡などを総合的に考察する必要がある。



「御野国味蜂間郡春部里戸籍」
『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続集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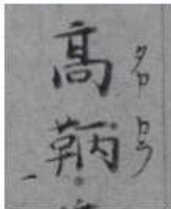
『播磨国風土記』
「天理図書館善本叢書」
2字か。

「𨔵」も古層の国字である。日本人にとっては、中国語を表す音読みよりも、和語（やまとことば）を表す訓読みとして、漢字を用いる必要があった。日本では、単音節の漢語ではなく、和語を表記するためには、いわゆる六書では形声文字よりも会意文字が好まれる傾向がある。形声文字よりも会意文字が適していた。

「駿河国天平十年正（しょう）税帳」「正倉院文書影印集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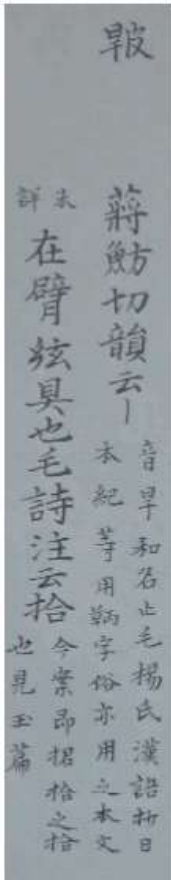


吉田本『日本書紀』卷1



乾元本『日本書紀』卷1「天理図書館善本叢書」

これらの古訓は、字書にある「柄」と混じた結果であろう。



天文写本『倭（和）名類聚抄』第1冊51ウ

『楊氏漢語抄（鈔）』は養老(717-724)年間

十卷本系 前田本上巻2術藝部射藝具43才 「本文」が「日本紀」の「日」の後にくる誤写が生じ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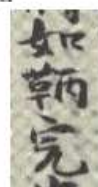
二十卷本 元和古活字版4-3才 同文

『漢語抄』には、「榊」も収めていた。『江談抄』に、「榊」が『日本書紀』に現れるというが、当時の写本にそう書くものがあつたのであろう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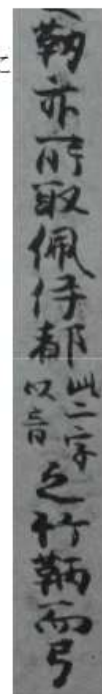
真福寺本『古事記』

桜楓社

上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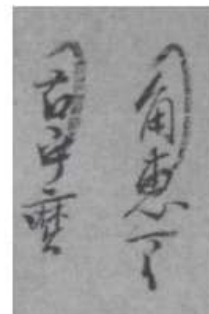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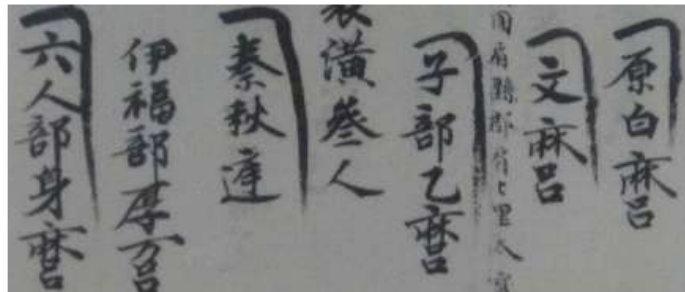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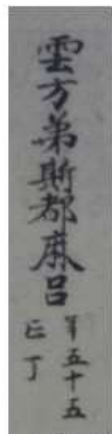


「磨」は、万葉仮名の「麻呂」(まろ)が合字化したものであり、その1字化の過程を追ってみたい。桑原 2005 は、調査対象に「磨」は現れなかったという。調査対象を広げて正倉院文書や木簡などを見ていく。

「御野国味蜂間郡春部里大宝二年戸籍」(702)

「写後書所解」天平19年(747)

「写経所解」天平20年(748)



『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

『南京遺芳』『正倉院宝物銘文集成』などで他の文書などを見ても、天平年間には「麻呂」が1.5字程度に圧縮されて「磨」に変わる過程にある字形が複数見られる。木簡にもその過程が見受けられるが、多く年代が記されていない。713年に疑問例、天平初期に1.5字程度(『改訂新版日本古代木簡字典』『木簡字典』など)。漢字に類形の土台となる「磨」などがあつたことにも支えられて、万葉仮名が自然発生的に合字化し、国字となった。

『出雲国風土記』や『万葉集』に出る柿本人麻呂、長意吉(ながのおき)麻呂、笠(かさ)の麻呂、高橋虫麻呂の時期はまだ2字だったが、第4期の田辺福(さき)麻呂、石川(いそのかみの)乙麻呂、(大)中臣(なかとみの)清麻呂の頃は一部ででも合字化が進行していたことになる。

「榿」は樹木の名「かし」を表す国字であり、古くは別の漢字で表記されていたようである。「榿」などの漢字から「榿」という国字が現れるまでを詳しく検討しよう。

このような漢字への加工は、時代とともに多くの漢字に施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く。

まず、日本に暮らす人々は、それらしい中国の漢字を漢籍や字書から探してきて、ブナ科ナラ属の常緑樹「かし」として使ってみた。もちろん渡来人が理解字に訓読みを直接与えながら記した可能性もある。

「榿原（かしはら）」は、奈良では今でも地名に使い続けている。「枋」は、まゆみ、ふしづけ、いかだ、え、であり、厳密には同定のミスか、類似のものをあえて同定したことによる国訓である。榿は、科は違うもののカシと同じく常緑高木で、車を作る良材という点によるものであろう。「檣（棒）」という剛木という字義をもつ漢字も選んでいた。

『説文解字』 榿

『篆隸万象名義』 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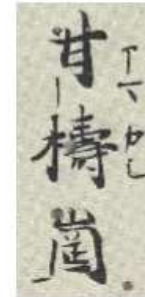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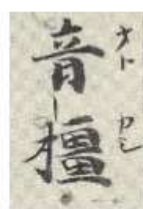
『日本書紀』 榿

『日本書紀』 檣

(原本系『玉篇』木部は散佚)

兼右(すけ)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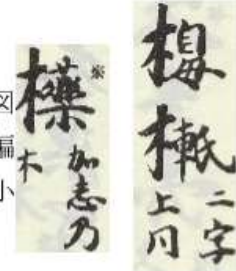
「天理図書館善本叢書」



卷 39

岩崎本

奈良時代の識字層には、カシに対して、「櫟」「棉」など、意図が分からない国訓、国字まで作り出す者があったことが、平安時代に編まれた漢和辞典『新撰字鏡』が引く奈良時代の書籍と考えられている『小学篇』によってうかがえる。



「国字」とされてきた「榿」だが、中国にも唐代に用法を異にする使用例(衝突例)は存在していた。唐代に詩人の陸龜蒙の詩集『甫里集』巻19と『笠澤叢書』巻3に用いられている。この字義は明確でないが、陸は、881年の没であり、日本での使用例に遅れている。なお、後の中国文献には琉球関連の著述にもしばしば登場するが、それは日本語(琉球方言)としての使用を記録したものである。

『唐甫里先生文集』「四部叢刊初編」 景江南圖書館藏黃堯圃校本増校勘記一卷 渡部武1989「唐・陸龜蒙の『未耜經』と曲轅犂の成立」『東洋史研究』48-3p66 は、天野元之助『中国農業史研究』増補版の校訂(p770 ヒク)に従い、「榿」は牽を意味する「擣」に改めた。閻文儒・閻萬石「唐陸龜蒙《未耜經》注釈」『中国歴史博物館館刊』

総第二期はこの「榿（臣はり垂直 簡体字）」を「結实的縄索」（丈夫な太い縄）と訳したようである。中国の辞書にこの字がなかったために望文生意を経て生じた解釈だとしても、原文をカシと結びつけるのは難しい。

金石文にも「榿」が登場する。和銅8年（715）、奈良の「栗原寺（おおばらでら）鑑盤銘」（大和談山神社所蔵）に、地名の「●（榿木は一、臣は続け字？、土は十、）村」として現れる（『古京遺文』 「異体字研究資料集成」 2-7の本には拓本なし・『寧楽遺文』）。

ただ、「榿村」（かしむら）と彫られた部分は年紀部分と筆致が異なり、追刻、後世の補刻との見方もあるが、「同一人の筆蹟」ともされる（『古京遺文』注釈・『日本古代金石文叢考』）。

『日本上代金石文字典』



狩谷掖斎・山田孝雄・香取秀真増補『古京遺文』



木簡でも、「甘●（手偏はねない十？十ヌ×土十、続け字榿略字）殿」などと、地名など固有名詞を表記するために使われた。甘いカシなどないので、当て字であろうと考えられている。

『上代木簡資料集成』（沖森卓也・佐藤信 1994 おうふう）

正倉院文書にも、「榿」は和語の人名の表記として現れる。

「榿実」から「榿実」に改名（改文字）した下級役人もいたことが正倉院文書にうかがえる。従七位上まで 書博士、音博士と同じ位。内記（ないき・うちのしるすつかさ）は令制における中務省の官人で、詔勅、宣命、位記（叙位の旨を記した辞令書）、上奏などの作成や宮中の記録を司った。能文、能筆の人が選ばれた。大・中・少内記各2人。

自署ばかりではないようだが、漢字「榿」から、国字「榿」への転換期がこの頃にこの層であったことがうかがえる。国字は、すでに同義、類義の漢字が存在し、認識されていても、和語の語義とのずれを修正したり構成要素をイメージに適合させるために造られ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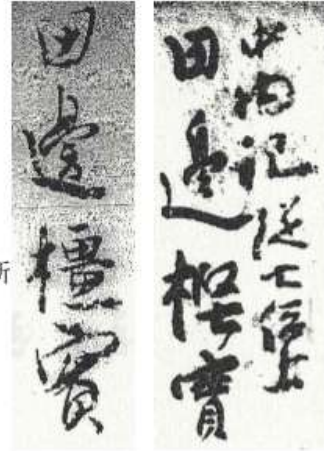
けたのである。

739～748年 田邊 樞實

↓

750～761年 田邊 樞實

なお、「～実」（～のみ）はほかにも複数ある（『万葉集』『新撰字鏡』）。



続々修3-2裏 樞 続々修6-2 樞

国風化はこうした文字の面で、いち早く起こっていた。

「樞」は、奈良時代に金石文や木簡だけでなく、紙に書かれた文献にも出現する。ただし、記紀よりも後に記されたものばかりである。

細川家本『出雲国風土記』（733）54ウ



759年以降に編まれたとされる『万葉集』には、「夏樞」で、懐かしい、慕わしい、引き寄せたいという意の形容詞「なつかし」という別の和語に訓仮名とよばれる万葉仮名として当てられた。聯想的表記ともされる。日本らしい独自の用法まで獲得したのである。

この字は、「頼」と同様に転用されるほど定着していた。

西本願寺本『万葉集』巻7 おうふう



「菼」は、山野に生える植物の名「ところ」（おにどころ）に対する会意方式による国字である。漢字では「藎」が相当するが、この声符を置換して会意文字に変えたものか、全く別個に作製したものである。764年の正倉院文書などに見える。

熟字訓「野老」は、「えび」の熟字訓「海老」（後代に「蛸」という国字の母体となる）と対をなしている。

「鳴」は、『万葉集』で詞書に「しぎ」として使われている。この鳥の名には漢字で「鵲」（イツ）という字がすでにあったが、それよりも日本人にはタシギすなわち田にいる鳥として実感を得てしっくりきたのであろう。異文に「鴨」があるが、歌に「志藝」とある。

奈良時代には、『戦国策』などに出る漢字の「鵲」（イツ）を「鳴」（しぎ）とするような、日本人が和語で理解しやすく、またイメージも豊かに表現できるように改造した国字も、金石文や『万葉集』などに現れ、漢字から国字へと交替していく。後述する漢字の「樞」（キョウ 材料となる木）を「樞」（かし）としたものと並行する現象である。

「杣」は、樹木の茂った山を意味する名詞「そま」に当てた会意の国字である。『万葉集』に「追馬喚犬」で「そま」を表す戯書があるが、これは国字が存在しなかったための表記ではなかろう。

「杣」は平城京木簡（750年）や正倉院文書などに使用されている。

また後に、平安朝の末期に山田福吉が作った字であるとの説が現れるが、『和名類聚抄』の記述を読み違えた、あるいは伝承し誤ったも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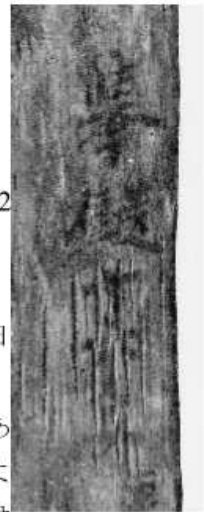
「鍵」は、会意の国字である。「かすがい」は、当時は戸を閉めておくための金具（かけがね・かきがね）のことであり（「コ」の字形の大きい釘は後代になってから）、それに対し会意の国字を作ったのである。

731年の文書では漢字「鍵」で誤記されている。

「舉鍵十六隻 長三寸半」（神亀6年 729年）。鉄製扉金具の製作、進上に関する文書。「アゲカスガヒ」とよみ（和名抄）、戸締具の一種である。『延喜木工式』にもある（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1975『平城宮木簡』2）。図版90

舉（異体字）鍵（異体字）十六隻（異体字）

「木簡データベース」より



「鉄金具も扉に附属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木簡と大宝令」『木簡研究』2（1980）p69・79）。

木簡（『改訂新版日本古代木簡字典』など）のほか、「太神宮御飭注文」（747年か）など文書（『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正倉院文書』『大日本古文書』『南京遺芳』『南京遺文拾遺』など）にも見られる。

この「かすがい」という語には、上代においては異系統の表記漢字もあったようで、唐招提寺文書には「槽釧」とある。すでに社会的な位相によって用字の定着に差があったことがうかがえる。「鍵」を用いる位相とは別の位相があったようであり、位相文字の古例とみなしうる。漢字では「おの・すき・やじり」という意味の「釧」を用い、「槽釧」で「かすがひ」と読ませたと見られる例がある。これは、会意（ないし「ヒ」の部分だけを示唆する形声）の日本製字体が、漢字と衝突したものであろう。なおこの文書には、「鞆板」の1字目（読みは「ゆき」かとされる）に国字の可能性のある字のほか、「銚」という当時の中国製の異体字も使用されている。

東京美術学校（一九二八）『南都七大寺大鏡第七十四集 唐招提寺大鏡第十冊』には、紙本墨書寺記文書 堂塔に用ひる金具を注記して居る。書体からすれば奈良朝のものであらう。

槽（右上は一）釧（金＋匕はねない）三隻

とある。『日本建築史研究』続編（1971）p164によると「延暦三年から同十四年までのものとしてよさそうである」。『大日本古文書』（編年文書）25p208は、この「造唐招提寺用度帳」（奈良唐招提寺所蔵）を唐招提寺の創建の記録から天平寶字三年八月のものかと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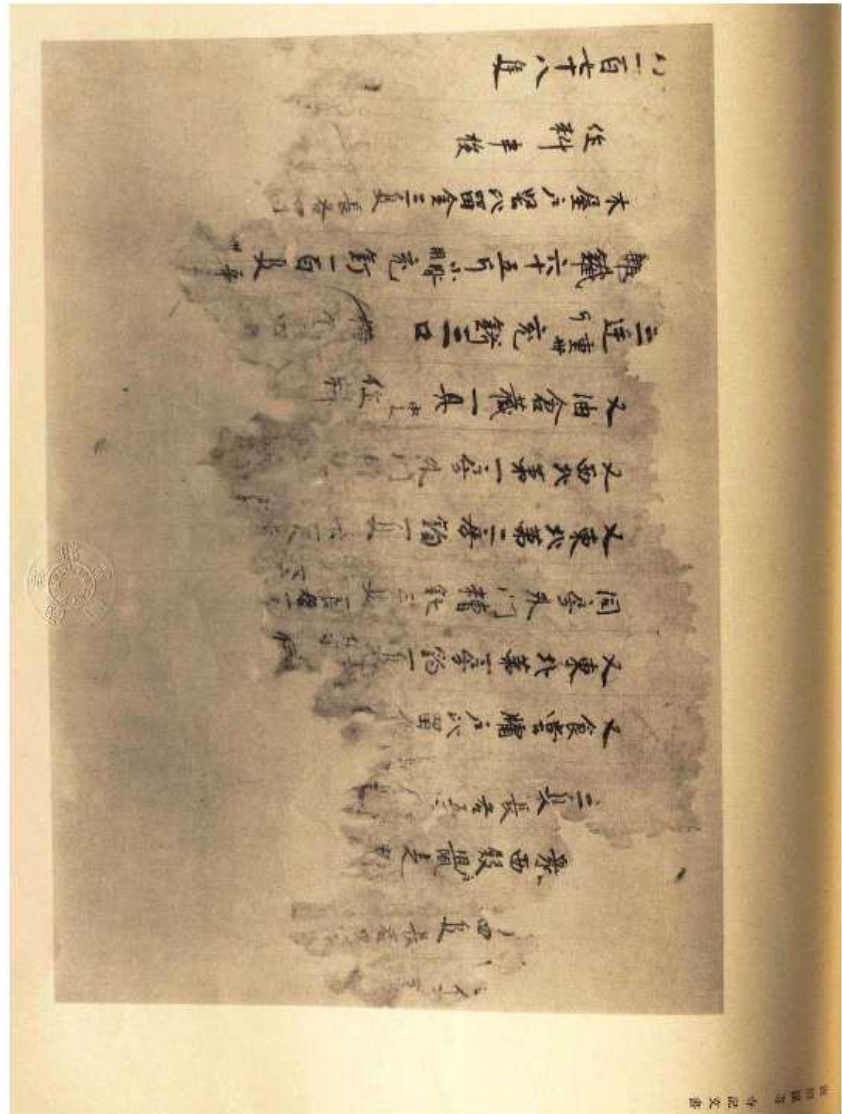
『日本建築史研究』には次のように記述されている。

p140 文書の断簡
唐招提寺大鏡所載
槽釦三隻 槽釦は「釦
の宛字と思われるが、
このような用字法は
一般に正しい字を用
いている奈良朝盛期
の文書からは見出す
ことはできないから、
おそらくこの文書は
延暦ごろより溯らな
いものと思われる。」

p159 槽釦三隻

槽釦□隻

p166 「槽釦」(かす
がい)(釦のこと)の
ような、奈良時代の
造東大寺司関係の文
書(主として正倉院
文書所収)には見ら
れない特異な宛字が
用いてあるので、お
そらく造東大寺司と
は関係のない人の手
になったものと推測
される。



槽釦は前述のように釦の宛字で、扉を閉じるための木のうち縦に用いる祠(とざし)あるいは横に用いる久留理(くるり)(久留留木)を取付けるため扉(旧)に打つ金物たる挙(あげ)釦あるいは久留理釦の二種がある。

「鰯」は、「いわし」を表す。古く藤原京時代には「伊和(委)之」など、万葉仮名で表記されていたものであったが、奈良時代にはこの国字へと変遷を見た。平城京木簡に出現する「鰯」のように、意味が対応する漢字が見つけない物にも国字が造られていく。他の魚名

の表記との対称性が求められたことが一因と考えられる。こうした現象は、漢字が日本化していく過程といえる。

痛みやすいなど「弱」い魚という意識から作られたといわれる。「いわし」の語源自体が「よわし」であったともいわれ、会意文字であるものの形声文字のような構成をもっていて、一層親しみやすかったと想像される。木簡によく現れ、正倉院文書でも使用されている。

平城京左京三条二坊一・二・七・八坪長屋王邸
<http://mokuren.nabunken.go.jp/Mokkan/6AFITZ11/L/000803.jpg>

「𩺰」は、「年魚」の合字とされる(『改訂新版日本古代木簡字典』、馬場基「異体字雑感」『木簡研究』30 「戸主」なども合字)。意図的な一字化か、臨時的な逆行同化による融合であろう。

なお、鳥の「とき」には漢字「鵲」「鵲」が当てられ、後に「鵲」となり国字とされる。真福寺本『古事記』には「𩺰」で「鵲」の異体字が使用されている(p276)。



使用例の少ない「小学篇」字が上代の文献での使用字と符合するケースはほかにもある。

「𩺰」は、「大安寺伽藍縁起并流記資材帳」に用いられており(『寧楽遺文』、『古代資材帳集成』p53 など)、「かぶと」と読まれている。この字は、中国では、リフ、胡の食器名(林邑王の献上した物)であり、それとは別系統のものであろう。

『新撰字鏡』に収められた、奈良時代のもと考えられている「小学篇」には「𩺰」が「𩺰」とともに「かぶと」とされている。後者は、和語の「かぶと」を表すために、素材の金属を金偏、頭にかぶるという特徴を「笠」を選んで、会意文字として結合させたものであろう。この竹冠を省略したのが、「𩺰」であり、奈良時代には実際にある集団において流通し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

『古事記』に「𩺰」という字が使われており、「くら」と読まれている。これも「小学篇」に「𩺰」で「乗久良」と読む字があり、また漢字の「鞍」を日本での実際の材質に合わせて革偏を木偏に換えた「𩺰」(大宝二年戸籍など 神道大系 p178 など)と何らかの関連を有するものであろう。

先述のように、上代においてすでに用字の選択に地域差があ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が、古『風土記』には、産物などの表記に僻字の使用が見られる。なんらかの地域性による可能性もある。たとえば、『出雲国風土記』に「𩺰魚」「𩺰子」などが見えることは、近世期の『倭訓栞』から指摘されている。

その他にも、上代の歌論書『歌経標式』の万葉仮名に「𩺰」(夜(よ)。「用」と同じく甲類)が用いられるなど、特異な字種は各種の文献に散見される。

4 おわりに

ここまで、国字を中心とする研究をして行く中で気にかかっていたことからいくつかの事柄を挙げ、上代文献という有限な情報の中で、文字に関しては何がどこまで明らかにな

るのかの一端を述べてきた。

上代の漢字は、中国や韓国の漢字からの影響が色濃い段階にあった。しかし、漢字の使用の流れの中で、日本化が各方面で進展していた。

- 部首・旁などの置換：日本製異体字
- 字音の派生、転化：日本製字音（慣用音）
- 字義の派生、転化：日本製字義（国訓）
- 漢字の作製：日本製字種（国字）

これらのように字に対する用語（ラベル）の概念を明確化し、その適用を実際の字に対して行っていくと、現存資料、あるいは参照可能な資料により、典型的なケースが現れる一方で、その制約により、グレーゾーンも広が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る。

上代の国字の発生と使用に関しては、次のことがいえる。

中国や韓国の漢字の影響を受けて上代の日本の漢字は変化した。韓国の訓読みの方法、中国・韓国の異体字化の方法、中国の新字義・韓国の国訓の方法、そして中国の新造字、韓国の国字の影響を直接文字として受容し、またその方法を習得することによって、国字が生み出されたと考えられる。

国字は、該当する漢字がない、その漢字があるいは不明確だった、あるいはその漢字が生活上の実感にそぐわなかった和語のとくに名詞を表記するために、他の漢字による表記との対称性を求めて作られ始めたものと考えられる。

漢語や単音節の韓国語を表記するに適した形声の方法よりも、和語の意味を表す会意の方法が優先的に採用された。

すでに、個人、社会や地域によって、国字の使用に位相性、変異が表れていた。

万葉仮名表記から国字、合字へと表記が変化するケースが見られた。

天平年間ころに漢字から国字へと切り替わるケースが見られた。

字体の類似する漢字で国字を誤記するケースもあった。

平安時代の字書に引用された「小学篇」「(楊氏)漢語抄」の類（万葉仮名は書き変えられていることがあり、上代特殊仮名遣いを必ずしも反映しない）などの文献が奈良時代の国字の存在を示唆するケースがあった。

データベースなど電子化された資料までもが蓄積されていく現代においては、その資料としての性質を把握し、的確に使用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る。中国や韓国での漢字の使用の変遷に関する研究は独自に進展しつつある。また漢字研究、中国語学、韓国語学と日本語学における研究との連携も一部で行われてきた。これらの相互の協力によって、東アジアの文字の作製、使用と継承、伝播、変化の実態が明らかになっていくことは間違いない。そのためには、今後、一層活発な相互の学術交流がなされることが重要である。

主要文献

- 青木 周平2003『古事記受容史』 笠間書院
- 鮎貝房之進1972『俗字攷』（国書刊行会 復刻）

- 李 建植 2012 「한국 고유한자 자형(字形) 구성(構成) 방법(方法) 연구 二題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형성(形聲)으로 만들어진 한국 고유한자의 몇 가지 사례-」『東洋學』 52
- 池田 証寿 2011 「「寂」の異体 -HNGによる考察-」『訓点語と訓点資料』 127
- 石塚 晴通 1984 『図書寮本 日本書紀 研究篇』 汲古書院
- 石塚 晴通 1999 「漢字字体の日本的標準」『国語と国文学』 76-5号ほか
- 石塚 晴通 2003 「聖教の形と場 -敦煌及び日本の古写・刊本-」頼富本宏編『聖なるものの形と場』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 石塚 晴通監修 2016 『漢字字体史研究』 2 勉誠出版
- 市 大樹 2010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 井手 至 1999 『遊文録 国語史篇二』 和泉書院
- 乾 善彦 2003 『漢字による日本語書記の史的研究』 塙書房
- 犬飼 隆 2005 『上代文字言語の研究 増補版』 笠間書院
- 犬飼 隆 2008 『漢字を飼い慣らす』 人文書館
- 井上 幸 2010 「日本古代の漢字使用にみられる類化による偏旁冠脚の添加・置換をめぐって -正倉院文書の例を中心に-」『美夫君志』 77
- 上原 真人ほか編 2006 『列島の古代史 6 言語と文字』 岩波書店
- 内田 賢徳 2005 『上代日本語表現と訓詁』 塙書房
- 浦野 聡・深津行徳編 2006 『古代文字史料の中心性と周縁性』 春風社
- 王 華権 2014 『一切経音義文字研究』 上下 上海世紀出版集団
- 大柴 清園 2008、2009、2011 「『篆隸萬象名義』における俗字の研究(1)(2)(3)」『高野山大学 密教文化研究所紀要』 21, 22, 24
- 小川 靖彦 2006 「『萬葉集』原本のレイアウト」『青山学院大学文学部『紀要』』 47
- 小川 靖彦 2011 「『書物としての萬葉集古写本』」『萬葉語文研究』 11
- 小川 靖彦編 2016 『萬葉写本学入門』
- 沖森 卓也 2003 『日本語の誕生』 吉川弘文館
- 沖森 卓也 2009 『日本古代の文字と表記』 吉川弘文館
- 小野田光雄 1995 「古事記の大字「叁」について」『古事記研究大系』 10
- 小野田光雄 2006a 「上代人の用いた嶋字について」『古事記年報』 48
- 小野田光雄 2006b 『古事記積日本紀風土記ノ文献学的研究』(「風土記の「叁」と「叅」について」「上代の人名表記の「マロ」と「太安萬侶」「倉野氏本『出雲国風土記』管見」などを含む)」 続群書類従完成会
- 澤瀉 久孝 1931 『萬葉集新釈』 1944 9版
- 澤瀉 久孝 1941a 『萬葉古径』
- 澤瀉 久孝 1941b 『萬葉の作品と時代』
- 韓 小荊 2009 『《可洪音義》研究——以文字爲中心』 四川出版集團巴蜀書社
- 何 華珍 2005 『日本漢字和漢字詞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兼岡 理恵 2008 『風土記受容史研究』 笠間書院
- 鎌田 元一 2001 『律令公民制の研究』 塙書房
- 狩谷 掖斎 『古京遺文』

- 狩谷 掖斎『倭名類聚抄箋注』
- 木下 正俊1990「万葉集古写本の本文改変」『国文学』67号
- 木下 正俊2000『万葉集論考』 臨川書店
- 金 鍾埴1983『韓国固有漢字研究』 集文堂
- 木村 正辞1904『萬葉集文字弁証』
- 京都国立博物館編2013『国立岩崎本日本書紀』 石塚晴通解説 平安 10世紀か
- 京都国立博物館編2014『国宝古田本日本書紀』 石塚晴通解説
- 工藤 力男2007「日本語資料としての古代地名 ―地域と時代と―」『國學院雑誌』108-11
- 蔵中 進2009「奈良朝初期の白話漢語辞書 ―『楊氏漢語抄』『弁色立成』『漢語抄』について―」(寺村政男 増補注)『水門』21
- 桑原 祐子2005『正倉院文書の国語学的研究』 思文閣出版
- 神野志隆光2007『漢字テキストとしての古事記』 東京大学出版会
- 小島 憲之1942「萬葉集古写本に於ける校合書入考」『国語国文』11-5
- 小島 憲之1962『上代日本文学与中国文学』中 塙書房
- 小島 憲之1973『国風暗黒時代の文学』中(上) 塙書房
- 小島 憲之1974「万葉用字考実例」(二)『万葉集研究』3
- 小島 憲之1978「万葉用字考実例」(四)『万葉集研究』7
- 小谷 博泰2006『木簡・金石文と記紀の研究』 和泉書院
- 財前 謙2015『日本の金石文』 芸術新聞社
- 笹原 宏之2005「漢字文字列における同化と衝突」国立国語研究所編『雑誌『太陽』による確立期現代語の研究―『太陽コーパス』研究論文集―』博文館新社
- 笹原 宏之2006『日本の漢字』 岩波書店
- 笹原 宏之2007『国字の位相と展開』 三省堂
- 笹原 宏之2012「異体字・国字の出自と資料」『漢字字体史研究』 勉誠出版
- 笹原 宏之2015「“串”字探源 ―以“串”表扞子之意为中心」『中国文字研究』21
- 笹原 宏之2016a「国字(日本製漢字)と誤認されてきた唐代の漢字 ―佚存文字に関する考察―」『東アジア言語接触の研究』
- 笹原 宏之2016b「会意によらない一つの国字の消長 ――「𪛗」を中心に」『国語文字史の研究』15 和泉書院
- 貞苺 伊徳1998『新撰字鏡の研究』 汲古書院
- 佐竹 昭広 2000『萬葉集抜書』 岩波書店
- 佐藤喜代治編1988『漢字講座』5 古代の漢字とことば 明治書院
- 佐藤 稔1988「正倉院文書」『漢字講座』5 明治書院
- 隋 源遠2016「霏霰(たなびく)」新考『上代文学』116
- 瀬間 正之2011『風土記の文字世界』 笠間書院
- 高橋 久子2000『色葉字類抄』の価値『日本語学』19-11
- 田中 嗣人1997「鵜大寺考」『日本書紀研究』21
- 朝鮮文化研究所編2007『韓国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
- 張 涌泉2010『漢語俗字研究』(増訂本) 商務印書館 中国

- 張 涌泉1995「敦煌文书类化字研究」『敦煌研究』第4期
- 張 磊2012『《新撰字鏡》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陳 五雲・徐 時儀・梁 曉虹 2010『仏經音義与漢字研究』 鳳凰出版社
- 鄭 賢章2007『《新集藏經音義隨函錄》研究』「漢文仏典語言文字研究叢書」 湖南師範大學
- 鄧 福祿・韓 小荊2007『字典考正』湖北人民出版社
- 中川ゆかり2009「「妹」字考 —「セ」を表わす文字—」『萬葉』203
- 西原 一幸2015『字様の研究』 勉誠出版
- 西宮 一民1991『上代の和歌と言語』 和泉書院
- 西宮 一民1982「古事記の通用字」『古典学藻』 塙書房
- 布村 一夫1983「日本語のための民族学」『国文学解釈と鑑賞』48-6
- 橋本 繁2014『韓国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 橋本 雅之1991「万葉集写本の文字 —措と摺—」『吉井巖先生古稀記念論集 日本古典の眺望』
- 蜂矢 真郷2015「風土記の地名と和名類聚抄の地名」『風土記研究』37
- 林田 洋子1971「アユをめぐる伝承」『國學院雜誌』72-12
- 平川 南ほか編 2004-2006『文字と古代日本』1-5 吉川弘文館
- 平川 南編2005『古代日本 文字の来た道』 大修館書店
- 平川 南2008『日本の原像』2 小学館
- 平川 南2010「正倉院佐波理加盤付属文書の再検討」『日本歴史』750
- 平川 南編2014『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大修館書店
- 廣岡 義隆2004「風土記の原形態について」『国語と国文学』81-11
- 廣岡 義隆2005『上代言語動態論』 塙書房
- 藤本 幸夫2015『龍龕手鏡（鑑）研究』 麗澤大学出版会
- 古屋 彰2009『万葉集用字覚書』 和泉書院
- 方 国花2003「門構えの略体の用例からみた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漢字文化の受容と定着」『国語と国文学』90-12
- 松島 順正 1956「正倉院御物銘文集」『書陵部紀要』7
- 三浦 佑之 2016『風土記の世界』 岩波書店
- 本居 宣長『古事記伝』 大野晋編「本居宣長全集」筑摩書房 『古事記大成』 平凡社
- 森 博達2011『日本書紀 成立の真実』 中央公論新社
- 山下 真里2011「異体字が広まる一過程—「鉦」という字体を一例に—」『訓点語と訓点資料』128
- 山田 孝雄1928-1937『萬葉集講義』1-3 宝文館
- 山田 孝雄1937『国語史 文字篇』 刀江書院 (2009『日本文字の歴史』書肆心水)
- 山田 孝雄1956『萬葉集と日本文藝』 中央公論社

付記 本研究は、科学研究費基盤研究（S）「木簡など出土文字資料の資源化のための機的情報集約と知の結集」、同基盤研究（C）「現代日本語における漢字の字体・字形の実態とその背景に関する調査研究」による部分がある。

상대¹⁾의 일본제 한자의 제작과 사용

사사하라 히로유키[笹原宏之] (와세다대)

1. 머리말

1세기경, 일본열도에 한·漢 왕조로부터 한자가 전래되었다. 중국 또는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 또는 서적에 의해서 한문을 혼독하게 된다. 그리고 한자를 사용하여 일본어를 표기하도록 다양한 궁리와 응용이 가해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독訓讀 사용, 이체자화異體字化나 국훈國訓 제작을 거쳐, 중국의 신자新字나 한국의 국자國字(본고에서는 한자권에 있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작된 한자를 ‘국자’라고 부르며,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자의字義를 ‘국훈’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것에 대해서는 그냥 ‘국자’·‘국훈’이라고만 일컫는다)를 본떠서 새롭게 조자造字까지 하게 된다. 거기에는 도래계의 후비토[史]²⁾들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조자가 시작된 역사적 경위, 그렇게 해서 탄생된 문자로서의 성질, 그것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해서, 현존하는 각국의 각종 문자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해명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말하고, 향후의 과제를 밝히겠다.

2. 중국제 한자

2.1 자체(字體)

일본열도에는 야요이[彌生] 시대부터 아스카[飛鳥] 시대·나라[奈良] 시대에 걸쳐, 중국 대륙이나 한반도로부터 한자와 한자에 의해서 기록된 문화들이 전래되었다. 그 자종字種은 수천에서 수만에 달한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는 한자사전漢字字典이나 한화사전漢和辭典에 실려 있지 않아서 일본제의 자종 또는 자체로 오인받아 왔던 것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그 각각의 주요한 예, 전형적인 예, 어긋나는 예 등을 몇 가지 들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자세하게 설명을 더해 가겠다.

우선, 중국제 한자로 틀림없는 것을 보인다.

‘宜’(宜)

‘宜’은 ‘宀’를 ‘宀’로 적는 것이 중국에서 생겨나고, 중국·한국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最’의 윗부분을 ‘宀’로 적는 이체자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자는 준닌[淳仁] 천황, 고켄[孝謙] 천황 등이 그 자체를 담은 문서도 남아 있어, 공적인 의식도 엿볼 수 있다.

경주 월성해자 출토 목간1 「한국목간자전」

□流石奈生城上此本宜城今受不受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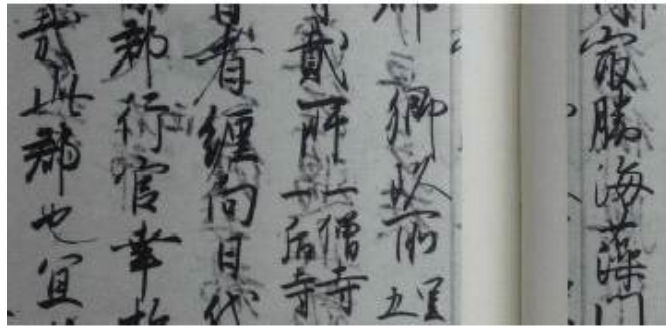


1) 역자주: 일본 역사의 시대 구분 가운데 하나. 문학사나 언어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라 시대까지를 가리키고, 문화사적으로는 헤이안 시대를 포함하기도 함.

2) 역자주: 일본 상대에 기록을 업으로 했던 씨족 계급으로, 대부분 도래인이었음.



『일본상대금석문자전』
日本上代金石文字典』



『분고 국 풍토기豊後國風土記』, 「冷泉家時雨亭叢書」
아사히[朝日] 신문사 ‘纏’, ‘宜’도 보인다.

2.2 일존문자

중국제 한자이지만 다른 나라에 전파되고 중국에서 사용이나 그 흔적이 얼어졌기 때문에 마치 다른 나라의 국자처럼 다루어지게 된 것을, ‘일존서佚存書’³⁾(『유선굴遊仙窟』⁴⁾ 등, 사사하라 2016a)를 본떠 ‘일존문자佚存文字’라고 부른다(사사하라 2007. 참조).

우선 일본에 있어서 자종字種 층위의 예를 들겠다.

‘𡇗’는 ‘菩薩’의 약합자略合字이며, 후대에 쇼모즈가키[抄物書]⁵⁾(이체자로도 규정할 수 있다), 문자의 명칭으로는 사사보살ササ菩薩이라고 불리게 된다. 당대唐代의 돈황사경에 나타나고, 일본의 아스카 연못 목간·후지와라 궁 목간, 아스카 시대의 사경寫經에 일찍부터 사용되었다(『개정신판일본고대목간사전改訂新版日本古代木簡字典』, 사사하라 2012 등). ‘菩提’를 ‘사사점보리ササ点菩提’의 모양으로 생략하는 것은 일본의 독자적인 것일 것이다.

‘屎’는 헤이안[平安] 시대에 『신찬자경新撰字鏡』, 『화명유취초和名類聚抄』에 실려, 에도[江戸] 시대 이후 국자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당대唐代에 백행간白行簡이 지은 부賦에 사용되었던 것임이 판명되었다. 중국에서도 어느 시대이든 신어는 창출되고, 또 속어 같은 위상어位相語도 존재하여, 그것에 대해서도 조자가 만들어져 표기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중국의 속문학에 사용된 글자가 일본의 사전에 반영된 것이다(사사하라 2016a).

또한 ‘我念君’의 합자合字와 같은 부적도 당대唐代에도 용례가 눈에 띄며, 일본에서는 중세기에 이별의 뜻을 과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자체字體의 층위, 즉 이체자의 예를 들겠다.

‘𡇗’는 자서에는 ‘瓠’(조롱박)라는 자체로 실려 있으나, 중국(돈황문서), 한국(목간), 일본(목간, 정창원문서正倉院文書)에서 ‘초두머리’가 추가되는 일이 있었다.

‘𡇗’라는 자는 한적과 불전에 사용되었으나, 자서에는 거의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희서戲書 ‘馬聲蜂音石花蜘蛛荒鹿’(いふせくもあるか[마음이 개운치 않고 답답하다])로 『만엽집萬葉集』에 나타나는 국자가 되었다(사사하라 2016a). ‘蛛’의 방旁(성부聲符)을 치환한 것이다.

3) 역자주: 중국에서는 없어지고 한국이나 일본에는 남아있는 한적.

4) 역자주: 중국 당대唐代에 장작張鷟이 지은 소설. 실물이 전하지 않다가 1927년 일본에서 발견됨.

5) 역자주: 불서佛書를 쓸 때 자주 나오는 한자의 자획을 생략하여 쓰는 것. ‘醍醐’를 ‘西西’, ‘娑婆’를 ‘女女’, ‘懺悔’를 ‘ㄅ ㄅ’, ‘緣覺’을 ‘ㄻㄻ’로 쓰는 등의 것을 말함.

‘纓’은 『일본서기日本書紀』 권30 지토[持統] 천황 11년 7월에 보이는 유일례의 문자로, 「일본고전문학대계」(이와나미[岩波] 서점) 하 533쪽에는 ‘赦 常纓盜賊(十은 ナ)(ひたぬすびと)’이라 하며, ‘纓’은 ‘금속제의 纓, 즉 묶는 끈’이라 한다. 중국 자서에 없어서 ‘金嬰’·‘嬰金’의 ‘이합생자二合省字’에 의한 국자라고 생각해 왔다. 타니카와 코토스가[谷川士清] 『일본서기통증日本書紀通證』(1762)에는 언급이 없다. 이이다 타케사토[飯田武郷] 『일본서기통석日本書紀通釋』 권70 제 5(메이지[明治] 서원 1903)는 일본의 ‘이합자二合字’ 설이나 오사설誤寫說 등을 인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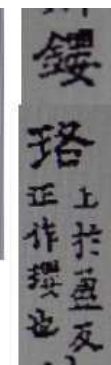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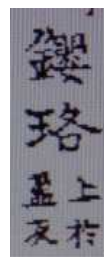
그러나 불전에 사용되어 있어서 사용된 자획字彙의 사회성을 엿볼 수 있다. 모리 히로미치[森博達] 씨가 분류한 α군群에는 국자가 없고, 일본 관습이 많은 β군에는 여러 국자가 사용되었다. 권30은 『일본서기』 α군과 β군이 혼재하는데, 이 자가 한자라도 문제는 없다.

키무라 마사코토[木村正辭] 『황조조자고皇朝造字考』
「이체자연구자료집성異體字研究資料集成」

카와무라 히데네[河村秀根] 『서기집해書紀集解』
권20:40a(와세다대 소장)

『한어대자진漢語大字典』 4273쪽에 이 글자가 실렸는데, ‘음의미상音義未詳’과 명명 심채沈采의 『천금기千金記』의 인용만 있다. 그러나 『수함록隨函錄』(고려대장경, 중화대장경 등) 권13, 21에 이미 실려있고(덩푸루[邓福祿]·한샤오징[韩小荆] 2007:440, 정췌장[郑宪章] 2007:10, 689 俗作 改換意符, 한샤오징 2009:787), 원래는 ‘嬰’, ‘璫’(목걸이, ‘纓’은 갓끈이지만 음이 통합)에 자체상의 동화(후술, 『수함록』이 인용한 「불설유리왕경佛說瑠璃王經」에서는 앞 글자가 ‘釧’)인지 소재에 맞추려는 편방(부수)의 부가·치환에 의한 자체 증위의 이체자(내지 조자)였다.

또한 『수함록』은 근세에도 키무라 마사코토[木村正辭]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응玄應이나 해림慧琳에 의한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등에 비해 한정적이었다.



2.3 자체상字體上の 동화현상

동태動態로서 서기書記 행위를 파악할 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의 하나로, 앞뒤의 자체·자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서, 자체에 일어나는 동화同化 현상이라고 부른다(사사하라 2005). 자체·자형에서는 동화 외에 전도轉倒나 융합融合, 이화異化 등도 관찰되며, 음운·음성의 현상들과 병행적으로 다룰 수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체·자형에서는 점획부터 구성요소나 글자 전체까지 부가·치환한다. 순행·역행이 함께 보이며 근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한다. 그 원인에는 심리적·생리적인 면이 있고 의도적·무의도적인 경우가 있다. 시각적으로 안정감, 장식성, 한 단어라는 감각을 얻을 수 있

다. ‘鳳凰(鳳皇에서 나옴)’, ‘葡萄’ 등도 그렇게 제작되어, 개인이나 사회에서 습관화되어 정착하였다. ‘鳳凰’은 나아가 종종 ‘鳳’의 ‘一’이 빠지기도 하고, 혹은 ‘凰’에 ‘一’이 더해지기도 하는 예가 보이며, 단독으로 사용되는 일은 드물어 일체화가 강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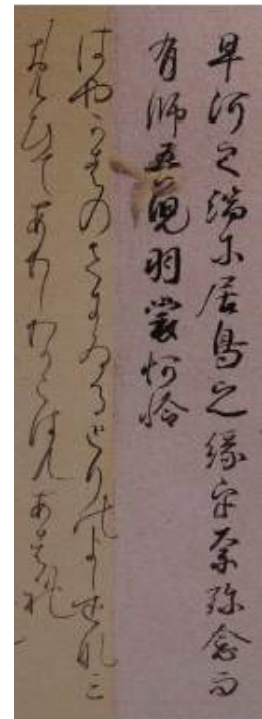
구조에서는 ‘蓬萊’를 ‘蓬來’로 쓰는 이화로 분류할 수 있다. ‘鳳皇’(‘鳳凰’의 옛 형태)과 구조상으로는 같다.

‘霏’는 카키노모토노 히토마로[柿本人麻呂]의 노래에 ‘(霞 안개) 霏霏’로 나오는데, 이 글자에 관해서는 코지마[小島](1962), 코지마(1978) 등에서 한적의 ‘霏微’에 의한 것으로 고증하고 ‘霏’라는 글자나 말뜻은 히토마로의 창작이라는 설도 주장된 적이 있으나, 쑤이위안 위안[隋源遠](2016)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북주北周의 묘지墓誌(577년?)에 ‘霧霏霏’가 있다는 것과 「사고전서四庫全書」에도 보이는 시각적 미관을 추구한 편방류화偏旁類化라는 점을 지적했다.

‘柯’는 ‘可伶[가련한]’이라는 속어에서 역행동화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柯伶’이라고 쓰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히토마로의 창작설이 주장된 적이 있었다. 또 키시타[木下](2000:259)는 “柯伶 3197 阿伶 アハレ의 ア에는 ‘阿’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기보다도, 무심코 나온 연상에서 비롯된 단순한 잘못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돈황사본과 일존서 『유선굴』의 여러 사본 등에 용례가 있으며(사사하라 2016a), 일어화一語化에 따른 중국제의 동화였던 것인데, 자서字書에 없었기 때문에 국자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2자의 사용이 일부에서 습관화되어, 후대에는 마나 본[眞名本]⁶⁾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에서 ‘かれいひ[건조시켜 휴대했던 밥]’ 표기에 활용되는 등 영향을 주었다.

카즈라 본[桂本] 『만엽집』 761



2.4 부수의 부가·치환

기존의 한자에 대해서 앞서 다룬 것처럼 부수가 치환되거나 부가되거나 하는 것은, 중국에서 옛날부터 있어 왔다. ‘然’에서 ‘燃’이 파생되어 자의를 명시적으로 구별하려고 하거나, ‘碗’에서 ‘腕’이 파생하여 재질을 구별하려고(후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姦’는 상대上代부터 보이는 ‘采女’의 합자이다. ‘호주戶主’, ‘호구戶口’ 등도 기존의 한자와 같은 형태로 합자화되었지만 ‘호적戶籍(籍)’ 등에는 1자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합체도 보인다. 『대한화사전』은 ‘サイ 女の 별명’, ‘국자 우네메[うねめ]·우네베[うねべ]’(고사기古事記에서 나온 2개의 자의字義)를 병존시키는 이례적 형식을 취한 항목으로 되어있다. 합자에 의한 국훈으로 본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장용환[張涌泉]1995 S.6836).

서기활동에서 보면 그 계승 또는 개별적 좌우결합형의 합자화, 동화의 일종인 융합이라고도 생각된다. 일어一語 의식에서 숙자훈熟字訓⁷⁾을 가진 두 자를 요소의 생략 없이 병합한 것, 혹은 기존의 그것을 수용한 것이다. 한어 ‘采女’가 采의 자의를 이해 못하는 사람 등에

6) 역자주: 가나 없이 한자만으로 씌어진 책.

7) 역자주: 한자 속어를 음으로 읽지 않고 ‘明日(あす)’처럼 전체를 하나의 훈으로 읽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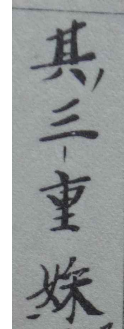
의해 ‘姦女’라는 역행동화에 의한 편偏의 부가가 일어나, 그로 인해 생긴 자체일 가능성도 있다.

필사 때 2자의 결합이 자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하형의 합자와 달리 좌우형의 합자화는 적지만, 『이즈모국풍토기出雲國風土記』에 ‘𪛗’가 있다(『문교온고文教溫故』도 지적하고 있다).



신푸쿠지본眞福寺本 『고사기』 하

카네나가본兼永本 『고사기』 하



『고사기』(신도대계神道大系) 42쪽에 ‘姦 七宰切姦女也 124行’, 288쪽 『대일본 고문서大日本古文書』에 ‘姦女’, ‘姦’. 『만엽집』(51), 목간(『개정신관일본고대목간사전』 169쪽)등에도 사용되었다.

2.5 한국계의 이체자

중국의 육조시대에 발생했던 속자 종류가 중국으로부터 혹은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에 유입되었다. ‘部’를 ‘ㄱ’, ‘ㄴ’과 같이 생략하는 것도 그 하나이다. ‘門’부를 ‘T’와 같이 생략하는 것은 중국이 최초라고 한다(후술).

‘ㄱ’은 한자 ‘低’의 이체자인데, 중국 북방으로부터 한국을 거쳐 비슷한 자체, 같은 자체가 사용되던 것이 전해져, 오로지 만요가나[萬葉假名]로 쓰이게 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低’등에도 응용되었다. 아스카 연못 목간 49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자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호태왕비好太王碑」, 이나리아마[稻荷山] 고분출토철검,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출토철도에도 보이며, 『일본서기』 가요의 가나로는 권 3 과 권 22에만 나타난다(모리 2011:31, 154-155). 그것은 이른바 β군에 해당하며, 중국인이 저술했다고 생각되는 α군에 ‘ㄱ’(본문에는 ‘ㄱ’이 한국의 지명으로)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2.6 일본제 이체자

2.6.1 편방의 추가·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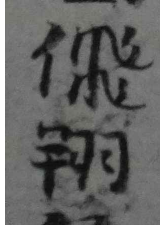
‘坏’는 ‘杯’, ‘盃’를 바탕으로 ‘즈키[つき]’(접시 모양의 토기로 하지키[土師器]⁸⁾, 스에키[須恵器]⁹⁾로서 구워져 있다)를 표기하기 위해 소재를 부수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만엽집』(니시혼간지본西本願寺本 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부수를 실제 기물器物の 소재에 적합하도록 보정한 이체자이지만, 재질을 특정하고 싶은 것이 있다. ‘坏’는 중국에서는 불로 구워 만든 기와, 도기(『설문해자說文解字』 등) 등을 가리킨다.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식품에 대한 어휘나 표기는, 일본에서 비교적 많은 기록이 남겨지는 경향이 있다. ‘즈키つき’에 맞추는 용법이 일본적인지의 여부는 더 검토를 요한다.

식기食器인 ‘마리[まり]’에는 자음 ‘완’을 가진 ‘碗’(『월간문화재月刊文化財』 1993. 11 21 쪽 사진 모리 키미유키[森公章] 「헤이조궁적平城宮跡의 목서토기墨書土器」 외), ‘碗’, ‘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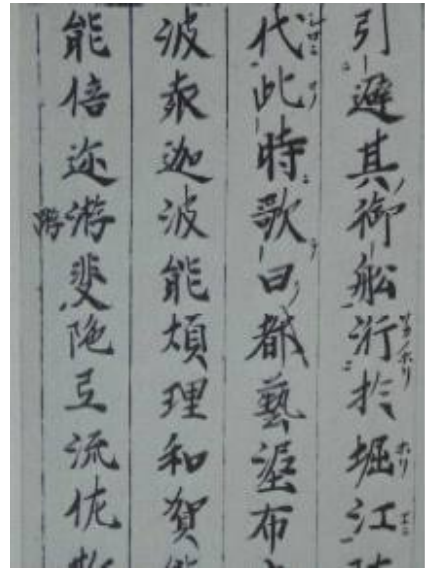
8) 코훈[古墳]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사용된 적갈색 토기. 유약을 바르지 않고 저열로 구웠음.

9) 코훈[古墳]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사용된 회흑색 경질 토기. 계단형 가마에서 고열로 구웠음.

‘鰲’(가나) まり), 용도를 부수로 삼은 ‘鰲’이 활용되었다. 또 ‘宛’과 ‘完’은 중간형을 통해서 교체할 수 있었다. ‘金龜’처럼 그것들에 초두머리가 부가된 경우도 있다(마츠시마[松島] 1956 2회). 이러한 중국에서의 부수의 치환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신평쿠지본眞福寺本『고사기』 가운데에 ‘飛’에 사람인변이 부가된 글씨체가 찍어 있다. 이것은 원본의 단계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비飛’ 왼쪽 아랫부분의 2획이 ‘亻’와 같은 형태로 다르게 분석되고, 나중에 복제되었을 것이다. 부수의 파생·독립이며, 주체를 명시하고자 하는 2차적인 회의會意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고유 명사도 보인다.



카네나가본『고사기』 하에 ‘游’가 측면足偏이 되어 있는 글자가 이문異文으로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미에 의한 혼입이나 부위를 변경한 자종 또는 자체일까.

그 3행 앞에 ‘汙’이라는 자체가 있는데, 한자에서는 도량물의 흐름이라는 뜻. 의미로서는 ‘派’였거나. 나중에 나타나는 국자의 ‘圻’(절벽, ‘圻’에서 온 것일까)의 방旁에, 병행적인 변화가 일어나 있다.

3. 일본화 한자 · 일본제 한자

3.1 일본화 자의 · 국훈

여기부터는 의미에 관계되는 변화·가공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해서楷書가 등장한 뒤에도 자의는 인신引伸, 전화轉化, 파생派生을 반복하면서 더 나아가 형성形聲, 드물게 회의會意 등의 방법으로 조자가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삼국 시대부터 국훈, 국자가 생겨났다. 그것들은 이른 시기에 일본에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나 국자나 한국제 한자나 하는 판단은, 문헌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椋’(곧간)은 ‘京’에 한국에서 나무목변을 더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아스카 연못 목간 등에 나타난다. ‘益’(열쇠?)은 아스카 연못 목간 등에 나타난다. 후자는 ‘鑑’의 생문省文으로도 풀이되며, 한국에서는 한자의 ‘鑰’을 ‘鑑’처럼 별자別字(엄밀하게는 자체가 다르다)로 표기했던 것에서 전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鰲’도 그 하나로 여겨지는 일이 있지만, 각국의 고대의 용례는 맞서고 있다.

후대의 『화명초和名抄』에는 『한어초漢語抄』나 『본초本草』 등 한적으로 보이는 자료가 인용된다. 그러나 그것들에 현존하는 각종 자료의 검토를 더하면 예를 들어 ‘鰲’와 그 부수를 치환한 ‘鰲’는 출토 목간이나 사서史書, 수필 등 전래 문헌 등의 현존 자료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자세한 것은 사사하라 2012 참조).

	鰲	鰲
일본	7 세기	8 세기
한국	10세기	8 세기
중국	7 세기	14세기

‘串’은 헤이조쿄平城京 목간, 『법룡사가람연기병류기자재장法隆寺伽藍縁起并流記資材帳』, 『고대자재장집성古代資材帳集成』 129쪽 등에 ‘빗[くし]’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弗’이 별자別字인 ‘串’(꿰뚫다라는 동사의 용법)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불전 등을 정밀 조사하면 의문이 생긴다(사사하라 2015). ‘丨’를 뺀 이체자가 별자와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다.



신푸쿠지본 『고사기』 중

더 오래된 한자인 ‘玉’이나 ‘貫’의 윗부분도, 꿰뚫는 것은 1 개로 표현되어 있다.

‘椿’은 7세기의 관음사觀音寺 목간(오키모리 타쿠야[沖森卓也] 2003, 우에노[上野] 등 2006, 사사하라 2007)에 ‘츠바키[ツバキ](동백)’이라는 국훈이 만요가나로 나타나며, 『만엽집』, 『이즈모국풍토기』(樋, 棕, 粉 등도)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俵’은 아스카 연못 목간 169(이치[市] 2010) 아스카 집표[荷札] (‘사표仕俵’)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의 헌납 보물인 목간(7세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짚 등을 엮어 만든 주머니 모양의 용기 ‘타하라[たはら]’를 가리킨다.

‘俥’은 후지와라쿄藤原京 목간 1497이나 『만엽집』에 사용되며, ‘思’에 부수를 부가하여 ‘시노후[しのふ](그리워하다)’라고 한 것이다(이누이[乾] 2003).

‘●牛T’은 아스카 연못 목간22 등에 나타나고, ‘閉’의 이체자이며, 인명으로, ‘마로[まろ]’라고 하는 (‘麻里’(마로을류[まろ乙類])로도 표기된다(광귀화[方國花] 2003). 아스카 시대의 호류지法隆寺의 조상명造像銘에 보이는 ‘𠂔’도 같다고 일컬어지며, ‘閉’는 ‘마라[まら]’(음경이라는 뜻)라고도 읽힌다. ‘●牛T’라고도 적히며(『개정신판일본고대목간사전』 등), 이 門 부는 ‘開’, ‘閉’에도 사용되고 있다. 거연한간居延漢簡에 ‘●井T’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히라가와[平川] 2008:195). 자체는 한국 경유로 전래된 것이고, 자의는 중국의 ‘陰門’, ‘玉門’ 등의 ‘門’에서 응용한 것일까. 당대唐代의 백행간白行簡의 부賦에는, 음부陰部와 ‘開’, ‘閉’를 연결한 용례가 있다(사사하라 2016a).

‘妖’는, 후지와라쿄 목간 2098에 보이며, 부수의 부가에 의한 ‘夫’의 이체자라고도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탐하는 모양, 원한 어린 표정을 뜻하지만, 일본에서는 남자를 친하게 부르는 말인 ‘나세[なせ]’, ‘세[せ]’, 후대에는 부부의 뜻으로 쓰이는 ‘메오토[めおと]’가 생겼다. 호적장戶籍帳에서는 사용에 지역 차이가 있다(이누카이[犬飼] 2005:187 ‘姉’도).

‘狛’은 후지와라쿄 목간 2768, 아스카이케 목간 등에 나타나며, ‘코마[こま]’라고 읽는다. 방旁은 ‘百’으로 하는 사례가 많으며, ‘狛’의 이체자라고도 할 수 있다.

‘杜’를 ‘모리[もり]’라고 읽는 것은 국훈이며, 한자 ‘사社’의 부수가 바뀐 것이라고 한다. ‘두보杜甫’, ‘두목杜牧’이나 도래인의 성으로 친숙했던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이즈모국풍토기』, 『만엽집』, 『일본서기』(키무라 마사코토[木村正辭] 「어휘서류語彙書類」(「이체자연구자료집성」 2-7. 카츠라[桂](가발)로도 보인다), 오모다카[澤瀉] 1931, 오모다카 1941a, 키시타[木下] 1990 외)에 나타나는 것은, 사본의 시대에 사용환경, 사용습관이 생겼기 때문일까.

‘鮓’는 후지와라쿄 목간 2876 등(『개정신판일본고대목간사전』)에 ‘스시[すし]’로 사용되고 있다. 경주 안압지 목간(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2014:216 등)에 석독에 불확실성이 남은 사용례로 보이는 것이 있다. ‘鮓’도 후지와라쿄 목간 3607에 있으며, 중국에서의 자의字義의 차이를 넘어, 모두 같은 ‘스시’를 가리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鮓’는 후지와라쿄 목간 2875에 있어서 물고기 이름의 ‘사케[さけ](연어)’로 사용된다. ‘鮓’이라는 애매한 자형이 많다.

‘鮎’은 다이호[大寶] 3년(703)의 목간, 정창원문서(‘아유시[鮎市]’ 히라카와 2008 p.252)에 ‘아유[あゆ]’로 사용되고 있다. 근세 이후 진코神功 황후의 전설적인 고사에 의한다고도 하지만, ‘年魚’가 『일본서기』에 있는 넨[ネン]이라는 음이 관계했을 가능성이 있다.

‘鱚’은 목간에 ‘사바[さば](고등어)’로 사용되고 있다(『개정신관일본고대목간자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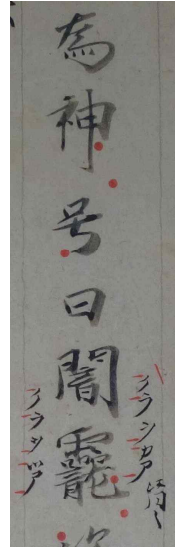
‘靈’과 ‘龍’은 “일본서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한자 ‘靈’(靈)의 ‘巫’를 ‘女’나 ‘龍’으로 치환한 것이며, 각각 ‘메[め]’(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 ‘오카미[おかみ]’(물에 관한 신)로 읽힌다.

이들은 변형 후의 자체가 중국의 자서 『옥편玉篇』(코지마[小島] 1973 등)에 이미 있어서 합자와 통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토대로 두고 구성 요소를 치환·가공하여 국훈으로 할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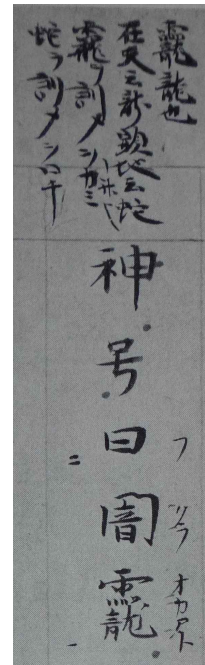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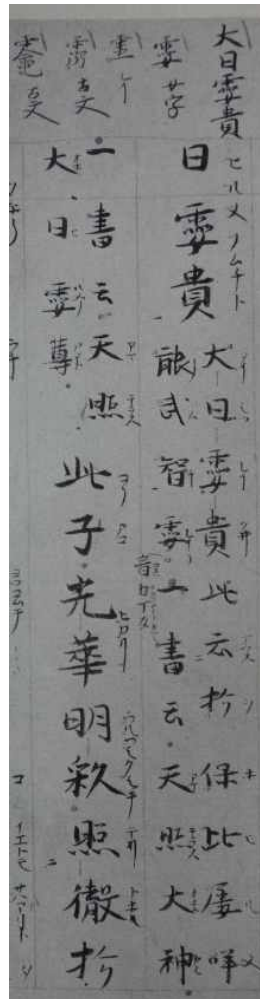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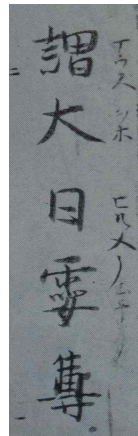
요시다본[吉田本] 『일본서기』 권1 신대神代 상상에 3회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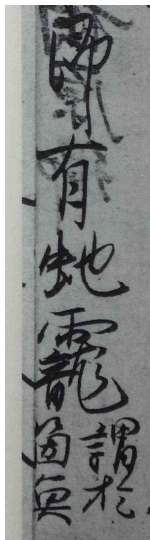
‘此云於箇美’, ‘音力丁反’이라고 주석이 붙어있다.

또 모리(2011)에 따르면 α군群은 권14-21, 24-27, β군은 권1-13, 22·23, 28·29로 나뉜다.



건원본乾元本
『일본서기』 권1





『분고국풍토기』 「時雨亭叢書」

龍 謂於箇魚

(魚는 美에서 온 것일까.)

『전예만상명의篆隸萬象名義』

권23 용부龍部

‘山神’이라고 되어 있다.



이 글자들은 『일본기사기日本紀私記』, 『석일본기釋日本紀』, 『일본서기산소日本書紀纂疏』나 쇼모즈[抄物]¹⁰⁾ 등에 ‘靈’으로 고쳐지거나, 신도적神道的 해석이 되거나, 사전의 기술이 짧게 언급되는 것이 있었다.

3.2 일본제 한자

일본제 한자(일본에서 말하는 국자)의 배경에는, 한 단어는 한 글자로 적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다(야마다[山田] 1937). 훈독을 하는 한자나 합자와 공통된다. 자음字音を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성은 아니며, 일본어의 의미를 상기하기 쉬운 회의를 좋아했다. 단음절어가 아니어도 훈독을 사용하면 일자화一文字化가 가능했다.

숙어의 동화형에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를 표기하려고 하는 의식이 움직인 결과가 있었다. 편방의 부가나 치환도, 자의字義를 특정하여 한 단어를 한 글자로 적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난 면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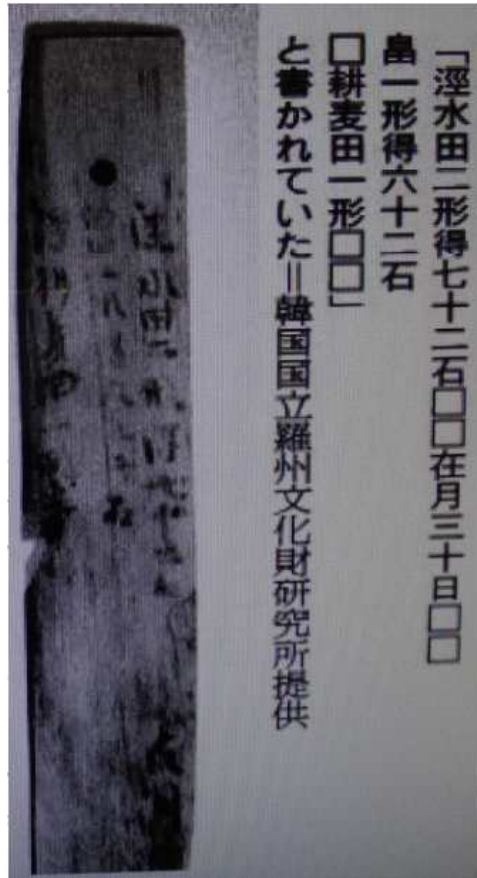
중국에 먼저 존재했던 자체字體에 관해서는, 암합暗合(별개로 창작한 글자의 형음의形音義가 일치하는 현상), 충돌衝突(별개로 창작한 한자의 자체字體 만이 일치하는 현상) 외에, 전승이나 전파에 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대나 자료, 물명物名이나 교류의 상황 등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10) 역자주: 와카[和歌], 모노가타리[物語], 일기 등을 발췌한 것. 또는 한시문이나 불서 등의 자의字義나 문의文義를 주석한 것.

‘畠’는 정창원문서나 목간에 출현하는 ‘하타케[はたけ](밭)’를 가리킨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사용했다는 오랜 기록이 없어 국자처럼 보이지만, 중국제 또는 한국제라면 일본에서는 한자, 한국제 한자(한국의 국자)로서 일본에서 그것들의 ‘일존 문자’로 구별해야 하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국자 ‘畺’(논, 나중에 자음 답이 짚로부터 파생)은 일본에 전래된 지 오래되어, 8세기의 정창원 보물에 기록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사사하라 2007a). 『일본서기』에는 ‘垺’이라는 한국의 인명을 나타내기 위한 조자가 이용되고 있다(『회풍조懷風藻』에서는 중국식으로 한자의 ‘本’으로 만든다).

백제의 목간에 ‘畠’의 사용 사례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히라카와 미나미[平川南] 편(2014:257) 등의 사진을 보면 글자 간격이나 ‘白’, ‘田’의 각각의 문체, 요소의 간격이나 다른 행의 자형에서 ‘白田’이라는 2글자일 가능성이 있다. ‘白田’은 한어의 속어로 이미 육조 시대에 존재했던 것이 『진서晉書』, 『수경주水經注』(백곡白穀을 심는 밭이라는 뜻), 『속제해기屬齊諧記』(『화명초和名抄』 소인所引)에 엿보인다)에 의해 알려졌다. 다른 확실한 용례가 출현할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자가 한자라는 설은 헤이안 시대의 『강담초江談抄』 이후 수없이 주장되었으나, 모두 형태가 유사한 자를 오인한 것 등으로, 아직도 확실한 예는 나오지 않았다. 확실한 용례로는 다음의 관계가 그려진다. 일·한에 대해서는 한 단어의 고유어에 대한 표기를 나타낸다.

중국	田(水田)	田(白田・火田)
한국	畺	田
일본	田	畠 畑(畺 원래는 밭)

또한 ‘𪎭’도 중국에선 ‘𪎭’의 이체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잡곡밥을 의미했던 이 글자를, 한국(‘𪎭’을 ‘벼’의 뜻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예가 발견되고 있다.) 내지 일본에서 𪎭(刀 칼날)을 부각시켜 의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𪎭’는 셴묘우[宣命]11)에 나타나며 ‘카세[かせ]’라고 읽는다. ‘𪎭’이라면 중국에 있는 ‘弄’의 육조六朝 속자이고, 2차적으로 회의화시킨 것이다. 손수변과 나무목변은 형태와 필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주 교체되면서 ‘𪎭’도 ‘弄’으로 존재했다(정시안장 2007 등. 『수함록』은 후대의 음의서音義書이지만, 당대唐代 무렵의 사본 자체를 전승하고 있다고 보인다). ‘𪎭’을 방旁으로 하는 국자가 이후 속속 나타난다.

일본제 한자는 7세기에 출현한다. 『일본서기』 권29에 기록된 텐무[天武] 천황 11(682)년 3월 병오, ‘命境部連石積等、更肇倭造新字(にいな)一部四十四卷’과 시대적으로는 부합된다.

11) 역자주: 일본식 이두체로 쓴 조칙.

본고에서는 국자, 국훈에 대해서는 과거의 설에 따라 배치한 것과 현재의 판명 상황에서 이동하여 배치한 것이 있다. 자료의 검토에서 보면 한자, 일존문자, 일본제 이체자, 국훈, 국자의 경계는 예상치 못한 막연한 측면이 있다.

‘俣’라는 글자는 종래 국자로 여겨졌으나, 중국에도 똑같은 자체의 오래된 용례가 있다. 형식으로는 국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단, 자의와 일본훈 사이에는 관련이 엇보이지 않고, 경위는 미상이다. 충돌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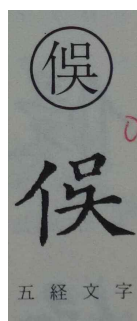
한자 ‘俣’(기다리다)를 변형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또’라는 훈의訓義를 가진 ‘跨, 勝, 又, 岐’에는 ‘大’나 그에 가까운 형태의 요소가 ‘또’라는 훈의를 가진 글자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股’의 ‘𠂔’는 이체자를 낳기 쉽고, ‘●冂一义’, ‘●几一又筆’ 누르고 나서와 같은 형태가 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𠂔’, ‘𠂔’에 근접하면서 ‘俣’, ‘俣’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같은 시기에 다른 글자의 이체자로서 존재했다. 적어도 이것을 토대로 하여 ‘마타[また]’라고 읽을 수 있는 한자를 변형시킨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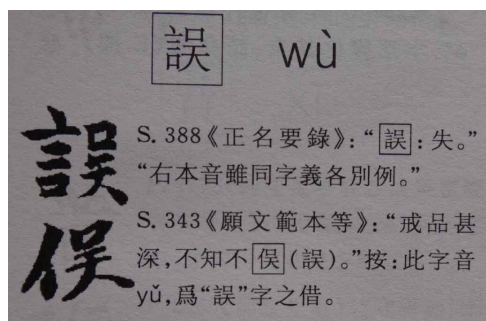
기존의 한자를 토대로 하는 방법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당해서사전
唐楷書字典』

グ yul * *

『시경詩經』 멋있고
크다는 뜻.



『돈황속사전
敦煌俗字典』

S.343

『현응음의玄應音義』, 『시경』의 ‘오오俣俣’, 『혜림음의慧琳音義』 권10 「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 『신찬자경』 등에도 보인다.

현존하는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풍토기』에는 이체자로 작성된 사본 등도 있지만, 목간과 정창원문서 등 당시의 육필에서는 이미 ‘俣’, 고작 ‘天’이나 ‘夫’처럼 변하는 정도로 기록되었으며, 그것들은 전사轉寫의 잘못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는 ‘𠂔’도 ‘𠂔’라고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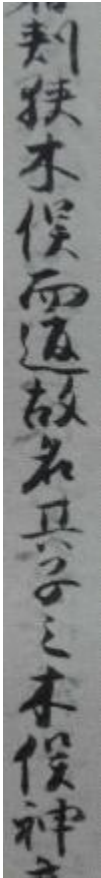
덴표호지[天平寶字] 2년(758) 「阿波國新嶋庄繪圖」(『남경유방南京遺芳』 40 동남원문서東南院文書)에 ‘道俣’라고 되어 있다. (지도에서는 분기로分岐路).



『전예만상명의篆隸萬象名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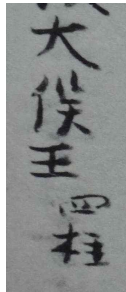


『헤이조쿄 목간』 7 12488 명확하게 ‘侯’라는 자체.
츠노마타[ツノマタ](角又·角股)는 해조海藻의 이름.
『신찬자경』에는 ‘角万太’라고 되어 있다.



신푸쿠지본眞福寺本 『고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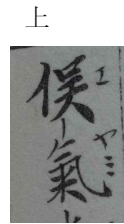
‘口’의 부분에 서사자書寫者의 습관이 나타나 있다.



下



카네나가본 兼永本 『古事記』



上

中 ‘吳’가 ‘吳’
‘쿠레하토리[くれはとり]’
(직물기술자)’



上

은 ‘疫

中 ‘疫病’에 ‘에야미エヤミ’.
‘侯氣’에 ‘에야미エヤミ’
· 役인가.

‘侯’가 다양하게 정착해 있으므로, 근거나 자체를 잘 모르고 혼용한 것일까(「신도대계」 334쪽 참조).

『일본서기』 권 1에는, ‘侯’, ‘岐’ 모두 쓰이고 있다.

‘侯’·‘●(イ+呉-左上의 |)’·‘役’·‘●(イ+口×ノ 그대로 又)’·‘●(イ+呉口는 左로 어긋나게 이어지는 글자)’·‘浮’의 이문異文도 있다. ‘股’의 방旁과의 유사점도 보이나, ‘侯’(마치[マチ]·마츠[マツ](기다리다) 등)과의 혼입에 의한 것인가.

키무라 마사고토[木村正辭] 1904·1982 『만엽집훈의변증萬葉集訓義辨證』 58쪽 ‘侯’, ‘●(侯의 우하는 失) 海松(마타미루[マタミル])’

2 元本·溫本作侯 家本·昌本·活本作吳 ‘股를 ●라고 적으니, 잘못이 되지 않을까’.
『고사기』, 『고사기전』을 인용한다.

「만엽집교본 데이터베이스」 권13 3301 俣

寛永版本 元暦校本 広瀬本 類聚古集 紀州本 神宮文庫本 西本願寺 陽明本
11末 1215/1781 12後半 1542以前 16世紀半ばか 13末~14初 6後半
俣 浮 役

또한 ‘梶’(스기[すぎ]삼나무)도 한자 ‘檻’(우상은 日도)(온[オン]·스기[すぎ])의 변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마찬가지로 음독을 잃고 국자라고 인식되는 일이 늘어났다.

부수가 다른 ‘楳’, ‘楳’도 당시의 문서나 『이즈모국풍토기出雲國風土記』에 보인다.

‘鵜’은 그 부리가 ‘뿔’처럼 세워져 있는 새의 이름 ‘이카루(가)[いかる(か)]’를 나타내기 위하여 일본에서 만들어진 회의 문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통 8년(694) 「법륜사관음(보살)조상명法隆寺觀音(菩薩)造像銘」(「나라법륜사동조승덕충등조상기奈良法隆寺銅造僧德聰等造像記」)에 ‘이카루다이치[鵜大寺]’(호류지法隆寺)라고 되어 있다(도판).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飛鳥資料館 1976

『飛鳥・白鳳의 在銘金銅佛』(同朋舎)



다만 『화명유취초和名類聚抄』와 『본초화명本草和名』에 한적인 최우(석)崔禹(錫) 씨 『식경食經』에서 ‘鵜’자를 인용하고 동시에 ‘胡岳反’이라고 반절까지 붙이고 있는 것 외에 금대金代の 형준邢準이 지은 『신수류음인증군적옥편新修衆音引證群籍玉篇』 권24에 『유편類篇』(금본今本과는 다름)에서 ‘鵜竹咸切’이라고 인용하고 있어, 일존문자일 가능성 외에 한자 ‘鵜’의 이체자일 가능성도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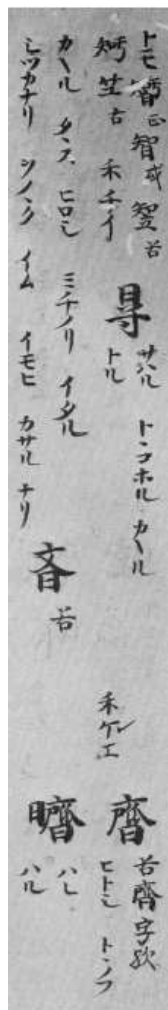
‘晴’은 『만엽집』의 용자로 ‘하레[はれ]·하루[はる](개다)’로 읽힌다. 한자 ‘霽’와 ‘晴’을 합성·혼효한 것이라는 등의 설이 있다(코지마[小島] 1978 등).

후대의 사본, 판본이나 인용문에 남은 것도 적지 않다. 어느 단계의 개편으로 추가된 글자인지, 어느 시대의 훈인지 검토를 요한다.

간치인본觀智院本

『유취명의초類聚名義抄』

佛中52b 「天理圖書館善本叢書」



‘**𪛗**’은 아스카 연못 목간 1329, 「법룡사가람연기병류기자재장法隆寺伽藍縁起并流記(るき)資材帳」, 『고대자재장집성古代資材帳集成』 126쪽, 정창원문서, 『료노슈게[令集解]』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라케[さらけ]’라고 읽는다(『화명유취초和名類聚抄』 권16 「본조식本朝式」, ‘출처미상’(속俗이 아니다), 『엔키시키[延喜式]』). 국자이다. 물을 운반하는, 주조酒造를 위한 바닥이 얇은 독이다. 이 글자는 「소학편小學篇」, 『신찬자경』에는 없다.

육서에는 해당되지 않는 조자법造字法도 존재하여, 당시 조자의 한 방법이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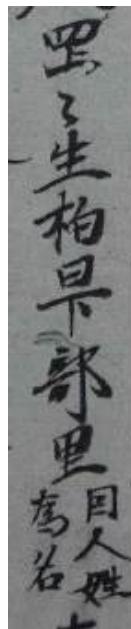
합자는 중국에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한어에서 원래 여러 한자의 읽는 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회의문자처럼 다룬다.

‘**𪛗**’이 그 하나이다. 『고사기』의 『제기帝紀』 한 부분에 ‘구사카[くさか](일본의 성씨)’를 나타내는 ‘日下’가 자주 나온다. 이러한 숙자훈은 넓은 의미의 ‘차자当て字’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이 『고사기』 서문에 언급되는 숙자훈 ‘日下’는 일찍부터 세로로 한 자로 붙어 일본제 합자가 된다. 분명히 한 글자로 쓰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나라조 이전에 출현한다. 고유 명사와 숙자훈에 더해서, 구성 요소가 간단한 필획밖에 갖지 않는 점이나, 한자에 ‘**𪛗**’, ‘**𪛗**’ 같은 유형이 존재한 것이 합자화를 가져오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토대가 있었던 것이 변화를 촉진한 것이다. 거꾸로 ‘**𪛗**’ 1자에서 끝을 달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후지와라 궁 목간에 ‘●(門+안에 一 붙지 않음×下)𪛗’가 나타난다(나라현교육위원회奈良県教育委員会 1969 『후지와라 궁』). 다이호[大寶] 2년(702)의 ‘미노노쿠니아와치마고오리가 스가베사토호적御野國味蜂間郡春部里戸籍’에도 ‘西尔得妻部惠弥賣年冊(廿+サ 수직 一은 이어짐)一正女’라고 ‘**𪛗**’가 쓰이고 있다(정창원문서영인속수正倉院文書影印屬修 4 · 『대일본고문서』 1 도판). 겐메이[元明] 천황에 의한 지명의 이자화二文字化(713, 和銅6?)로 합자화가 고정화되어 갔던 것일까. 또한 합자가 2자인가라는 판단에는 구성요소의 크기, 구성요소의 간격, 자간, 행간, 서풍, 필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御野國味蜂間郡春部里戸籍」
『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續集 四



『播磨國風土記』
「天理圖書館善本叢書」
2字인가?

‘柄’도 고층古層의 국자이다. 일본인에게는 중국어를 나타내는 음독보다 일본어(야마토 말)를 나타내는 훈독으로 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단음절의 한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육서에서 형성문자보다 회의문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형성문자보다 회의문자가 적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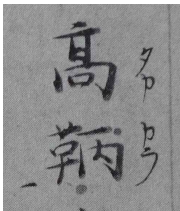
스루가노쿠니駿河國天平十年正(しょう)税帳, ‘正倉院文書影印集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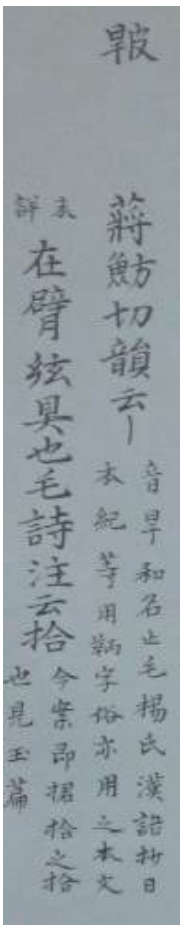
요시다본吉田本『일본서기』권 1



乾元本“日本書紀”卷1‘天理圖書館善本叢書’



이들 고훈古訓은, 자서字書에 있는 ‘柄’과 섞인 결과일 것이다.



天文寫本『왜(화)명유취초倭(和)名類聚抄』第1冊 51a “

『양씨한어초楊氏漢語抄(鈔)』는 요로[養老](717-724) 연간

10권본계 前田本 上卷2 術藝部射藝具 43a ‘本文’이 ‘日本紀’의 ‘日’의 뒤에 오는 오사誤寫가 생겼다.

20권본 元和古活字版 4-3a 同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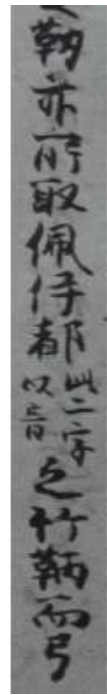
『한어초漢語抄』에는 ‘榊’도 실려 있다. 『강담초江談抄』에 ‘榊’이 『일본서기』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당시의 사본에 그렇게 쓴 것이 있었을까?

신푸쿠지본眞福寺本 『고사기』 桜楓社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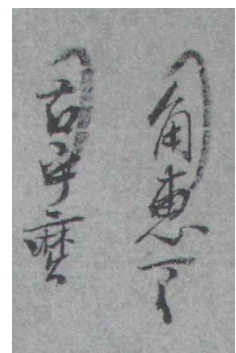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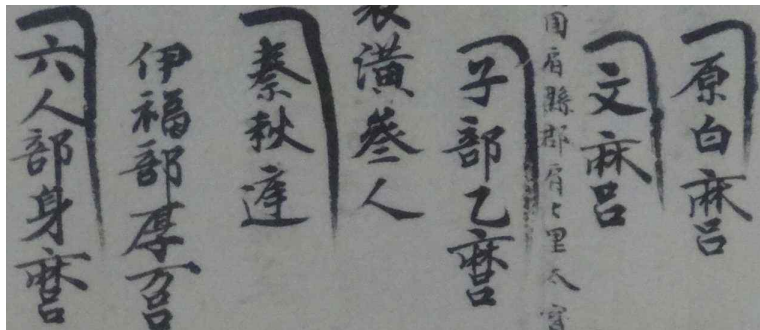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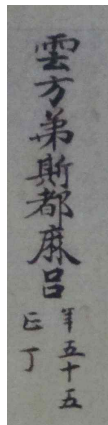


中



‘磨’는 만요가나의 ‘麻呂’(마로)가 합자화한 것이며, 그 1자화 과정을 추적해 보고 싶다. 쿠와바라[桑原](2005)는 조사대상에 ‘磨’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조사 대상을 넓히고 정창원문서와 목간 등을 본다.

「御野國味蜂間郡春部里大寶二年戸籍」(702) 「寫後書所解」天平19年(747) 「寫經所解」天平20年(748)



『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

『남경유방南京遺芳』, 『정창원보물명문집성正倉院寶物銘文集』 등에서 다른 문서 등을 보더라도, 덴표 연간에는 ‘麻呂’가 1.5자 정도로 압축되어 ‘磨’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자형이 여럿 보인다. 목간에도 그 과정이 보이지만 대부분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713년에 의심 사례, 덴표 초기에 1.5자 정도(『개정신판일본고대목간자전』, 「목간자전木簡字典」 등). 한자에 유형의 토대가 되는 ‘磨’ 등이 있었던 사실에도 힘입어 만요가나가 자연발생적으로 합자화하고 국자가 됐다.

『이즈모국풍토기出雲國風土記』와 『만엽집』에 나오는 카키노모토노 히토마로[柿本人麻呂], 나가노오키[長意吉] 마로, 카사노[笠] 마로, 타카하시노무시[高橋虫] 마로의 시기는 아직 2자였지만, 제4기의 타나베사키[田辺福] 마로, 이소노카미노[石川] 오토마로, 나카토미노[(大)中臣] 키요마로 시대에는 일부에서라도 합자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櫨’은 수목의 이름 ‘떡갈나무’를 나타내는 국자이다, 옛날에는 다른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 ‘강櫨’ 등의 한자에서 ‘櫨’이라는 국자가 나타날 때까지를 자세히 검토하겠다.

이런 한자에 대한 가공은 시대와 함께 많은 한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간다.

우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중국의 한자를 한적과 자서字書에서 찾고, 참나무과 졸참나무속의 상록수 ‘카시[かし](떡갈나무)’로 사용해 보았다. 물론 도래인이 이해자理解字에 훈독을 직접 가하면서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櫨原(카시하라[かしはら])’는 나라[奈良]에서는 지금도 지명에 사용하고 있다. ‘木方’은 참빗살나무, 후시즈케¹²⁾, 뗏목, 그림이며, 엄밀히는 동정同定の 잘못인지, 유사한 것을 굳이 동정同定한 데 따른 국훈이다. 櫨은과는 다르지만 떡갈나무와 같은 상록고목常緑高木으로 차車를 만드는 양질의 재질이라는 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櫨(櫨)’라는 강목剛木이라는 자의를 가진 한자도 뽑았다.

『설문해자』 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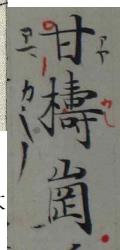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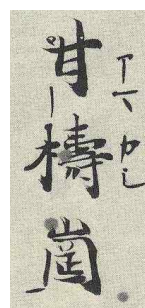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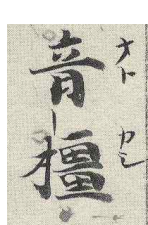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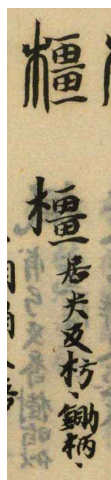
『전례만상명의』 櫨
(原本系『玉篇』木部는 散佚)

『일본서기』 櫨

兼右(すけ)本

『일본서기』 櫨

「天理圖書館善本叢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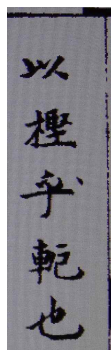


권39

岩崎本



나라 시대의 식자층에는 떡갈나무에 대하여, ‘櫨’, ‘櫨’ 등, 의도를 모르는 국훈, 국자까지 만들어 내는 자가 있었던 점이, 헤이안 시대에 펴낸 한화사전漢和辭典 “신찬자경新撰字鏡”가 인용한 나라 시대의 서적으로 여겨지는 “소학편小學篇”에 의해서 엿볼 수 있다.



‘국자’로 알려진 ‘櫨’이지만, 중국에도 당대唐代에 용법을 달리하는 사용례(충돌예)는 존재하고 있었다. 당대의 시인 육구몽陸龜蒙의 시집『보리집甫里集』 권19와 『입택총서笠澤叢書』 권3에 사용되었다. 이 자의는 명확치 않지만, 육구몽은 881년 사망으로 일본에서의 사용례보다 늦다. 또 후의 중국 문헌에는 류큐[琉球] 관련 저술에도 자주 등장하나, 그것은 일본어(류큐 방언)로 사용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唐甫里先生文集』, ‘四部叢刊初編’ 景江南圖書館藏. 蕘園校本附校勘記一卷 와타나베 다케시[渡部武] 1989 「唐·陸龜蒙의 『耒耜經』과 曲轅犁의 성립」, 『동양사연구』 48-3. 66쪽. 아마노모토노스케[天野元之助] 『중국농업사연구』 증보판의

12) 역자주: 겨울 쉼나뭇가지 따위를 묶어 강가나 호숫가에 가라앉혀 두고 모여 드는 고기를 잡는 것.

교정(770쪽 인용)에 따라, ‘檉’은 牽을 의미하는 ‘檉’으로 고쳤다. 염문유閣文儒·염만석閣萬石의 「唐陸龜蒙《耒耜經》注釈」, 『중국역사박물관관간中國歷史博物館館刊』 총제2기는 이 ‘檉(巨은 수직 간체자)’를 ‘結實的繩索’(튼튼하고 굵은 밧줄)이라고 번역한 것 같다. 중국의 사서辭書에 이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문생의望文生意를 거쳐 생긴 해석이라고 해도, 원문을 떡갈나무와 연결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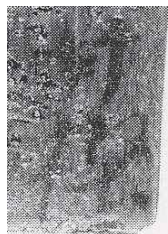
금석문에도 ‘檉’이 등장한다. 와도[和銅] 8년(715), 나라의 「오바라데라[栗原寺] 노반명鑪盤銘」(야마토담산신사大和談山神社 소장)에 지명 ‘●(檉木은 - \, 巨은 잇는 자字?、土는 + \)村’로써 나타난다(『고경유문古京遺文』, 「이체자연구자료집성異體字研究資料集成」 2-7의 책에는 탁본 없음·『영락유문寧樂遺文』).

단, ‘檉村’(카시무라[かしむら])이 새겨진 부분은, 연기年紀 부분과 필치가 달라, 추각追刻, 후세의 보각補刻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동일인의 필적’이라고도 한다(『고경유문古京遺文』 주석·『일본고대금석문총고日本古代金石文叢考』).

『일본상대금석문사전日本上代金石文字典』



狩谷掖斎·山田孝雄·香取秀眞 증보 『고경유문古京遺文』



목간에서도, ‘甘●(수변手偏은 뺀지 않는다+? +ヌ×土+ \잇는 자 檉略字)殿’ 등으로, 지명 등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달콤한 떡갈나무 등은 없기 때문에, 차자当て字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上代木簡資料集成』(沖森卓也·佐藤信 1994 おうふう)

정창원문서에도 ‘檉’은 일본어의 인명 표기로 나타난다.

‘檉實’에서 ‘檉實’로 개명(개문자改文字)한 관리도 있었음을 정창원문서에서 볼 수 있다. 중칠위상從七位上¹³⁾까지 서박사書博士¹⁴⁾, 음박사音博士¹⁵⁾와 같은 지위. 나이키[内記]는 율령제의 중무성中務省의 벼슬아치로, 조칙詔勅, 선포[宣命], 위기位記(서위敍位の 뜻을 담은 사령서辭令書), 상주上奏 등의 작성 및 궁중의 기록을 담당했다. 문장과 글씨에 능한 사람이 뽑혔다. 대·중·소의 나이키内記 각 두 사람.

자필 서명만은 아닌 것 같지만 한자 ‘檉’에서 국자 檉’에 대한 전환기가 이때에 이 층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미 동의同義, 유의類義의 한자가 존재하여, 인식하고 있더라도 일본어의 말뜻과의 차이를 수정하거나 구성요소를 이미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조성된 것

13) 역자주: 일본 율령제의 위계 가운데 하나. 1위~3위까지는 정종正從의 구별이 있었고, 4위~8위는 정종正從의 구별과 상하上下의 구별이 있었고 초위는 대소大少와 상하上下의 구별이 있어 30등으로 구분되었다.

14) 역자주: 일본 율령제에서 서법書法을 가르치던 관리.

15) 역자주: 일본 율령제에서 경서의 한자 발음이나 음독을 가르치던 관리.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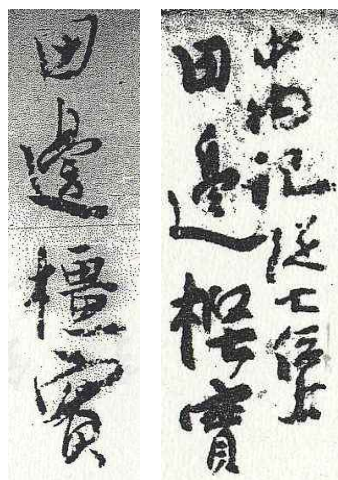
739~748년 田邊 榎實

↓

750~761년 田邊 榎實

또한 ‘~實’(~뿐)은 그 외에도 여럿이 있다(『만엽집』, 『신찬자경』)

속속수 3-2 뒷면 榎 속속수 6-2 榎



국풍화國風化는 이러한 문자 측면에서 재빨리 일어났다.

‘榎’은 나라 시대에 금석문, 목간만 아니라 종이에 적힌 문헌에도 출현한다. 다만 기키記紀보다 나중에 적힌 것들뿐이다.

호소카와가본細川家本 『이즈모국풍토기出雲國風土記』(733) 54b



759년 이후에 편찬됐다는 『만엽집』에는 ‘夏榎’에서 보고 싶다, 그립다, 끌어들이고 싶다는 뜻의 형용사 ‘나즈카시[なつかし]’라는 다른 일본어로 훈가나訓假名라고 불리는 만요가나로서 활용되었다. 연상적 표기라고도 한다. 일본다운 독자적 용법까지 획득한 것이다.

이 자는 ‘麴’과 마찬가지로 전용될 정도로 정착되어 있다.

니시혼간지본西本願寺本 『만엽집』 권7 おうふう



‘藪’는 산야에 자라는 식물의 이름 ‘토코로[ところ]16)에 대한 회의 방식에 따른 국자다. 한자로는 ‘藪’가 해당되지만, 이 성부를 치환하고 회의문자로 바꾼 것인지 전혀 별개로 제작한 것이다. 764년의 정창원문서 등에 보인다.

숙자훈 ‘野老’는 ‘에비[えび](새우)’의 숙자훈 ‘海老’(후대에 ‘蛸’라는 국자의 모태가 된다)와 짝을 이루고 있다.

‘鴨’은 『만엽집』에서 코토바가키[詞書]17)에 ‘시기[しぎ](도요새)’로 쓰고 있다. 이 새의 이름에는 한자로 ‘鷺’이란 자가 이미 있었지만, 그것보다 일본 사람들에게겐 타시기[タシギ] 즉 발에 있는 조류로서 실감을 얻어 잘 어울려 왔던 것이다. 이문異文에 ‘鴨’이 있지만, 노래에 ‘志藝’라고 되어 있다.

나라 시대에는 『전국책戰國策』 등에 나오는 한자 ‘鷺’을 ‘鴨(시기[しぎ])’라고 하는, 일본인이 일본어로 이해하기 쉽고 또 이미지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개조한 국자도 금석문이나 『만엽집』 등에 나타나고, 한자에서 국자로 교체되어 간다. 후술하는 한자 ‘榎’(재료가 되는

16) 역자주: 마과(학명:Dioscoreaceae)의 만성다년초.

17) 역자주: 와카[和歌]의 머리말.

나무)을 ‘桲’(카시[かし])로 한 것과 병행하는 현상이다.

‘桲’는 수목이 우거진 산을 뜻하는 명사 ‘소마[そま]’에 맞춘 회의會意의 국자이다. 『만엽집』에 ‘追馬喚犬’에서 ‘소마[そま]’를 나타내는 회서戲書가 있지만, 이것은 국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의 표기가 아니다.

‘桲’는 헤이조쿄 목간(750년)과 정창원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나중에 헤이안조 말기에 아마다 후쿠기치[山田福吉]가 만든 글이라는 설이 나타나지만, 『화명유취초和名類聚抄』의 기술을 잘못 읽은, 혹은 잘못 전승한 것이다.

‘鋸’은 회의의 국자이다. ‘카스가이[かすがい]¹⁸⁾’는 당시 문을 닫아 두기 위한 금속구(카케가네[かけがね]·카키가네[かきがね])이며(‘コ’자 모양의 대못은 후대가 된다), 그에 대한 회의會意의 국자를 만든 것이다.

731년의 문서는 한자 ‘鍵’으로 오기誤記되고 있다.

「舉鋸十六隻長三寸半」(진키[神龜] 6년 729년). 철제비금구鐵製扉金具의 제작, 진상에 관한 문서. ‘아게카스가히[アゲカスガヒ]’라고 읽으며(화명초), 문단속 도구의 일종이다. 『엔키延喜 목공식木工式』에도 있다(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75 『平城宮木簡』 2). 도판90

舉(異體字)鋸(異體字)十六隻(異體字)

「木簡 데이터베이스」에서



‘철금구鐵金具도 문에 부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목간과 대보령」, 『목간연구』 2 1980 69·79쪽).

목간(『개정신판일본고대목간자전』 등)외에 「태신궁어방주문太神宮御飭注文」(747년?) 등 문서(『정창원고문서영인집성』, 「정창원문서」, 『대일본고문서』, 『南京遺芳』, 「南京遺文拾遺」 등)에도 보인다.

이 ‘카스가이[かすがい]’라는 말에는 상대에 대해서는 다른 계통의 표기 한자도 있었던 것 같으며, 당초제사唐招提寺 문서에는 ‘槽鋸’라고 되어 있다. 이미 사회적 위상으로 용자의 정착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鋸’을 이용하는 위상과는 다른 위상이 있었던 것 같으며, 위상 문자의 고례古例로 볼 수 있다. 한자로는 ‘도끼·쟁기·화살촉’이란 뜻의 ‘鋸’로 ‘槽鋸’로 ‘카스가이[かすがい]’라고 읽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예가 있다. 이는 회의(또는 ‘匕’ 부분만을 시사하는 형성)의 일본제 자체가 한자와 충돌한 것이다. 또한 이 문서에는 ‘韃板’의 첫 번째 글자(읽기는 ‘유키[ゆき]’인가라고 한다)에 국자의 가능성이 있는 글자가 있고, ‘鋸’라는 당시 중국제 글자도 사용되고 있다.

도쿄 미술학교(1928) 『南都七大寺大鏡第七十四集 唐招提寺大鏡第十冊』에는 紙本墨書寺記文書堂塔에 쓰는 금구金具를 주기하고 있다. 글씨체로 보면 나라조奈良朝일 것이다.

槽(우상은 -) 鋸(金+匕는 치켜 올리지 않음) 3척

라고 보인다. 『일본건축사연구日本建築史研究』 속편(1971) 164쪽에 따르면 ‘엔랴쿠延暦 3년부터 동 14년까지의 것으로 해서 좋을 것이다’. 『대일본고문서』(편년문서) 25 208쪽은 이 ‘造唐招提寺用度帳’(나라 당초제사唐招提寺 소장所藏)을 당초제사唐招提寺의 창건의 기록으로부터 덴표호지[天平寶字] 3년 8월의 것인가 한다.

18) 문 결쇄.

『일본건축사연구日本建築史研究』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40쪽 문서의 단간断簡 당초제사 唐招提寺 大鏡所載 槽鉋三隻 槽鉋는 ‘결쇠鉋의 차자宛字이겠지만 이러한 용자법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자字를 쓰고 있는 나라 왕조 전성기의 문서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 아마 이 문서는 엔라쿠[延暦] 이후의 것으로 생각한다.’

159쪽. 槽鉋三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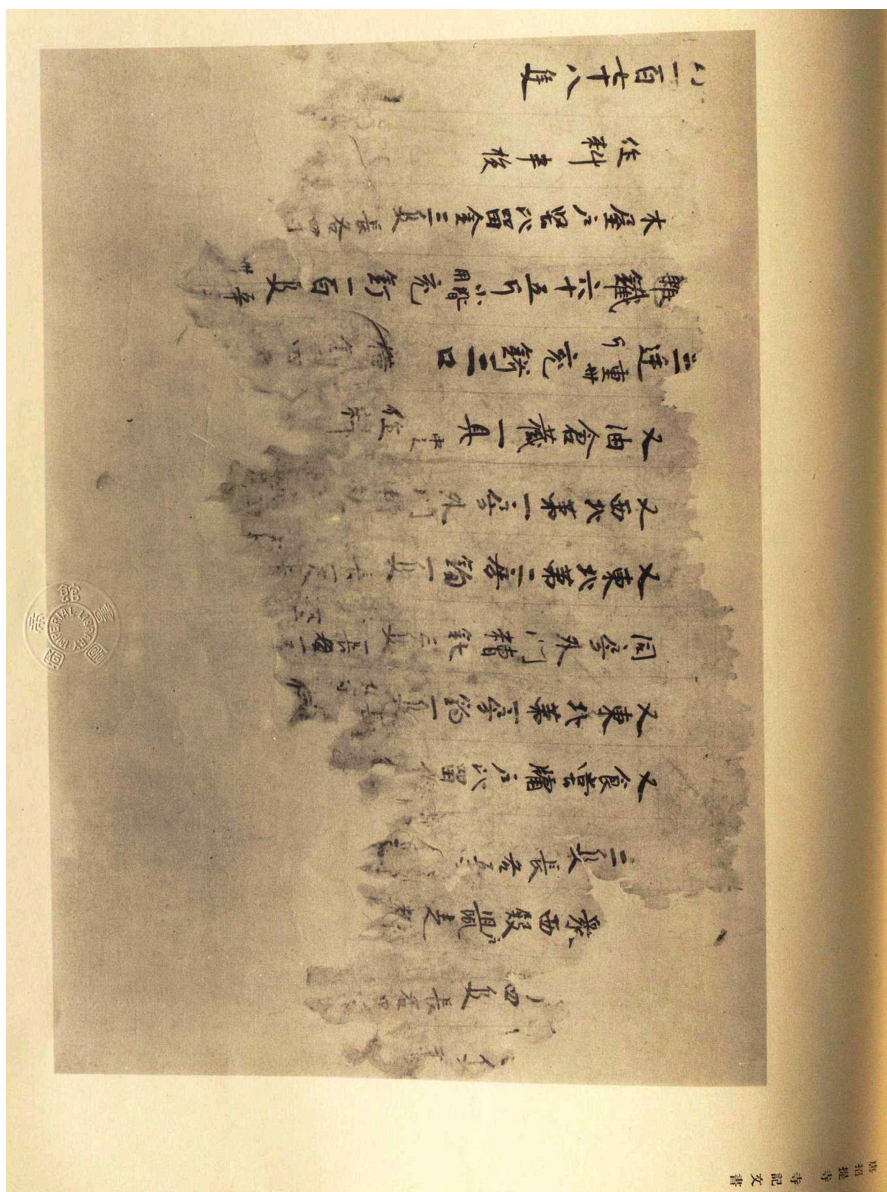
槽鉋□圓

166쪽 ‘槽鉋’(카스가이[かすがい] 결쇠)와 같은 나라 시대의 조동대사사 관계의 문서(주로 정창원문서에 수록)에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차자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아마 조동대사시造東大寺司와 관계 없는 사람의 손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槽鉋는 전술前述처럼 鉋(결)쇠의 차자로 문을 닫기 위한 나무 가운데, 세로로 이용하는 결이(扃 닫음), 또는 가로로 이용하는 구르리久留理(久留留木)를 장착하기 위해, 문(구舊)에 박는 금속물의 거는 결쇠 혹은 구르리 결쇠의 2종이 있다.

‘鰯’은 ‘이와시(정어리)’를 나타낸다. 옛날 후지와라쿄 시대에는 ‘이와(위)시伊和(委)之’ 등, 만요가나로 표기되고 있었지만, 나라 시대에는 이 국자로 변천을 보았다. 헤이조쿄平城京 목간에 출현하는 ‘鰯’처럼 의미가 대응하는 한자가 찾기 어려운 것에도 국자가 만들어진다. 다른 물고기 이름의 표기와 대칭성이 요구된 것이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은 한자가 일본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기 쉽다는 등 ‘약’한 생선이라는 의식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와시’의 어원 자체가 ‘요와시よわし’이었다고도 하며, 회의문자이면서 형성문자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욱



친해지기 쉬웠다고 상상된다. 목간에 잘 나타나며, 정창원문서에도 사용되고 있다.

平城京左京三条二坊一・二・七・八坪長屋王邸

<http://mokuren.nabunken.go.jp/Mokkan/6AFITZ11/L/000803.jpg>

‘魚年’은, ‘연어年魚’의 합자라고 한다(『개정신판일본고대목간자전』 바바 하지메[馬場基] 「이체자잡감異體字雜感」, 『목간연구』 30 ‘호주戶主’ 등도 합자). 의도적인 1자화인가, 임시적인 역행동화에 의한 융합일 것이다.

또 새인 ‘토키[とき]’는 한자 ‘鵠’, ‘鵠’가 쓰이고, 나중에 ‘鵠’가 되어 국자가 된다. 신푸쿠본眞福寺本 『고사기』에는 ‘鵠’에서 ‘鵠’의 이체자가 사용되어 있다(276쪽).



사용례가 적은 「소학편小學篇」의 글자가 고대 문헌에서 사용자와 부합하는 경우는 그 외에도 있다.

‘鉷’은 「다이안지가람연기병유기자재장大安寺伽藍縁起并流記資材帳」에 사용되고 있으며(『영락유문寧樂遺文』, 『고대자료장집성古代資材帳集成』 53쪽 등), ‘가부토(투구)’로 읽혀진다. 이 자는 중국에서는 리후, 호胡의 식기 이름(임읍왕林邑王이 헌납한 것)이며 그것과는 다른 계통일 것이다.

『신찬자경』에 담긴 나라 시대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학편小學篇」에는 ‘金立’이 ‘金笠’과 함께 ‘카부토[かぶと](투구)’로 알려져 있다. 후자는 일본어의 ‘투구’를 표하기 위하여, 소재의 금속을 쇠금변, 머리에 쓴다는 특징으로 ‘笠’을 뽑아 회의 문자로 결합시킨 것이다. 이 대죽머리를 생략한 것이 ‘鉷’이며, 나라시대에는 실제로 어느 집단에서 유통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사기』에 ‘櫟’이라는 자가 사용되어, ‘쿠라[くら]’로 읽혀진다. 이것도 「소학편小學篇」에 ‘木’에서 ‘乗久良’라고 읽는 자가 있다, 또 한자 ‘鞍’을 일본에서 실제의 재질에 맞추어 가죽 혁 변을 나무 목 변으로 바꾼 ‘鞍’(다이호[大寶] 2년 호적 등 신도대계神道大系 178쪽 등)과 모종의 관련을 가질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상대에 있어서 이미 용자의 선택에 지역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고고 『풍토기風土記』에는 산물 등의 표기에 벽자僻字의 사용이 보인다. 어떤 지역성에 의한 가능성도 있다. 가령 『이즈모국풍토기出雲國風土記』에 ‘魚忍魚’, ‘馬麻子’ 등이 보이는 것은 근세기 『왜훈간倭訓栞』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상대上代의 가론서歌論書인 『가경표식歌經標式』의 만요가나에 ‘咄’(夜(よ)). ‘용用’과 마찬가지로 갑류)이 이용되는 등, 특이한 자종은 각종 문헌에서 발견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국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마음에 걸린 것 가운데 몇 가지 사항을 들어 상대 문헌이라는 한정된 정보 중에서, 문자에 관해 무엇이 어디까지 밝혀질까에 대한 일단을 피력했다.

상대의 한자는 중국과 한국의 한자의 영향이 짙은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한자 사용의 흐름 속에서 일본화가 각 방면에서 진전되고 있었다.

부수·방 등의 치환 : 일본제 이체자

자음의 파생, 변화 : 일본제 자음(관용음)

자의의 파생, 변화 : 일본제 자의(국훈)

한자의 제작 : 일본제 자종(국자)

이처럼 字字에 대한 용어(라벨)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제의 字字에 대해 그것을 적용해 보면, 현존 자료 혹은 참조 가능한 자료에 의해 전형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그 제약으로 회색 지대도 넓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상대의 국자의 발생과 사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상대의 일본의 한자가 변화했다. 한국의 훈독의 방법, 중국·한국의 이체자화 방법, 중국의 신자의新字義·한국 국훈의 방법, 그리고 중국의 신조자, 한국의 국자의 영향을 직접 문자로 수용하고, 또 그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국자가 창출되었다고 본다.

국자는 해당하는 한자가 없어, 그 한자가 혹은 불분명했던, 혹은 그 한자가 생활상의 실감에 맞지 않은 일본어의 특히 명사를 표기하기 위해서, 다른 한자에 의한 표기와의 대칭성을 요구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어와 단음절의 한국어를 표기하기에 적합한 형성의 방법보다도, 일본어의 뜻을 나타내는 회의의 방법이 우선적으로 채용됐다.

이미 개인, 사회와 지역별로, 국자의 사용에 위상성, 변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만요가나 표기에서 국자, 합자로의 표기가 변화하는 사례가 보였다.

덴표[天平] 연간 때 한자에서 국자로 바뀌는 경우가 보였다.

자체字體가 유사한 한자로 국자를 잘못 적는 사례도 있었다.

헤이안 시대의 자전에 인용된 ‘소학편小學篇’, ‘(양씨楊氏)한어초漢語抄’의 종류(만요가나)는 바뀌는 일이 있어, 상대 특수 가나 사용법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다)등의 문헌이 나라 시대의 국자의 존재를 시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화된 자료까지 축적되어 가는 현대에서는, 그 자료로서의 성질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이나 한국에서의 한자 사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독자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또 한자 연구, 중국어학, 한국어학과 일본어학의 연구와의 연계도 일부에서 일어났다. 이들의 상호 협력으로 동아시아 문자를 제작, 사용과 계승, 전파, 변화의 실체가 드러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더욱 활발한 상호의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문헌

青木周平(2003), 『古事記受容史』 笠間書院.

鮎貝房之進(1972), 『俗字攷』 (國書刊行會復刻).

李建植(2012), 「한국 고유한자 자형(字形) 구성(構成) 방법(方法) 연구 二題-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형성(形聲)으로 만들어진 한국 고유한자의 몇 가지 사례-」, 『東洋學』 52.

池田証寿, 2011, 「寂の異體-HNGによる考察-」, “訓点語と訓点資料” 127.

石塚晴通, 1984, “圖書寮本日本書紀研究篇” 汲古書院.

石塚晴通, 1999, 「漢字字體の日本的標準」, “國語と國文學” 76-5号ほか.

- 石塚晴通, 2003, ‘聖教の形と場—敦煌及び日本の古寫・刊本—’賴富本宏編 “聖なるものの形と場”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 石塚晴通監修, 2016, “漢字字體史研究” 2 勉誠出版.
- 市大樹, 2010, “飛鳥藤原本簡の研究” 塙書房.
- 井手至, 1999, “遊文錄國語史篇二” 和泉書院.
- 乾善彦, 2003, “漢字による日本語書記の史的研究” 塙書房.
- 犬飼隆, 2005, “上代文字言語の研究増補版” 笠間書院.
- 犬飼隆, 2008, “漢字を飼い慣らす” 人文書館.
- 井上幸, 2010, ‘日本古代の漢字使用にみられる類化による偏旁冠脚の添加・置換をめぐる—正倉院文書の例を中心に—’, “美夫君志” 77.
- 上原眞人 外編, 2006, “列島の古代史 6 言語と文字” 岩波書店.
- 内田賢徳, 2005, “上代日本語表現と訓詁” 塙書房.
- 浦野聡・深津行徳編, 2006 “古代文字史料の中心性と周縁性” 春風社.
- 王華權, 2014 “一切經音義文字研究” 上下上海世紀出版集團.
- 大柴清圓, 2008, 2009, 2011, ‘“篆隸萬象名義”における俗字の研究(1)(2)(3)’, “高野山大學密教文化研究所紀要” 21,22,24.
- 小川靖彦, 2006, ‘“萬葉集” 原本のレイアウト’, “青山學院大學文學部 “紀要” 47.
- 小川靖彦, 2011, “書物としての萬葉集古寫本”, “萬葉語文研究” 11.
- 小川靖彦編, 2016, “萬葉寫本學入門”.
- 沖森卓也, 2003, “日本語の誕生” 吉川弘文館.
- 沖森卓也, 2009, “日本古代の文字と表記” 吉川弘文館.
- 小野田光雄, 1995, ‘古事記の大字^參’について’, “古事記研究大系” 10.
- 小野田光雄, 2006a, ‘上代人の用いた嶋字について’, “古事記年報” 48.
- 小野田光雄, 2006b, “古事記・日本紀・風土記ノ文献學的研究”(‘風土記の^參’と^參’について’, ‘上代の人名表記の‘マロ’と‘太安萬侶’, ‘倉野氏本 “出雲國風土記” 管見’などを含む) 屬群書類從完成會
- 澤瀉久孝, 1931, “萬葉集新釈” 19449版.
- 澤瀉久孝, 1941a, “萬葉古徑”.
- 澤瀉久孝, 1941b, “萬葉の作品と時代”.
- 韓小荊, 2009, “《可洪音義》研究——以文字爲中心” 四川出版集團巴蜀書社.
- 何華珍, 2005, “日本漢字和漢字詞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兼岡理恵, 2008, “風土記受容史研究” 笠間書院.
- 鎌田元一, 2001, “律令公民制の研究” 塙書房.
- 狩谷掖斎, “古京遺文”.
- 狩谷掖斎, “倭名類聚抄箋注”.
- 木下正俊, 1990, ‘萬葉集古寫本の本文改變’, “國文學” 67号.
- 木下正俊, 2000, “萬葉集論考” 臨川書店.
- 金鍾埴, 1983, “韓國固有漢字研究” 集文堂.
- 木村正辭, 1904, “萬葉集文字弁証”.
- 京都國立博物館編, 2013, “國立岩崎本日本書紀” 石塚晴通解説平安10世紀か.
- 京都國立博物館編, 2014, “國寶吉田本日本書紀” 石塚晴通解説.
- 工藤力男, 2007, ‘日本語資料としての古代地名—地域と時代と—’, “國學院雜誌” 108.

- 藏中進, 2009, ‘奈良朝初期の白話漢語辭書－“楊氏漢語抄”, “弁色立成”, “漢語抄”について－’(寺村政男増補注) “水門” 21.
- 桑原祐子, 2005, “正倉院文書の國語學的研究” 思文閣出版.
- 神野志隆光, 2007, “漢字テキストとしての古事記” 東京大學出版會.
- 小島憲之, 1942, ‘萬葉集古寫本に於ける校合書入考’, “國語國文” 11－5.
- 小島憲之, 1962,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 中埴書房.
- 小島憲之, 1973, “國風暗黒時代の文學” 中(上)埴書房.
- 小島憲之, 1974, ‘萬葉用字考實例’(二), “萬葉集研究” 3.
- 小島憲之, 1978, ‘萬葉用字考實例’(四), “萬葉集研究” 7.
- 小谷博泰, 2006, “木簡・金石文と記紀の研究” 和泉書院.
- 財前謙, 2015, “日本の金石文” 芸術新聞社.
- 笹原宏之, 2005, ‘漢字文字列における同化と衝突’國立國語研究所編 “雜誌 “太陽”による確立期現代語の研究－“太陽コーパス” 研究論文集－” 博文館新社.
- 笹原宏之, 2006, “日本の漢字” 岩波書店.
- 笹原宏之, 2007, “國字の位相と展開” 三省堂.
- 笹原宏之, 2012, ‘異體字・國字の出自と資料’, “漢字字體史研究” 勉誠出版.
- 笹原宏之, 2015, ““串”字探源――以“串”表扞子之意为中心”, “中國文字研究” 21.
- 笹原宏之, 2016a, ‘國字(日本製漢字)と誤認されてきた唐代の漢字―佚存文字に関する考察―’ “東アジア言語接觸の研究”.
- 笹原宏之, 2016b, ‘會意によらない一つの國字の消長――“𠂔”を中心に’, “國語文字史の研究” 15, 和泉書院.
- 貞効伊德, 1998, “新撰字鏡の研究” 汲古書院.
- 佐竹昭広, 2000, “萬葉集拔書” 岩波書店.
- 佐藤喜代治編, 1988, “漢字講座” 5, 古代の漢字とことば, 明治書院.
- 佐藤稔, 1988, ‘正倉院文書’, “漢字講座” 5, 明治書院.
- 隋 源遠, 2016, ‘罪霰(たなびく)’新考’, “上代文學” 116.
- 瀬間正之, 2011, “風土記の文字世界” 笠間書院.
- 高橋久子, 2000, ‘“色葉字類抄”の価値’, “日本語學” 19-11.
- 田中嗣人, 1997, ‘鵜大寺考’, “日本書紀研究” 21.
- 朝鮮文化研究所編, 2007, “韓國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
- 張涌泉, 2010, “漢語俗字研究” (增訂本)商務印書館中國.
- 張涌泉, 1995, ‘敦煌文..化字研究’, “敦煌研究” 第4期.
- 張磊, 2012, “《新撰字鏡》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陳五雲・徐時儀・梁曉虹, 2010 “佛經音義与漢字研究” 鳳凰出版社.
- 鄭賢章, 2007, “《新集藏經音義隨函錄》研究”, ‘漢文佛典語言文字研究叢書’湖南師範大學.
- 鄧福祿・韓小荊, 2007, “字典考正” 湖北人民出版社.
- 中川ゆかり, 2009, “‘女夫’字考－‘セ’を表わす文字－”, “萬葉” 203.
- 西原一幸, 2015, “字様の研究” 勉誠出版.
- 西宮一民, 1991, “上代の和歌と言語” 和泉書院.
- 西宮一民, 1982, ‘古事記の通用字’, “古典學藻” 埴書房.
- 布村一夫, 1983, ‘日本語のための民族學’, “國文學解釈と鑑賞” 48-6.

- 橋本繁, 2014, “韓國古代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 橋本雅之, 1991, ‘萬葉集寫本の文字－措と摺－’, “吉井巖先生古稀記念論集日本古典の眺望”.
- 蜂矢眞郷, 2015, ‘風土記の地名と和名類聚抄の地名’, “風土記研究” 37.
- 林田洋子, 1971, ‘アユをめぐる傳承’, “國學院雜誌” 72-12.
- 平川南 外編, 2004-2006 “文字と古代日本” 1-5, 吉川弘文館.
- 平川南編, 2005, “古代日本文字の来た道” 大修館書店.
- 平川南, 2008, “日本の原像” 2 小學館.
- 平川南, 2010, ‘正倉院佐波理加盤付属文書の再検討’, “日本歴史” 750.
- 平川南編, 2014, “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大修館書店.
- 廣岡義隆, 2004, ‘風土記の原形態について’, “國語と國文學” 81-11.
- 廣岡義隆, 2005, “上代言語動態論” 塙書房.
- 藤本幸夫, 2015, “龍龕手鏡(鑑)研究” 麗澤大學出版會.
- 古屋彰, 2009, “萬葉集用字覚書” 和泉書院.
- 方國花, 2003, ‘門構えの略體の用例からみた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漢字文化の受容と定着’, “國語と國文學” 90-12.
- 松島順正, 1956, ‘正倉院御物銘文集’, “書陵部紀要” 7.
- 三浦佑之, 2016, “風土記の世界” 岩波書店.
- 本居宣長, “古事記傳” 大野晋編 ‘本居宣長全集’ 筑摩書房 “古事記大成” 平凡社.
- 森博達, 2011, “日本書紀成立の眞實” 中央公論新社.
- 山下眞里, 2011, ‘異體字が広まる一過程―鉦―という字體を一例に一’, “訓点語と訓点資料” 128.
- 山田孝雄, 1928-1937 “萬葉集講義” 1-3 寶文館.
- 山田孝雄, 1937, “國語史文字篇” 刀江書院(2009 “日本文字の歴史” 書肆心水).
- 山田孝雄, 1956, “萬葉集と日本文藝” 中央公論社.

부기

본 연구는 과학연구비기반연구(S) ‘목간 등 출토문자자료의 자원화를 위한 기능적 정보집약과 지지의 결집’, 동 기반연구(C) ‘현대일본어에 있어서의 한자의 자체·자형의 실태와 그 배경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 연구 발표>

차자표기 자료의 주격조사

—고려시대 및 그 이전을 중심으로—

최성규 (홍익대)

※ 이 발표문의 내용은 대부분 글쓴이의 박사학위 논문 제3장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더러 고치거나 바꾼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이 글에서는 주격조사(현대국어의 ‘이/가’)와 주제·대조를 나타내는 조사(현대국어의 ‘은/는’, 이제부터 ‘주제조사’라고 부름)를 함께 다루기로 한다. 물론 주제조사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격조사와 주제조사의 비교는 학계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바가 아직도 남아 있다.

지금까지 주격조사와 주제조사의 비교·대조는 화용론 방면에서 정보구조 이론(Information structure theory)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통 ‘은/는’은 화제(topic), 주제(theme), 구정보(old information)를 나타내고, ‘이/가’는 초점(focus), 신정보(new information)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몇몇 국어사 논저에서는 옛말 자료의 주제조사가 주격에만 쓰였다고 보고한 적도 있다. 따라서 주제조사는 비록 완벽한 격조사가 아니라도 논의 대상으로 포함하겠다.

이 글에서는 ‘은’과 ‘이’를 전통적인 형태·통사론 차원에서 다룬다. 정보구조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형태론-통사론 차원의 조건을 통제해 둘 필요가 있다. 어떤 예문에서 ‘은’이 쓰이고, 다른 예문에서 ‘이’가 쓰였는데, 그 예문들이 형태·통사론 차원에서도 다르고 화용론 차원에서도 다르다면, 어느 차원의 문제가 진정한 핵심 요인인지 가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3.1. 형태와 표기

◎ 이형태, 이표기 정리: 차자표기 자료에는 ‘이’나 ‘은’으로 일히는 다양한 표기들이 있으나 상당수는 주격조사와 무관. 자세한 내용은 생략.

3.2. 조사 ‘이’의 분포와 기능

3.2.1. 보격 기능

◎ 결론은 보격 기능이 없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생략.

3.2.2. 접속조사 기능

◎ “佛 菩薩” 예가 몇몇 있음. 현대국어의 ‘와/과’와 비슷함.

3.2.3. 안긴문장의 주어 표지

3.2.3.1. 기본 논의

현대국어에서 안긴문장(내포문 구조의 하위문)의 주격조사는 대부분 ‘이’로 나타난다. ‘은’이 안긴문장의 주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뚜렷한 대조를 표현하는 등 특별한 경우로만 한정된다. 현대국어에서 안긴문장이라는 통사적 환경은 화용론 차원의 정보구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떤 문장이 안긴문장이라면 정보구조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주격조사가 ‘이’로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¹⁾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특성이 차자표기 자료에서도 동일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논의 전개를 위해, **주격조사 ‘이’는 안긴문장에만 나타나며, 그 외의 문장(안은문장, 홀문장 등)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어진문장도 안긴문장으로 다시 분석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차자표기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중 대다수는 본래 [관형사형어미+ 의존명사+ 조사] 구성이나 [동명사어미+ 조사] 구성에서 비롯되었다(황선엽, 2002). 따라서 연결어미가 쓰인 이어진문장도 다시 보면 전성어미가 쓰인 안긴문장이 될 수 있다. 아래 석독구결 예문을 통해 설명하겠다.

(1) 是 如 第八心 一切 境界 3 + **清淨 具足 ㄴ ㅅ ㅁ** 故 是 乙 名 下 願波羅蜜因 ㅁ ㅅ ㅁ <금광 02:13-14>

(이용(2013) 현대어역: 이와 같이 第八心이 一切 境界에 清淨 具足한 까닭으로 이것을 일컬어 願波羅蜜因이라 하며)

예문 (1)에 쓰인 ‘- ㅅ ㅁ (ㄴ ㅅ ㅁ)’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며, 현대국어의 ‘...하므로’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 연결어미는 다시 [관형사형어미 ㅅ + 의존명사 ㅁ + 조사 ㅁ]로 분석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다면, 그 앞부분을 이어진문장이 아니라 **안긴문장으로 재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예문 (1)의 앞부분은 안긴문장 구조 “[是 如 第八心 一切 境界 3 + 清淨 具足 ㄴ ㅅ ㅁ]”로 분석된다. 굳이 현대국어로 표현한다면 ‘...하므로’ 대신 ‘...한 탓으로’라고 번역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곳의 주어 “第八心”에 조사 ‘ㅁ’가 붙는 현상을 안긴문장 속의 주어라는 통사적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조건·가정을 나타내는 ‘- ㅅ ㅁ + ㅅ ㅁ (ㄴ ㅅ ㅁ)’, 전환·부연설명을 나타내는 ‘- ㅅ ㅁ ㅅ ㅁ (은 ㅅ ㅁ)’ 구문도 안긴문장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연결어미가 아닌 종결어미 ‘- ㅅ ㅁ (ㄴ ㅅ ㅁ)’ 구문도 안긴문장 구조로 재해석된다.²⁾ 심지어 선어말어미에 ‘- ㅅ ㅁ-’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도 안긴문장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선어말어미 ‘- ㅅ ㅁ-’는 [전성어미 ㅅ + 계사/조사/의존명사 ㅁ]로 더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문법화 과정을 겪고 있으므로 기원상으로는 안긴문장과 관련되어 있으나, 공시적으로는 연결어미나 선어말어미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시적 분석이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는 예전의 성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밖에, 인용문도 안긴문장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직접인용문은 안긴문장과 거리가 멀지만, 간접인용문은 안긴문장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차자표기 자료에서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은 그다지 잘 구분되지 않는다. 엄밀히 따지면 안긴문장(내포문)과 안기

1) 안긴문장 속의 ‘은’은 대부분 열거하거나 대조하는 맥락에서 쓰인다. 그 맥락을 제외하면 ‘은’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2) 애초부터 이런 어미들을 한 덩어리가 아니라 더 분석되는 결합체로 보는 학자들도 많다. 그렇다면 안긴문장으로 이해하기가 더욱 쉽다.

지 않은 문장(비내포문)의 양면성을 지나나, 이 자리에서는 안긴문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례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요컨대, 전형적인 안긴문장은 물론, 상당수 연결어미 및 선어말어미, 인용문 등등에 쓰인 경우도 기원상으로는 안긴문장 관련 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들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즉, 안긴문장(내포문)으로도 해석되고 그 외의 문장(비내포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일단 여기서는 안긴문장 관련성에 주목한다.³⁾ 이렇게 안긴문장의 영향 범위를 넓게 본다면, 결국 주격조사 ‘이’의 기능은 안긴문장의 주어로 설명된다는 것이 이 글의 가설이다.

앞에서 적었듯이 차자표기 자료의 문장은 구조가 복잡하므로, 주어 하나에 서술어가 여럿 나타날 수도 있다. 아래에 석독구결 예문을 통해 설명하겠다.

- (2) 若 有ナリ 正ヒ 法隨法行ヒ 修ッナヲム 大師 正法ヒ 建立ッ〔爲欲〕ハ 方便 正等覺 成ノルハヒ 示現ッニ下 云何ニ考ルハ 彼 正ヒ 修行ッヲホ 轉ッ〔令〕リッノヲ 1リッセロ ヌニ 故 彼 正法行ヒ 修習ッスヒ 時ニナ 卽 是 1 法尔ハ 大師ヒ 供養ッ白ッ 1丁ノヲ 四 <유가06:03-06>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만약 있다. 올바른 법수법행(法隨法行)을 닦는 이가. 대사가 정법을 건립하고자 방편으로 정등각 이루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어, “어떻게 하면 그로 (하여금) 바로 수행하여서 전(轉)하게 할 것 인가?” 하시는 까닭으로, 그러므로 그가 정법의 행을 닦아 익히는 때에, 곧 이는 법 그대로 대사를 공양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서)

(2)에서 “大師 正法ヒ 建立ッ”의 서술어는 넷(建立ッス, 成ノルハヒ, 示現ッニ下, ヌニ 考ルハ)이다. 만약 주어와 가장 가까운 서술어 “建立ッス”까지만 보거나, 중간쯤에 있는 “示現ッニ下”까지만 보고 그 뒤를 놓친다면, “大師 正法ヒ”를 안긴문장과 전혀 상관없는 문장의 주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서술어에는 전성어미가 포함된 연결어미 ‘-스’가 나타난다. 따라서 “大師 正法ヒ”는 결국 안긴문장의 주어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주어의 맨 마지막 서술어를 기준으로 삼아, 그 어미에 주목하여 용례를 살펴보겠다. 다시 말해서, 해당 주어의 영향이 미치는 전체 범위를 끝까지 살펴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주격조사 ‘이’는 안긴문장에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 ② 연결어미 중 전성어미가 포함된 경우 안긴문장 구조로 재분석할 수 있다.
- ③ 선어말어미 중에 ‘-스’가 있는 경우 안긴문장 구조로 재분석할 수 있다.
- ④ 인용문도 안긴문장 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다.
- ⑤ 해당 주어의 맨 마지막 서술어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3.2.3.2. 서술어가 전성어미로 끝나는 경우

마지막 서술어의 어미가 전성어미 ‘- 1(ㄴ)’, ‘- ㄹ(을)’로 끝나는 경우이다. 이 어미는 대부분 관형절이나 명사절을 이루어 안긴문장을 형성하므로, 이곳에 쓰인 ‘ㄴ(이)’는 대부분 이 글의 가설을 지지하는 사례가 된다.

3) 뒤의 3.3.에서는 반대로 이들이 안긴문장이 아니라고 해석될 가능성 또한 살펴보겠다.

- (3) 菩薩 1 {是} ㄴ 如 ㄹ ㅍ ㅍ {等} ㄴ ㅍ ㅍ 量 ㄴ 無 ㄹ ㅍ 慧藏 ㄷ 成就 ㅍ ㅍ ㅍ <화소19:09-10>

(안대현(2013) 현대어역: 菩薩은 이 같은 등의 한량없는 慧藏을 成就하여)

- (4) 路 ㄴ 塵 多 ㅍ ㅍ 見 ㅍ ㅍ ㅍ ㅍ <화엄05:02>

(한글대장경 현대어역: 티끌이 많은 길을 볼 때에는)

- (5) 則 煩惱 ㄴ 起 ㅍ ㅍ 所 ㅍ ㅍ 無 ㅍ ㅍ ㅍ 知 ㅍ ㅍ <화엄13:18>

(한글대장경 현대어역: 번뇌의 일어난 데 없음을 알고 // 한문 원문: 則知煩惱無所起)

- (6) {於} 作意 ㄴ 微細 現行 ㅍ ㅍ ㅍ 隨入 ㅍ ㅍ <유가23:13-14>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작의가 미세하게 현행하는 데에 따라 들어가)

- (7) 雪是 毛冬 乃乎尸 花判也 <찬기파랑가 10>

(양주동(1942/1965) 현대어역: 서리를 모르올 花郎長이여!)

(김완진(1980) 현대어역: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3)은 동명사어미가 관형절을 이루는 경우이며, (4)는 뒤에 대격조사 ‘ㄷ’이 더 붙어 있다. (5)는 동명사어미 ‘-ㅍ’ 뒤에 의존명사 ‘所’가 온 경우이다. (6)은 ‘-ㅍ’ 뒤에 의존명사 ‘ㄴ’이 붙어 ‘ㅍ’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7)은 향찰 자료의 예문이다. 이곳의 “雪是”는 ‘서리’로 읽는 경우가 많으므로 ‘是’를 어간 말음으로 볼 수도 있으나, ‘눈이’라고 읽고 주격조사로 간주해도 무리는 아니다. 여기서는 일단 주격조사로 간주하겠다. ‘乃乎’가 무슨 뜻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나, 용언 어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용례를 [[雪是 毛冬 乃乎]尸 花判也]로 분석한다면, 이 때의 ‘是’는 안긴문장의 주격조사로 쓰인 사례에 포함된다.

- (8) 如來 ㅍ 三業 ㅍ 德 ㄴ 無極 ㅍ ㅍ ㅍ ㅍ 我 ㄴ ㅍ ㅍ 今 ㅍ 月光 ㅍ 三寶 ㄷ 禮 ㅍ ㅍ ㅍ ㅍ ㅍ <구인11:08>

(한글대장경 현대어역: 여래 3업(業)의 덕 끝이 없어 내 이제 월광(月光) 등과 3보께 예배합니다.

// 한문 원문: 如來三業德無極, 我今月光禮三寶)

(8)은 구조상 안긴문장보다 이어진문장에 가까운 구조이다.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드물게 동명사어미가 연결어미처럼 쓰인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전성어미가 쓰였으므로 안긴문장 관련성이 없지는 않다.⁴⁾ 안긴문장과 관련해서는 양면성을 지닌 경우로 처리한다.

3.2.3.3. 서술어가 연결어미로 끝나는 경우

3.2.3.3.1. 전성어미를 포함한 연결어미

어미가 ‘-ㅍ ㅍ ㅍ (ㄴ ㅍ ㅍ), -ㅍ ㅍ ㅍ (ㄷ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ㄴ ㅍ ㅍ), -ㅍ ㅍ ㅍ (ㅇ ㅍ ㅍ), -ㅍ ㅍ ㅍ (은을/늘), -ㅍ ㅍ ㅍ (은을), -ㅍ ㅍ ㅍ (은여/녀)’인 경우이다. 앞서 3.2.3.1.에서 설명했듯이, 이들 어미가 쓰인 문장은 안긴문장으로든 그렇지 않은 문장으로든 분석되는 양면성을 지니나, 그 안에 전성어미가 포함된 것만큼은 분명하므로 가설의 반례는 못 된다.

☞ 이하 생략.

4) 현대국어에서도 “계약 시 건물 멸실 후 양도하기로 함.” 같은 문장을 보면 명사형어미 ‘-ㅍ’이 사실상 종결어미처럼 쓰인다. 그렇다고 해서 ‘-ㅍ’을 종결어미로 분류하지는 않으며, 위와 같은 문장을 일반적인 평서문과 똑같이 여기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ㅍ’이 명사형어미 본연의 기능으로 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2.3.3.2. 전성어미와 무관한 연결어미

어미가 ‘-ㄴ(며), -ㄹ(나), -ㅅ(저), -ㅆ/ㅁ/ㅂ(아/라/하)인 경우이다. 이들은 주격조사 ‘ㄴ’가 안긴문장과 관련되리라는 이 글의 가설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선어말어미 ‘-ㄴ(리)-’나 인용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안긴문장과 관련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 (9) 若 諸 佛 授記 所 {爲}入乙ッモ尸入1 則 一切 佛^ㄴ 其 前^ㄴ + 現^{モカヲ} <화엄12:15>

(한글대장경 현대어역: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된다면 모든 부처 그 앞에 나타나리라)

(9)에서 “佛^ㄴ”의 서술어에 쓰인 마지막 어미는 ‘-ㄴ’이다. 그러나 그 앞에는 선어말어미 ‘-ㄴ(리)-’가 있다. 앞서 3.2.3.1.에서 다루었듯이, ‘-ㄴ(리)-’는 [전성어미^ㄴ + 계사/조사/의존명사^ㄴ]로 더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안긴문장과 관계가 있으므로 가설의 반례가 되지 않는다.

- (10) 有^ㄴ 無^ㄴ 本^ㄴ 自^ㄴ 二^ㄴ 牛^ㄴ 二^ㄴ 角 {若} 照^ㄴ 解^ㄴ + 無^ㄴ 二^ㄴ 牛^ㄴ 二^ㄴ 角 見^ㄴ 二^ㄴ 牛^ㄴ 二^ㄴ 角 常^ㄴ 即^ㄴ 不^ㄴ 失^ㄴ 二^ㄴ 牛^ㄴ 二^ㄴ 角 <구인15:03-04>

(한글대장경 현대어역: 있고 없음 본래 스스로 둘, 비유하면 소의 두 뿔과 같아, 비취 보아 알면 둘 없음 보나니, 2제(諦)는 항상 상즉(相卽)하지 않네)

(한문 원문: 有無本自二 譬若牛二角, 照解見無二 二諦常不卽)

이 문장에는 선어말어미 ‘-ㄴ(리)-’도 없고, 인용문도 아니고, 아우름동사도 없다. 이곳의 해당 서술어는 “照^ㄴ 解^ㄴ”이다. 만약 서술어가 “...如^ㄴ 二^ㄴ 牛^ㄴ 二^ㄴ 角” 구조로 나타났다면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된다. 이곳의 서술어 ‘照^ㄴ 解^ㄴ’도 기원상으로는 ‘照^ㄴ’와 ‘解^ㄴ’로 더 분석될 수 있고, 그때의 ‘照^ㄴ’는 ‘如^ㄴ’와 비슷한 존재일지 모른다. 그러나 ‘照^ㄴ’가 단독으로 쓰인 예가 문헌에 보이지는 않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照^ㄴ 解^ㄴ’를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⁵⁾ 위 문장을 가설의 반례로 인정한다. 글쓴이가 살펴보고 분류한 대로라면, 주격조사 ‘ㄴ’에 해당되는 마지막 서술어의 어미에 ‘-ㄴ’이 쓰인 용례의 총 합계는 46회이다. 그 중 3회는 반례로 남는 셈이다.

- (11) 佛^ㄴ {此} 持藏^ㄴ 邊^ㄴ 無^ㄴ 難^ㄴ 滿^ㄴ 難^ㄴ 其 底^ㄴ 至^ㄴ 難^ㄴ 得^ㄴ 親近^ㄴ 佛^ㄴ 能^ㄴ 制伏^ㄴ 無^ㄴ 量^ㄴ 無^ㄴ 盡^ㄴ 大威力^ㄴ 具^ㄴ {是} 佛境界^ㄴ 唯^ㄴ 佛^ㄴ 能^ㄴ 了^ㄴ 了^ㄴ 佛^ㄴ <화소24:12-15>

(안대현(2013) 현대어역: 佛^ㄴ야, 이 持藏은 ① 끝이 없어 ② 어렵게야 채우고 ③ 어렵게야 그 밑에 이르고 ④ 어렵게야 능히 親近하고 ⑤ 능히 制伏시킬 수 있는 것이 없고 ⑥ 한량없고 ⑦ 다함이 없고 ⑧ 大威力을 갖추었고 ⑨ 이는 佛境界이고 ⑩ 오직 부처이시여야 능히 아시는 것이고 하다)

어미 ‘-ㅅ(저)’는 여러 내용을 나열할 때 쓰이며, 대부분 맨 뒤에 아우름동사가 나와서 “...ㅅ(저) 二^ㄴ 牛^ㄴ 二^ㄴ 角” 형식으로 쓰인다. 위 예문에도 마지막 아우름동사 ‘了^ㄴ 了^ㄴ 佛^ㄴ’가 보인다. 이 아우름동사는 주어가 무엇인지 찾기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서술어는 아니지만 ‘-ㅅ(저)’로 이어진 문장

5) ‘照^ㄴ 解^ㄴ’와 뜻이 거의 같은 ‘照^ㄴ 解^ㄴ’에서는 ‘照^ㄴ’이 분석된다. 15세기 국어에서 ‘照^ㄴ’이 홀로 쓰인 예가 있기 때문이다. “하느 버리 눈 照^ㄴ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50> “妻眷이 드외스박 하느 照^ㄴ 섬기습다니” <월인천강지곡 51a> 덧붙여, 이승녕(1966:17~20)을 따르면 15세기 국어에서는 서술어 ‘照^ㄴ’ 앞에 주격조사 ‘-이’가 절대 우세로 나타난다고 한다.

여럿을 아우르는 상위문 동사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긴문장과 관련되기에 가설의 반례는 못 된다.⁶⁾

3.2.3.4. 서술어가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

3.2.3.4.1. 전성어미를 포함한 종결어미

종결어미가 ‘-ㅓ’, ‘-ㅕ’인 경우이다. 이들을 아예 종결어미로 보지 않고 [전성어미 + 의존명사ㅓ + 조사:]로 분석해 보기도 한다. 그렇게 본다면 이곳의 용례를 앞서 본 전성어미 관련 용례로 분류하게 되므로 안긴문장 구조를 더욱 강조하는 셈이다. 종결어미로 보더라도 기원상 전성어미가 포함되어 있기에 안긴문장 관련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가설의 반례는 못 된다.

☞ 이하 생략.

3.2.3.4.2. 전성어미와 무관한 종결어미

종결어미가 평서형 ‘-ㅓ’, 의문형 ‘-ㅕ’, 기원형 ‘-호’인 경우이다. 이들은 주격조사 ‘ㅓ’가 안긴문장과 관련되리라는 이 글의 가정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안긴문장과 관련되는 사례도 있다.

◎ 선어말어미 ‘ㅓ’가 있는 경우, 인용문인 경우는 반례가 못 됨. 생략.

- (12) 十方^ㅓ 一切 諸^ㅓ 如來^ㅓ 悉^ㅓ 共^ㅓ 稱揚^ㅓ 盡^ㅓ 不^ㅓ 能^ㅓ 失^ㅓ 二^ㅓ 口^ㅓ 乙^ㅓ 七^ㅓ | <화엄 09:07>

(한글대장경 현대어역: 시방의 수가 없는 여래들께서 한꺼번에 일컬어도 다하지 못해 // 한문 원문: 十方一切諸如來, 悉共稱揚不能盡)

- (13) 卽^ㅓ 百億種 色^ㅓ 花^ㅓ 散^ㅓ 二^ㅓ 變^ㅓ 百億 寶帳^ㅓ 成^ㅓ 諸^ㅓ 大衆^ㅓ 蓋^ㅓ 二^ㅓ | <구인03:20-21>

(한글대장경 현대어역: 그리고는 백억 가지 빛깔의 꽃을 흩으니, 백억의 보배 장막으로 변하여 모든 대중을 덮었다)

- (14) 大衆^ㅓ 歡喜^ㅓ 各^ㅓ 各^ㅓ 量 無^ㅓ 神^ㅓ 通^ㅓ 現^ㅓ 二^ㅓ 地^ㅓ 及^ㅓ 虛^ㅓ 空^ㅓ 大衆^ㅓ 而 住^ㅓ 二^ㅓ | <구인03:14-15>

(한글대장경 현대어역: 그러자 대중들이 환희하여 각각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어 땅과 허공에서 머물렀다)
(한문 원문: 大衆歡喜 各各現無量神通, 地及虛空 大衆而住)

(12~14)의 서술어에 쓰인 구결토를 보면,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형태가 들어 있다. (12)에서는 ‘ㅓ, 乙’의 기능이 불확실하고, (13, 14)에서는 ‘ㅓ, ㅓ’의 기능이 불확실하다. 이들을 전성어미와 관련짓거나,⁷⁾ 무언가 생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따르면, **위의 용례 넷을 반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 (15) 七佛^ㅓ 偈^ㅓ 是 {如} | ㅓ ㅓ | <구인14:23>

(한글대장경 현대어역: 7불의 계송은 이와 같으니라)

6) 이곳의 ‘量ㅓ’를 ‘그지’로 읽고 ‘ㅓ’를 말음첨기로 처리할 수도 있다. 안대현(2013)에서는 “...량이 없져...”로 읽어 두었다.

7) 석독구결에서 어떤 ‘ㅓ’는 전성어미나 의존명사로 분석되기도 한다. 물론 예문에 보인 ‘ㅓ’는 전성어미나 의존명사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다.

(15)의 서술어는 ‘ㅣ ㅅ-’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ㅣ ㅅ-’는 기원상 ‘ㅣ’와 ‘ㅅ-’로 더 분석될 수 있고, 그 때의 ‘ㅣ’는 부사절을 이루는 ‘如 ㄹ’와 비슷한 존재일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가설의 반례로 인정한다.**

(16) 彗星也 白反也 人是 有叱多 <혜성가 8>

(양주동(1942/1987) 현대어역: ‘彗星이여!’ 사된 사람이 있구나!)

(16)은 향찰 자료인데, 이 서술어에는 아무 선어말어미도 없이 종결어미 ‘多’ 하나만 붙어 있다. **이 역시 이 글의 가설에 어긋나는 뚜렷한 반례이다.** 현대어역을 참조하면, 현대국어에 서도 이 경우는 ‘은/는’이 어색하고 ‘이/가’만이 자연스럽기에, 이곳의 주어는 여느 주어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는 듯하다. 존재나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있다’의 구문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미묘한 설명을 찾아낼 수도 있겠으나,⁸⁾ 이 글에서는 일단 가설의 반례로 인정한다.

3.2.3.5. 서술어의 어미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생략.

3.2.3.6. 정리

지금까지 안긴문장의 주어에 주목하여 주격조사 ‘ㅣ’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8) 이승녕(1966:17~18)을 따르면 15세기 국어에서 ‘잇/이시-’ 앞에는 주격조사 ‘이’가 절대 우세로 나타난다고 한다. 신선경(1996)을 따르면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 구문의 기저구조에는 대상격과 처격만이 있으며 주격(외부 명사구)은 비어 있는데, 대상격 명사구가 이동하여 주어로 실현된다. 생성문법이론에 따른 까다로운 논의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분류			석독구결			향찰		
대분류	중분류	어미(및 기타)	뒷받침 예 안긴문장○	양면성△	반례 안긴문장×	뒷받침 예 안긴문장○	양면성△	반례 안긴문장×
전성 어미	—	ㄱ	40	11	0	2	1	0
		ㄴ	9	0	0	1	0	0
		ㄱ+의존명사	35	0	0			
		ㄴ+의존명사	53	6	0	0	1	0
		-ㄷ	7	0	0			
연결 어미	전성 어미 있음	-ㄱ ㄴ ㄴ	0	18	0			
		-ㄴ ㄴ ㄴ	0	3	0			
		-ㄴ ㄴ ㄱ	0	4	0			
		-ㄱ ㄴ ㄱ	0	3	0			
		-ㄴ ㄴ ㄴ	0	6	0			
		-ㄴ ㄴ ㄴ	1	9	0			
		-ㄱ ㄴ	0	12	0			
		-ㄴ ㄴ	0	1	0			
		-ㄱ ㄴ	0	1	0			
	전성 어미 없음	-ㄴ	3	40	3			
		-ㄴ	0	1	0			
		-ㄴ	0	1	0			
		-ㄴ	0	3	0			
		-ㄴ / ㄴ / ㄴ	1	4	0			
종결 어미	전성 어미 있음	-ㄱ ㄴ	0	1	0			
		-ㄴ ㄴ	0	13	0			
	전성 어미 없음	-ㄴ	0	4	6	0	0	1
		-ㄴ	0	1	0			
		-ㄴ	0	1	0			
기타	—	如 支	3	0	0			
합계			152	143	9	3	2	1
비율			49.0%	46.1%	2.9%	1.0%	0.7%	0.3%

살펴본 용례 **총 310개 중에서 반례는 총 10개**가 나왔다. 3.2.3.1.에서 제시한 **“안긴문장 주어”** 가설은 **대략 96.8%쯤 맞는 셈이다**. 물론 기원상 안긴문장과 관련이 있었으나 문법화한 경우는, 공식적으로 안긴문장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 논의 전개상 반례가 되지 못하기에 ‘맞는’ 것으로 간주하였을 따름이다. 또한, 반례의 비중이 비록 낮을망정 있기는 있다.⁹⁾

그렇다고 해도, 안긴문장과 전혀 무관한 경우(순수 비내포문)가 매우 적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보구조 이론에서 [화제]와 [초점]을 중심으로 현대국어의 ‘은/는’과 ‘이/가’를 다루는 경우, 대부분 안긴문장과 무관한 경우를 다룬다. 그러나 위 분석대로라면 차자표기 자료에서는 다룰 만한 예문부터가 매우 부족하다. 안긴문장과 전혀 무관한 열 개 남짓한 예문만으로 정보구조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양면성을 띠는 경우까지 정보구조 이론으로 다룬다면, **조사 ‘이’가 정보구조 때문에 쓰였는지 안긴문장의 흔적 때문에 쓰였는지를 갈**

9) 그 밖에도, 위 통계가 사실상 석독구결 자료만의 통계라는 문제점도 있다. 향찰 자료의 비중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한편, 이두 자료에서는 주격조사가 ‘亦’으로 나타나는데, 본 논문에서는 ‘亦’을 별도로 살펴보므로 위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라내기 어려울 것이다. 변인통제가 안 되는 셈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 ‘이’가 안긴문장 외의 환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이’가 차자표기 시대보다 더 널리 쓰인다. 그렇게 바뀌는 실마리는 양면성을 지닌 경우, 곧 기원상 전성어미를 포함한 구성이었다가 단일 어미로 문법화한 경우(예 -ㄴ 1 ㅅ, -ㅍ ㅅ ㅁ, -ㄴ ㅁ -, -ㅍ - 등등)에서 찾을 수 있다. 원래는 안긴문장 환경이었는데, 어미가 문법화를 겪고 나면 이어진문장이나 홀문장 환경으로 바뀌므로, 주격조사 ‘ㅁ’가 안긴문장 외에도 쓰인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안긴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 외 주어를 구분하여 별도의 조사를 쓰는 일은 세계 여러 언어에서 그리 흔치 않다고 들었다. 그러나 일본어의 ‘가’는 고대에 평칭 유정체언의 속격조사로 쓰였다가 주어적 속격(안긴문장의 주어로도 해석된다)을 거쳐 현대의 주격조사로 바뀌어 온 역사가 있다. 그리고 현대 몽골어에서는 대격조사가 여러 안긴문장의 주어에 두루 쓰인다.¹⁰⁾ 일본어나 몽골어의 주격 표지는 차자표기의 국어를 다루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더 이상 자세히는 다루지 않는다.

3.3. 조사 ‘은’의 분포와 기능

3.3.1. 주어 외 다른 문장성분에 분포하는 경우

현대국어에서 ‘은/는’을 보조사로 분류하는 주요 근거는, ‘은/는’이 주어 외 다른 성분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국어에서도 ‘은’이 그렇게 쓰였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향찰과 석독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은’의 분포를 검토할 것이다.

주제조사 ‘은’이 쓰인 모든 자료를 다 보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여기서는 명사(구) 뒤에 쓰여 논항을 이루는 경우만을 다루겠다. 문법화한 연결어미 ‘-ㅍ 等隱/ㅍ 等焉/ㅍ ㅅ 1(은든), -ㄴ 1(은은/는)’이나, 연결어미 뒤에 붙어 쓰인 ‘-ㄴ 1 + 1(ㄴ다권), -ㄴ 1 ㅅ 1(온된), -ㅍ ㅍ(아근), -ㅍ ㅍ(고근)’에 들어 있는 주제조사 ‘은’은 그러한 쓰임이 있다는 점만 기억하는 데에 그치고,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3.3.1.1. 목적어에 붙은 경우

- (20) [久矣]乃 直隱 跡烏隱 現乎賜丁 <도이장가 7-8>

(양주동(1942/1987) 해독: 오라나 고든 자취는 남호산더)

- (21) 此 1 最勝 資糧道 依 說ノ 1 ㅁ 1 <유가25:04>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이는 가장 뛰어난 자량도를 의지하여 말한 것이다)

(한문 원문: 此依最勝資糧道說)

(20)의 경우, “跡烏”가 ‘자취(자취)’이고 “現乎-”가 “나토(나타내)-”이므로, 이곳의 ‘은’을 주제조사로 본다면 서술어 ‘나토-’의 목적어에 쓰였다고 볼 만하다. 그러나 이곳의 어미 ‘賜丁(신더)’는 [선어말어미 ‘-시-’ + 전성어미 ‘-ㄴ’ + 의존명사 ‘ㅌ’ + 조사 ‘여’]로 더 분석될 수 있다. 그 분석을 따르면 “자취는 나타내신 것이다”로 해석되어 “자취는 … 것이다” 구조가 되므로 주어-서술어 관계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 두 가지로 분석

10) 최동권(2004)를 따르면 관형절, 명사절, 인용절의 주어에 대격조사가 쓰이며, 일부 이어진문장(접속문)의 주어에도 대격조사가 쓰인다. ‘대격’조사가 쓰이는 것은 국어와 크게 다르지만, 여러 가지 안긴문장의 주어에 두루 쓰인다는 점은 ‘주어적 속격’ 현상보다도 더 비슷해 보인다.

될 수 있다. (21)의 ‘-ㄴ-’도 동명사어미를 포함한 구성으로 분석될 수 있다.

요컨대 “NP는 VP하다”로도 “NP는 VP한 것이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때 NP와 VP는 의미상 설령 목적어-서술어 관계가 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NP가 계사의 주어가 된다.¹¹⁾ **결국 주어일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다.**

(22) 劫數 1 盡 * 可 七 1 : 一 1 文 : 一 1 句 : ノ 今 七 義理 1 難 1 : 盡 7 可 七 1 <화소 25:10-11>

(안대현(2013) 현대어역: 겹수는 다할 수 있으나 한 문장이니 한 구절이니 하는 것의 의리는 어렵 게 야 다할 수 있다)

(22)는 서술어로 ‘盡’이 쓰였다. 15세기 국어를 참조하면 ‘다으-’일 것이다. 15세기 국어의 ‘다으-’는 자타 양용동사로 쓰였다. 따라서 그 앞에 온 명사구는 주어와 목적어 양쪽으로 해석된다. 선어말어미 ‘*(거)’가 있음을 주목하면 ‘盡’을 자동사로 보고, ‘劫數 1’을 주어로 보는 것이 도리어 더 타당하다.

☞ 이하 생략.

주제조사가 목적어에 쓰인 듯한 예문으로, 글쓴이가 찾아본 바로는 14(향찰 3, 석독구결 11) 용례가 전부였다.¹²⁾ 이들 중 서술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빼고 나면, **모두 주어와 목적어 양 쪽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석독구결의 주제조사 ‘은’은 주어에서 목적어로 분포가 넓어지는 중간 단계를 보여준다.¹³⁾

주제조사 ‘은’이 목적어에 잘 쓰이지 않았던 것은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乙良(으란)’과도 관련된다. 15세기 국어의 ‘으란’과 이두 자료의 ‘乙良’은 대부분 목적어 위주로 쓰였고, 더러 부사어(여처격)에도 쓰였으며, 주어에 쓰인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¹⁴⁾ 목적어의 주제화에 쓰이는 ‘乙良(으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은’까지 목적어에 쓰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석독구결 자료에서 목적어에 쓰인 ‘은’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저 자료 부족 탓이 아니라 당대 언어의 실체가 그러했기 때문일 것이다.**

3.3.1.2. 여처격, 도구격조사 뒤에 붙은 경우

향찰 자료에서는 여처격조사 뒤에 주제조사가 붙은 경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매우 많은 수가 나타난다. 일단 표기만으로 분류하면 ‘3 + 1(아권)’은 31회, ‘3 + 1(여권)’은 7회, ‘3 + 1(의권)’은 3회, ‘1 + 1(이권)’은 3회, ‘+ 1(권)’은 39회 나타난다. 이들은 주제조사 ‘1’이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주격 외 다른 격에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처격조사와 관련해서는 박진호(1998:182~183)의 아래 언급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11) 현대국어로 예를 들면 “밥은 먹는 것이다”와 같은 구조이다. ‘밥’과 ‘먹다’는 의미상 목적어-서술어 관계이나, 형식상으로는 ‘밥’이 ‘이다’의 주어가 된다.

12) 이견식(1996:250)에서는 잘못 기록한 경우로 보이는 “常住 ヲ 佛 1 入 1 見…”<화엄11:14, 11:15>을 더 지적하였다. 지금 학계에 공유된 전산 파일에서 이 부분은 ‘… 1 入 2’로 교감되었다.

13) 杜林林(2014:122~124)를 따르면, 15세기 국어에서도 ‘은’이 목적어에 쓰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14) 하귀녀(2005:63~64, 89~93, 122~124, 183~190)에서는 향찰 자료부터 16세기 자료까지 나타나는 ‘으란’을 두루 검토하였다. 杜林林(2014:153~177)은 15~16세기의 ‘으란’에 대해서 정보 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처격과 여격에 나타나는 ‘기’는 본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였던 것이 조사로 문법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여격을 표현하는 구성에서 ‘기’가 속격조사 ‘-의/의’나 ‘-스’ 뒤에 나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격 구성의 이러한 특징은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추정이 옳다면 ‘ㅅ + 1, ㅆ + 1, ㅈ + 1, ㅊ + 1, ㅊ + 1’ 뒤에 나타난 모든 ‘1’은 원래 명사 뒤에 붙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원상으로는 다른 격조사 뒤에 쓰인 것이 아니다.¹⁵⁾ 그렇다면 **주격조사 ‘은’이 보조사라는 중요 근거 하나가 흔들린다.**

그 밖에, 도구격조사 ‘ㅁ’ 뒤에 ‘1’이 붙은 용례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주격조사 ‘ㅁ’나 속격조사 뒤에 붙은 예도 전혀 없었다(이는 현대국어도 마찬가지이다). 여처격을 제외한 다른 격조사 뒤에 ‘1’이 전혀 붙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여처격조사에 ‘1’이 붙는 현상이 오히려 특이하다.

이를 종합하면, 기원상 조사 ‘은’은 다른 격조사 뒤에 쓰이지 않았으며, 주어 외 다른 성분에도 쓰이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서 **주격조사 ‘은’은 기원상 어엿한 주격조사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고대국어의 주격조사에는 ‘은’과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추정에 다다른다.

3.3.1.3. 접속조사 뒤에 붙은 경우 3.3.1.4. 정리

☞ 생략.

3.3.2. 안긴문장 외(비내포문)의 주어 표지

3.3.2.1. 기본 논의

여기서는 주어 자리에 쓰인 ‘1(은)’만을 따로 모아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앞의 논의를 따르면 아주 오래 전에는 ‘은’과 ‘이’ 모두가 주격조사였을지 모른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형태가 똑같은 기능을 맡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따라서 ‘은’과 ‘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3.2.3.6.에서 말한 대로 ‘이’가 안긴문장의 주어에 쓰였다면, ‘은’은 그 반대의 경우에 쓰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격조사 ‘은’이 안긴문장 외의 문장(안은문장, 홀문장 등 비내포문)의 주어에 쓰였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 보겠다. 사실, ‘은’은 현대국어에서도 안긴문장에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다. 대조·열거하는 맥락 등등 몇몇 예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대국어와 별 차이 없으리라는 가설을 세운 셈이다.**

논의를 하기 전, 안긴문장이 아니라고 볼 만한 몇 가지 경우를 먼저 짚어보겠다. 가정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문법화 과정의 어미들이다. 연결어미 ‘-1 ㅅ, -ㅍ ㅅ, -ㅍ ㅅ 1, -1 ㅅ + 1, -ㅅ 1 ㅅ, -ㅅ ㅍ ㅅ, -1 ㅅ, -ㅍ ㅅ, -1 ㅅ’, 종결어미 ‘-1 ㅅ, -ㅍ ㅅ’, 선어말어미 ‘-ㅅ-’ 등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래 전성어미를 지니고 있으나, 문법화를 겪으며 어미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앞서 3.2.3.1.에서는 논의 전개를 위해 기원상 전성어미를 지니고 있어 안긴문장과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문법화 과정에 있으므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논의 전개를 위해 안긴문장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한다.** 즉, 반례가 못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15) 물론 석독구결 자료를 공식적으로(고려시대 당대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논의에서는 이들을 여처격조사 뒤에 붙었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문법화 과정의 어미와 관련하여 ‘-ㄴ ㄱ-’도 짚어둘 만하다. 박진호(1998:200)에서 말하였듯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이들이 한 글자로 적히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러나 한 글자 ‘ㄷ’로 나타나는 사례도 적게나마 있기는 있다.¹⁶⁾ 이 형태는 문법화를 겪어 15세기에 (선)어말어미 ‘-니(-)’로 나타난다(자세한 것은 황선엽(1995:70~81) 참조). 따라서 ‘-ㄴ ㄱ-’는 이 시기에도 이미 (선)어말어미로 문법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안긴문장 구조와도 멀어진다.

두 번째는 인용문이다. 인용문 중에서 간접인용문은 안긴문장의 일종이지만, 직접인용문은 안긴문장과 무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에서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은 그다지 잘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문 역시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다.

세 번째는 아우름동사 구문이다.¹⁷⁾ ‘…-ㄴ ㄱ- …-ㄴ ㄱ- …-ㄴ ㄱ-’가 대표적이며, ‘…-ㄴ ㄱ- …-ㄴ ㄱ- …-ㄴ ㄱ-’도 나타난다. 앞서 적었듯 이 구문의 아우름동사 ‘ㄴ ㄱ-’는 주어가 무엇인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ㄴ ㄱ-’가 뜻하는 바도 무엇인지 흐릿하므로 정상적인 여느 서술어와는 다르다. 이 역시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다. 여기서는 논의 전개를 위해 안긴문장과 무관할 가능성을 주목하기로 한다.

네 번째는 부정문(否定文)이다. 부정문에서는 ‘VP ㄴ ㄱ- 不ㄴ ㄱ-, VP ㄴ ㄱ- 不ㄴ ㄱ-, VP ㄴ ㄱ- 未ㄴ ㄱ-’처럼 그 앞에 전성어미 ‘ㄴ ㄱ-’이 흔히 나타나므로 형식상 안긴문장 구조를 이루나,¹⁸⁾ 그 때 상위문과 하위문의 주어는 언제나 똑같아진다. 예컨대 현대국어의 “나는 가지 못했다”라는 문장에서 ‘가-’의 주어와 ‘못하-’의 주어는 둘 다 ‘나’이다. 이러한 경우, 맨 마지막 서술어를 엄밀히 따진다면 ‘VP ㄴ ㄱ-’보다 더 뒤에 있는 ‘不ㄴ ㄱ-’ 등이므로 안긴문장과 아예 무관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상·하위문의 주어가 같음을 중시하여 양면성을 지닌다고 판단한다.

그 밖에, 해당 주어의 맨 마지막 서술어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는 점은 앞서 3.2.3.1.에서 말한 바와 같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주제조사 ‘은’은 안긴문장 외(안은문장, 홀문장 등)에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 ② 안긴문장인지 아닌지 양면성을 지닌 경우, 안긴문장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여 반례는 못 된다고 판단한다. 전성어미가 포함된 구성의 문법화, 인용문, 아우름동사 구문, 인용문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 ③ 해당 주어의 맨 마지막 서술어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3.3.2.2. 서술어가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

(23) {此} ㄴ ㄱ- 菩薩 1 (是) ㄴ ㄱ- 事 有 ㄴ ㄱ- 故 ㄴ ㄱ- (是) ㄴ ㄱ- 事 有 ㄴ ㄱ- (是) ㄴ ㄱ- 事 無 ㄴ ㄱ- 故 ㄴ ㄱ- (是) ㄴ ㄱ- 事 無 ㄴ ㄱ- (是) ㄴ ㄱ- 事 起 ㄴ ㄱ- 故 ㄴ ㄱ- (是) ㄴ ㄱ- 事 起 ㄴ ㄱ- (是) ㄴ ㄱ- 事 減 ㄴ ㄱ- 故 ㄴ ㄱ- (是) ㄴ ㄱ- 事 減 ㄴ ㄱ- (是) ㄴ ㄱ- 世間 ㄴ ㄱ- 法 ㄴ ㄱ- (是) ㄴ ㄱ- 出世間 ㄴ ㄱ- 法 ㄴ ㄱ- (是) ㄴ ㄱ- 有爲法 ㄴ ㄱ- (是) ㄴ ㄱ- 無爲法 ㄴ ㄱ- (是) ㄴ ㄱ- 有記法 ㄴ ㄱ- (是) ㄴ ㄱ- 無記法 ㄴ ㄱ- 知 ㄴ ㄱ- ㄴ ㄱ- 1 <화소01:04-08>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 보살은 이 일이 있으므로 이 일이 있으며, 이 일이 없으므로 이 일이 없으며, 이 일이 일어나므로 이 일이 일어나며, 이 일이 멸하므로 이 일이 멸하며, 이는 세간법이며 이는 출세간법이며, 이는 유위법이며 이는 무위법이며, 이는 有記法이며

16) “不 ㄴ ㄱ- ㄴ ㄱ-” <화소13:09, 화엄11:15, 화엄11:16>, “{等} ㄴ ㄱ- ㄴ ㄱ- ㄴ ㄱ- ㄴ ㄱ-” <화엄14:24>, “所 ㄴ ㄱ-” <화엄18:16>까지 다섯 번이다.

17) 박진호(1998:134)에서도 다룬 바 있다. 다만, ‘아우름동사’라는 말 대신 “맨 뒤에 이 동사구들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18) ‘ㄴ 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조은주(2002b:14~15, 22, 41, 46~48, 55~56) 참조.

이는 無記法인 줄 안다)

- (24) ㄱ. 謂ノ 1 1 世間 1 有邊 ㄱ 1 世間 1 無邊 ㄱ 1 世間 1 亦有邊 亦無邊 ㄱ 1 世間 1 非有邊 非無邊 ㄱ 1 ノ ㄱ ㅅ <화소06:05-08>

(안대현(2013) 현대어역: 즉 세간은 有邊이다, 세간은 無邊이다, 세간은 亦有邊亦無邊이다, 세간은 非有邊非無邊이다 하는 것과)

해당 서술어가 종결어미로 끝났으므로, ‘- 1’이 문장 전체의 주어에 붙은 경우이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문이 (24)처럼 인용문 속에 들어 있었다. 인용문 안에 있는 경우는 엄밀히 말해 안긴문장과 안기지 않은 문장(비내포문)의 양면성을 띤다. 물론 그렇게 보아도 가설의 반례는 못 되나, 신중을 기하고자 약간 더 불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셈이다.¹⁹⁾

3.3.2.3. 서술어가 연결어미로 끝나는 경우

3.3.2.3.1. 전성어미와 무관한 연결어미

어미가 ‘- ㅅ(며), - ㅅ(저), - ㅅ/ㅅ(아/라), - ㅅ ㅅ(과두), - ㅅ(?)’인 경우이다. 이들 어미가 쓰인 경우는 대부분 안긴문장과 전혀 무관하거나 양면성을 띤다. 지면 관계상 반례가 되는 예문만 아래에 보인다.

- (25) {是} ㄱ 菩薩 1 ① {是} ㄱ 事 有 ㅅ 1 ㅅ ㅅ 故 ㅅ {是} ㄱ 事 有 ㅅ ㅅ ② {是} ㄱ 事 無 ㅅ 1 ㅅ ㅅ 故 ㅅ {是} ㄱ 事 無 ㅅ ㅅ ③ {是} ㄱ 事 起 ㅅ 1 ㅅ ㅅ 故 ㅅ {是} ㄱ 事 起 ㅅ ㅅ ④ {是} ㄱ 事 滅 ㅅ 1 ㅅ ㅅ 故 ㅅ {是} ㄱ 事 滅 ㅅ ㅅ ⑤ {是} ㄱ 1 世間 ㅅ 法 ㅅ ㅅ ⑥ {是} ㄱ 1 出世間 ㅅ 法 ㅅ ㅅ ⑦ {是} ㄱ 1 有爲法 ㅅ ㅅ ⑧ {是} ㄱ 1 無爲法 ㅅ ㅅ ⑨ {是} ㄱ 1 有記法 ㅅ ㅅ ⑩ {是} ㄱ 1 無記法 ㅅ 1 ㅅ 乙 知 ㅅ ㅅ ㅅ ㅅ <화소01:04-08>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 보살은 ① 이 일이 있으므로 이 일이 있으며, ② 이 일이 없으므로 이 일이 없으며, ③ 이 일이 일어나므로 이 일이 일어나며, ④ 이 일이 멸하므로 이 일이 멸하며, ⑤ 이는 세간법이며 ⑥ 이는 출세간법이며, ⑦ 이는 유위법이며 ⑧ 이는 무위법이며, ⑨ 이는 有記法 이며 ⑩ 이는 無記法인 줄 안다)

해당 주어와 서술어만 본다면 ‘- ㅅ’가 여러 차례 단순히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맨 마지막 절에 ‘- 1 ㅅ’가 나타나며 그 앞의 긴 내용 전체를 안긴문장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구조는 문법화वाद도 무관하며 **명백한 안긴문장**이다. 따라서 위 예문에 나타난 ‘{是} ㄱ 1’ 여섯 번은 **모두 반례에 들어간다**. 집계할 때에는 ⑤~⑨의 경우를 ‘- ㅅ’ 항목의 반례로 분류하고, ⑩의 경우를 ‘- 1 ㅅ’ 항목의 반례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3.3.2.3.2. 전성어미를 포함한 연결어미

어미가 ‘- 1 ㅅ ㅅ(ㄴ ㅅ로), - 1 ㅅ ㅅ(ㄴ 다고), - ㅅ 1 ㅅ(온디), - ㅅ ㅅ ㅅ(웁디), - 1 ㅅ(은을/늘), - 1 ㅅ/1 ㅅ(은여/녀), - ㅅ ㅅ/ㅅ ㅅ(은여), - ㅅ(니)’인 경우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문법화 여부에 따라 안긴문장으로든, 그렇지 않은 문장으로든 분석되는 양면성을 지닌다. 양면성조차도 아닌 명확한 반례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

19) 같은 환경에서 주격조사 ‘ㅅ’가 쓰인 경우에는 유리하게 해석한 셈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ㅅ’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화엄09:02~20:15> 전체가 긴 인용문 환경이라는 점을 굳이 헤아리지 않더라도 안긴문장으로 볼 만한 다른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 (26) 頂上₁セ 白蓋₁ 量 無₁ 衆寶₁{之} 莊嚴ノ₁ 所₁ニ 以₁シホ {於}上ニテ 覆₁ラセ₁ノ **1ハニ** 菩薩₁ 悉₁ 見₁ナセ₁ | <금광06:18-19>

(이용(2013) 현대어역: 頂上の 白蓋는 한량없는 衆寶로 莊嚴한 바이거늘 그것으로써 위에 덮은 것을 菩薩은 다 본다)

- (27) 轉輪聖王₁ 量 無₁ 億衆ヲ 圍遶₁ス₁ホ 供養₁トニ₁ 頂上₁セ 白蓋₁ 量 無₁ 衆寶₁{之} 莊嚴ノ₁ 所₁ニ 以₁シホ {於}上ニテ 覆₁ラセ₁ノ **1ハニ** 菩薩₁ 悉₁ 見₁ナセ₁ | <금광 06:17-19>

(이용(2013) 현대어역: 轉輪聖王은 한량없는 億衆이 圍遶하여서 供養하는 분이시니 頂上の 白蓋는 한량없는 衆寶로 莊嚴한 바이거늘 그것으로써 위에 덮은 것을 菩薩은 다 본다)

(26)의 경우는 조금 뒤에 ‘-1ハニ’이 나타나므로 그 전체가 ‘見’의 목적어절로 **안긴문장**에 속한다. 따라서 예문 (26)은 **가설의 반례가 된다**. (27)의 서술어에 나타난 “トニ”는 <금광06:20-22>에 나타나는 “トニ₁ニ₁”의 생략표기이므로 사실은 ‘-1ハニ’가 들어 있다.²⁰⁾ 그런데 이 예문은 조금 뒤에 ‘-1ハニ’이 나타나므로 결국 그 전체가 ‘見’의 목적어절로 **안긴문장**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이 또한 **가설의 반례가 된다**.

3.3.2.4. 서술어가 전성어미로 끝나는 경우

마지막 서술어의 어미가 전성어미 ‘-1’, ‘-ム’로 끝나는 경우이다. 이 어미는 관형절이나 명사절을 이루어 안긴문장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의 동명사 어미는 연결어미처럼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성어미가 쓰였다고 해서 다 안긴문장 구조를 이루지는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반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 (28) 如來セ 三業₁ 德₁ 無極₁トロハニ₁ 我₁ム 今ハ 月光₁ 三寶₁ニ 禮₁ト白ロト₁ | <구인11:08>

(한글대장경 현대어역: 여래 3업(業)의 덕 끝이 없어 내 이제 월광(月光) 등과 3보께 예배합니다)

- (29) 彼₁ 是 思₁ム₁ 作₁ム₁ <유가16:14>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그는 이 생각함을 짓기틀)

- (30) 世間₁ 一カ 異₁ト 不₁知₁ム₁ 譬₁入₁ 空谷₁セ 響 如₁支₁ト 不₁度₁ト 亦 不₁滅₁ト₁ト₁ノ₁ 1ハニ 唯ハ 佛₁ニ₁ 能₁カ 了知₁ム₁ <금광13:14-15>

(이용(2013) 현대어역: 世間は 하나이며 다르지 않은 것이, 비유하면 空谷의 메아리 같아, 不度하고 또한 不滅하고 하는 것을 오직 부처라야 능히 了知하며)

(28)에서 “三業₁”의 서술어는 “德₁ 無極₁トロハニ₁”라는 절 전체이다. 이곳의 어미 ‘-1’은 연결어미처럼 쓰였으며, 뒤에 있는 “我₁ム”를 수식하지 않는다. 예문 (29)은 인용문의 상위문 구조이다. 이들은 가설의 반례가 못 된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전성어미가 쓰였으므로, 여기서는 양면성을 띠었다고 판단한다. (30)은 [의존명사₁ + 주격조사₁]가 ‘₁’로 적힌 경우이다. **안긴문장을 이루므로 가설의 반례가 된다**.

3.3.2.5. 서술어의 어미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생략.

20) 어떤 학자들은 ‘-1’을 종결어미로 다루기도 한다. 그렇게 본다면 뒤에 나오는 ‘...1ハニ’과 무관한 별개의 문장으로 끊어낼 수 있으므로 반례가 줄어든다. 그러나 여기서는 《석독구결사전》 442쪽을 따라 연결어미로 처리하고 반례를 인정한다.

3.3.2.6. 정리

지금까지 안긴문장 이외의 주어에 주목하여 주격조사 ‘1’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분류			석독구결			향찰		
대분류	중분류	어미(및 기타)	뒷받침 예		반례	뒷받침 예		반례
			안긴문장×	양면성△	안긴문장○	안긴문장×	양면성△	안긴문장○
전성어미	—	- 1	0	5	0	0	1	0
		- 尸	0	26	0			
		1+의존명사	0	0	4			
		尸+의존명사	0	0	7			
		- 乙	0	1	0			
연결어미	전성어미 있음	- 1 入 〓	0	13	0			
		- 1 十	0	4	0			
		- 乙 1 〓	0	2	0			
		- 乙 尸 〓	0	2	0			
		- 1 乙	0	17	1			
		- 1 ；	0	11	1			
		- 尸 ；	0	1	0			
		- 乙	0	2	0			
	전성어미 없음	- 乙	19	65	5			
		- 〓	0	12	0			
		- 乙 / 〓	0	22	0			
		- 入 十	0	16	0			
		- 米				1	0	0
종결어미	전성어미 있음	- 1 丁	0	18	0	0	2	0
		- 尸 丁	0	8	0			
		- 乎叱等耶				0	2	0
	전성어미 없음	- 1	50	79	0	3	1	0
		- 口	0	8	0	2	1	0
		- 乙	0	3	0			
		- 良/-羅/-耶				2	1	0
기타	—	如 支	0	0	2			
		명사문	0	3	0	1	2	0
		- 尸로 추정	0	1	0			
합계			69	319	20	9	10	0
비율			16.2%	74.7%	4.7%	2.1%	2.3%	0%

살펴본 용례 총 427개 중에서 반례는 총 20개가 나왔다. 3.3.2.1.에서 제시한 “**안긴문장 이외의 주어**” 가설은 대략 95.3%쯤 맞는 셈이다. 그러나 앞서 본 조사 ‘이’와 비교하면 ‘은’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반례의 수는 적으나, **양면성 용례의 비중이 70%를 웃돌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설명, 즉 ‘안긴문장의 주어’에 쓰였다고 해도 81.7%는 맞는 셈이다. 따라서 단순한 수량 비교 외에 다른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양면성 용례 중 **많은 수는 인용문** 때문에 그렇게 분류되었는데, 종교 문헌은 다른 문헌보

다 인용문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당대의 실제 언어보다 양면성 용례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화엄09:02~20:15>(현수보살이 계송으로 대답한 부분)처럼 아주 긴 인용문은 사실상 안긴문장이라 보기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인용문이 길든 짧은 모든 문장을 양면성 용례로 처리하였다. 다소 불리한 쪽으로 처리한 셈이다.

전성어미가 쓰인 경우도 되새겨볼 점이 있다. 전성어미 ‘- ㅓ, - ㅖ’은 당대 언어에서도 대개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을 이끌어 안긴문장을 이루며, 연결어미처럼 쓰이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조사 ‘ㅓ’의 서술어에 쓰인 경우는 특이하게도 연결어미처럼 쓰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성어미 본연의 기능으로 쓰인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현대국어에서도 ‘은/는’은 안긴문장의 주어에 좀처럼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안긴문장 여부에 관한 한, 본 논문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물론 옛말 연구에서 현대국어의 경향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정반대 주장, 즉 “옛날에는 ‘안긴문장의 주어’에 쓰였다가 현대에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설명 부담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를 한 마디로 줄이면, **“차자표기 자료에서, 안긴문장 주격조사로는 ‘이’가 쓰였고, 그 외의 주격조사로는 ‘은’이 쓰였다”는 것이다.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은’에 관해서나 ‘이’에 관해서나 모두 95% 이상의 용례가 안긴문장 관련 논리 하나만으로 설명된다.**

차자표기 시기 이후의 변화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성어미이다. 전성어미를 포함한 구성이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로 변화했기 때문에 안긴문장이 이어진문장이나 홀문장으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주어를 목적어로 바꾸기도 하였다. 그 결과 조사 ‘은’과 ‘이’의 분포가 크게 달라졌다.

이 글의 설명은 단순하다. 정보구조 이론에서 [화제], [초점], [지시적/관계적 신정보/구정보], [개체충위/장면충위 술어] 등등을 다양하게 동원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더욱이 안긴문장 여부는 통사론적 기준이므로 화용론적 기준보다 판별하기도 쉽고 또렷하다.

물론 정보구조 이론으로 살펴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안긴문장 속의 ‘은’이 [대조]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를 반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양면성을 떠난다고 판단한 범위가 상당히 넓다. 반례를 줄여 포용성을 넓히는 대신, 예측력이 떨어지는 설명에 이른 셈이다. 이러한 부분은 정보구조 등등 다른 관점에서 더 깊이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3.3.3. 조사 ‘者’의 분포와 기능

- ◎ ‘者’가 ‘은’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가르는 것부터가 까다로움. 그래서 일단 별개로 갈랐음.
- ◎ 주격조사로 볼 만한 ‘者’를 추려 내면 16개쯤 있고, 그 중 14개는 가설과 맞고, 2개는 불확실함.

3.4. 조사 ‘亦’의 분포와 기능

3.5. 그 밖의 주격 관련 형태

- ◎ ‘ㄱ只, 敎是’ 등등. 생략.

3.6. 마무리

참고문헌

<사전·자료집>

- 국립중앙박물관(2006), 《북녘의 문화유산》, 삼인.
- 노명호·박영제·박재우·오영선·윤경진·윤선태·최연식·이종서(2000/2011),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상) 교감역주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출판부.
-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한국역사연구회 중세1분과 나말여초연구반 편(1996), 《역주 나말여초금석문 (상) 교감역주 편》, 해안.
- 황선엽·이전경·하귀녀·이용·박진호·김성주·장경준·서민욱·이지영·서형국(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 역경위원회 역(1985), 《한글대장경45 화엄부4 화엄경(팔십권본)1》, 동국역경원.
- 이운허 초역·김월운 개역(2012), 《개역본 한글대장경 수릉엄경》, 동국역경원.
- 편집부(1995), 《한글대장경110 유가부2 유가사지론1》, 동국역경원.
- 편집부(1997), 《한글대장경206 반야부25 대승리취륙바라밀다경 외》, 동국역경원. [불설인왕반야 바라밀경 포함]
- 편집부(2009), 《한글대장경243 경집부18 북개정행소집경 외》, 동국역경원. [함부금광명경 포함]
- 한국불교전서 편찬위원회(1982), 《한국불교전서 제4책-고려시대 편 1》, 동국대학교출판부. [석 화엄교분기 원통초 포함]

<단행본, 논문>

- 고영근(2012), <민족어의 격 어미 및 부치사, 첨사 범주와 그 유형론적 함의>, 《국어학》 65, 73~108쪽.
- 고창수(1992), 《고대국어의 구조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1-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권창섭(2009), <고려본 화엄경 권제십사와 주본 화엄경 권제육의 처격조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0-1, 1~16쪽.
- 김영옥(2011b), <삼국시대 이두에 대한 기초적 논의>, 《구결연구》 27, 57~86쪽.
- 김영황(1997), 《조선어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2년 서울: 역락 영인 재출간]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유범(1999), <차자표기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1999), 《국어의 격과 조사》, 537~569쪽.
- 김지오(2010), <『함부금광명경』 자토구결의 오기>, 《구결연구》 25, 145~175쪽.

- 김지오(2012), 《균여전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오(2013), <석독구결의 처격·관형격 복합조사>, 《구결연구》 31, 137~162쪽.
- 남풍현(1996), <고대국어의 이두>, 《고문서연구》 9·10, 1~16쪽.
- 남풍현(1999a), 《국어사를 위한 구결 연구》, 태학사.
-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 남풍현(2009), 《고대한국어연구》, 시간의 물레.
- 남풍현(2011), <중고한국어의 문법 개관>, 《구결연구》 27, 5~25쪽.
- 노명호·이승재(2009),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판독 및 역주>, 대한불교조계종·국립중앙박물관(2009),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중수문서》, 50~89쪽.
- 대한민국학술원(2015),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4집-국어학·국문학·중어중문학·영어영문학》, 대한민국학술원.
- 杜林林(2014),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조사 ‘-이’, ‘-는’, ‘-으란’, ‘-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렴광호(1993), <리두에서의 ‘良中’과 ‘亦中’의 표기과정과 그 형태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68, 10~12쪽.
- 류렬(1990/2005), 《조선말력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류렬(1992/2005), 《조선말력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류렬(2003/2005), 《향가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년 서울: 박이정 출판사에서 먼저 출간됨]
- 리홍매(1998), <리두에 나타난 격형태>, 《중국조선어문》 96, 25~27쪽. [리득춘(2006), 《조선어언어력사연구》 67~75쪽에 보완 재수록]
- 박병채(1965), <고대국어의 격형 연구(一)>, 《고대60주년 기념논문집(인문과학편)》. [박병채(1990), 《고대국어학연구》 22~106쪽에 재수록]
- 박병채(1967), <고대국어의 격형 연구(續)>, 《인문논집》(고려대문과대) 8. [박병채(1990). 《고대국어학연구》 106~151쪽에 재수록]
- 박양규(1972), <국어의 처격에 대한 연구-통합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준(1999), <격조사의 통시적 연구>, 한국어학회(1999), 《국어의 격과 조사》, 455~490쪽.
- 박진호(1998), <고대국어 문법>, 국립국어연구원(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121~205쪽.
- 박진호(2005), <도치 구문의 조사 ‘-(이)여’에 대하여>, 임홍빈 외(2005),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461~470쪽.
- 박진호(2008), <향가 해독과 국어 문법사>, 《국어학》 51, 313~338쪽.
- 박희숙(1981), <십사세기 차자표기의 격조사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관동대) 9-1, 1~37쪽.
- 서종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 성광수(1998), <국어 격체계의 변천과 격표지>, 《사대논문집》(고려대) 22, 157~189쪽.
- 시정근(1999), <조사의 형태론적 연구>, 한국어학회(1999), 《국어의 격과 조사》, 265~287쪽.
- 신선경(1996), <‘있다’의 소유 구문에 대한 소고>, 《울산어문논집》(울산대) 11, 165~191쪽.
- 안병희(1959), <중기어의 부정어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 72~78쪽.
- 안병희(1987), <균여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16, 41~54쪽.
- 안정희(2011), <균여향가에 사용된 否定의 표현에 대하여>, 《구결연구》 27, 145~172쪽.

- 양주동(1942/1987),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오창명(1995), 《조선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민호(2015), 《고대 한국어 처격, 속격조사의 형태와 의미기능에 관한 연구-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 이건식(1996),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1998/2001),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승녕(1966), <15세기 국어에서의 ‘-는’계 조사의 기능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논문집》 12, 3~24쪽.
-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재(1996), <차자표기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6), 《광복 50주년 국학의 성과》, 337~362쪽.
- 이승재(2000), <차자표기 자료의 격조사 연구>, 《국어국문학》 127, 107~132쪽.
- 이승재(2015), <고대국어2>, 대한민국학술원(2015),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4집》, 39~69쪽.
- 이용(2000), 《연결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태영(1997), <국어 격조사의 변화>, 국어사연구회 편(1997), 《국어사연구: 오수 전광현·송민 선생의 화갑을 기념하여》, 701~735쪽.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119~154쪽.
- 임홍빈 외(2005),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47~80쪽.
- 정렬모(1965), 《향가연구》,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99년 서울: 한국문화사 영인 재출간]
- 정연찬(1984), <중세국어의 한 조사 ‘-으랴’에 대하여>, 《국어학》 13, 1~31쪽.
- 조은주(2002b), 《전기중세국어의 부정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재형(2009), 《‘-에’형 부사격조사의 통시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동권(2004), <몽골어 대격형 내포문주어 연구>, 《몽골학》 16, 1~18쪽.
- 최석재(2013), <조사 ‘은/는’과 ‘이/가’의 의미>, 《우리말연구》 35, 82~111쪽.
- 최철·안대회 역주(1986), 《역주 균여전》, 새문사.
- 하귀녀(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귀녀·황선엽·박진호(2009), <중세국어 보조사 ‘-으랴’의 기원>, 《형태론》 11-1, 29~42쪽.
- 홍기문 저·김지용 해제(1990), 《향가해석》, 여강출판사.
- 홍기문(1957), 《리두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1995년 서울: 한국문화사 영인 재출간]
-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2008a), <삼국유사와 균여전의 향찰 표기자 비교>, 《국어학》 51, 279~311쪽.
- 황선엽(2008b), <「안민가」 해독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문화》 42, 205~233쪽.

<학술대회 발표집 수록 자료>

안대현(2013), <「화엄경소」 권35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제4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41 ~ 85쪽.

이용(201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제4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41 ~ 225쪽.

<기타>

박지용 외 편(2012), 《향가 해독 자료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http://kb.sutra.re.kr/ritk/search/searchBranch.do>>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kostma.net>>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한글대장경 <<http://abc.dongguk.edu/ebti>>

鄉歌와 釋讀口訣에 나타난 동사 ‘ハ/기’의 意味와 機能에 대하여

南豐鉉 (단국대 명예교수)

1. 序 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古代韓國語 분야의 연구는 거의 鄉歌 研究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李崇寧 선생님은 향가 해독은 고대한국어가 再構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래까지의 연구는 이에 한참 못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향가의 해독에 열정을 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지만 그것은 15세기 한글 창제 이후의 中世語 資料에 거의 의존하였으므로 고대한국어의 모습에 근거한 해독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 이후 고대한국어의 吏讀資料와 釋讀口訣 資料들이 연이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고대한국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확인되는 古代韓國語는 中世語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는 점이 많았다고 하겠다. 우선 고대어의 동사어간은 명사에 준하는 자립성이 있었음을 들어야 하겠다. 중세어에서는 어간과 어간의 결합이 造語論의 범주에 속하지만 고대어에서는 統辭論의 범주에 들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에 따라 종래 선어말 어미로 부르던 용어는 고대어에선 보조어간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법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보조어간이 어미의 매개 없이 직접 동사어간에 연결됨을 흔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밖에 향가에 나타나는 단어나 문법들이 중세어에서는 소멸되어 그 기능을 알 수 없게 된 것도 적지 않다.

필자가 如實法 動詞라고 명명한 ‘支/디-’와 ‘多支/다디-’는 12세기초까지는 사용되었었다. 이들은 한문의 ‘如’자의 훈으로 쓰인 것으로 ‘똑같다’의 의미에서 문법화하여 모달리티로 발전함으로써 ‘똑 같다’, ‘틀림없다’의 뜻으로 쓰여 사실을 강조하는 기능을 나타내었다. 合當法 동사라고 명명한 ‘內/아’는 ‘良/아-’로도 쓰이는데 본래 ‘어질다’, ‘착하다’의 뜻에서 ‘착하게 생각하다’의 뜻으로 발달하여 尊者에 대한 겸양의 표현으로 쓰였다. 겸양법의 조동사 ‘白/숯-’은 9세기 후반에 와서야 발달하기 시작하여 이 ‘內/아’의 기능을 이어 받았고 10세기 이후에는 복합어 ‘白內/숯아’로 쓰여 겸양의 뜻을 중복하여 표현하는 형태로 쓰였다, 이 ‘白/숯’이 중세어에 와서 보조어간 ‘습’으로 발달한 것이니 이 조동사를 중세어에서와 같은 보조어간으로 다루면 잘못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대어의 문법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향가를 새롭게 해독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아직도 밝혀야 할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오늘 여기서 검토하려고 하는 동사 ‘只/기-’의 기능과 의미도 중세어에서는 사라진 고대어의 한 모습을 찾아 보고자하는 것이다.

2. 動詞 ‘只/기’의 用法과 意味

‘只/기-’는 중세어 시대에는 없어진 동사이다. 향가에서 동사 ‘只/기’의 용례를 보면 遇敵歌와 普賢十願歌의 懺悔業障歌에 한 번씩 쓰였다.

- ㄱ) 兒史 毛達 只將來 吞隱<遇敵>
- ㄴ) 十方叱 仏体 闕古 只賜立<懺悔>

ㄱ) 遇敵歌의 여러 해독자들 가운데서 ‘只’를 ‘기’음으로 읽은 이는 몇 있었지만 이를 동사로 본 것은 金完鎭(1980)에서 처음으로 있었다. 그러나 ‘只’자는 ‘見’자의 초서체를 誤讀한 데서 온 것으로 보는 데 그치었다. ㄴ)의 ‘只賜/기시-’는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석독구결에 극존대의 조동사로 쓰여 많은 용례를 볼 수 있는 형태이다.

‘只’자는 ‘기’음과 ‘ㄱ’음의 두 음의 표기에 사용되었다.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鄉藥救急方』의 鄉名表記에서 ‘只’자의 용례들이 이 사실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 ㄱ) 木賊; 省只草/속새
- ㄴ) 楮; 茶只葉/닥나무, 多只/닥
- ㄷ) 藍; 俗云 靑乙召只 非也(세속에서 말하는 ‘靑乙召只/플죽’은 아니다)
- ㄹ) 枳; 只沙里皮/기사리거플
- ㄴ) 麩; 只火乙/기불(>기울)
- ㄷ) 黍米; 只叱/깃(>기장)
- ㄴ) 遠志; 阿只草/아기플

ㄱ), ㄴ), ㄷ)은 ‘只’자가 ‘ㄱ’말음으로 쓰인 예들이다. ㄹ), ㄴ), ㄷ)은 ‘只’자가 ‘기’음으로 쓰인 예들이다. 향가에서도 ‘只’는 ‘ㄱ’음과 ‘기’음의 두 가지 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 ㄱ) 使以惡只/브리악<兜率>
- ㄴ) 捨遣只/브리곡<安民>
- ㄷ) 唯只/오직<遇敵>
- ㄹ) 毛叱所只/뭇드록<禮敬>
- ㄴ) 回良只/돌악<普皆>
- ㄷ) 密只/그스기<薯童>
- ㄴ) 必只/반드기<稱讚>

위의 ㄱ)~ㄴ)은 ‘只’가 ‘ㄱ’음의 표기에 사용된 예이고 ㄷ)과 ㄴ)은 ‘기’음의 표기에 사용된 예이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는 ‘只’의 약체자인 ‘ハ’가 쓰였는데 ‘最ハ/안직’, ‘唯ハ/오직’, ‘ㄴハ/헝악’, ‘ㄴ로ハ/헝곡’ 등은 ‘ㄱ’음의 표기에 쓰인 예이고 ‘當ハ/반드기’, ‘事ハ白호/섬기 솟아금’, ‘如ハ/긔기’ 등은 ‘기’음으로 쓰인 예들이다. 근래에 석독구결의 ‘ハ’자를 ‘ㄱ’음으로만 읽거나 ‘기’음으로만 읽는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참고로 이 글에서 사용되는 석독구결의 구결자의 목록을 제시한다.

법 보조어간 ‘ㅈ/거’와 의도법 보조어간 ‘ㅅ/오’가 결합된 형태로 추정된다. 이 확신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분명’이란 부사를 첨가하여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서법의 해석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ㄱ)의 ‘已^シッロ’의 ‘已^シ/이미사’는 중세어의 ‘이미셔’의 先代形이다. 그에 이어지는 ‘ㅈ/기’는 동사이고 ‘ㄴ/ㄴ’은 동명사어미와 주제의 보조사가 결합되었다가 동명사어미가 축약되어 주제의 보조사가 남은 것이다. 이 시대의 보조사 ‘ㄴ/은’은 조건법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ㅈ ㄴ/긴’을 ‘되면’으로도 해석하였다. 동사 ‘ㅈ/기’는 ㄱ)에서는 ‘(하고) 나서는’으로 해석되었고 ㄴ)에서는 ‘(하게) 되면’으로 해석되었다. ㄷ)의 ‘訖^シロ ㅈ^シ’의 ‘訖^シ’은 ‘마치다’의 뜻이지만 ‘ㅈ/음’으로 끝나는 고대어의 어형은 알 수 없다. ‘ㅈ^シ’은 ‘기늘’로 읽히는데 ‘ㅈ/늘’은 동명사 어미 ‘ㄴ/은’과 대격조사 ‘ㄷ/을’이 결합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ㅈ^シ/기늘’을 ‘-게 되면’으로 해석하였으나 ‘하고 나서는’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ㄷ)의 ‘度^シロ ㅈ^シ/건너이고 기제’의 ‘度^シ/건너이-’는 사역형이고 ‘ㅈ^シ’는 이두에서 자주 쓰이는 ‘齊’자의 약체자로 ‘願望’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度^シ로 ㅈ^シ/건너이고 기제’는 ‘건너게 하고자 하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사 ‘ㅈ/기’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하고 나서는’, ‘하게 되면’, ‘하게 하다’의 뜻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동사의 중심의미라고 짚어 말하기는 어렵다. 이들 ㄱ), ㄴ), ㄷ), ㄷ)의 주어인 행동주는 ‘보살’이다. 동사 ‘ㅈ/기-’는 ‘하고 나서는’, ‘하게 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품위 있게 하는 행위’ 곧 ‘점잖게 하는 수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ㄱ) 世間¹ 何^シ 處^ニ 從^テ 來^ツ 去^リ ㅈ^シ 何^シ 所^ニ 至^ル <화소8,6> (세상 사람은 어느 곳으로부터 오며, 가게 되면 어느 곳에 이르며)
 ㄴ) 是^ハ {如^シ} ㅈ^シ ㅈ^シ {乃^シ} 他^ニ 信^シ 施^テ 受^ル {應^シ} ㅈ^シ <유가17,20> (이와 같이 하여서야 남의 信施를 받음이 마땅하며)

3)의 예들은 동사 ‘ㅈ/기’가 보조어간 ‘ㅅ/아’에 연결된 것이다. ‘ㅅ/아’는 연결어미로 볼 수도 있으나 1), 2)의 용법에서 준하면 확인법 보조어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ㄱ)의 ‘去^リ ㅈ^シ/가아 긴’은 ‘가게 되면’으로 해석된다. 여기서의 ‘ㅈ^シ/긴’은 2)의 ㄱ), ㄴ)의 용법과 같은 것이다. ㄴ)의 ‘{如^シ} ㅈ^シ/디하아 기사’의 ‘ㅅ/사’는 강세의 보조사인데 뒤에 이어지는 ‘乃^シ’와 중복된 것이어서 해석할 때는 하나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如^シ} ㅈ^シ (이와 같이 하여)’는 그 앞에서 말한 ‘善品을 부지런히 닦는 것’을 받고 있어서 ‘是^ハ {如^シ} ㅈ^シ/이 디하아 기사’는 ‘선품을 부지런히 닦고 나서야’로 해석할 수 있다. ㄱ)의 주어는 ‘世間の 사람들’이고 ㄴ)의 주어는 ‘出家者인 수도자’이다. 동사 ‘ㅈ/기’는 ‘가게 되다’, ‘하고 나서’로 해석되었는데 ‘이들 점잖은 사람의 수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ㄱ) {是^ハ} 月^ノ 光^ノ 王¹ …… 四^ノ 住^セ 開^ル 土^ノ ㅈ^シ {爲^ス}의 ㄴ ㅈ^シ 我¹ 八^ノ 住^セ 菩^ノ 薩^ノ ㅈ^シ {爲^ス}의 ㄴ ㅈ^シ 今¹ {於^ニ} 我¹ 前^ノ ㅈ^シ 大^ノ 師^ノ 子^ノ ㅈ^シ <구인11,22> (이 月^ノ 光^ノ 王은……4住의 보살이 되어 있었거늘 나는 8住 보살이 되어 있었사오므로, 지금 내 앞에서 大^ノ 師^ノ 子를 하는 것이다)

- 4)의 ‘菩^ノ 薩^ノ ㅈ^シ {爲^ス} ㅈ^シ ㅈ^シ 今¹ {於^ニ} 我¹ 前^ノ ㅈ^シ 大^ノ 師^ノ 子^ノ ㅈ^シ’의 ‘菩^ノ 薩^ノ ㅈ^シ {爲^ス} ㅈ^시’는 ‘보살이 되다’의

뜻이다. 고대에는 ‘되다(되+<되-)>’라는 동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니尸{爲}스乙 ヽ/-일 들 ㅎ-’가 그 뜻을 표현하고 있다. ‘1/다’는 과거시제보조어간의 ‘-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1/다(더)’에 조동사 ‘ハ/기’, 겸양의 조동사 ‘白/숯’, 합당법(겸양)의 조동사 ‘5/아’가 잇달아 연결되고 그 뒤에 원인을 나타내는 ‘1스 3-/니 드로’가 연결되었다. ‘白/숯’과 ‘5/아’는 겸양을 나타내는 조동사 둘이 합쳐진 것으로 이두에서는 ‘白內’로 표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조동사 ‘ハ/기’가 들어나는데 동사어간들과 보조어간들이 5개가 연결되므로 중세어의 문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동사 ‘ハ/기’의 해석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되다’의 뜻이 앞에 ‘니尸{爲}스乙 ヽ-’로 나타나서 이중으로 쓰인 데에 말미암은 것이다. 즉 ‘ハ/기’도 ‘되다’의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여기서 ‘我/나’는 ‘부처님’이므로 동사 ‘ハ/기’는 ‘부처님의 점잖은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3. 極尊待의 動詞 ‘하느, =/기시’의 用法

다음은 극존대의 ‘ハ ㄸ/기시’, ‘ハ ㅁ/기시’의 분포와 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ハ ㄸ/기시’의 ‘ㄸ’자는 신라시대부터 이두와 향가에서 존대의 보조어간으로 사용되어 온 ‘賜’자의 약체자이다. 이 ‘ハ ㄸ/기시’는 <華嚴經疏 권21>과 <華嚴經 권14>의 석독구결에 사용된 것으로 11세기 말과 12세기 초까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ハ ㅁ/기시’의 ‘ㅁ’는 ‘示’자의 약체자로 12세기초의 석독구결에 쓰이기 시작하여 13세기의 석독구결에서 ‘ハ ㄸ/기시’를 제치고 널리 쓰였다. 석독구결에서는 ‘ハ ㄸ, ㅁ/기시’와 ‘ㅍ ㅁ/헝시’가 함께 쓰였는데 ‘ㅍ ㅁ’는 존대 일반에 널리 쓰였고 ‘ハ ㄸ/기시’는 ‘ㅍ ㅁ’보다는 존대의 격이 높은 경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 ‘ハニ/기시’는 이두에서는 ‘敎是’가 쓰였다.

- ㄱ) 田丁乙良 田畚 并一百結 奴婢乙良 各十口 賜給敎是齊<유경상서도관첩, 1262> (田丁의 경우는, 田畚 모두 100 結, 奴婢의 경우는 각 10 口를 賜給하신다)
- ㄴ) 凡 徒流人亦 路次良中 逢音 有旨 在白敎是去等<대명률직해 ‘徒流人在道會赦’ 條, 1395> (무릇 徒流인이 유배가던 길에서 마침 有旨가 있으시옵거든)

ㄱ)의 ‘賜給 敎是齊/기시제’의 ‘敎是/기시’는 王命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敎是/기시’는 왕에 대한 극존대 표현이다. ㄴ)의 ‘在白敎是去等/겨숯기시거든’의 ‘敎是/기시’도 왕의 명령인 ‘有旨’로 보아 왕을 높이는 극존대의 표현이다. 이로 보면 ‘ㄴ=/히시’보다는 더 높이 존대한 것이 ‘ハ=/기시’임을 알 수 있다. ‘敎是’에 대한 조선시대 이두학습서인 吏文大師, 儒胥必知, 典律通補 등의 독법에서는 ‘이시-’로 읽었으나 이는 동사 ‘只, ハ/기’가 없어지면서 와전된 것이다.

5. ㄱ) 大王₁ 當₁ 知₁ロ ハ₁ホ₁立 我₁ 今₁ 衰₁老₁ッ₁…〈화소10,17-18〉 (대왕이시여 만드시 꼭 알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 衰老하여…)
- ㄴ) 惟₁ハ 願₁ロ₁入₁ 大王₁リ₁ホ₁入₁ 之₁乙 捨₁ッ₁ホ 我₁ヲ₁ 與₁ッ₁ロ ハ₁ホ₁ホ〈화11,19-20〉 (오직 원하는 것은 대왕께서는 그것을 버리어서 나에게 꼭 주시며)
- ㄷ) 仁₁ニ …… 修₁行₁ッ₁ホ₁イ₁ 七₁ヒセ 勝₁功₁德₁乙 演₁暢₁ッ₁ロ ハ₁ホ₁立〈화엄8,24〉 (당신아…… 修行하신 바의 勝功德를 꼭 演暢하여 주십시오)

- ㄷ) 作樂ノムカ 亦ッ1……量 無ヒ1 音樂乙 作ッ3 如來乙 覺寤ッリ白ロ ハニ1 <구인3,12> (음악을 하는 이도 또한……無限한 음악을 지어 여래를 覺寤하시웁게 하시니)
- ㄹ) 生死流乙 逆ニホヒ 道1 甚 深ッ3 微ッ3 ヌニ下 難シ 見白ノオロ ハニ1 <금광15,1> (生死流을 거스르는 道는 심히 깊고 미세하고 하시어 뵈게 되기가 어려우시니)

5)의 예들은 확신법 보조어간 ‘ロ/고’와 ‘ハニ(ニ)/기시’가 연결된 예들이다. 이 연결은 매우 많은 용례들이 있다. 확신법의 ‘로/고’는 현대어로는 번역하기가 어려워 부사 ‘꼭’을 넣어 해석하여 보았다. ‘ハ/기’의 의미는 ‘ㅎ-’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드러내기가 어렵다. 본동사로 쓰이지 못하고 조동사로만 쓰인 것이어서 그 의미를 드러내기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주어로 보면 ㄱ)과 ㄴ)은 賤人이 부른 ‘大王’이고 ㄷ)의 ‘仁’은 賢首菩薩을 지칭한 것이다. ㄷ)의 ‘覺寤ッリ白ロ ハニ1’에서 ‘ッリ/ㅎ’이 동사 ‘ッ/ㅎ’의 사역형이고, 조동사 ‘白/畚’은 ‘作樂ノムカ/作樂흥도(작락하는 이도)’가 如來에 대하여 겸양을 나타낸 것이고 ‘ハニ/기시’가 여래가 하는 행위를 존대한 것이다. ㄹ)은 세존이 ‘道’를 극존대하여 말한 것이다. ㄱ), ㄴ), ㄷ)의 ‘ハニ/기시’는 ‘주시다’로 해석하고 ㄷ), ㄹ)은 ‘하게 되다’로 해석하여 보았으나 ‘존자를 극존대한 것’이라는 점 이외에는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6. ㄱ) 大覺世尊1…… 天王問般若波羅蜜： 光讚般若波羅蜜： ノ乙 説ッ ハニリ1 <구인2,20-23> (大覺世尊은……天王問般若波羅蜜과 光讚般若波羅蜜과 하는 것들을 분명연설하셨습니다)
- ㄴ) 佛1 大王ヲ十 告ニム 汝1 {於}過去セ 七佛十 已シ 一リヒセ 義： 二リヒセ 義：ノ乙 問白ッ ハニ1 リ四 汝1 今ッ1 聽ノム 無ヒカ……<구인14,20-21> (부처님은 대왕에게 말하시기를 그대는 과거의 七佛께 이미 하나인 뜻과 둘인 뜻과 하는 것을 분명 여주시었으므로 당신은 지금 들을 것 없으며……)
- ㄷ) {於}解ッ十 常ニ 自ニ 一リカ {於}諦ッ十 常ニ 自ヲニ 二リ1リ3セ1ッ3 {此}ニ 無二ッ1入乙 通達ッ3 ハニ1 乙 <구인15,5-6> (알면 항상 스스로 하나이며, 깨달으면 항상 스스로 둘이로다 하여 이 無二한 것을 분명히 통달하고 나신 것을)

6)의 예는 확인법 보조어간 ‘3/아’와 극존대의 조동사 ‘ハニ/기시’가 연결된 예들이다. ‘3/아’는 연결어미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다음에 이어지는 ‘ハ/기’의 여러 용례들로 보면 보조어간으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 이 ‘3/아’에 대한 해석으로 부사 ‘분명’을 넣어 확인법의 기능을 표시해 보았다. ㄱ)은 ‘大覺世尊’에 대한 극존대이고 ㄴ)은 佛이 청자인 ‘大王’을 극존대한 것이다. ㄷ)도 부처님이 ‘大王’을 극존대하여 말한 것이다. 여기서 ‘ハ/기’의 뜻을 구태어 찾는다면 ‘하고 나서’ 정도가 될 것 같다.

7. ㄱ) 人リ 而ニ 來ッ3ホ 白ッ 言白ナム丁 {此}ニ 轉輪位ッ十 王1 處ッホイ1ム 已シ 久ホ ハニロ1 ニ <화소11,18-19> (어떤 사람이 와서 아뢰었다. 이 轉輪王位에 王은 처하심에 있어 이미 분명 오래 계시니)
- ㄴ) 一切 衆生1 {暫}ニヒセ 報ッ十 住ッロ1乙 金剛原ッ十 登ッホ ハニ1 리3 淨土ッ十 居ッニリ3 セ1 <구인11,7> (모든 중생은 잠간 과보에 머물지만 金剛原에 분명 올라 계신이라야 淨土에 마땅히居하심직 하다)
- ㄷ) (有스 無스1……) {此}ニ 無二ッ1入乙 通達ッ3 ハニ1 乙 眞ニ 第一義ッ十 入ッホ ハニ1 리3 ノオナ1 <구인15,7> (有와 無와는) 이것이 둘이 아님을 통달하고 계신 이를 참 第一義에 분명 들어가

계신 분이라고 할 것이다)

ㄱ) 五眼¹¹ 成就¹² ソハハニ 時¹³ 見¹⁴ 所¹⁵ 無¹⁶ <구인 15, 16> (五眼이 분명 성취하여 계시 때에, 보시지만 보는 바가 없으시며)

7)의 예는 확인법 보조어간 ‘ㅁ/거와 조동사 ‘ㅁㅁ/기시’가 연결된 것이다. ㄱ)은 菩薩인 왕에게 或人이 와서 한 말로 王을 극존대한 것이다. ㄴ)은 ‘金剛原에 오른 이’에 대한 극존대이다. ㄷ)은 ‘확실하게 통달하신 이’를 존대한 것이고 ㄹ)은 ‘성취하신 보살’을 존대한 것이다. 여기서 ‘ㅁㅁ/기시’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것’, 즉 ‘계시다’의 뜻으로 해석하여 보았다. 이를 달리 ‘하계 되시다’로 해석하여도 문맥의 뜻은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8. 7) 其 會^ニ 方廣^一 九百五十里^ニ 1 乙 大衆^ニ 僉^テ 然^ル 而^{シテ} 坐^ッ ヒ ハニ | <구인2,8-9> (그 會場의 넓이는 950리이거늘 大衆이 모두 坐하여 계시다)

ㄴ) 大衆1 歡喜ッ 各々各々ホ 量 無セ1 神通乙 現リヒ ハニ1 : <구인3,14> (大衆은 환희하여 각
각 무한한神通을 나타내고 계시니)

ㄷ) 地: 及ハ 虚空: ノヲ十 大衆ニ 而… 住ッヒ ハニ | <구인3,15> (땅과 허공과 하는 것에 대중이
住하여 계시다)

己) 衆生乙 度ッ(爲)ス ヲニ尸入ム 故ノ 分別ッ 三乘乙 說ニロ1137セ1 ソヒ ハニ1<금광
13.16-17>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시므로 분별하여 三乘을 분명히 연설하시는 것이라다 하여 계시다)

口) 三万億 菩薩摩訶薩 1 無生法忍 乙 得 也 ハニク <금광14,22-23> (三万億 菩薩摩訶薩은 無生法忍을 얻어 계시며)

8)의 예들은 現在時를 나타내는 보조어간 ‘ㅌ/ㄴ’와 조동사 ‘ㅅ/기’가 연결된 것이다. ㄱ), ㄴ), ㄷ)의 주어는 大衆이다. 大衆은 부처님의 큰 제자들이므로 극존대를 받고 있다. ㄹ)의 주어는 부처님이고 ㅁ)의 주어는 보살마하살이어서 극존대를 하고 있다. 여기서의 조동사 ‘ㅅ/기’는 ‘계시다’, ‘하시다’로 번역하였으나 ‘품위 있는 행동을 하심’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9. 7) 衆1 多1 리1 刹1 或1 有1 나1 佛1 矢1 有1 나1 而1 否1 1 矢1 ; 或1 나1 佛1 矢1 無1 而1 否1 1 矢1 ; <화엄15,10>
(많고 많은 세계는 혹은 부처님이 계시 곳도 있고 혹은 부처님이 없으신 곳도 있다)

ㄴ) 量 無^ㄱ 1 菩薩: 比丘: 八部: ^ㄴ今^ㄴ 大衆^ㄴ 有^ㄴ ハニ下 各^ㄴ 各^ㄴ 各^ㄴ 寶蓮花^ㄴ 十 坐^ㄴ ^ㄴニ^ㄴ かく^ㄴ 子^ㄴ
인2.4> (限量 없는菩薩과比丘와八部와 하는大衆이 계시어서寶蓮花에坐하시며)

ㄷ) 是時+大自在梵王1 {於}大會中+ ソナハニ 1 座乙從_レ而_レ起_ニ <금광13,18> (이 때 대自在梵王은大會의 가운데에 계신데,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9)의 예들은 持續相을 나타내는 조동사 ‘ナ/겨’와 극존대의 조동사 ‘ハニ(ニ)/기시’가 연결된 것이다. ㄱ)과 ㄴ)은 각각 부처와 대중이 주어이므로 극존대를 한 것이다. 이 두 예에서는 ‘有ナ/잇겨(있으시-)’에 ‘ハニ/기시’가 연결되었는데 이 둘을 합하여 ‘계시다’로 해석하였다. ㄷ)의 ‘中ナ + ヅナ/中아고 흐겨-’도 ‘그 중에 있다’의 뜻이므로 ‘ハニ/기시’와 합하여 ‘계시다’로 해석하였다. 조동사 ‘ハニ/기시’는 ‘존자의 품위 있는 어떤 행위’인데 문맥에 따라서는 ‘계시다’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10. 是 金光明經乙 說尸 已シッ自 ハニ 1 三万億 菩薩摩訶薩 1 無生法忍乙 得モ ハニカ<금광14,22-23>

(이 금광명경을 이미 연설하시니 삼만억 보살마하살은 무생법인을 얻으시며)

10)의 예는 겸양의 조동사 ‘白/숯’과 극존대의 조동사 ‘ハニ/기시’가 연결된 것이다. ‘說尸已シッ自ハニ/니를 이피사 ㅎ숯 기신(연설하기를 이미 하오시니)’의 ‘說尸/니를’은 ‘부처가 연설한 것’이고 ‘ッ自/ㅎ숯’은 부처가 금강명경에 대하여 겸양을 한 것이다. 그 다음의 ‘ハニ/기시’는 ‘부처님의 행위를 존대한 것’이다. ‘1/ㄴ’은 동명사어미인데 여기서는 연결어미의 기능을 하므로 ‘-니’로 번역하였다. 이 ‘自/숯’과 ‘ハニ/기시’의 연결은 석독구결에서도 한번밖에 용례를 보여 주지 않지만 ‘ハニ/기시’의 분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예이다. 이 문맥에서도 ‘ハニ’의 의미는 한마디로 집어낼 수 없지만 ‘부처님의 행위를 존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4. 동사 ‘{爲}ハ/기’의 용법과 의미

동사 {爲}ハ/기)는 瑜伽師地論 권20의 석독구결에서만 볼 수 있는 예들이다. 이는 한문의 ‘爲’자에 ‘ハ’자를 현토한 것인데 이제까지 ‘爲ハ’의 독법을 알 수가 없어 고심하였던 것이다. 한문의 ‘爲’자는 그 쓰임에 따라 ‘ッ/ㅎ-’, ‘シッ/삼-’, ‘ス/과(하고자)’, ‘ハ/爲}ハニ ヌ(되다)’ 등의 훈이 있었으나 ‘爲ハ’에 대하여는 그 독법과 의미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혹 ‘爲ハ’를 ‘삼기-’의 표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였으나 <유가>에는 다음과 같은 ‘{爲}-ハ/삼이-’가 있어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爲}-ハ’에서 ‘-’자는 ‘三’자의 省劃字로 ‘삼’으로 읽히는 것이고 ‘ハ’자는 ‘是’자의 생획자로 ‘이’음으로 읽혀 동사 ‘三/삼-’의 사역형이나 사동·피동형을 만드는 형태이다. ‘{爲}-ハ/삼이-’의 용례들을 보자.

此 尋思 擾動ノハ 所ニ 由リ 障導ニ {爲}-ハ 入ル 故ノ<유가8,10> (이 尋思로 擾動한 바로 말미암아 장애를 생기게 하므로)

能カ 障導ニ {爲}-ハ 入ル 有ッ 所ニ 煩惱ニ 1<유가30,8> (능히 장애가 생기게 하는 있는 바의 변뇌인)

위의 예문들에서 ‘{爲}-ハ-’는 ‘삼이-’로 읽히는데 ‘ハ/이’는 사동·피동의 접미사이다. ‘{爲}-ハ/삼이-’는 ‘만들게 하다’, ‘생기다’로 해석이 가능한데, ‘만들게 하다’는 사역형이고 ‘생기다’는 사동도 되고 피동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에 ‘{爲}-ハ/삼이-’가 있는데 ‘삼기-’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는가 하는 데는 의심을 하게 된다.

다음은 동사 ‘{爲}ハ/기’가 被動文의 서술어로 쓰인 예들이다.

11. 7) 又 尋思 擾亂ノハ 所ニ {爲}ハ 入ル 故ノ<유가10,9> (또 尋思로 인해 요란하는 바를 입은 까닭으로) (또 심사로 요란해지기 때문에)

ㄴ) 是 {如}支 精勤ヲ 善品ニ 修ッ 者ハ 略々 四苦ヲ {之} 隨逐ノハ 所ニ {爲}ハ 入ル 故ノ<유가18,1-2> (이와 같이 부지런히 善品을 닦는 이는 간략히 말하면 四苦가 뒤쫓는 바를 입는다.)

ㄷ) 是ハ 生老病死ヲ 法ニ 入ル 故ノ 內壞苦ヲ {之} 隨逐ノハ 所ニ {爲}ハ 入ル 故ノ<유가18,4-5> (이는 생로병사의 법인 까닭으로 內壞苦가 뒤쫓는 바를 입으며)

11)의 예들은 ‘ノハ 所ニ {爲}ハ-/홀 바를 기-’의 형태로 피동형을 나타냄을 보여 준다.

이를 ‘하는 바를 입다’로 해석하였으나 ‘하는 바가 되다’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석독구결의 대격은 현대어에선 주격으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경우들이 있다. 고대어에서는 ‘되다’라는 단어가 없고 ‘ハ/기’가 그 뜻을 나타내는데 이는 ‘ハ/기’ 동사가 대격의 ‘ハ/기’를 지배하는 형식이다. 이것이 중세어에서 자동사 ‘되다’로 대체된 것인데 이 경우 대격은 주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 문맥에서도 ‘所ハ/바를 기’의 대격구문을 ‘바가 되다’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爲}ハ/기’가 ‘입다’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이 현대어에서는 피동으로 해석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12. 7) 然ッヲ 他 種種セ 障導リ 生起ノルハセ {爲}ハ/기 過失 {有} ヲカ<유가13,20> (그러나 다른 갖가지 장애가 생겨나는 것을 입게 되는 과실을 가지며)

ㄴ) 亦 彼 同梵行者ヲ 法ハ {以} 阿攢ノルハセ {爲}ハ/기 不奉ッヲ ヲカ<유가17,11-12> (또 저 동료 수행자의 법을 가지고 阿攢(꾸짖고 배척함)함을 입지 않고 하며)

ㄷ) 彼ハ 是 如ッヲ 四苦ヲ 隨逐ノルハセ {爲}ハ/기 七相ハ {以} 審正觀察ノヲ {應}セッヲ 四<유가18,7-8> (그는 이와 같은 四苦가 뒤쫓음을 입지만, 七相으로써 審正觀察함이 마땅한 것이라)

ㄹ) 我ハ 今 苦ヲ 隨逐ノルハセ {爲}ハ/기 {於}勝定ト 自在ッヲ 獲得 未ハッヲ 十<유가18,15-17> (나는 이제 苦의 隨逐함을 입어 勝定에서 자재함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12)의 예들은 ‘ハ/기’의 구문으로 11)의 ‘ハ/기’의 구문을 ‘所ハ/바를 기’의 ‘所ハ/바를’을 ‘ハ/기’로 대체한 被動 표현이다. 이 역시 직역하여 ‘하는 것을 입다’로 해석하였으나 ‘하는 것이 되다’로 해석하면 被動의 표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문의 ‘{爲}ハ/기’를 ‘삼기’로 읽고 동사 ‘삼-’의 피동형이나 사동형으로 보는 안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세어에서도 ‘삼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근대어에서 그 용례들을 볼 수 있는데 대개는 ‘하늘(天)’이 ‘사물을 만드는 것’을 나타내어 직접적인 피동은 보여주지 않는다. 위에 든 ‘苦ヲ 隨逐ノルハセ {爲}ハ/기’를 ‘苦의 隨逐함을 들 삼기’로 읽으면 ‘苦가 뒤쫓는 것을 만들어’의 뜻이 되어 피동으로 해석되지가 않는다. 이런 점에서 ‘{爲}ハ/기’는 ‘기’로 읽고 피동표현을 하는 동사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조동사 ‘{爲}ハ/기’는 피동을 나타내는데 그 주체는 모두 수도자들이다. 따라서 ‘{爲}ハ/기’가 나타내는 의미는 ‘수도자들의 품위 있는 행위’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爲}ハ/기’를 ‘-을 입다’로 해석하거나 ‘-이 되다’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앞의 2.와 3.에서 동사 ‘ハ/기’가 ‘생기다’, ‘되다’, ‘입다’의 뜻으로 쓰인 것과 맥락이 닿는다. ‘ハ/기’는 능동적인 동사이기보다는 피동적, 수동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5. 향가의 동사 ‘只/기’의 해독

제2장에서 향가의 다음 구절들을 들고 여기에 쓰인 ‘只’자의 해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제 석독구결을 통하여 그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 구절들을 해독해 보기로 한다.

7) 自矣 心米

兒史 毛達 只 將來 吞隱<遇敵歌>

ㄴ) 十方叱 仏体 闕古 只賜立<懺悔業障歌>

遇敵歌의 이 두 구절은 이 노래의 제1구와 제2구이다. 우적가는 모두 10구로 되어 있다. 이 구성에 대하여 필자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첫 4구는 작자인 永才가 도적들에게 자기의 삶과 인생관에 대하여 노래한 것이다. 두번째 4구는 도적들이 그 기본이 착한 衆生임을 말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리고 끝 2구에서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 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파악을 기초로 하여 첫 2구인 ㄱ)의 내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제1구인 ‘自 矣 心米/저의 ㅁ스ㅁ’는 ‘나 스스로의 마음에’로 풀이할 수 있다. 제2구의 ‘兒史/짓’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살아온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毛達/모들’은 ‘不冬/안들’과도 연관되는데 ‘ㅁ’의 고대어형이다. ‘只/기’가 이제까지 검토하여 온 동사이다. 여기서는 ‘점잖게 행동하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將來’는 이제까지 중세어의 ‘-려’로 해독하여 왔으나 고대어에선 ‘-려’라는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뜻을 달리 생각하여야 하는데 중국어에서 ‘將來’가 쓰이는 본래의 뜻을 고려하게 된다. 중국어에서 ‘將來’는 ‘전부터 그렇게 하여 오다’의 뜻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단어를 직역하여 ‘가지오-’로 해독할 수가 있다. 차차 표기에서는 동명사어미의 표기가 흔히 생략되므로 이를 ‘가지온’으로 읽을 수 있다. ‘只將來’는 ‘기가지온’을 표기한 것으로 어간과 어간이 결합된 형태로 읽어야 한다. ‘吞隱’은 ‘든’으로 읽힌다. ‘ㅁ’는 여실법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똑 같은 것’, ‘바로 그것’과 같은 강조의 뜻을 담고 있다. ‘隱/은’은 주체의 보조사인테 여기서는 ‘-마는’과 같은 뜻을 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해독을 정리하면 ‘나 스스로의 마음에 나의 삶의 모습을 점잖게 가져 오지 못하였건마는’ 정도로 해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동사 ‘只/기’의 의미가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遇敵歌 전반의 해독은 稿를 달리하여 발표할 생각으로 있다.

ㄴ)의 ‘十方叱 仏体’는 ‘十方의 부처님’으로 해독되고 ‘闕’은 동사로 파악되어 ‘알다(知)’의 뜻이고 ‘古 只賜立/고 기시셔’는 석도구결에서 보아온 ‘ㅁ ㅏ ㅏ ㅏ ㅏ’와 일치하는 것이니 ‘古/고’는 확실히 보조어간 ‘只賜/기시’는 극존대의 형태로 동사 ‘只/기’와 존대의 보조어간 ‘賜/시’가 결합된 형태이다. ‘立/셔’는 존자에게 하는 명령법어미이다. 이로써 ‘闕古 只賜立’는 ‘꼭 알아 주십시오’하는 願望의 명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6. 結 語

이제까지 동사 ‘ㅏ/기’에 대하여 검토하여 온 것을 정리하고 보충과 아울러 마무리를 하기로 한다.

동사 ‘ㅏ/기’는 중세어에서는 이미 없어진 단어이고 그 의미를 짚어 내기가 어려운 단어이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존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품위 있는 행위’, 또는 ‘모범적인 행동’,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나타내는 타동사 정도로밖에는 그 의미와 기능을 짚어내기가 어렵다. 遇敵歌에 쓰인 동사 ‘只/기’는 ‘점잖게 수동적으로 행동하다’, ‘바람직하게 행동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懺悔業障歌에 나오는 ‘-古 只賜/기시’는 석도구결에서 흔히 사용된 극존대의 조동사와 보조어간의 결합체이다.

먼저 동사 ‘ㅏ/기’의 앞뒤에 오는 형태들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설명하고 넘어 갈 사항들이 있다. 고대어에서는 동사와 동사의 연결이 어미의 매개 없이 어간과 어간의 연결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이 연결은 조어법적 차원이 아니라 통사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어간의 일종인 보조어간을 현대국어의 학교문법에 준하여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것은 고대어의 문법에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이다. 석독구결의 吐에서 보조어간과 조동사가 직접 연결되는 문법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을 선어말어미와 조동사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의 문법기술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ハ/기’ 동사의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ハ/기’ 동사의 앞에 오는 형태

- ㄱ) 보조사; ㄴㄷ/붓
- ㄴ) 보조어간; 확신법의 ‘ㄱ/고’
확인법의 ‘ㄴ/아’
과거시상의 ‘ㄴ/다(→더)

2. 극존대의 ‘ハ ㄴ, ハ ㄴ/기시’ 형태의 앞에 오는 형태.

- ㄱ) 보조어간; 확신법: ‘ㄱ/고’
확인법1: ‘ㄴ/아’
확인법2: ‘ㄴ/거’
현재시상: ‘ㄴ/느’
- ㄴ) 조동사; 지속상: ‘ㄴ/겨’
겸양법: ‘ㄴ/숯’
- ㄷ) 피동법; ‘所 ㄴ/바를’
‘ㄴ ㄴ/들’

3. 동사 ‘ハ/기’의 뒤에 오는 형태

- ㄱ) 동명사어미: - ㄴ/ㄷ, - ㄴ/ㄴ
- ㄴ) 접속어미: - ㄴ/늘
- ㄷ) 원망의 종결어미: - ㄴ/제
- ㄸ) 강세의 보조사: ㄴ/사
- ㄹ) 겸양의 조동사: ‘ㄴ/숯’

4. 극존대의 ‘ハ ㄴ, ハ ㄴ/기시’의 앞에 오는 형태 ㄱ ㄴ ㄴ ㄴ ㄴ ㄴ

- ㄱ) 확신법 보조어간: ㄱ/고
- ㄴ) 확인법 보조어간1: ㄴ/아
- ㄷ) 확인법 보조어간2: ㄴ/거
- ㄸ) 현재시제 보조어간: ㄴ/느
- ㄹ) 지속상의 조동사: ㄴ/겨
- ㅁ) 겸양의 조동사: ㄴ/숯

5. 극존대의 ‘ハ ㄴ, ハ ㄴ/기시’의 뒤에 오는 형태

- ㄱ) 설명법어미(단정) ‘ㄴ/다’
- ㄴ) 설명법어미(평서) ‘ㄴ ㄴ, ㄴ/(으)ㄴ, 여’

- ㄷ) 명령법어미(존대); ‘호/셔’
- ㄹ) 연결어미(전제); ‘ㅅ/아’
 ” (존대); ‘ㅌ/하’
- ㄴ) 연결어미(현재); ‘ㅈ/며’
- ㄴ) 연결어미(轉折); ‘ㄱ/은을’
- ㄴ) 동명사어미; ‘ㄱ/ㄴ’
- ㄴ) 보조어간(의도법); ‘ㄹ, ㅁ, ㄴ/오’
 보조어간(확실행); ‘ㅁ/고’
- ㄴ) 지속상의 조동사+응당법 보조어간; ‘ㄴㅁㅅ/궤’

이러한 분포는 ‘ㅈ/기’가 동사라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까지 그 독법을 알 수 없었던 피동·사동의 조동사 ‘{爲}ㅈ/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 동사는 한문의 피동·사동문을 석독하는 데 사용되어 대격을 지배하므로 ‘-을 입다’로 해석되지만 현대어로는 ‘-이/가 되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분포는 일반 동사와 같으므로 따로 논의할 것이 없다.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이소훈 (서울시립대)

1. 머리말

19세기 후반 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종결어미들이 대거 출현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해’체 즉 반말 어미가 많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본디 중세국어에서 ‘半말’이란, 완전한 어형이 아닌 어미의 일부가 잘려 나가는 형태론적인 절차에서 비롯된 것, 즉 형태상 완전하지 못한 어형을 가리키는 것이다(김영옥 1997: 183). 그러나 근대국어 이후에 출현한 반말어미는 형태론적인 절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통사론적인 절차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으로 쓰이게 되고 다시 종결어미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으로 쓰이게 되면 대체적으로 평서형 어미와 의문형 어미로 실현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평서형 어미나 의문형 어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형 어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것은 어미가 가진 양태 의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평서·의문형 어미를 중심으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되는 과정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의 구분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자리에 쓰이게 되는 것은 주로 문장과 문장의 접속에서 후행절이 생략되거나 후행절이 도치되는 과정을 통해서인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잘 쓰이는 것은 주로 이유,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유현경 2003). 그렇기 때문에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것은 대체적으로 양태 의미를 띠게 된다. 이성하(1998)은 굴절 형태소의 특징은 이 형태소가 문법성만을 표시한다고 하였으나 국어의 경우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해’체의 종결어미는 기존에 종결어미가 가지고 있던 문법적인 기능 외에도 양태 의미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연결어미에서 나타나던 양태 의미에서 이어진 것도 있지만 새롭게 의미가 변화한 경우도 있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는 현상은 19세기 넘어서면서 본격화하게 된다.¹⁾ 도치와 생략을 통해 종결어미 자리에 쓰이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연결어미는 점차 종결어미의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변화 정도가 같지 않다. 종결어미화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종결어미로 변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 단계에서 정착되기도 한다. 변화 과정을 보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놓이는 단계, 연결어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종결어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연결어미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획득하여 종결어미로서만 기능을 하는 단계로 나뉜다. 즉 문법화가 되는 정도에 따라 기능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1) ‘해’체의 ‘-어’와 ‘-지’를 연결어미에서 왔다고 본다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것은 19세기 이전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는 현상은 19세이다.

그런데 모든 연결어미가 다 종결어미화하지는 않는다. 즉 모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을 갖춘 어미만이 종결어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결어미화가 가능한 연결어미라 할지라도 의미 항목에 따라 종결어미 용법을 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현경(2003)에서 제시하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 용법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문체적 조건 : 문장과 문장 접속 구문에서, 도치와 생략을 통한 ‘구어적 환경’
2.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의한 조건 : 도치의 경우 선행행절이 독립성을 가질 때
3. 의미적 조건 : 이유,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선행행절이 시간적 관계, 인과적 관계에서는 불가능

선행행절이 도치가 일어나고 후행절이 생략되는 현상은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많이 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문장종결 억양이 없으면 종결어미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용언 구성, 부사적 용법의 연결어미 경우는 선행행절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종결어미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김태엽(1999)는 ‘문장 구조의 축소, 문법 기능의 이전, 끊어짐의 수행-억양 없음, 문장 종결 기능의 획득’의 과정을 통하여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바뀌는 문법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문장 구조의 축소 과정은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놓이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법 기능의 이전과 끊어짐의 수행-억양 없음을 통해 연결어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종결어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가 나타나고, 종결 기능의 획득으로 연결어미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획득하여 비로소 완전한 종결어미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을 어떤 기능을 가진 것으로 처리하느냐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기능이 확장된 연결어미로 보느냐 연결어미와 별도로 종결어미로 보느냐 그리고 종결어미로 본다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종결어미화가 문법화의 범주로 묶일 수가 있느냐이다.

김태엽(2000)은 하나의 문법 형태가 본디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Hopper(1991)에서 제시한²⁾ 분화의 원리에 의한 문법화의 한 양상으로 보았다. 구현정·이성하(2001)에서는 ‘-거든’이 문법화 과정의 끝부분에서 사멸이 아닌 새로운 기능의 획득을 통한 생존 현상을 문법화의 현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유현경(2003)은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해 덜 문법적인 요소가 더 문법적인 요소로 문법화한 결과로 보았다.

위의 견해에 반해, 남미정(2010)은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는 범주의 변화만 일어난 경우이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보다 덜 문법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법화의 한 유형이라기보다 하나의 형식이 기능 분화를 겪어 다의적 용법을 획득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의미상 연결어미로 쓰일 때와 종결어미로 쓰일 때 의미가 큰 차이가 없고 단순히 기능상의 변화만 일어났기 때문에 문법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할 때 변화의 과정을 끝까지 겪지 않은 않는다. 즉 종결화하는 단계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법화는 어떤 어원어가 문법화 현상을 반드시 끝까지 겪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없다고(이성하 1998) 한 바와 상통

2) Hopper(1991)는 문법화의 다섯 가지 원리로 총위화의 원리, 분화의 원리, 특정화의 원리, 의미지속성의 원리, 탈범주화의 원리를 제시하였다(김태엽 2000).

하는 것으로, 종결어미화도 문법화의 정도³⁾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정도화에 따라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4장에서 살펴볼 인용 구성도 그러하지만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는 되어도 역으로 종결어미가 연결어미화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문법화의 단일 방향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문법화의 범주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문법화의 어떤 작용으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것으로 먼저 ‘-어’와 ‘-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볼 때 이미 종결어미로 자리 잡은 ‘-어’와 ‘-지’는 앞으로 논의할 어미들과 성격이 다르다. 물론 ‘-어’와 ‘-지’도 연결어미 ‘-어’와 ‘-지’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지만, 이 시기면 종결어미 ‘-어’와 ‘-지’는 이미 연결어미 ‘-어’와 ‘-지’와 의미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종결어미 위치에서는 연결어미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 오롯이 종결어미의 의미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공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형태소의 어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논할 어미들은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유현경(2003)은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이은경(1996)에서 제시한 29개의 연결어미 목록 중 ‘-고, -어/어서, -고/고서, -면, -ㄴ데, -지만, -니까, -려고, -러, -든지, -느라고, -거든, -게, -도록’을 제시하였다. 본고도 이에 따라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다른 논의에서도 제시한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만 인용어미 구성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은 인용 구성에서 따로 논의하겠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할 때 나타나는 어미는 그 단계가 일정하지 않다. 즉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그 과정을 멈추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결어미화하는 정도에 따라 어미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정도화에 따라 목록화한 것이다.

<표 1>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⁴⁾

종 결 어 미 화	종결어미	‘-거든2’, ‘-ㄴ데2’, ‘-고2’, ‘-려고2’, ‘-게2’, ‘-거들랑2/결랑2’
	종결어미적 용법 (연결어미)	‘-면서’, ‘-어서’, ‘-다가’, ‘-지만/지마는’, ‘-니까/니깐’, ‘-면’, ‘-든가’, ‘-든지’, ‘-느라고’, ‘-길래’, ‘-ㄴ데1’, ‘-고1’, ‘-려고1’ ‘-거든1’, ‘-거들랑1/결랑1’
		‘-러’, ‘-도록’, ‘-게끔’, ‘-든’, ‘-게1’
		‘-느라’, ‘-니까는’
	연결어미 ⁵⁾	‘-려’, ‘-어’, ‘-다’, ‘-니’, ‘-며’

<표1>의 어미들은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이다. 이것은 구어에서 도치와 생략을 통해 종결어미 위치에 놓이게 된다. 후행문이 분리·생략되어도 문맥을

3) 문법화의 연쇄(grammaticalization chain)와 관련하여 Heine(1992)는 ‘문법화의 정도’와 ‘인식적 관계’ 두 가지의 패러미터로 나누었는데, ‘문법화의 정도’란 것은 문법화의 연속선 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문법화가 된 것이고, 선상에 있는 형태들은 서로 가까울수록 문법화의 정도와 의미가 비슷하다(이성하 1999에서 재인용).

4) <표1>에서 인용 구성의 연결어미는 포함하지 않았다. 인용 구성의 연결어미는 환원이 되는 구성에서 문법화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표6>에 제시된 연결어미이다. 이 부분은 4.2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5) 종결어미 자리에 놓일 수 없는 연결어미는 ‘-요’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통하여 후행문의 의미까지 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연결어미 위치에서의 의미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후행문이 생략된 문장은 문장만으로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구분 짓기가 명확하지 않다. 발화 시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난 것에는 종결의 수행-억양이 없으면서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이게 된다. 이것은 문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종결어미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문법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법화 정도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⁶⁾

<표1>을 통하여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완전히 종결어미화한 형태,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태, 종결형으로 쓰이지 않는 형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맨 아랫줄에 있는 연결어미는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나지 않고 오롯이 연결어미 위치에서만 실현되는 어미들이다.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은 완전히 종결어미화한 것이 아니라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에 놓인 형태이다. 그리고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태는 그것이 종결어미화해 가는 단계를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종결적 용법 1단계의 어미인 경우, 종결어미 위치에는 나타나기는 하나 종결어미의 억양이 없이지 않고 ‘-요’와 결합하지 않는다.⁷⁾ 2단계 어미의 경우는 ‘-요’와 결합은 가능하지만 종결어미 억양은 없이지 않는다.⁸⁾ 그렇기 때문에 1, 2단계의 어미들은 주로 대답에서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다. 그리고 3단계의 어미들은 종결어미의 억양이 없히고 종결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후행문이 생략된 것으로 연결어미 의미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어미로 처리해야 한다.

- (1) ㄱ. 오늘은 불의 줄형이야 공연이, 남의게 찢려서 이리저리, 흔참을 쏘맷거든. <귀의성 637>
 ㄱ'. 습관도 줄디에 갖치기 어렵거든 흔들며 장위의 습관이리오 <경세종 4>
 ㄴ. 대단히 도고하던 산월이도 아주 허 변호사 영감께 홀딱 반했는데. 글썄 뒷간에 가는 데를 다 따라가는구먼. <흥2 230>
 ㄴ'. 여보 누구신데 여기를 드러왔소 <고목화 69>
 ㄷ. 어머니는 집에 혼자 게시고? <산돼지>
 ㄷ. 그러기에 내가 뭐라더냐, 굶어 죽기로니 내 딸이 눈에 들어서라고. 다실랑 가지 말아. <흥1 90>
 ㄷ'. 돈을 좀 만들라 다니라고…… 오십 원이 되었는데 이십 원은 그 자리에서 빗쟁이를 맞아서 하는 수업 시 당장 빼앗겼지. <嫉妬와 밥>
 ㄹ. 어느식 방은 쓰러 무엇혔게요 <치악산 上 119>
 ㄹ'. 오늘밤에 우리가 곤하게 잠든 후에 죄인이 도망할지경이면 우리들은 죽는 놈이다 잘 아르쳐려라 <은세계 44>
 ㅁ. 여기가 우리 집이결랑.⁹⁾
 ㅁ'. 인제 둘이 살림살이를 재미있게 하거들랑 집 구경이나 시켜 줘요. <永遠의微笑 285>

6) 권성미(2010)에서 진행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나타나는 억양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의미 기능에 따라 억양이 달리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공부하느라…….”라고 하였을 경우 어말어미에 종결어미 억양이 수행되지 않고 연결어미 억양만이 수행된다. 그리고 “공부하느라요.”와 같이 ‘-요’가 결합된 형태는 실현되지 않는다.
 8) “공부하러요.”와 같이 ‘-요’는 결합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종결어미 억양이 수행된다. 그러나 “공부하러…….”에는 종결어미 억양이 수행되지 않는다.
 9) 이 시기까지 ‘-거들랑/결랑’이 종결어미화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표1>에서 종결어미는 완전하게 종결어미화가 된 것으로 예문 (1ㄱ, ㄴ, ㄷ, ㄹ, 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본래 연결어미와 의미 차이가 난다. 이와 달리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는 어미는 쓰이는 위치만 다를 뿐 그것의 의미는 연결어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종결어미화된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의 연결어미는 다른 형태이다. (1ㄴ')과 같이 종결적 용법의 연결어미는 종결어미 자리에서 실현되도 후행문이 생략된 문장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1ㄱ', ㄴ', ㅁ', ㅂ')과 같이 연결어미 자리에서 실현된 경우에는 후행문을 생략하여 종결적 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단순히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놓이는 것은 도치 혹은 생략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것은 연결어미이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단계는 기존의 연결어미와 의미 기능이 달라지므로 독립된 기능을 가진 종결어미이다.

또한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인 어미의 경우 연결어미와 같은 통사적 특징을 보이지만 이와 달리 종결어미화한 어미들은 연결어미와 다른 통사적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조건]을 나타내는 ‘-거든’의 경우, 연결어미 ‘-거든’은 ‘선행절의 내용이 후행절 내용 실현에 대한 조건’이라는 의미 기능을 하는데, 후행절의 문장 종결법이 ‘명령’과 ‘청유’에 제한되기 때문에 종속절의 명제 내용이 참(true)이거나 거짓(false)임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결어미로 구분되는 ‘-거든’은, 그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가 명제 내용이 참이라고 전제하거나 주장한다며 박석준(1999)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 (2) 철수가 숙제를 다 했거든, 알려 다오.
 → *철수가 숙제를 다 했다.
 → *철수가 숙제를 다하지 못했다.
 (3) 어제 철수가 왔었거든.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 어제 철수가 왔었다.

박석준(1999)는 ‘-거든’ 외에도 ‘-려고’를 통하여 연결어미로서의 통사적 특징과 차이가 나는 종결어미로서의 통사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비록 동일한 형태소에서 출발하였어도 현재적 기능과 의미가 분화되었으므로 종결어미 목록에 넣고 있다.

<표1>에서 연결어미 단계는 종결어미 자리에 놓이지도 않고 ‘-요’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 자료를 보면 ‘-니’가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인 예가 보인다.

- (4) ㄱ. 父 : (상략)…… 주림잡힌 이 얼굴, 윈갓 世上의 艱難辛苦를 격구 윈갓 世上의 實現의 길을 기내온 나를 좀 바로 쳐다보렴. 보면 네 어란 것과 갓히 안져서 날 辱하지 안을 터이니.
 <難破>
 ㄴ. 男便네란 다 그러치. 두구보시구려. 달이 가시기도 前에 女學生을 쓰러드리실 테니 <萬歲前>
 ㄴ'. 元 : (상략)…… 이 송장 속에서 나온 꽃! 썩 발을 도로 켜서 나가 서라! 안 나갓다가는 다시 불 질너 버릴 테넛가! <山돼지>
 ㄷ. 어서 내려가 있구려. 삼십 분 후에는 당신집 식구를 맡기로 할 테니, 가서 교의나 부시지 말고 가만히 얹전히 앓았어요. 오늘밤 안으로는 조처를 할 게니! <輪轉機>
 ㄷ'. 좀 덜어 주시죠. 다른 때의 반만 한대두 밤을 꼬박 새야 할걸요. 입자만도 세상없어도 자정 넘어야 끝날 게니…… <輪轉機>
 ㄹ. 글세 그래두 일즉이 갓다가 래일 밤 안으로 오세요. 나는 곳 썩나야 할 일이 잇스니요 <너희들은 무엇을 어뎃느냐>

ㄹ'. (침모) 제 말씀을 드르시랴닛가 돈도 바드시고 그이도 잘될 터이니요 <洗劔亭 97>

오늘날 (4ㄱ)과 같은 형태는 쓰이지 않아도¹⁰⁾ (4ㄴ)과 같은 ‘테니’는 나타나는 형태이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4ㄴ) ‘테니까’와 같이 ‘-니까’가 결합한 형태가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4ㄷ)은 ‘테니’가 ‘게니’로 나타난 것으로, ‘게니’는 ‘것이니’의 축약형이다. 오늘날 ‘것이-’의 축약 형태는 주로 ‘게-’가 아닌 ‘거-’로 실현되는데, ‘게-’의 경우는 ‘하는 게로군’, ‘할 게야’, ‘할 게다’¹¹⁾와 같이 주로 노년층에서 나타나지만 ‘할 게니’와 같은 형태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4ㄷ)의 예에서와 같이 오늘날에는 종결적 용법으로 ‘조치를 할 것이니’, ‘끝날 것이니’ 또는 ‘조치를 할 거니’, ‘끝날 거니’와 같이 실현되지 않고 연결어미 위치에서만 실현된다. 오늘날 ‘-니’는 ‘-니까’로 대체되었다. (4ㄹ)의 경우도 ‘-니’에 ‘-요’가 결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로 쓰인다.

독립된 문장에서 연결어미가 종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연결어미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된 문장이라도 앞뒤 문맥 없이는 연결어미만으로는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어미로 환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결어미화한 경우에는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 기능이 바뀌게 되므로 그에 따라 통사적 특징도 달리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는 것은 문법화 가운데 주관화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성하(1998)은 ‘주관화(Subjectification)’란 Traugott(1982), Traugott & König(1991) 등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언어 형태의 의미가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점점 주관적인 의미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명제 혹은 외연 위주의 의미에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투사함으로써 점점 주관적인 의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실제적 상황에서 담화적 상황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후행문이 도치·생략되는 상황은 주로 구어에서 일어난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면서 의미가 변화하는 것 또한 담화적 상황에서도 일어난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쓰이면서 순간적으로 의미가 변한다기보다 문법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angacker(2002)는 ‘주관화’가 어떤 요소로 문법화될 때, 이산적인 한 부문에서 다른 한 부문으로 건너뛰는 것이라기보다는 연속변차를 따라 이동하며 의미 변화를 겪는데, 의미 변화는 단계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면 의미 기능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종결어미들은 양태 의미를 띠게 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양태 어미들은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실현된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평서·의문형 어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대등·종속적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어미나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는 어미나 대체적으로 평서형 어미나 의문형 어미로 쓰인다. 청유형이나 명령형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은 종결어미 자리

10) 오늘날 ‘테니’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노래 가사나 시와 같은 감성적으로 쓰이는 문어에서이다. 이 외에도 문어에서는 ‘-니’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11) ㄱ. 詩人 : 흥 確實히 어머니가 보낸 게로군. <難破>

ㄴ. “L은 D의 생활과 처지를 잘 모르는 까닭에 그렇게 쉽사리 판단을 내리는 게다. 하지만 이 경우 L도 의심이 나기로서니 그밖에 더 대답을 못 할 경우도 못 될 게다!” <遺書_염상섭>

에 오는 연결어미들은 주로 이유,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러한 어미들은 인식 양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태 의미를 가진 어미들은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실현되지 않는데,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화자 지향적 양태 의미가 실현되어야 한다.¹²⁾

반말 어미로 제일 먼저 보이는 형태는 ‘-어’와 ‘-지’이다. 그런데 이 어미들의 기원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의 경우는 처음 출현 시기도 논란이 있다. 이 형태들이 연결어미에서 왔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종결어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의 형태를 보면 이들 어미가 가진 특징들을 연결어미와 관련지을 수는 있어도 종결어미로 쓰일 때와 연결어미로 쓰일 때의 기능이 같지 않을뿐더러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변화하는 과정의 중간 형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은숙(2007/2011)은 반말어미 ‘-어’, ‘-지’의 형성은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간소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 논의를 통하여 연결어미 ‘-어’, ‘-지’보다는 반말어미와 공통점이 보이는 접속어미 ‘-어’, ‘-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¹³⁾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였다. 고광모(2001)은 종결어미 ‘-어’와 연결어미 ‘-어’가 공식적으로 같은 형태소라고 보는 데는 반대하지만 그 기원적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박영준(1994ㄴ, 1996)에서는 ‘-어’와 ‘-지’의 기원을 향가와 <鷄林類事>에서 찾고 있다.¹⁴⁾ 그리고 언해문 자료에서는 16세기부터 종결어미 ‘-어’와 ‘-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박영준(1996)은 ‘이바(你來)’를 ‘이 보오’와 같이 ‘이(대명사)#보-(용언어간)+-아(명령문 종결어미)’의 구성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 감탄사로 처리한 것을 명령문의 구성으로 본 것이다. ‘두워’의 경우도 16세기부터 나타나는데 중국어 감탄사 ‘罷罷’에 대한 언해이다. 이것도 박영준(1996)은 ‘두-+-어’의 구성으로 단순한 감탄적 의미가 아니라 실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박영준(1996)은 ‘-지’의 경우도 16세기 자료에서 명령형 어미 ‘-지’가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서정목(1987)에서 접속어미 ‘-디비’가 현대국어 ‘-지’와 동일한 형태라고 한 견해와 모순되는 것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디비 > -디위/-디외, -디웨’의 후계형으로 보이는 ‘-도에’가 16세기에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12) Bybee et al.(1994)에 따르면, 화자 지향적 양태에는 명령(imperative), 금지(prohibitive), 기원(optative), 권고(hortative), 경고(admonitive), 허락(permissive)가 있다.
- 13) 고은숙(2007/2011)에서는 접속어미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어미이고, 연결어미는 그 이하 단위를 연결하는 것이다(주로 보조적 연결어미).
- 14) 박영준(1994ㄴ, 1996)는, ‘-어’의 경우 향가의 ‘伊波’ 가운데 ‘波’에서, ‘-지’의 기원은 <鷄林類事>의 ‘寢曰 作之’, ‘興曰 你之’ 가운데 ‘之’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 15) ‘-어’의 출현 시기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바’와 ‘두워’에서 비롯된다. ‘이바’는 정극인의 <賞春曲>과 길재의 시조에서 나타나고(정극인과 길재는 15세기 사람이지만 이 작품들이 실려 있는 <不憂軒集>(1756), <靑丘永言>(1728)은 18세기에 간행된 것이다.) 16, 17세기 언해문 자료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 ㄱ.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賞春曲, 不憂軒集>
 ㄴ. 더러운 노마 이바 더 눈 브윈 활와 치왕오를 블러오라 <翻朴 上:59ㄴ>
- (2) ㄱ. 두워 두워 데우라 가디 말라(罷罷休旋去) <翻老 上:63ㄴ>
 ㄴ. 이리 차반 주워 머기니(這般與茶飯喫) <翻老 上:44ㄱ>
- (3) ㄱ. 두어 두어 감흔 거시 하디 아니흐다(罷罷減不多) <박해 상:4ㄱ>
 ㄴ. 두어 두어 두어라 햏여 두자 <노해 초 상:59ㄱ>

‘이바’를 단순히 감탄사로 본다면 (31ㄷ)의 경우 ‘더러운 놈아’하고 부른 후 다시 감탄을 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이바’와 같이 호격어로 본다면 ‘호격어+호격어’ 구조가 전체 문맥을 검토해 볼 때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은숙(2007/2011)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설명은 어느 정도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른 시기에 반말어미 ‘-어’, ‘-지’의 예가 왜 명령문으로서의 기능으로 쓰인 것만 발견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이바’가 명령문으로 쓰였다면 ‘이 보아’, ‘이 봐’ 형태가 보여야 하는데 ‘이바’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¹⁶⁾¹⁷⁾ 그리고 박영준(1996)에서 제시한 <飜譯老乞大> ‘-지’의 경우도 탈각의 가능성이 있다.¹⁸⁾

고광모(2001)은, ‘-어’는 모두 명령법의 것인데, 명령형 어미 ‘-어’의 존재는 서술형 및 의문형의 존재를 함의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⁹⁾ 또한 생생한 대화가 옛 문헌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반말이 옛 문헌에 나타날 기회를 얻기는 어려운데, 명령형 어미 ‘-어’만 시조라는 특수한 글에서 우연히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법 형태의 기능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문법 형태가 발달하는 것은 실제의 사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연결어미 ‘-어’와 ‘-지’가 종결어미화하여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일이나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 이미 확인되는바, 늦어도 ‘-어’는 17세기에, ‘-지’는 18세기에는 쓰이기 시작하였다. 종결어미 ‘-어’가 무표적인 의미인 데 반해, ‘-지’의 경우는 일정한 양태의 의미를 갖는데(박재연 2006), 19세기까지 하나의 화계로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닌 반말 어미에서 ‘-어’보다 ‘-지’가 더 많이 출현하는 이유는 양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고광모(2001)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어’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통사적 결속이 가장 약해 ‘-어’가 이끄는 절 가운데서 가장 쉽게 분리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현희(1994)는 중세국어 분열문의 경우 계사 ‘(-)이-’ 앞에 통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 ‘-어’는 ‘이유’의 의미를 가진 것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이유’의 연결어미 ‘-어’는 접속문의 도치와 생략을 통해 종결어미 위치에 놓이면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하는데, 이때 종결어미 ‘-어’는 [이유]의 의미는 사라져 그 의미가 무표적이 된다.

이것은 현대국어 ‘-어’와 ‘-어서’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유’의 연결어미 ‘-어서’가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이유’의 연결어미 ‘-어’는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나지 못하고, 분열문 계사 ‘(-)이-’와 통합하지 못한다(이기갑 1998).²⁰⁾ 즉 중세국어에서

16) 이소훈(2010)에서는 ‘이바’에서 청자 지시 요소 ‘-아’가 결합한 형태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입’ 또는 ‘ㅂ’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자 지시 요소 ‘-아’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7) (23ㄷ, 23ㄷ)에서 ‘你來’는 ‘너는/너구나’ 그리고 강조의 의미이고, ‘두워/두어’는 ‘罷罷’, 즉 ‘그만 그만, 됐어’ 정도 의미이다.

18) ㄱ. 손조 밥 지서 먹고 가지 <飜老 상:39ㄴ>
 ㄱ'. 손조 밥 지어 먹고 가자 <老解 初 上:35ㄴ>
 ㄴ. 비 ㄱ장 굶프다 우리 가지 <飜老 上:39ㄴ>
 ㄴ'. 비 ㄱ장 굶프다 우리 가자 <노해 초 上:35ㄴ> 박영준(1996)

위 예에서 두 원문을 비교해 보면 <老乞大諺解>의 청유형 어미 ‘-자’가 <飜譯老乞大>에서는 ‘-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飜譯老乞大>에서 ‘가지’가 아니라 ‘가져’로 보인다. 즉 탈각일 가능성이 있다. (ㄱ)의 ‘손조 밥 지서 먹고 가지’에서 ‘지’가 아니라 안쪽으로 획이 하나 있는 ‘가져’로 보이므로 나머지 획은 탈각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두 예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가져’로 나타난다.

19) ㄱ. 형아 아으야 네 술홀 먼저 보아 뉘손되 타 나관되 양직조차 ㄱ특순다 <警敏重 38ㄱ>
 ㄴ. 더 가는 더 샤공아 비 잡고 내 말 들어 <李蒔, 操舟候風歌, 善迂堂逸稿>
 ㄷ. 日中三足鳥 | 야 가지 말고 내 말 드러 너희는 反哺鳥 | 라 鳥中之曾參이로니 北堂에 鶴髮變親을 더되 늙게 亨여라 <청구영언 진본 170>

20) 이기갑(1998)에서는 이 외에도 ‘-어서’만 가능한 경우로, ‘때’를 의미할 경우, ‘서다/나다’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본고의 논의와 무관하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때’를 나타내는 경우, 예로 들었던 ‘싱싱해서 잡수세요.’는 ‘-어서’가 아닌 ‘-니까’로 표현해야 하고 ‘어려서 집을 떠났

종결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가졌던 ‘이유’의 ‘-어’가 근대국어에서 종결어미화되면서 그 의미를 잃어 무표적이 되었고, 현대국어에까지 [이유]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는 연결어미 ‘-어’는 종결어미가 될 수 있었던 환경에서는 ‘-어서’를 대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종결어미 ‘-어’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 무표적이므로 ‘해라’체의 종결어미와 그 기능면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즉 평서형에서, ‘해라’체 ‘-다’와 ‘해’체 ‘-어’는 화계만 달리할 뿐, 기능은 종결법과 대우법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같기 때문에 청자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답으로 쓰이는 ‘좋다’, ‘싫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현대국어에서 청자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주로 ‘-어’를 결합하여 ‘좋아’, ‘싫어’로 대답하고 ‘좋다’, ‘싫다’로는 잘 대답하지는 않는데, 이와 같은 ‘좋아’의 예가 20세기 초 자료에서도 보인다. 다만 어른이 아이에게 ‘좋다’, ‘싫다’로 대답하거나 후행문이 이어질 때 쓰이기도 하는데, 어른이 아이에게 “그래, 좋다”와 같이 ‘좋다, 싫다’로 대답할 때는 권위적이고 예스러운 말투가 된다.

(5) ㄱ. A: 어디가?

B: 이밤은, 아시가 있다고, 하인이 헛었스니, 가봅지

A: 도와(ヨカウ)

<韓語正規 204>

ㄴ. A: 브릅이, 사나으니, 비가 황구에, 드러오지 못헛깃소

B: 익고-, 경치가 돛타

<韓語正規 207>

(5ㄱ)의 ‘도와’는 대답이고 (5ㄴ)의 ‘돛타’는 감탄이다. 이 예 하나만으로 이 당시에 ‘좋아’와 ‘좋다’가 다르게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좋아/싫어’와 ‘좋다/싫다’가 달라지는 초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시기에 ‘해’체는 ‘-지’ 외에는 잘 쓰이지 않았는데, <韓語正規> 역시 ‘해’체는 거의 쓰이지 않고 주로 ‘하오’체와 ‘하십시오’체, 그리고 ‘해라’체가 쓰였다.²¹⁾

청자 대우 기능만이 있던 ‘하오’체의 ‘-오’가 종결어미화하면서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을 모두 실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 같이 본래의 의미를 잃은 ‘-어’도 종결어미화하면서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모두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달리 ‘-지’의 경우는 이와 달리 인식 양태만이 아니라 화자 지향적 양태 의미까지 가지게 되는데, 화자 지향적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명령형 혹은 청유형을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고’ 역시 그 의미가 확장되어 화자 지향적 양태 의미를 갖게 되면서 명령형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어미들은 인식 양태 의미만을 가진다. 그리고 연결어미도 인식 양태 의미만을 가지므로 연결어미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일 때도 평서문, 의문문에만 쓰이는 것이다.

박재연(2006)은 양태 의미의 담지자는 일반적으로 ‘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본 기존의 정의에서 분명히 보여 준다고 하였다.²²⁾ 다만

다./날이 깜깜해서 돌아왔다.’와 같은 경우는 ‘-어’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판단된다. ‘-어’만 가능한 경우는 부사형 어미 ‘-어’를 필요로 하는 조동사 구성, 관용화된 표현, 하나의 낱말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 어미로 굳어진 ‘-어도’, ‘-어야’의 경우이다.

21) 오히려 ‘해’체보다는 ‘해요’체가 조금 나타난다. ‘해요’체의 경우 ‘-지요’가 잘못 쓰인 ‘-지오’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지오’라고 써도 ‘-오’가 앞의 /ㅣ/에 영향을 받아 [지요]로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오’를 ‘하오’체로 잘못 보았을 수도 있다.

22) 박재연(2006)은 양태의 기본 속성을 ‘주관적인 한정’이라 하였다. 그것은 주어 지향적 양태(동작 주 지향 양태)는 전형적인 양태라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의문문에서는 양태 요소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태도를 묻는 데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의문문에서 양태 의미의 담지자는 청자라고 하였다.²³⁾ 전통적으로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으로 다루어진 것은 가능성(possibility), 필연성(necessity) 등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 의미 영역은 명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 화자가 그 진실성(truth)을 얼마만큼 보장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영역은 화자의 앎의 척도(scale)이다(박재연 2005). 즉 ‘새로 앎’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의미 속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화자는 이러한 정보를 표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청자에게 이를 확인 받거나 수정 받고자 하는 목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에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장에 인식 양태 요소가 사용되면, 그 문장이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전달이라는 평서문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어 청자에게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질문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²⁴⁾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종결어미화하여 완전한 종결어미가 되었다는 것은 연결어미가 가졌던 의미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오롯이 종결어미로서만 쓰일 때이다. 종결어미화하였지만 연결어미로서도 기능을 하는데, 앞에서 제시한 것은 인용구성에서 종결어미화한 것을 제외하고 ‘-거든2’, ‘-ㄴ데2’, ‘-고2’, ‘-려고2’, ‘-게2’, ‘-거들랑2/결랑2’ 정도이다. 그런데 이 어미들 모두 평서형, 의문형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어미가 가진 의미에 따라 실현되는 양상이 다른데, 가르침이나 설명의 의미를 가지는 ‘-거든2’, ‘-거들랑2/결랑2’의 경우 의문형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고2’는 평서형이 실현되지 않는다. 평서문에 나타나는 ‘-고’는 연결어미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 ‘-고1’이다. ‘-고2’는 의문형²⁵⁾과 명령형으로만 실현된다.

(6) ㄱ. 榮順이 아버지는 언제 도라가고? <山돼지>

ㄴ. 아침이나 잡수시고 가실 데로 가세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 마시고. <흥2 235>

ㄷ. 호젓하고 조용한 데를 차져서 가는 게 조지 아니요? 배두 타볼 수 있구…… <해바라기>

(6)은 ‘-고’가 종결어미 자리에서 실현된 것으로 (6ㄱ)은 의문형으로 실현된 종결어미이고 (6ㄴ)과 (6ㄷ)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명령형 어미 ‘-고’의 경우는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명령형 ‘-고’에 대해 “또 다른 명령 표현이 뒤 절로 올 것을 생략한 듯한 여운을 뒀으로써 부드럽게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디 연결어미로서 가지고 있던 의미 기능이 종결

23) 박재연(2006)은 양태 의미의 담지자가 문장 유형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양태 담지자의 전환(switching)’이 하였다.

24) 그렇기 때문에 박재연(2005)은 인식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어미들이 상향억양을 가지고 질문의 효과를 갖는 문장에 사용되면, 이러한 문장은 화용론적으로 유사의문문 효과를 갖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의문문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ㄴ가’, ‘-ㄴ까’는 화자의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듯한 현상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의문형 어미인데, 이 어미들이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화자의 무지이며 화자의 어떠한 판단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의심]이나 [추측]의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이 모두 독백문 종결어미라는 사실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25)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고₂’의 첫 번째 의미는 물음, 부정, 반정거림, 항의 따위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물음을 제외하고 부정, 반정거림, 항의는 의문형이 아닌 평서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고₂’의 경우 의문의 억양이 입혀지는데 국립국어원(1999)에서도 어떤 물음 표현이 뒤 절로 올 것을 생략하고 문장을 끝맺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어미화한 뒤에도 양태 의미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ㄴ)의 ‘마시고’는 명령형이지만 선·후 문장이 도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자네는 가고,” “서류를 낸 학생들은 이쪽으로 오시고.”와 같은 경우는 뒤의 문장을 생략한 듯한 여운을 주는 것이지 생략한 것은 아니다. 의문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의문형의 경우 [부정], [빈정거림], [항의] 따위의 양태 의미를 띠는 반면, 명령형의 경우 이러한 양태 의미는 나타나지 않고 명령의 의미만을 가지기 때문에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의 구분이 모호한 것이다. 다만 같은 명령이라도 부드러운 명령이므로 ‘명령’에 [부드러움]이 더해진 것이라 하겠다.

연결어미 ‘-고’에서 발달한 명령형 어미 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명령형 어미 ‘-고’가 있다. 이것은 중세국어 ‘-고라’에서 ‘-라’가 탈락한 ‘-고’인데, 현대국어 ‘다오’의 ‘-오’와 관련이 있으며(박영준 1994), 방언에서는 “그것 좀 도고”와 같이 쓰이고 있다(김영옥 1993/1995). 이 ‘-오’는 ‘그것 좀 다오’와 같이 ‘달다’에만 나타나는 형태로 ‘해라’체에 속한다.

(7) ㄱ. 실베들 만히 히여 다고 <무덤편지 57> (김영옥 1993/1995)

ㄴ. 적삼 혼 벌 갑증으로 흐려 흐니 아조 도흔 증을 어더 곱게 지여 드고 <獨學韓語大成 212>

ㄷ. 일남 : 영영 춘삼월이 다시 돌아와도 저 언덕 비탈 위에 마른 잔디 파릇파릇 속잎 나고 시냇물 잔잔히 흐르거든 이 일남이가 아리랑 고개 너머에서 너를 찾아 허매는 것을 잊지 말아 다오, 복례야. <유성연극_아리랑 고개>

현대국어 ‘달다’는 ‘하라’체 혹은 간접 인용형으로 ‘달라’, ‘해라’체로 ‘다오’로만 실현되는데, ‘달라’, ‘다오’ 대신에 ‘주다’의 활용형인 ‘주라’, ‘줘라’로도 쓰일 수 있다. 직접 명령에도 ‘줘라’ 대신 ‘주라’가 쓰이기도 하지만, ‘주어라’의 경우 ‘달라’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주다’의 경우 상하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모두 쓰이지만 ‘다오’의 경우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쓰이는 형태로 권위가 나타난다. 그러나 (7ㄷ)을 보면, 20세기 전반기에는 대등하 관계에서도 쓰일 수 있었는데, (7ㄷ)에서 일남이와 복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8) ㄱ. 순례는 「그래도 어디 그렇소. 나는 안 잊히는데.」 하였다. 「무섭다면서?」 「무섭긴 해도 안 잊히는 걸 어짜하오?」 <흙 2:152>

ㄴ. 「네가 뭐 쥔 마누라를 깨물고 사람을 죽이구 그런다며?」 <따라지 302>

연결어미 중에서 ‘-니’²⁶⁾와 ‘-며’는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으나 인용구성에서는 이러한 쓰임이 나타난다. 연결어미 ‘-니’가 결합한 인용구성 ‘-다니’의 경우 종결적 용법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다니2’가 있다.²⁷⁾ 종결어미 ‘-다니2’는 평서형과 의문형으로 나타내데, 평서형의 경우 ‘감탄’으로만 실현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기로 한다. 연결어미 ‘-며’는 국립국어원(1999)에 따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나열]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면서’의 준말이다. 여기서 인용구성 ‘-다며’는 ‘-면서’의 준말 ‘-며’가 결합한 것으로, 이것도 종결적 용법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다며2’, ‘-다면서2’가 나타난다. 이 중 종결어미 ‘-다며2’, ‘-다면서2’는 (8)과 같이 의문형으로만 실현된다.

‘-구나’와 같은 계열로 ‘-구면’이 있다.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구면’이 ‘-군’의 본말이

2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니’는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다.

27) 인용 구성 연결어미의 경우, 평서형에서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구분이 모호하다. 4장 참조.

라 풀이하고 있으나 ‘-군’이 ‘-구먼’의 축약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20세기 전반기의 자료를 보면 ‘-구먼’의 예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군’의 예가 더 많이 나타난다. 박재연(1998)에서 ‘-구먼’의 기원은 불분명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과 달리 고광모(2001)은 ‘-구먼’의 기원을 연결어미에서 찾고 있다. ‘-구먼’의 고형은 ‘-구먼’인데, 신소설에서 연결어미로 쓰인 ‘-구먼’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는 전남 방언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9) ㄱ. 아조 놀너 너외가 되엿스면 다시 더 말할 것 업시 도켓구먼 한스히고 말을 안이 드르니 이 노릇슬 엇지호여야 가홀가 <옥호기연 13>
 ㄴ. 이놈곳 잡앗스면 여러 가지 죄로 분풀이를 호켓구먼 엇의 가 잡을 슈가 잇서야지 <옥호기연 19>
 ㄷ. 꼭 그러케 히스면 령락업시 되켓구먼 무슨 빙즈홀 말이 잇서야지 <화의혈 9>
- (10) ㄱ. 요놈 입으면 쓰겻구만 왜 그리 까탈을 부리냐?
 ㄴ. 눈이나 오면 좋겻구만 비가 온다.
 ㄷ. 여그 있구만 없다 허네.

그런데 ‘-구먼’은 ‘-구나’와 의미 기능도 같지만 선어말어미와 결합 시 ‘-구나’와 같은 결합 양상을 보인다. 특히 중세국어 ‘-고나’가 계사와 결합 시 반드시 앞에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가 개입해서 ‘-이로피여’, ‘-이로고나’로 실현한 바와 같이(이승희 1996), ‘-구먼’ 역시 의고형으로 ‘-이로구먼’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 (11) ㄱ. 춤 장호신 일이로구 나는 오십이 넘엇스나 강산유람을 못 호엿는디 <목단화 879>
 ㄴ. 날이 밧서 밝앗는디 웬 꼭절이구 이상하도다 <비파성 129>
 ㄷ. 아바지게서 디례로 디답을 잘호시는구 될 말인가 임의정호야 수주식지 밧고서 지금 와서 퇴 혼이라니 <비파성 51>
 ㄹ. 그러면 그러치 도쳐 명당이로고 앓가 시도 소리가 들니더니 로형이 호섯나 보구려 <경세종 1>
 ㅁ. 처니 조화용이 엇지 스릅의 이별을 마련하얏는고 <안의성 90>
 ㅂ. 이러흔 란 중에 웬 부녀가 홀로 오는고 필연 아리안성이 파호며 도망호여 오는 잔가 호며 <애국부인전 13>

또한 ‘-구나’와 관련된 종결어미로 ‘-고/구’가 있는데, 이 ‘-고/구’는 ‘-고나/구나’에서 ‘-나’가 절단되어 형성된 종결어미로 이 시기에 나타난다. ‘-고나’가 ‘감탄’을 나타냈던 것같이 ‘-고’ 역시 ‘감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어미 ‘-고’와 다른 형태이다.²⁸⁾ (12)에 나타난 ‘-고/구’는 연결어미 ‘-고’와 같은 결합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나’와 같은 결합 양상을 보인다. 연결어미 ‘-고’는 선어말어미 ‘-느-’와 결합을 하지 않는 데 반해 ‘-구나’는 ‘-느-’와 결합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합하는 형태 또한 ‘-느/는-’으로 같다. 또한 중세국어 ‘-고나’가 계사 ‘-이-’와 결합할 시 그 사이에 감동법 어미 ‘-도-’가 삽입되어 ‘-이로고나’ 형태로 실현되는데, 그 결합 양상이 (11)의 ‘-고’에서도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고’는 연결어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나’에서 비롯된 형태인 것이다. 그런데 감

28) ‘-고나’는 20세기 전반기에도 계속 출현한다.

德 : 아—풀사, 이 놈이 또 차자왔고나 <소용도리_회곡>

탄형 어미 ‘-고’는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의고체로서만 쓰인다.

- (12) ㄱ. 여기두 조용한데 아무 데면 어떤가? 나가면 자네 또 술 먹게? <永遠의微笑 092>
 ㄴ. 「인내시우, 내 좀 해 보게.」 하고 선희는 한갑 어머니의 도마를 끌어 당기었다. <흙 3:339>
 ㄷ. 무정하게? 내가 무엇을 무정하게 핏서요? <無情 2:370>

종결어미 ‘-게2’는 평서형, 의문형으로 실현된다. (12ㄱ, ㄴ)은 종결어미인데, (12ㄱ)은 의문형이고 (12ㄴ)은 평서형이다. (12ㄷ) 중 앞의 ‘-게’는 종결적 용법의 ‘-게1’이고 뒤의 ‘-게’는 연결어미이다. 의문형 어미 ‘-게2’는 [추측], [근거], [의도], [반어적 물음] 등의 다양한 의미를 띤다. 그러나 평서형 어미 ‘-게2’는 [의도]의 의미만을 나타내므로 주어는 1인칭으로 제약된다.

4. 부사형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16세기에 생성된 ‘하소’체의 어미들은 19세기까지도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시상법의 재구조화로 인해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느-’의 기능이 바뀐다. 19세기 ‘하소’체의 평서형어미 ‘-네’의 경우 선어말어미 ‘-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느-’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네’에 축약되어 있는 ‘-느-’의 기능은 소멸되고 하나의 형태로 융합된다. 따라서 ‘-더-’가 결합되어 있는 ‘-데’의 경우 ‘-더-’의 기능은 살아 있지만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하소’체의 경우 평서형, 의문형 어미에서는 ‘-느-’의 기능 변화로 인한 융합 형태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하라’체의 경우도 ‘-느-’의 기능 변화로 인한 결합 양상 외에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의 형태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형 어미의 경우 ‘하소’체, ‘하라’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하라’체는 명령형 어미 ‘-라’에 선어말어미 ‘-거-’의 기능이 소멸되면서 ‘-거/어/너/여-’가 결합된 형태가 그대로 융합되어 ‘-라’를 대체하고, ‘-라’는 부정법 ‘하라’체로 사용되면서 그 양상이 달라진다. 그런데 ‘-어/여라’만이 명령형 어미로 고착되어 ‘-라’를 대체하고 ‘-거/너라’는 의고체로 남게 된다. ‘하소’체는 부사형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새로운 형태 ‘-게’가 나타나 대체되고 기존의 명령형 어미 ‘-소’는 방언형으로만 남는다.

그러면 ‘하소’체의 명령형 어미 ‘-소’를 대체하는 어미 ‘-게’를 살펴보기 전에 그와 변화 양상이 같은 현대국어의 ‘-도록’을 먼저 살펴보자.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 기능을 띠게 되면 대체적으로 평서법 내지는 의문법을 담당하는데 ‘-도록’의 경우 명령법을 담당한다. ‘-도록 하-’에서 ‘하-’가 생략되고 ‘-도록’만으로 명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 (13) ㄱ. 해산했다가 12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ㄴ. 해산했다가 12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한다.

석주연(2008)은 현대국어에서 [정도], [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도록’은, 중세 이래 [도급]의 의미를 갖는 ‘-도록’이 특정한 문맥에서 중의성을 가지면서 파생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의미의 파생이 새로운 통사적 구성 ‘V도록 하-’의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

였다. 여기서 [결과]의 의미를 갖는 ‘-도록’이 뒤의 ‘하-’를 생략하고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적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단 [정도]를 나타내는 ‘-도록’이 ‘좋다’와 결합할 경우에는 허락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적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도록’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군대와 같은 집단에서 훈련 혹은 작전을 명령할 때 정도에만 쓰인다.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하소’체의 명령형 어미 ‘-소’를 대체하는 ‘-게’이다. ‘-게’는 19세기 중엽에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정착하게 되는 시기는 20세기가 넘어서이다. 명령형 어미 ‘-게’의 기원에 대해서는 ‘하소’체의 ‘-네’, ‘-데’, ‘-새’ 등의 연결선상으로 선어 말어미 ‘-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와 연결어미에서 비롯되었는 견해가 있는데, 그 외에도 고광모(2002), 이승희(2004)는 사동 구문인 ‘-게 ㅎ-’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해석에는 차이를 보인다. 고광모(2002)에서는 ‘-게 ㅎ-’ 구문에서 ‘ㅎ-’가 생략되고 ‘-게’만으로 발화하는 것이 ‘-도록 하-’에서 ‘-도록’만 나타나는 명령법이 일상적 발화에서는 쓰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발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게 ㅎ-’의 반말체 명령형 ‘-게 ㅎ여’로부터 발달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명령형 어미 ‘-게’가 명령형 어미 ‘-소’에서 갈음되는 시기는 20세기이지만 문헌 자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세기 중엽으로, 이 시기에는 소위 반말인 ‘해’체가 두루 쓰이지 않는 시기이다. 더불어 고광모(2002)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게 ㅎ여’ 혹은 ‘-게_여’도 문증되지 않는다. ‘해’체가 비로소 정착되는 시기는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더구나 19세기에는 ‘-지’는 간간히 나타나지만 ‘-어’는 나타나는 경향이 드문데, 활발히 쓰이지 않는 어미가 하나의 어미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해’체에서 축소된 어미가 예사낱춤인 ‘하게’체를 이루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다.

- (14) ㄱ. 광주→아내: 자네 홀일 짐잡ㅎ여서 올 나를 이 사람 올 제 유무에 즈세 기별ㅎ소 브딕 수 이 오게 ㅎ소 ... 자네 편지 아니ㅎ 디 영히 편지 묻ㅎ였거든 ㅎ리거든 오게 ㅎ소 <현풍 49>
 ㄱ'. 광주→종 광상: 일년이 고친 후에도 수이 도치 아니ㅎ거든 김홍니 마를 드려다가 즈쥬 고쳐 수이 도게 ㅎ여라 <현풍 37>
 ㄴ. 어머니→아들: 현암 동너 불안ㅎ다 ㅎ니 가지 말고 누의 올 적 길히 주막의셔 잠간 만나보 고 즉시 씨나게 ㅎ여라 <언간 補18>
 ㄴ'. 어머니→아들: 일히 올 적 브딕 쥬인딕의 폐되지 아니케 ㅎ여라 <언간 補18>
 ㄷ. 김정희→부인: 대되 무스들 ㅎ운잇가 셔물이 한창 썩오니 브딕 참외 가튼 것 만이 잡스오시 개 ㅎ을 <추사편지 5> (이승희 2004)

그에 반해 이승희(2004)는 ‘-게 ㅎ-’ 구문에서 ‘ㅎ-’가 생략된 형태로 보았다. 고광모(2002)에서도 언급하였지만 17~19세기 문헌을 보면 근대국어 시기에는 사동 구문의 ‘-게 ㅎ-’와는 완전히 별개의 의미 기능을 가진 ‘-게 ㅎ-’ 구문이 존재하는데,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게 ㅎ-’ 구문으로 그것은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므로 사동 구문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승희(2004)는 예문에서 (14 ㄱ', ㄴ')은 사동 구문인 데 반해 (14 ㄱ, ㄴ, ㄷ)은 사동 구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동 구문으로 해석되지 않는 ‘-게 ㅎ-’ 구문이 명령문으로 나타나는 ‘-게 ㅎ소, -게 ㅎ여라, -게 ㅎ라’에서 ‘ㅎ-’ 이하가 생략됨으로써 ‘ㅎ닉’체의²⁹⁾ 명령형 종결어미 ‘-게’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문 (14)에서 보듯이 ‘-게 ㅎ-’ 구문에서 ‘ㅎ-’가 생략된 ‘-게’ 형태가 예사낱춤을 표현

29) 본고의 용어는 ‘하소’체이다.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형태 절단이 아닌 통사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데, 즉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명령법 구문 ‘-게 ㅎ-’ 구성에서 ‘-게’만으로 청자인 행동주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지므로 뒤의 구성인 ‘ㅎ-’는 의미 중복이기에 생략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해’체가 아닌 ‘하소’체를 대체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것은 ‘해’체를 담당한다. 그러나 ‘-게’가 ‘-소’를 대체하게 된 것은 고광모(2002), 이승희(2004)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하오’체의 명령형 어미 ‘-오/소’의 존재가 형태상으로 유사한 명령형 어미 ‘-소’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새로 등장한 종결어미 ‘-게’가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15) ㄱ. 이 낭방을 되시고 가려므나 <日韓言語合璧 332>

ㄴ. 아침이나 잡수시고 가실 데로 가세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 마시고. <흠 2:235>

ㄷ. 베노사가 눈을 사거든 우리 한갑이도 주라고. <흠 1:102>

명령형 어미 ‘-게’의 경우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사동 구문의 ‘-게 ㅎ-’에서 온 것이므로,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구문에서 ‘-게’ 자체만으로도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가 ‘-도록’인 것이다. ‘-도록’ 역시 ‘해’체에 포함되지 않고 ‘해라’체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로 ‘-고’가 있다. 명령의 ‘-고’는 앞의 두 명령형 어미와 달리 ‘해’체에 속한다. 연결어미 ‘-고’가 ‘-게’, ‘-도록’처럼 사동의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어미들과 달리 명령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은 ‘-고’가 가진 의미 기능 때문이다. 즉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날 때 쓰이는 ‘-고’의 구성이나 (15ㄱ)과 같이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나는 ‘-고’ 구성에서 명령문인 뒤 절이 생략될 때 앞 절의 ‘-고’는 명령을 나타내게 된다. (15ㄴ)의 경우 “그렇게 무서운 얼굴 마시고 아침이나 잡수시고 가실 데로 가세요.”가 도치된 것으로 원 문장에서의 ‘-고’는 종결어미가 아닌 연결어미이다. 그러나 도치되어 종결어미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명령의 기능을 하는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15ㄷ)은 인용 구문에서 융합된 형태인데, ‘-라고’가 명령을 나타내는 것은 ‘-다고’와 비교해 보면 ‘-라’에 의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위문의 명령형 어미 ‘-라’가 결합된 형태가 모두 명령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라니, -라며, -라는데’ 등 모두 명령형 어미가 아닐뿐더러 ‘-라고’ 자체도 명령만이 아니라 “한갑이도 주라고?” “응, 한갑이도 주라고”와 같이 평서, 의문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15ㄷ)의 ‘-라고’에 명령의 기능이 실현되는 것은 명령의 기능을 가지는 ‘-라’와 ‘-고’에 의해서인 것이다.

‘해’체를 구성하는 어미의 조건으로 뒤에 ‘-요’를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의 두 명령형 어미 ‘-게’와 ‘-도록’은 ‘-요’와 결합하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게’는 ‘-소’를 대체하여 ‘하게’체를 이루고 ‘-요’와 결합하지 않는데, ‘-도록’의 경우도 ‘-요’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미에 따라 연결어미에도 ‘-요’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록’이 완전한 종결어미화가 되지 않아서 결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연결어미 위치에서든 종결어미 위치에서든 ‘-요’가 결합할 수 있다. ‘-도록’의 경우도 명령문이 아닌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나타날 때에는 연결어미 자리에서나 종결어미 자리에서나 ‘-요’가 결합 가능하다.

- (16) ㄱ. *해산했다가 12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요.
 ㄴ. 애당초에 그런 말은 비치지두 말게. <常綠樹 2:210>
 ㄴ'. *애당초에 그런 말은 비치지두 말게요.
 (17) ㄱ. 나무가 잘 자라도록요 거름을 주세요.
 ㄴ. 네, 나무가 잘 자라도록요.

그렇다면 명령문에서는 ‘-도록’에 ‘-요’가 왜 결합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게’도 마찬가지이다. ‘-게’가 ‘하오’체와 유사성으로 ‘-소’를 대체하였기 때문에 ‘-요’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설명일 뿐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게’가 ‘-요’보다 먼저 생성되었기에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게’보다 먼저 나타난 ‘-어’나 ‘-지’에는 ‘-요’가 결합하므로 그것도 성립할 수 없다.³⁰⁾

명령문의 ‘-게’나 ‘-도록’ 다음에 ‘-요’가 결합하지 못하는 원인은 ‘-게 하-’, ‘-도록 하-’ 구성의 통사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사동 구문인 ‘-게 하-’와 ‘-도록 하-’는 연결 구성이므로 떨어져서 사동을 나타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요’도 삽입하지 못한다.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구문에서 의미 중복된 ‘하-’는 생략되고 ‘-게’는 종결어미 기능을 갖는다. 즉 본디 ‘-게’가 가지고 있던 통사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종결어미화하여 ‘-요’가 결합하지 못하고 ‘하오’체의 명령형 어미와 형태상 유사한 ‘-소’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도록’의 경우 종결어미의 자리에서 종결어미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그 기능이 ‘하-’가 생략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결어미화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상 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록’ 역시 ‘-도록 하-’ 구성에서의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종결어미가 ‘-요’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은 ‘해’체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종결어미는 아니지만 종결적 기능을 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명령형 ‘-도록’은 ‘해라’체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명령형 어미 ‘-게’와 ‘-도록’은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사동 구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게’는 종결어미로 기능이 완전히 바뀌면서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구문 ‘-게 하-’에서 ‘하-’가 생략되고 ‘-게 하-’ 구성은 사라지게 되지만, ‘-도록’은 종결어미적 기능은 하지만 종결어미로 그 기능이 바뀌지 않고 ‘-도록 하-’에서 ‘하-’가 생략된 단계에서 머물기 때문에 ‘-도록 하-’의 구성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다만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구문에서 ‘-도록 하-’는 [허락]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유현경(2003)에서 연결어미로 쓰인 ‘-도록’과 ‘-게’는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에는 교체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 (18) ㄱ. 차가 [지나가게/지나가도록] 길을 좀 비켜라.
 ㄴ. 철수는 [얼어 죽지 않게/얼어 죽지 않도록] 옷을 잔뜩 껴입었다.
 (19) ㄱ. 빨리 집에 [가도록/*가게].
 ㄴ. 이제 나가 [보도록/*보게].
 (20) ㄱ. 내가 바보니? 그 사람을 [좋아하게/*좋아하도록]?
 ㄴ. 어디 아프니? 밥을 안 [먹게/*먹도록]?
(유현경 2003)

30) 20세기 초에는 ‘하게’체와 ‘해’체가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하게’체의 어미가 양태의 의미를 띠는 경우 ‘해체’로 바뀌기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은 5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동 구문에서 비롯된 종결어미와 대등·종속적 연결어미에서 비롯된 ‘해’체 종결어미 ‘-게’, 종결어미적 용법의 ‘-도록’과 사태의 목적,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혼동한 결과이다. (18)은 대등·종속적 연결어미로서의 ‘-게’와 ‘-도록’이고, (19)는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사동 구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현경(2003)은 (19)에서 ‘-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화계가 바뀌었을 뿐 둘을 교체를 해도 무방하다. 다만 (20)의 경우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대등·종속적 연결어미 ‘-게’는 의문형으로 종결어미화한 ‘-게2’이므로 연결어미 ‘-도록’과 교체되지 않는다.

5. 맺음말

19세기 종결어미의 형성 방식 두 번째로, 종결어미가 아닌 형식이 종결어미가 되는 것 가운데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가 있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기 위해서는 이유,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가진 연결 구문에서 독립성을 가진 선·후행절이 도치·생략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연결어미는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종결어미화한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할 때 모든 어미가 변화의 과정을 끝까지 겪지 않는다. 이것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연결어미로만 나타나는 경우, 종결적 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 종결어미가 된 경우인데, 종결적 용법은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놓여서 종결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구조는 후행문이 생략된 것으로 연결어미와 의미가 같다. 이에 반해 종결어미화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연결어미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종결어미로 쓰이는 것이다. 종결적 용법은 다시 세 단계로 구분된다. 하나는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종결어미 억양이 수반되지 않고 ‘-요’와 결합하지 않는 형태이다. 다음 단계는 종결어미 억양은 수반되지 않으나 ‘-요’의 결합은 가능한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종결어미 억양도 수반되고 ‘-요’도 결합하지만 연결어미와 의미가 같으므로 종결어미로 볼 수 없는 형태다.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는 대등·종속적 연결어미와 부사형 연결어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등·종속적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한 것은 ‘해’체에 속하게 된다. 보다 이른 시기에 종결어미화한 ‘-어’, ‘-지’를 제외하고 여기에는 ‘-거든’, ‘-는데’, ‘-고’, ‘-려고’, ‘-게’, ‘-거들랑/결랑’이 있다. 연결어미로만 쓰이는 ‘-니’, ‘-려’, ‘-어’, ‘-다’, ‘-며’와 그 외 인용 구성에서 된 형태를 제외하고는 종결적 용법에 속하게 된다. 이 어미들은 대체적으로 인식 양태의 의미를 지니며 평서형, 의문형 어미로 실현된다. 그러나 ‘-고’의 경우 평서형은 종결적 용법으로만 나타나고 종결어미로는 의문형만 실현되는데, 평서형 종결적 용법의 의미가 확장되어 명령형 어미로 실현되기도 한다. ‘-거든’, ‘-거들랑/결랑’의 경우는 그것이 가진 의미로 인해 평서형 어미로만 나타난다.

부사형 연결어미는 ‘하계’체 명령형 어미 ‘-게’와 ‘해라’체 명령형 어미 ‘-도록’이 있다. ‘-게’의 경우 종결어미이지만 ‘-도록’은 종결적 용법이다. 이것은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던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사동 구문 ‘-게 하-’ 구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 이하가 생략된 형태이다. ‘-도록’ 역시 ‘-도록 하-’에서 ‘하-’ 이하가 생략된 형태이다. 대등·종속적 연결어미가 ‘해’체에 속하는 것과 달리 이들 어미는 각각 ‘하계’체와 ‘해라’체에 속하게 된 것은 ‘-게 하-’, ‘-도록 하-’는 연결된 구성이므로 그 사이에 ‘-요’가 삽입되지 못한다. 그러한 통사적 특성이 ‘하-’가 생략되고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사동 구문 ‘-게 하-’ 구성은 사라졌지만 ‘-도록 하-’의 구

성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고광모(2001), “반말체의 등급과 반말체 어미의 발달에 대하여”, 『언어학』 제30호, 한국언어학회.
- 고광모(2002), “명령법 어미 ‘-게’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한글』 제257호, 한글학회.
- 고은숙(2007/2011),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 한국문화사.
- 구현정·이성하(2001), “조건 표지에서 문장종결 표지로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제8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 권성미(2010),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나타나는 역양의 중간언어 연구”, 『한국어 교육』 2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영옥(1993/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변화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박이정.
- 김영옥(1997), 『문법형태의 연구방법 -중세국어의 중심으로-』, 도서출판 박이정.
- 김태엽(1999), “국어 통용종결어미에 대하여”, 『현대문법연구』 18, 현대문법학회.
- 김태엽(2000), “국어 종결어미화의 문법화 양상”, 『語文研究』 33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 남미정(2010), “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재고”, 『한국어학』 49호, 한국어학회.
- 박석준(1999), “현대국어 종결어미의 체계화에 대한 몇 가지 -목록 설정과 관련하여 ‘-거든’과 ‘-려고’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7권,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영준(1994ㄱ),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 박영준(1994ㄴ), “종결어미 ‘-지’에 대하여 -그 기원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권, 한국어학회.
- 박영준(1996), “국어 반말 종결어미의 역사성 -‘-어’와 ‘-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35권, 민족어문학회.
-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제41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서정목(1988),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1) -‘읍니다체’의 해명을 위하여-”, 『국어학』 17, 국어학회.
- 석주연(2008), “국어 형태의 통시적 변화와 문맥 -문맥에 수반된 의미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6, 한국어교육학회.
- 유현경(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제261호, 한글학회.
- 이기갑(1998), “‘-어/어서’의 공시태에 대한 역사적 설명”, 『담화와 인지』 제5권 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소훈(2010), “19세기 청자 대우법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國語研究』 第139號, 國語研究會.
- 이승희(2004), “명령형 종결어미 ‘-게’의 형성에 대한 관견”, 『國語學』 第44輯, 국어학회.
- 이현희(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Bybee, J.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이성하 · 구현정 옮김 (2000), 『형태론: 의미-형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Lagngaker, R.W.(2002), Image, Concept,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2nd ed., Berlin: Mouton de Gruyter. (나익주 옮김(2005), 『개념 · 영상 · 상징-문법의 인지적 토대』,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하다’의 문법화에 대하여

— ‘N하다’ 구성과 명사 포합을 중심으로

윤예진 (서울대 박사 과정)

1. 서론

‘하다’와 관련된 구성은 중세 한국어 연구에서도, 현대 한국어 연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 중 소위 「동작성 명사+‘하다’」로 이루어진 동사(e.g. ‘공부하다’)에 대해서, 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대표적으로 김창섭 2001, 2002). 이러한 「동작성 명사+‘하다’」문제의 초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주로 맞춰져 있었다.

- ①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과 「동작성 명사+(을) ‘하다’」 구성은 어떤 관계인가?
- ②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과 「상태성 명사+‘하다’」 구성은 어떤 관계인가?
- ③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의 문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①은 이 구성이 논란이 되어 온 가장 주된 원인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동작성 명사+‘하다’」와 「동작성 명사+(을) ‘하다’」 두 구성을 기능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끼며, 두 구성의 ‘하다’¹⁾ 역시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②또한 ‘서술성 명사’라는 이름 아래 함께 다루어진 두 구성인데, 이때 ‘하다’의 기능과 관련하여 함께 많이 논의되었다. ③은 ①, ②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 이때 전체 구성의 문법론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①, ②에 대한 입장에 따라 ③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호승(2003)에서는 ①, ②에 대해 모두 동일한 구성으로 보았고, 이러한 구성들의 문법적인 지위는 내적으로 구 구성이지만 외적으로는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는 복합서술어구성인 것으로 보았다. 반면 김창섭(1997, 2001, 2002, 2006)에서는 ①에 대해 이 두 구성은 독립적이라고 보아, 「동작성 명사+(을) ‘하다’」를 타동 경동사 구문으로 명명하여 이 둘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②에 대해 둘 모두를 접미 경동사 구문이라는 문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다’와 관련한 여러 구성의 통시적인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①-③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야만 한다. 특히 ①과 ②를 통해, ‘하다’ 구성의 발달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은 확실한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두 구성이 확실히 구분되는 독립된 구성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이현희(1986)에서 지적하였다고시피 중세 한국어에서 「동작성 명사+‘하다’」와 「동작성 명사+(을) ‘하다’」의 명사 분포는 배타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의

1) 엄밀히 말하자면 동사 어간 ‘하-’에 대한 직관이지만, 논의 전개의 편의상 ‘하다’로 동사를 가리키도록 하겠다. 이와 더불어 중세 한국어에서는 ‘하다’였지만 마찬가지로 논의 전개상 ‘하다’로 통칭하겠다.

‘하다’의 교체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윤예진 2016). 그렇다면 이 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기능상·의미상 차이가 없는 것을 두 구성의 관계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구성의 유사성은 만약 이들의 선후 관계가 정해졌을 때 이미 존재했던 구성에서 다른 한 구성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하였듯 중세 한국어에 이미 두 구성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만으로는 두 구성의 선후 관계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언어적으로 이와 유사한 구성들의 발달 과정을 바탕으로 두 구성의 발달 과정을 추정하고자 한다. 즉 유형론적으로 이러한 「동작성 명사+‘하다’」와 같은 구성이 명사 포함(noun incorporation)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명사 포함 발달의 방향을 바탕으로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의 발달을 추정하여 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명사 포함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②와 같은 ‘상태성 명사+하다’의 경우, 그 결과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타동사 구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명사 포함이 생산적이었다면 왜 중세 한국어에서 「동작성 명사+‘하다’」와 「동작성 명사+(을) ‘하다’」가 배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휘적 접사(lexical affix)로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다’의 문법화와 관련된 여러 구성의 발달 과정을 추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한국어학에서 생소한 개념인 명사 포함의 특성을 알아보고, 한국어에 명사 포함이 존재하는지 논증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명사 포함의 발달 과정에 비추어 한국어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의 발달 과정을 추정한다. 이때 추정의 문제점을 명사 포함의 쇠퇴와 문법화로 해결하여 ‘하다’ 구성 전체의 문법화 과정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한계를 점검할 것이다.

2. 한국어의 명사 포함과 「동작성 명사+ ‘하다’」 구성

이 장에서는 한국어학에서 그다지 다뤄지지 않은 명사 포함의 개념을 살펴보고(2.1),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을 명사 포함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이때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이 아니라 ‘명사-동사’ 복합동사²⁾ 전체를 명사 포함으로 살핀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 번째,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만이 고립적으로 명사 포함인 것이 아니라, 한국어 체계에서 명사 포함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동작성 명사+‘하다’」의 경우 중세 한국어에서 대응하는 구 구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2.1. 명사 포함(noun incorporation)

2.1.1. 명사 포함의 정의와 속성

명사 포함(Noun Incorporation)은 명사적 어휘 요소가 동사적 어휘 요소에 합해진 형태론적 구성이다.³⁾ 따라서 명사 포함은 크게 형태론적 과정 중에 합성의 영역에 있다. 하지만

2) 이하 ‘NV 복합동사’로 부르도록 한다.

이러한 간단한 정의만으로는 명사 포함의 성격을 알기 힘들다. Gerdts(2001)에서 제시한 명사 포함의 속성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Gerdts(2001:7)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사 포함의 속성으로 제시하였다.

(1) 명사 포함의 속성

- ㄱ. 명사 어간으로 존재할 수 있고, 동사 어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의 단어로 합성된다.
- ㄴ. 이 단어는 하나의 절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포함된 명사 어간은 동사의 논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
- ㄷ. 원형적으로는 포함된 명사 어간은 타동 서술어의 목적어에 해당하거나 비능동적인 자동 서술어의 주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많은 언어에서 포함된 명사는 처소격(locative), 도구격(instrumental), 피동주(passive agent) 등의 사격(oblique) 명사부류에 해당하기도 한다.
- ㄹ. 범언어적으로 두 유형의 명사 포함이 존재한다. (때로는 한 언어 내부에서 두 유형이 모두 존재하기도 한다):
 - 절의 결합가를 줄이는 합성 포함(compounding incorporation)
 - 절의 결합가를 줄이지 않는 분류 포함(classifying incorporation).
- ㅁ. 분류 포함이 있는 언어는 포함된 요소의 수정이나 배가(doubling)를 허용한다.
- ㅂ. 두 포함 유형 모두 포함된 명사가 소유 구문의 핵(head)에 해당하면, 소유주는 절의 문법적 기능상 주어나 목적어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속성들은 개별 논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명사 포함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는 유용할 것이다. (1ㄱ)은 아주 엄밀한 명사 포함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Mithun(1984)의 ‘병치에 의한 합성’으로 다른 명사 포함의 유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것들 역시 완전하게 하나의 단어가 아니지만 명사 포함에 속한다고 보는, 약간은 느슨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1ㄹ)과 관련해서 Mithun(1984)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고자 한다. (1ㄹ)과 같은 분류가 아니라 Mithun(1984)의 보다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초점이 ‘통시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있기 때문에, 분류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 좋기 때문이다.

2.1.2. 명사 포함의 유형 분류

Mithun(1984)은 크게 다음과 같이 명사 포함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2) Mithun(1984)의 명사 포함 유형

- ㄱ. 어휘적 합성(lexical compounding)
 - ① 병치에 의한 합성(composition by juxtaposition)
 - ② 형태 합성(morphological compounding)
- ㄴ. 격의 조작(the manipulation of case)
- ㄷ. 담화 구조의 조작(the manipulation of discourse structure)
- ㄹ. 분류적 명사 포함

각각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ㄱ) 어휘적 합성은 가장 대표적인 명사 포함

3) the morphological construction where a nominal lexical element is added to a verbal lexical element (de Reuse 1994: 2842)

유형으로, 흔히 말하는 합성 중에 명사와 동사가 합성하여 새로운 동사를 만드는 유형을 가리킨다. 이들은 통합된 개념을 가리키는 자동 서술어를 형성한다. 포함된 명사는 개별적인 통사적, 의미적 속성을 잃어버리고, 동사의 의미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해당 명사가 의미적으로 처소나 피동작주 혹은 도구로 기능한다고 해도, 문장 내에서 어떠한 통사적 역할도 하지 못하며, 따라서 격 표지 역시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어휘적 합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병치에 의한 합성으로, 동사와 명사가 음운론적으로 분리된 단어로 남아 있으나, 명사는 문장의 논항으로서의 통사적 지위를 잃고, 전체가 자동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태 합성으로, 이 유형의 명사 포함은 모어 화자들에 의해 하나의 단어로 여겨진다. 하나의 음운론적 단어로 인식된 결과, 단어 내부에서 겪는 음운현상이 일어난다.⁴⁾

(2ㄴ)은 격의 조작이 일어나는 명사 포함으로, 전체 절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2ㄱ)과 다르다. (2ㄱ)의 명사 포함은 동사의 결합가를 낮추기만 하는 반면, (2ㄴ)의 명사 포함은 명사가 포함되면서 생긴 빈 격 위치에 사격 논항이 들어가 타동 서술어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때 사격 논항은 포함된 명사의 소유주일 수도 있고, 보다 초점이 되는 요소일 수 있다.

위 두 유형의 명사 포함에서는 모두 포함된 명사가 자연스럽게 배경화(background)되는데, 이들이 각각 동사와 절 내부에서 그러한 배경화가 일어나는 것에 반해(2ㄱ, ㄴ), (2ㄷ)은 담화의 특정 부분 내에서 포함된 명사의 두드러짐을 감소시킨다. 즉, 배경화 전략을 위해 구정보인 명사구를 포함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명사 포함은 원형적으로 다중합어(polysynthetic language)에서 많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2ㄷ)의 유형은 포함된 명사가 동사의 의미를 좁혀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결과 합성된 어간이 포함된 명사 논항을 확인하는 보다 구체적인 외적 명사구를 동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반적인 명사만이 포함되므로 분류적 체계가 생기게 된다.

2.2. 한국어의 명사 포함

2.2.1. 복합동사의 명사 포함적 속성

한국어에서 명사 포함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NV 복합동사들이다. 또한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 역시 넓게 보면 이러한 복합동사에 속한다.⁵⁾ 이 절에서는 NV 복합동사들과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들이 2.1에서 살펴본 명사 포함 여러 속성들을 통해 명사 포함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속성은 ‘명사 어간으로 존재할 수 있고, 동사 어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의 단어로 합성된다.(1ㄱ)’는 점이다. 이는 NV 복합동사의 경우 이미 정의상 만족한다. 그러나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⁶⁾ 사실 한국어처럼 복합동사와 구가 어순이 같고, 격 표지 생략이 빈번한 언어에서는 복

4) 전자를 한국어 문법에서의 이완 복합어(합성어)로, 후자를 긴밀 복합어(합성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물론 이때 ‘하다’는 접사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배고프다’의 ‘고프다’ 보다 어휘적인 의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합성동사가 아닌 복합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6)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에서 동작성 명사 자리에 단독적으로 명사로 쓰일 수 없는 요소인 불규칙적 어근이 결합하기도 한다. 이는 명사 포함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발달 과정에서

합동사를 구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선영(1992)의 중세국어 복합동사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이 한 단어라는 것을 판단하고자 한다.

(3) 이선영(1992)의 복합동사의 특성

- ㄱ. 음운변화(ㄹ탈락, ㄱ약화, 유기음화, 비음화), 성조변화가 표기에 반영됨.
- ㄴ. ① 비통사적 복합동사가 존재함.
 - ② 어휘고도 제약
 - ③ 통사적 복합동사의 범주는 타동성에 의해, 비통사적 복합동사의 범주는 의미핵에 의해 결정됨.
- ㄷ. ① 어기는 본래의 의미를 반영하나, 복합동사 전체가 의미변화를 겪음.
 - ② 어순이 구 구성과 다르기도 함.

이선영(1992)에서 복합동사로 제시한 것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만족한다. 그러나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의 경우 좀 더 복잡하다. (3ㄱ)과 관련하여 중세 한국어 시기에선 선행 요소 말음이 장애음인 경우에는 ‘ㄱㅎ다’를 제외하고는 격음화를 겪지 않은 어형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음소적 표기를 지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인호(2004:30-31)를 참조하면 15세기에 호 형태소 경계에서는 ‘장애음-ㅎ’ 연쇄가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이 동작성 명사와 ‘ㅎ-’ 사이의 경계는 형태소 경계(긴밀한 복합어)일 수도 있고, 단어 경계(이완된 복합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구성에서 ‘ㅎ-’가 수의적으로 ‘ㅇ-’ 혹은 ‘ㅎ-’으로 교체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단어 경계가 아닌 형태소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ㄴ)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홍빈(1979)에서 ‘어근 분리’로 허철구(1997)에서 ‘어기 분리’로 논의된 현상일 것이다. ‘하다’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깨끗을 하다’, ‘(영어를) 공부를 하다’, ‘성장을 하다’ 등 조사가 삽입된 것과 ‘(영어를) 공부 안 했어’와 같은 문장이 문제가 되는 셈이다. 단어 내부에 조사나 부정소가 삽입되는 것은 어휘 고도 제약(Lexical island constraint)을⁷⁾ 어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홍빈(1979)에서는 비대조적 ‘을/를’에 의한 주제화로 이를 설명하여 이들이 구가 아니고 하나의 단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최근의 논의인 황화상(2016) 역시 이와 관련하여 음미할 필요가 있다. 황화상(2016)에서는 이러한 어근 분리 현상이 이들이 단어가 아닌 구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보았다. 예를 들어 ‘속상은 했지만 밋지는 않았다’(동아일보 2014.4.14./황화상 2016:75에서 재인용)이라는 문장에서 ‘속상’은 ‘X하다’의 ‘X’에 유추되어 형성된 것이다. 나아가 황화상(2016)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형식적 분석과 기능적 분석의 불일치에 말미암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휘 고도 제약을 기능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형식적 분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따라서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의 동사와 명사는 분리가 가능하지만, 기능적으로는 한 단어가 된다. ‘성장을 하다’의 경우 어기 분리인지 혹은 타동사 구성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⁸⁾ ‘영어를 공부

‘ㅎ-’가 접사화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7) 어휘는 고도로, 어휘 속에 있는 어떠한 요소도 독자적으로 이동하거나 어휘 밖의 요소와 관련을 맺을 수 없다. 이 어휘 고도 제약은 ‘어휘 통합성 조건(lexical integrity condition)’이라고도 한다.

8) 김창섭(2002:247-248)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결과상태상을 나타내기 위해 타동사는 ‘-고 있다’를 자동사는 ‘-어 있다’를 사용한다. 따라서 ‘?성장을 해 있다.’라면 어기 분리, ‘성장을 하고 있다.’라면 타동 구성일 것이다.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다르겠으나, 본고의 입장은 후자가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 그러나 ‘성장해 있다’와 ‘성장을 하고 있다’의 상적 의미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

를 하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 전체가 '영어'라는 논항을 요구하고 대격을 주고 있기에, 기능적으로 한 단어라 할 수 있다.⁹⁾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 또한 복합동사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고, (1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속성은 ‘이 단어는 하나의 절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포함된 명사 어간은 동사의 논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1ㄴ)’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영(1992:66-73)에서도 명사가 동사의 주어인 경우, 목적어인 경우, 부사어인 경우로 나누어 살핀 바 있다. 이때 (1ㄴ)에서 강조한 것은 동사의 ‘논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어나 목적어는 문장 내에서의 문법 역할에 해당하고, 논항이란 의미적 빈칸을 채우는 의미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부가어에 불과한 부사어 역시 동사의 논항일 수 있다.

「동작성 명사+‘하다’」의 경우 후행하는 동사 ‘하다’의 어휘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동사로 쓰이는 ‘하다’가 타동사라는 것에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목적어를 요구한다는 것은 의미상으로도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작성 명사+‘하다’」의 경우 동작성 명사는 ‘하다’의 논항이라 할 수 있다.¹⁰⁾

세 번째 속성(1ㄷ)¹¹⁾ 역시 위와 같이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네 번째 속성은 다음 항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고, 다섯 번째 속성은 분류 포함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속성 ‘두 포함 유형 모두 포함된 명사가 소유 구문의 핵(head)에 해당하면, 소유주는 절의 문법적 기능상 주어나 목적어인 것으로 추정된다.(1ㄹ)’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세 한국어 문장을 살펴보자.

(4) ㄱ. 女 | 솔오되 大王ㅅ 힘물 니버 父母 | 안해 잇느니 <內訓2:118a>

(女 | 曰호되 賴大王之力호야)

ㄴ. 홀로 이 글 이슴을 힘닙고 <小學5:109b>

(獨賴此篇之存)

이들은 ‘닙-’이라는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대상’)을 각각 ‘大王ㅅ 힘’, ‘힘’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슷한 구성을 형성하고 같은 한자(賴)를 언해하고 있는 것이다. (4ㄱ)을 (4ㄴ)에 대응하는 소유구문으로 본다면, 중세 한국어 복합 동사가 (1ㄹ) 역시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호-’의 경우 구 구성과 단어 구성이 모두 존재하는 예가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동작성 명사의 소유주를 상정하기 어렵다.¹²⁾

는다.

9) 이호승(2003)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논리는 ‘「동작성 명사+(을) ‘하다’」 구성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은 기능적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전체가 의미역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영어의 공부를 하다’와 ‘영어를 공부를 하다’는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유는 둘의 논항 구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논항 구조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0) 사실 ‘하다’가 의미상으로 명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사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다’는 의미적으로 비어 있기 때문이다. 본동사로 쓰이는 ‘하다’ 역시 맥락에 따라 추론이 가능한 대동사로 쓰이고 있고,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에서 역시 동작성 명사의 의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11) 원형적으로는 포함된 명사 어간은 타동 서술어의 목적어에 해당하거나 비능동적인 자동 서술어의 주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많은 언어에서 포함된 명사는 처소격(locative), 도구격(instrumental), 피동주(passive agent) 등의 사격(斜格, oblique) 명사부류에 해당하기도 한다.

12) ‘영어의 공부를 하다/영어를 공부하다’ 같은 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소유구문으로 보기는

2.2.2. 한국어 명사 포함의 유형

앞에서 한국어의 복합 동사가 명사 포함으로 해석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한국어에는 앞서 살펴본 Mithun(1984)의 명사 포함 유형 중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알아보자. 한국어의 명사 포함은 어휘적 합성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병치된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가? 어기 분리나 격음화의 표기 반영 여부를 근거로 병치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예진(2016)에서 살폈듯 선행 요소의 어종이나 음절수, 음절말음에 따라 ‘하다’의 교체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고 볼 근거가 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한국어는 병치와 단일 단어의 중간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ㄴ)의 격의 조작은 한국어 명사 포함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일찍이 하귀녀(1994)에서 세 자리 서술어를 논의하면서 복합 동사에서 격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허웅(1967), 이선영(1992), 하귀녀(1994)의 복합 동사들을 바탕으로 본래 동사 구성과 복합 동사 구성의 격틀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¹³⁾¹⁴⁾

<표 1> NV 복합동사 중 본래 구 구성에서 대격을 취하는 것들

복합동사	구 구성	복합동사 구성	비고
글짓-	Z이 (Y로) X를 V	Z이 (Y를) V	
길잡-	*Y이 X를 V	Y이 V	
놋짓-	*Y이 X를 V	Y이 V	
넋잃-	Y이 X를 V	Y이 V	膽일호며 넋일후를 免면티 묻ㅎ니라
뒤쫓-	Z이 Y의 X를 V	?Y를 V	
말갯고-	*Y이 X를 V	Y이 V	
맛보-	*Z이 Y의 X를 V	Z이 Y를 V	飮食 마술 보디 묻ㅎ야
목놓-	*Y이 X를 V	Y이 V	목노하 울-
목내-	*Y이 X를 V	Y이 V	목내야 울-
서방맞-	Z이 Y의게 X V	Z이 Y을 V	
숨뜯-	*Y이 X를 V	*Y이 V	숨뜯 이에 性을 트느니라
애긋-	Y이 X를 V	Y이 V	
춤츠-	Y이 X를 V	Y이 V	
힘냅-	Z이 Y의 X를 V	Y로/을 V	
힘쓰-	Y이 X를 V	Y이 V Y'이 X'를 V	
죄주-	*Z이 Y에 X를 V	Z이 Y을 V	
복주-	*Z이 Y에 X를 V	Z이 Y을 V	(y으로) X을 V
침주-	Z이 Y에 X를 V	Z이 Y을 V	
본받-	*Z이 Y의 X를 V	Z이 Y을 V	18C X의/에 Y를 V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한다.

13) 주격을 취하는 것들의 경우, 목록에 있는 것들 많은 수가 NV가 아닌 NA 구성이었다. 본고의 논의의 초점은 동사에 의해 논항인 명사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들은 일단 제외하였다. 그러나 논의를 더욱 엄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 역시 참고해야 할 듯하다.

14) ‘*’로 표시된 것은, 문증되지 않아 해당 동사의 구조로 추정한 것이다.

법받-	Z이 Y의 X를 V	Z이 Y을 V	법ㅎ-
밥삼-	Z이 Y로 X를 V	Z이 Y를 V	
일삼-	Z이 Y로 X를 V	Z이 Y를 V	일ㅎ-
스승삼-	Z이 Y로 X를 V	Z이 Y를 V	스승ㅎ-
번삼-	Z이 Y로 X를 V	Z이 Y를 V	번ㅎ-
말미삼-	Z이 Y로 X를 V	Z이 Y를 V	말미ㅎ-
막삼-	Z이 Y로 X를 V	Z이 Y를 V	
웃뜸삼-	Z이 Y로 X를 V	Z이 Y를 V	웃뜸ㅎ-
겨집삼-	Z이 Y로 X를 V	Z이 Y를 V	겨집ㅎ-
버릇삼-	Z이 Y로 X를 V	Z이 Y를 V	버릇ㅎ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대격 명사구가 포함됨에 따라 사격 혹은 속격 명사구가 대격을 취하게 된다. 중세 한국어에는 「동작성 명사+‘하다’」 명사 포함에 상당하는 타동 구성이 대부분 부재하기에 확인하기 어렵다.¹⁵⁾

(2ㄷ)과 같이 담화 구조를 조작하기 위해, 명사 포함이 사용되는 사례가 한국어에 존재하는지는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다. 모종의 이유(신정보라든지)로 빈 격을 채우는 요소를 담화 내에서 강조하고자 할 때, 명사 포함을 사용한다고 본다면 부분적으로 (2ㄷ) 유형의 명사 포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에 비해 (2ㄷ)과 같이 분류사적인 명사 포함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3. ‘하다’ 구성의 발달 과정

제2장에서 한국어의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을 비롯한 복합 동사들을 명사 포함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유형론적으로 명사 포함이 발달해 온 과정을 통해, 「동작성 명사+‘하다’」를 포함한 복합동사 구성의 발달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다’와 관련된¹⁶⁾ 여러 구성의 통시적인 발달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1. 명사 포함의 발달 과정

3.3.1. 일반적인 명사 포함의 발달 과정

Mithun(1984)에서는 위에서 분류한 명사 포함의 유형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함축적 위계를 따른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여기서 도출 가능한 명사 포함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5) Mithun(1984)의 명사 포함 발달 단계

I 단계: 명사 어간과 동사 어간이 이름 붙일 수 있는, 통합된 행동을 가리키기 위해 조합되는 어휘적 합성 단계

II 단계: 포함된 명사가 개별적 두드러짐과 통사적 역할을 잃고 동사의 구성요소가 되며, 체계는 포함된 명사에 의해 빈 통사적 역할을 위한 사격 논항을 허용하도록 확장되는 단계

15) 이현희(1986:372)에서 지적한 ‘供養하다’ 유형이 있으나 예가 많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타동 구성에서는 생략되어 있던 정보가 명사 포함에서는 대격을 취하여 나타난다.

16) 특히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명사와 ‘하다’가 결합하여 쓰이는 구성들이다.

Ⅲ단계: 이 체계가 담화 층위까지 확장되어, 이미 알려지거나 덜 유의미한 정보를 반영하는 명사가 동사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포함될 수 있는 단계(다중합적 언어)

Ⅳ단계: 분류적 체계가 생겨나는데, 총칭적 명사가 동사의 논항을 채우기 위해 포함되는 반면, 보다 구체적인 외적 명사구는 함의된 지시체를 확인하는 단계

앞서 한국어에는 (2ㄴ) 유형의 명사 포함이 존재하고, (2ㄷ)의 명사 포함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이를 (5)의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어에서의 명사 포함은 Ⅱ단계와 Ⅲ단계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한국어의 명사 포함은 아마도 구 구성으로 나타내던 개념을 어휘적 합성을 통해 나타내게 되고(Ⅰ단계), 이어휘적 합성이 굳어져서 본래 통사적 구성에서 명사가 가지고 있던 특성(e.g. 명사구의 핵)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명사가 포함되어 비게 된 자리에 본래 명사구의 일부나 자격어였던 성분이 승격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3.2. ‘하다’ 구성의 발달 과정과 문법화

명사 포함이라는 기제는 한국어의 「동작성 명사+‘하다’」를 비롯한 NV 복합동사의 성립을 설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하다’ 구성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제1장에서 제기한 ②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과 「상태성 명사+‘하다’」 구성은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상태성 명사+하다’ 구성은 전체가 형용사를 이룬다. 따라서 「동작성 명사+‘하다’」와 평행하게 ‘상태성 명사(를) 하다’와 같은 구 구성을 생각하기는 어렵다(김창섭 2002). 또한 명사 포함이 생산적인 과정이라면 왜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의 「동작성 명사+‘하다’」/「동작성 명사+(을) ‘하다’」의 관계가 서로 다른지 설명하기 어렵다. 현대 한국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 구성과 단어 구성이 모두 존재하는 명사 포함이라 할 수 있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둘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문제가 명사 포함으로 이루어진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 전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Mithun(1984)에서도 지적하였다고는 하지만 명사 포함은 불안정한 형태법으로 언제 쇠퇴해도 이상하지 않다.¹⁷⁾ 명사 포함이라는 기제가 쇠퇴하고 나면 이미 만들어진 단어들만 남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쇠퇴 과정에서 후행하는 동사는 어휘적 접사(lexical affix)로 문법화 될 수 있다. 이때 어휘적 접사는 (음운론적으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거나, 항상 어근과 결합해서만 쓰이고 어근으로써 기능하지는 않는다고거나, 닫힌 집합을 이룬다거나 하는) 문법적 접사의

17) 각 단계별로 쇠퇴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차이가 있다. I 단계에서 쇠퇴했을 경우에는 불투명한 합성어들을 남겨 두고, 신조어는 점차 이들 모형을 이용하여 형성되지 않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휘를 교체하는 규칙적 과정이 어휘부로부터 독립된 명사를 제거하고, 따라서 포함된 동족 어간의 동일성을 흐리게 한다. 또 음운론적 발달로 인해 잔재 합성어의 성분의 동일성을 흐려지고, 그 결과 어휘화된 합성어는 성분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한 단위로 변화하게 된다. II 단계에서 쇠퇴했을 경우에는 합성은 더 이상 생산적인 과정이 아니게 되며, 기존의 합성어는 수가 적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진다. 잔여 합성어는 일반적으로 어휘적 대체형을 제공한다. III 단계에서 쇠퇴하면, 어느 시점부터 화자들은 더 적은 새로운 조합을 포함시키게 된다. 처음에는, 담화에서 논항을 배경화하기 위해 명사 포함을 빈번하게 사용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미 들은 명사 포함만을 사용하게 된다. 이윽고 어휘 항목은 교체되고 포함 가능한 명사와 포함하는 동사의 레퍼토리가 줄어들어, 명사 포함이 담화에서 문체적으로 사용되는 것 역시 점점 줄어들게 된다. (Mithun 1984: 6장 참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휘 항목이나 어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Mithun 1998, Dahl 2004).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의 ‘하다’는 이러한 어휘적 접사로 문법화된 것이다. 이러한 어휘적 접사 ‘하다’는 본래 명사 포함의 재분석에서 나왔기에, 애초에는 동작성 명사와만 결합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상태성 명사를 어근으로 취할 수 있게 되면서 「상태성 명사+‘하다’」 구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 「동작성 명사+‘하다’」, 「동작성 명사+(을) ‘하다’」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적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중세 한국어 이전에 명사 포함의 쇠퇴가 일어났고, 그 결과 대응하는 구 구성없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들만 남은 것이다.¹⁸⁾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 ‘포함된 명사+동사’ 구성에서 ‘명사 어근+접사’로 재분석되었고, 이후에 오히려 이러한 파생 패턴이 더 생산적이게 됨에 따라 ‘말하다(말 하다)’와 같이 단어 구성이 존재하지 않던 어휘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하다’ 어휘적 접사 ‘하다’의 패턴이 「동작성 명사+‘하다’」 명사 포함의 재분석에서 형성되어 상태성 명사에도 확대되고(중세 한국어), 마지막으로 다시 명사 포함이 존재하지 않던 「동작성 명사+(을) ‘하다’」 구성의 명사에도 적용된 것(현대 한국어)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순서로 확대되었는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데, 아마도 이미 명사 포함이 존재하던 「동작성 명사+‘하다’」 외에는 구 구성에서 대격 조사가 생략된 것과 어휘적 접사의 파생에 의한 것이 형식상 큰 차이가 없었던 것에 기인하는 듯하다. 이는 보다 어휘적 접사의 지위가 확고해진 후에 결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3. ‘하다’ 관련 구성의 발달 과정

3.3.1.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과 관련 있는 여러 ‘하다’ 구성

앞 절에서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다’와 관련 있는 구성들의 발달 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일단 이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구성은 김창섭(2002)의 네 가지이다.

(6) ‘명사+하다’의 네 가지 구성

- ㄱ. 명사+(을)#대동사(중동사) ‘하다’
- ㄴ. 명사+(을)#경동사 ‘하다’
- ㄷ. 동작성 명사+경동사 ‘하다’
- ㄹ. 상태성 명사+경동사 ‘하다’

먼저 통사 구성의 「명사+(을) ‘하다’」는 크게 대용어 ‘하다’가 쓰인 구성(6ㄱ)과 경동사 ‘하다’가 쓰인 구성(6ㄴ)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가 본 연구에서 「동작성 명사+(을) ‘하다’」 구성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명사구 밖에서 명사의 논항이 실현되고, 「동작성 명사+(을) ‘하다’」 전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구성이다. 이에 반해 전자는 명사구 밖에 명사의 논항이 실현되지 않고, ‘하다’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타동사 구성이다.

한편 단어 구성의 「동작성 명사+‘하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6ㄷ)은 본고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동작성 명사+‘하다’」 구성이다. (6ㄹ)은 복합 형용사를

18) 이는 NV 복합동사 전체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 <표1>을 보면 해당하는 구 구성이 부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역시 명사 포함이 더는 생산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형성하는 구성이다. 그런데 (6ㄷ)은 사실 두 가지 층위로 구분될 수 있다. 본래 명사 포함으로 성립한 것(‘절하다’)과 그렇지 않고 이후에 어휘적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말하다’)이다.

(6)의 네 가지 구성 중에 ‘하다’가 본동사로 쓰이는 타동사 구성인 (6ㄱ)이 가장 먼저 존재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명사 포함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구성이고, ‘하다’라는 동사가 만들 수 있는 원형적인 구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하다’는 대동사로 자신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즉 문맥에서 추리하여 의미를 획득한다. 김창섭(2002)에서는 이를 ‘추리의미’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6ㄴ)의 ‘하다’는 김창섭(2002)에서 타동 경동사로 분류된 것으로 선행하는 명사의 의미가 투영된 투영의미를 가진다. 이때 김창섭(2002)의 지적과 같이 투영의미를 가진 (6ㄴ)도 유도된다면 (6ㄱ)과 같이 ‘하다’가 본동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통해, 투영의미는 한정적인 추리의미에서 시발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6ㄷ) 중 중세 한국어에서 단어 구성으로만 나타나는 것들은 (6ㄴ)과 관련이 있는 명사 포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명사 포함이 쇠퇴함에 따라 남아 있는 (6ㄷ)의 구성은 어휘적 접사를 가진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파생 패턴이 (6ㄷ)에까지 확장되어 형용사를 파생한다. 그리고 구 구성으로 존재하던 (6ㄱ)이나, 포함되지 않은 (6ㄴ)에도 파생 패턴이 적용되어 (6ㄷ) 전체가 어휘적 접사 ‘하다’가 결합한 구성이 된다. 이들을 본 연구의 용어를 바탕으로 순서를 적자면 아래 (7)과 같다.

(7) ‘하다’ 구성의 발달 과정

- ㄱ. 타동사 구성: 비서술성 명사(를)#하다(추리의미)
- ㄴ. 경동사 구성: 동작성 명사(를)#하다(투영의미)
- ㄷ. 명사 포함: 동작성 명사+ 하다(투영의미)
재분석: 동작성 명사+ 하다(어휘적 접사)
- ㄹ. 어휘적 접사 구성(형용사): 상태성 명사+ 하다(어휘적 접사)
- ㅁ. 어휘적 접사 구성(동사): 동작성 명사+ 하다(어휘적 접사)

이때 결국 이 구성들에서 ‘하다’는 추리의미를 가지는 대동사에서부터 어휘적 접사로 문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동작성 명사+ ‘하다’」의 명사 포함으로의 해석 가능성과, 그를 바탕으로 모든 ‘명사+ 하다’ 구성의 발달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기존에 복합 서술어의 하나로, 혹은 여러 합성어 중 하나로 다루어진 「동작성 명사+ ‘하다’」 구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한계는 명확한데, 가설에 가설을 더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이 존재할 것이다. 첫째로 이러한 재분석에 의한 어휘적 접사화가 한국어에도 달리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른 어휘 항목을 통해서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8) ㄱ. 고기잡이, 총잡이

ㄴ. 왼손잡이

ㄷ. 안경잡이, 앞잡이

(8ㄱ)과 같은 단어에서 ‘-이’가 복합 동사에 결합한다고 본다면, 이때 복합 동사는 명사 포함으로 볼 수 있다.¹⁹⁾ (8ㄴ) 역시 무리한다면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8ㄷ)은 어떠한가? 여기서 ‘안경’이나 ‘앞’은 ‘잡다’의 논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은 ‘잡이’라는 중간 단계가 존재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잡이’는 고영근(1972)에서 주장했듯 준접사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미 형성된 「복합 동사+‘-이’」라는 파생 명사에서 후행 요소만을 재분석하여 접사로 떼어내는 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가 더 늘어난다면, ‘하다’의 문법화 과정 역시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둘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일 수 있는데, 중세 한국어 이전 시기의 자료를 검토하여 명사와 ‘하다’의 결합의 형태·통사적 속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이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확실히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재설(1987), “국어의 합성동사에 대한 연구”, 《한국어연구》 13, 서강대.
- 김창섭(1997),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冠嶽語文研究》 2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창섭(2008)에 재수록.]
- 김창섭(2001),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語學研究》 3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김창섭(2008)에 재수록.]
- 김창섭(2002), “輕動詞 ‘하다’의 두 가지 보어-‘하다’-語根句와 ‘하다’-名詞句-”, 《冠嶽語文研究》 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김창섭(2008)에 재수록.)
- 김창섭(2006), “한국어 “서술성 명사류+하-”구성의 형태론”, 《日本語と朝鮮語の對照研究(東京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心とことば-進化認知科學的展開’ 研究 報告書)》.(김창섭(2008)에 재수록.)
- 김창섭(2008),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 박진호(2010), “한국어 문법사에서 조동사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경진.
- 안병희·이광호(1990), 《中世國語文法論》, 학연사.
- 윤예진(2016), “‘하-’의 어간교체에 대한 통시적 연구”, 《國語研究》 254, 國語研究會.
- 이선영(1992), “15세기 국어 복합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익섭(1967), “복합동사의 액센트 고찰 - 구와 구형복합어를 구분시켜주는 marker를 찾기 위한 시고로서”, 『학술원논문집』 6.
- 이현희(1986), “中世國語의 用言語幹末 ‘-하-’의 性格에 대하여”, 《國語學新研究》, 탑출판사.
- 이현희(1994), 《中世國語構文研究》, 新丘文化社.

19) 이들의 IC 분석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그러나 [[고기][잡이]]로 본다고 해도, 후행하는 ‘잡이’와 선행하는 명사의 관계는 (8ㄱ)과 (8ㄷ)이 평행하지 않다.

- 이호승(2003), “국어 복합서술어 연구: [명사+ 조사+ 동사]의 경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홍빈(1979), “用言의 語根分離 現象에 대하여”, 《언어》 4-2.
- 정인호(2004), “자음-ㅎ 연쇄에서의 음변화”, 《韓國文化》 34.
- 최형용(2015),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하귀녀(1994), “중세국어 세 자리 서술어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재영(1999), “중세국어 복합동사의 구성에 관한 연구”, 《어학연구》 35-1.
- 허 웅(1967), “서기 15세기 국어의 통사적 합성어”, 《동방학지》 8.
- 허철구(1997), “국어의 합성동사 형성과 어기분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화상(2016), “어근 분리의 공시론과 통시론”, 《國語學》 77.
- Dahl, A. (2004), *The Growth and Maintenance of Linguistic Complexi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de Reuse, W. (1994), “Noun incorporation”, In R. Asher (ed.), *Encyclopa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Pergamon.
- Gerds, D. B. (2001), “Incorporation.”, in Spencer, Andrew and Arnold M. Zwicky (ed.), *The Handbook of Morphology*, Blackwell Publishing, Blackwell Reference Online.
- Grimshaw, J. & A. Mester (1988), “Light Verb and Theta-marking”, *Linguistic Inquiry* 19.
- Lord, C. (1975) *Historical Change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John Benjamins Co.,.
- Mithun, M. (1984), “The Evolution of Noun Incorporation”, *Language* 60-4.
- Mithun, M. (1998), “Lexical affixes and morphological typology”, In J. Bybee, John Haiman and Sandra A. Thompson (ed.), *Essays on language function and language typ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57-371.

